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⑥

REPORTS ON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998. 11. - 2000.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⑥

1998. 11.—2000. 1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도시가 공동성
실현을 통해 건전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의 새 장을
열어 갑니다.

서 문

출판도시를 계획한 지 10년만에 기반공사의 첫 삽을 떴던 지난 1998년 11월 20일, 황량한 벌판에 출판도시를 그리던 때로부터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모은 자료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오직 계획된 출판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정진했던 우리의 노력 하나 하나가 되짚어지면서 남다른 감회를 불러 일으킵니다.

그동안 단지 기반시설공사는 7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주사들의 개별 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옥 모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건축전시회가 개최되면서 출판도시의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발간된 자료집을 살펴보면, 지난 1989년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산업으로 출판산업의 협동화 사업을 시작했을 때로부터 자료집 5권 발간과 함께 진행된 기반공사, 현재의 사옥 건축에 이르기까지 불모지를 헤쳐오는 감동의 노력들에서 일의 일관성과 부지런함이 확연히 드러나, 한편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10여년의 추진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한, 오직 기록이라는 힘에 의해 밝혀지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망의 2001년 새해와 함께, 지난 10여년 동안 그렇게 염원했던 출판도시에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은 보통 산업단지에서 보는 그런 천편일률적인 건축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만드는 다양한 종류의 책처럼 저마다 건축적 스토리가 있는 집들로 태어날 것입니다.

이번 발간되는 제6집은 기반공사의 첫삽을 떴을 때의 설계임에서부터 공사의 진행상황, 사옥 설계 및 그 건축을 앞둔 시점에 이르기까지, 밖으로는 관계기관과의 행정적·재정적인 업무협의 내용을 비롯, 안으로는 위대한 계약서에 따라 입주사와 건축가가 설계용역계약 이행에 합의하는 등, 출판단지 사옥건축을 위해 기울였던 우리의 노력들을 보여주는 각종 자료들을 수록했습니다.

봄이 되면 출판도시는 입주사 사옥 착공과 함께 흙먼지와 각종 중장비들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책의 도시 탄생을 예고하는 진통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역사가 될 수 없다는 명언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이 자료집을 펴냅니다.

2001년 1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웅

추진의 경위

1. 자료집⑥은 1998년 11월, 출판도시 기공식에서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파주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과정이 그대로 수록됐다. 자료들은 우리조합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행사 등의 사진을 비롯, 인쇄 발간된 자료, 언론에 보도된 기사, 그리고 관계기관 및 주요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주요 공문 등을 모두 모은 것이다.
2. 특히 이 기간은 그 동안 계획과 방침속에서만 추진되던 파주출판도시 건설이, 기공식을 계기로 수면위로 떠올라 본격적인 단지 기반시설공사를 비롯, 입주사들의 사옥 설계 등 도시 내 세부적인 건축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3. 1998년 11월 20일, 열악한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출판관련 산업의 협동화 사업계획』을 착안한지 꼭 10년만에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대 부지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는 파주출판도시 건설의 첫 삽을 떴다.
4. 1999년 전반기에는 파주출판도시 건축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시범지구 건축설계지침 작성을 완료하고 국내외 건축답사를 통해 본격적인 사옥설계 및 건축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출판도시 내 인포룸 건축을 착공, 보다 효율적인 현장업무 수행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5. 또한 1999년 6월에는 2차지구 산업용지 60,157평(출판지구 40,694평, 인쇄지구 19,463평) 전체부지에 대해 한국토지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9월 인포룸 개관, 10월 2차지구 입주사 개별필지 면적 및 위치를 확정하여 전체 출판도시의 입주사가 결정됨으로써 본격적인 도시 개발이 진행되었다.
6. 1999년 후반기에는 파주출판도시의 핵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비롯, 공동주택 건립 추진, 단지 내 교통, 환경대책 등에 관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추진되었다.
7.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은 파주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설계 작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을 이겨내는 한해였다. 특히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출판도시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의 「위대한 계약서」에 합의한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작 결정, 시범지구 입주사 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계약 추진, 상업시설 개발계획 추진 등 어느 것 하나 계획에서 이탈됨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공동주택 건설 추진사업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주택에 대한 획일화된 고정 관념의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방법을 모색케 되는 해이기도 했다.
8. 2000년 상반기에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기반시설공사와 더불어 도시 내 건축과 조경, 환경, 교통, 전기, 통신, 가스 등 각종 지원시설 등이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도입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3월에는 풍력발전 세미나, 4월에는 출판도시 건축 설계를 위한 위대한 계약 조인식 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2002년 입주를 향한 강한 의지를 결집하였다.
9. 2000년 중반기에 접어들어 5월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공모, 6월에는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한옥 완공, 상업시설용지 매입, 7월에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8월에는 출판도시 상징조형물 「지혜의 빛」 이전, 가칭 상업시설개발(주) 추진위원회 구성 및 세부 개발계획 수립 등이 추진되었다.
10. 하반기인 9월에는 2차지구 섹터 확정 및 섹터별 건축가 선정, 10월에는 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를 개최하여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을 재조명하는 한편 출판단지 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공공성 위주의 개발을 유도하였다. 11월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작이 선정되어 본격적인 실시설계에 착수하였다.
11. 특히 12월에는 건축에 앞서 본격적인 지반조사가 실시되었고 이어 그동안 머릿속 개념으로만 그려지던 출판도시를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범지구 건축전시회가 개최되어 사옥건축에의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Background of the Materials

Summary

1. The collected Materials contain the whole process of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from November 1998, when a ground-breaking ceremony was held, through December 2000. The Materials include photographs showing events promoted by this Association during the period, printed and published data, related news articles, and important official documents containing business discussions and arrangements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competent authorities.
2. With the ground-breaking ceremony, the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of which promotion had just been under consideration in the meantime, became public knowledge. Detailed construction plans including the construction of basic facilities of the complex and the design of an office building of occupant companies were officially put into practice.
3. When ground was broken for Paju Book City under the name of "Paju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the Paju area (Moonbal-ri, Kyoha-myun, Paju-si) on November 20, 1998, it has been just 10 years since "Business Plan for Cooperation among Publishing Related Industries" was formulated as part of a strategy for the improvement of an inferior environment of publishing.
4. In the first half of 1999, guidelines for construction and design of an exhibition zone were drawn up as part of the construction program of Paju Book City, and the concret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office building were planned through on-the-spot surveys of construction at home and abroad. The construction of Info-room within Paju Book City was also started, laying the groundwork for more efficient execution of construction at the building site.
5. In June 1999, a contract was made with Korea Land Corporation to purchase the entire industrial site (198,867m²: publishing zone - 134,526m² / printing zone - 64,340m²) of the 2nd zone. In September, Info-room was opened. In October, the area and location of the individual lots of land for occupant companies of the 2nd zone were decided upon and all occupant companies were also determined.
6. In the second half of 1999, workshops and seminars on Asia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core facilities of Paju Book City,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and measures for transportation and environment within the complex were held in order to promote the project in a concrete way.
7. The year 2000 at the threshold of the 21st century was a meaningful year in which difficulties in the promotion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were overcome. Especially, the representative of occupant companies and architects agreed to a 'Great Contract' prescribing that both parties shall do their best to establish sound publishing and construction culture in Paju Book City. In addition, all plans were smoothly executed, including selection of the prizewinning design of Asia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promotion of a design-service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 building of occupant companies of an exhibition zone, and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plan for commercial facilities. However, promotion of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hit a snag due to our society's fixed idea about houses. New alternative plans should be worked out.

8. In the first half of 2000, all efforts were made through business discussions and arrangements with related institutions and competent authorities to ensure that all kinds of support facilities including intra-city construction, landscape, environment, transportation, electricity, telecommunications, and gas were introduced without a hitch, along with the smooth execution of the construction of basic facilities. Especially, a seminar on a wind power plant was held in March, and a signing ceremony for the 'Great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and design of Paju Book City was held in April. Through all this, all interested parties' strong will to build Paju Book City by 2002 was concentrated.

9. In mid-2000, detailed development plans were executed as follows: in May, a prize contest for the best design of Asia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was held; in June, a Korean-style house representing traditional culture was built, and land for commercial facilities was purchased; in July, a promotion committee for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association was formed; in August, "Light of Wisdom", a shape symbolizing Paju Book City, was moved, and a promotion committee for Commercial Facilities Development Co., Ltd. (tentative name) was formed.

10. In September, the 2nd zone sectors were decided upon, and architects for each sector were also selected; in October, an event for the expected completion of the office building was held, rediscovering the city nature of a publishing complex pursuant to changes in a publishing environment while a site for parking lot within the publishing complex was purchased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development; in November, the prizewinning design of Asia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was selected,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design was started in a concrete way.

11. Especially, in December, the ground was thoroughly surveyed, and a construction exhibition for the exhibition zone was held, giving a good picture of Paju Book City, which had been conceived only in imagination.

차 례

서문	4
추진의 경위 개요	5
◎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11
◎ 인쇄 발간된 자료	65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66
출판단지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67
행사 초청장 및 브로슈어	69
PAJU BOOK CITY KOREA(해외 홍보용 영문 브로슈어)	78
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자료	82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83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강	84
파주출판단지 심포지엄	86
출판도시 공동주거 계획	87
파주출판도시 필지 배정 확정 현황도	98
출판도시 산업 및 상업용지 분양 안내문	98
파주출판도시 섹터분할 현황도	99
파주출판도시 지질조사 시행 계획도	99
출판단지 건축설계 지침	100
출판도시뉴스	137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자료집	148
◎ 신문, 잡지에 보도된 자료	151
◎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201
1998년도	202
1999년도	205
2000년도	228
각종 계약서	263

Contents

Introduction	4
Summary of Background of the Materials	5
⊙ Photographic materials	11
⊙ Printed and published materials	65
Symposium on city and construction for the construction of exhibition zones	66
Agreement relating to application for sites in the publishing complex and construction plans	67
Invitation and brochure related to the event	69
Paju Book City Korea(English brochures for overseas publicity)	78
Seminar materials for transportation measures in the publishing complex	82
Building a publishing city with a wind power plant running	83
Summary of a prize contest for the best design of Asia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Center	84
Symposium on Paju Publishing Complex	86
Plan of the 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in Paju Book City	87
Status diagram of the final allocation of lots of land of Paju Book City	98
Guide for sale of industrial and commercial land in lots in Paju Book City	98
Status diagram of the sector allocation of Paju Book City	99
Plan of the execution of a geological survey of Paju Book City	99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and design of the publishing complex	100
Paju Book City News	137
Collected materials of Cooperative Association for Business of Paju Publishing Culture &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148
⊙ Data published in newspapers and magazines	151
⊙ Data for official documents and papers	201
Year 1998	202
Year 1999	205
Year 2000	228
Various kinds of contracts	263

사진으로 기록된 자료

파주출판단지는 1998년 11월 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되었다. 특히 2000년 12월말까지의
사진자료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준비해왔던 계획된 출판도시 건설을 향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은 물론 각종 행사 등 우리의 노력들을
한편의 영화처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진들은 그간의 역사를
그 어떠한 자료보다도
선명하게 우리의 머리속에 각인시킬 것이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사옥 건축이 시작된다. 여기 사진들은
사옥건축에 돌입하기까지 공동성 실현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모두 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1998년 11월 20일 열악한 출판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출판관련 산업의 협동화 사업계획』을 시작
한지 꼭 10년만에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공사
가 착공됐다. 정부 주도하에 성대하게 개최된 기공식에는 국무총리를 비롯,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 세계
최초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기원했다.

- ① — 기공식 전경
- ② — 기공식이 끝난후 우리 조합 이기웅 이사장이 출판단지가 첫 삽을 뜨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
를 아끼지 않은 전 문화관광부 김도현 차관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③ — 기공식장에 세워진 출판단지 조감도
- ④ — 기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 문화관광부 장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과 우리 조합
원, 파주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5



6



7

- 5 — 기공식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파주출판단지가 명실상부한 국민 문화 창출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원했다.
- 6, 7 — 기공식에서 이기용 이사장을 비롯, 참석한 내외贵宾들의 시삽.



8



9



10



11

출판단지의 문화적 초석이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시설용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설립했다.

8, 9 — 1998년 11월 24일, 토지공사와 문화시설용지 매입계약 체결

10, 11 — 1998년 11월 27일,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발기인 대회



12



13



14



15

12~14 — 1998년 12월 1일,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창립총회
15 — 1998년 12월 8일,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제1차 이사회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1999년 1월 14일 (목) 강남출판문화센터 아venta홀
 주관: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을 조명하고 그에 따른 건축 방향 수립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⑬ ~ ⑮ — 1999년 1월 14일 개최된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19



20



21



22

출판단지의 계획된 건설을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토지공사와 비롯, 파주시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한 조정역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였다.

19, 20, 22 — 1999년 2월 9일, 토지공사와의 조정역 회의

21 — 1999년 2월 2일, 이기웅 이사장이 파주시장과 업무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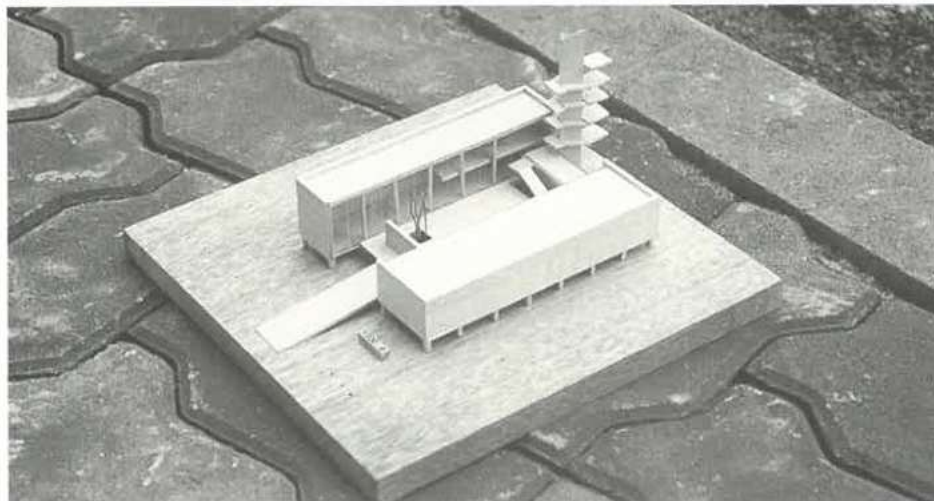
23



24



25



26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면서 공사 관리는 물론, 사옥 건축계획 수립 등 건축 전문가와의 업무 협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건축전문가와 건축코디네이터 계약체결을 추진하고 현장관리 및 건축계획 수립 등 업무추진의 효율을 기했다.

- 23 — 1998년 12월 3일, 건축코디네이터 계약을 위한 업무협의
- 24 — 1998년 11월 25일, 파주출판단지가 기공식을 갖기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여항식 전 토지공사 일산사업단장에게 이기웅 이사장이 감사패를 수여했다.
- 25 — 1999년 봄, 건축코디네이터와 현장회의가 수시로 개최되었다.
- 26 — 1999년 3월 9일, 출판단지 인포룸 모형



27



28



29

1999년 상반기부터는 입주사 사옥 건축을 위한 본격적인 건축계획 수립이 착수되었다. 특히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입주사와 건축가가 사옥 건축에 있어 견해차를 좁힐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개최되었다. 또한 출판단지를 가로지르는 갈대샛강 보전을 비롯,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진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기도 했다.

- 27 — 1999년 3월 27일, 낙안읍성, 송광사 답사
 28 — 1999년 4월 5일, 갈대샛강 청소
 29 — 1999년 4월 9일, 북런던대학 플로리안 베이겐 교수가 이기웅 이사장을 예방, 출판단지 건축계획에 대해 업무 협의.



30



31



32

출판단지 기공이후 「초일류 기업정신으로 출판도시 건설하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1999년 2월 10일 개최된 우리조합 제9차 정기총회는 10년 동안 준비해온 출판단지 건설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더우기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통해 그간의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는데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상적인 건축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 마련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건축계획 수립 추진에 돌입하였다.

30 — 최구식 전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에게 이기웅이 이사장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31 — 조합원들의 총회참석 확인 서명

32 — 문화관광부 오지철 문화산업국장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33



34



35

- 33 — 정기총회에서 토지공사 오국환 부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 34 —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진지한 모습으로 의안을 심의하고 있다.
- 35 — 이기웅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초일류 기업정신으로 조합을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가 본격 궤도에 진입하여 현장관리 업무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현장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단지 조성과 관련한 각종 회의 진행, 및 전시,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를 신축했다.

●~● — 1990년 4월 7일 개최된 인포메이션 센터 기공 고유제



40



41



42

우리 조합에서는 시범지구에 이어 1999년 4월 22일 2차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④ — 이기웅 이사장이 출판단지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 유도열 상무이사가 경과 보고 및 세부적인 개발 계획 등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④ — 설명회에서 2차지구 개발 계획 브리핑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조합원들



43



44



45



46

우리조합은 출판단지 개발과 관련,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모든 업무를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명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왔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공평한 업무처리로 신뢰받는 조합행정을 전개하려는 이기웅 이사장의 업무방식에 따른 것이다.

43~45 — 1999년 6월 2일 시범지구 입주사 면적 및 위치 확정을 위한 추첨 장면

46 — 1999년 6월 25일 이기웅 이사장이 시범지구 200평형 입주사 대표와 업무협의



47



48



49



50

입주자가 확정된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영국의 플로리안 베이젤 교수 등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바람직한 단지 건축방향 수립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협의가 진행되었다.

47 ~ 50 — 1999년 6월 21일, 22일 열린 기본개념에 관한 모형위주의 건축설계지침 작성 중간 보고회



- 51~52 — 1999년 6월 30일 토지공사와 출판단지 2차지구 산업용지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 53 — 1999년 7월 6일, 이기웅 이사장은 바쁜 출판단지 조성업무에도 불구하고 한국출판아카데미 출판편집자 과정에 출강하는 열성을 보였다.



54



55



56



57

출판단지 2차지구 부지매입에 이어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지구 개발방향에 대한 사업추진 설명회를 가졌다.

54~57 — 1999년 9월 21일 2차지구 사업설명회에서 이기웅 이사장을 비롯, 승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개발방향을 설명했으며 참석조합원들도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등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56



59



60

1999년 9월 출판단지 현장에 인포룸이 완공되어 성대한 개관 기념식을 개최했다. 일명 99절 행사라고도 불려진 인포룸 개관 기념식은 출판단지에 최초로 입주되는 인포룸 개관을 축하하기 위해 조합원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본격적인 현장업무 개시를 대내외에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 56 — 인포룸을 배경으로 조합원 기념사진
- 59 — 이기웅 이사장은 인포룸 개관 기념사에서 출판단지에 최초로 입주한 인포룸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관과 함께 현장업무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피력했다.
- 60 — 인포룸을 둘러 보는 참석자들



61~62 — 개관기념식에는 조합원은 물론, 김영수 전 문화부장관, 송달용 파주시장 등 각계 인사들과 출판계 원로, 건축가 등이 참석해 인포를 개관을 축하했다.



53



54



55



56

53~56 — 1999년 10월 6일, 시범지구에 이어 2차지구 입주사 필지면적 및 위치 확정도 공정한 추첨을 통해 실시됐다.



67



68



69



7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사 종사자들의 출퇴근 및 방문자들을 위한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의 일환으로 1999년 11월 23일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대책은 있는가」라는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로부터 편리성을 갖춘 다양한 대중교통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67~70 — 교통대책 세미나 사진



- 71 ~ 72 — 1999년 12월, 경원대 최정권 교수 길대셋강 답사
 73 ~ 75 — 출판단지 건축방향에 대해 건축코디네이터와 협의하는 건축간담회가 수시로 개최됐다. 사진은 1999년 12월 18일과 23일 개최된 건축간담회 모습.



76



77



78



79



80

1999년 12월 19일, 정읍 김동수 고가 벌채가 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이진 현장에 도착하면서 본격적인 이진공사에 들어갔다. 또한 우리조합에서는 건축코디네이터, 이진공사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현장회의를 통해 완벽한 형태의 한옥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76 — 1999년 12월 28일 개최된 한옥 이진 현장회의

77 ~ 80 — 김동수 고가 벌채 현장 도착 사진.



81



82



83



84



85



86

1999년 12월 28일 개최된 갈대셋강 보전을 위한 워크숍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출판단지를 가로지르는 갈대셋강 보전, 보호가 출판단지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임에 의견을 같이 하고 이의 보전을 위해 진력할 것을 다짐했다.

- 81 —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82 — 김경희 지식산업시 대표
- 83 — 이기웅 이사장
- 84 — 워크숍 광경
- 85 — 김정선 보진재 대표
- 86 — 최정권 경원대 교수



97



98



99

- 97 — 2000년 1월 13일,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건축실제 완성의 해를 맞아 이기웅 이사장은 K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2000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 98 — 2000년 1월 25일, 민현식 교수가 1월 정기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을 대상으로 출판단지 건축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 99 — 2000년 1월 25일, 1월 정기이사회 사진.



90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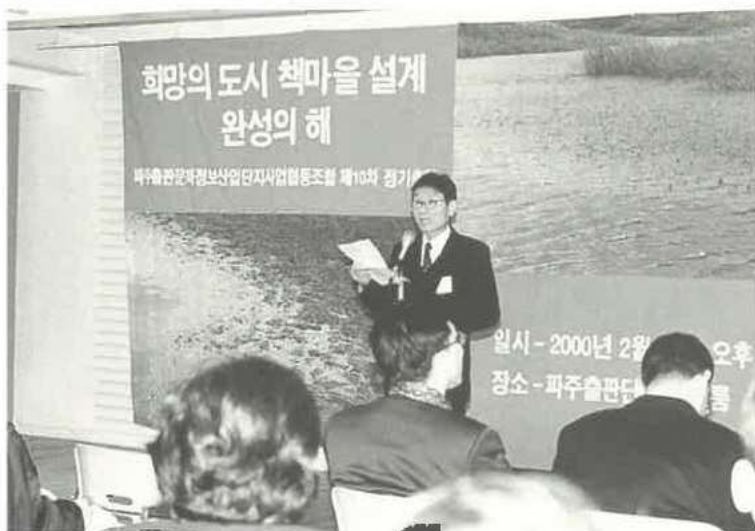
93

2000년 건축설계 완성의 해를 맞아 연초부터 입주사 대표와 설계를 진행할 건축가의 출판단지 건축에 대해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본격 진행되었다. 특히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함께 하는 건축 워크샵을 비롯, 3, 4차 해외 건축답사 등을 통해 출판단지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건축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90 — 2000년 1월 15일 강릉 워크샵에 참석한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강릉 선교장에서 기념촬영.

91~92 — 강릉 워크샵 풍경

93 — 워크샵을 마치고 우의를 다지고 있는 입주사 대표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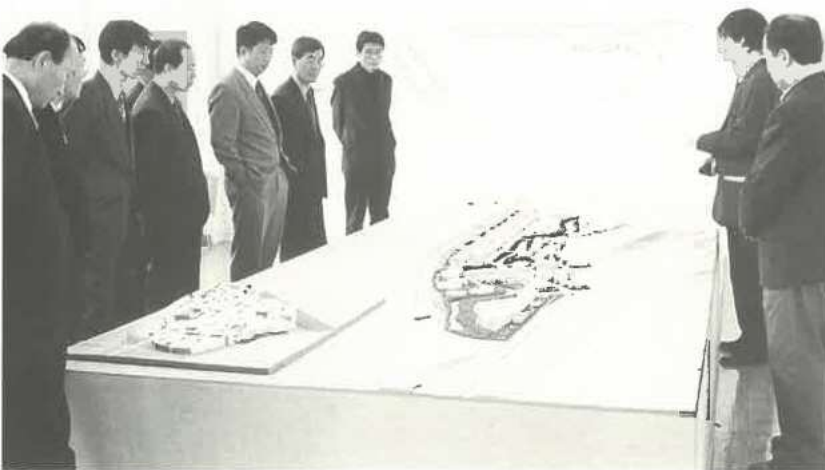
2000년 2월 24일 개최된 제10차 정기총회에서는 「희망의 도시 책마을 설계 완성의 해」라는 케치프레이즈에 맞게끔 출판단지 건축설계 진행을 위한 사업들이 의결되었다. 조합원 모두가 일체가 되어 입주사 사육건축 설계는 물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상업시설 및 공동주거시설 건립 계획 수립 등 출판단지 전체 개발을 위한 건축 설계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의지들은 2000년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우리 조합이 기울여온 그동안의 노력들을 대변하기도 했다.



97



98



99

2000년 본격적인 건축 설계 추진과 아울러 출판단지 입주를 위한 조경, 전기, 통신, 공공시설 등의 도입도 추진되었으며 정부 관계기관과의 행·재정적 지원 협의 등 대내외적인 업무 추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97 — 2000년 3월 10일, 파주소방서장이 인포룸에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98 ~ 99 — 2000년 3월 10일, 출판단지 조성 시행자인 건설교통부 관계 국장, 실무자가 인포룸을 방문, 단지조성 현황과 건축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기반시설비 국고 지원 문제 등에 대해 업무협의를 가졌다.



100



101



102

100 — 2000년 3월 11일, 인포룸에서 건축설계 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01~102 — 지질, 토질 전문가인 이명환 박사가 인포룸에서 토지공사 관계자와 박스교량 파일공사와 관련, 업무 협의를 가졌다.



103



104



105



106

출판단지는 무공해 환경 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0년 3월 16일, 출판단지에 풍력 발전 에너지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에너지 활용과 특히 풍력발전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미나는 최근 대체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학계는 물론 환경단체, 학생,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하여 세미나의 열기를 고조시켰다.

103 — 풍력발전 세미나 전경.

104 — 에너지대안 포럼 대표인 인하대 손충렬 교수의 주제발표.

105~106 — 세미나장을 가득 메운 조합원, 환경단체, 학생, 시민들.



107



108



109

107~109 — 2000년 3월 18일, 출판단지 건축 설계에 관심이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평소 자신들의 건축관과 출판단지 건축 방향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10



111



112

110~112 — 2000년 3월 26일, 이기웅 이사장의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와 함께 안중근 선생을 출판단지 조성공사에 사이버 감리사로 모시는 행사가 인포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에 의지하여 완벽한 출판단지를 조성한다는 취지로 개최되어 그를 정신적 스승으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출판단지 건설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널리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113



114



115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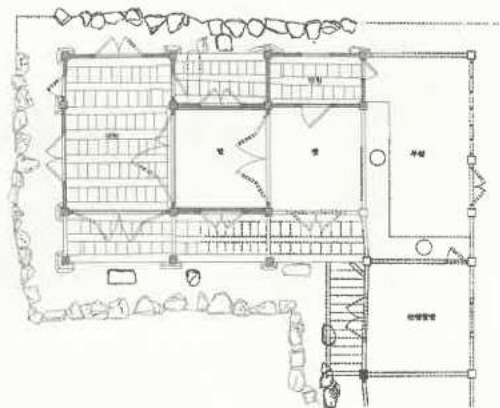
- 113~114 — 2000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전도업 도시건축심의관이 인포룸을 방문, 기반시설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 115~116 — 2000년 4월 15일, 출판단지와 인접한 한강변 답사에 앞서 군부대의 안내침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117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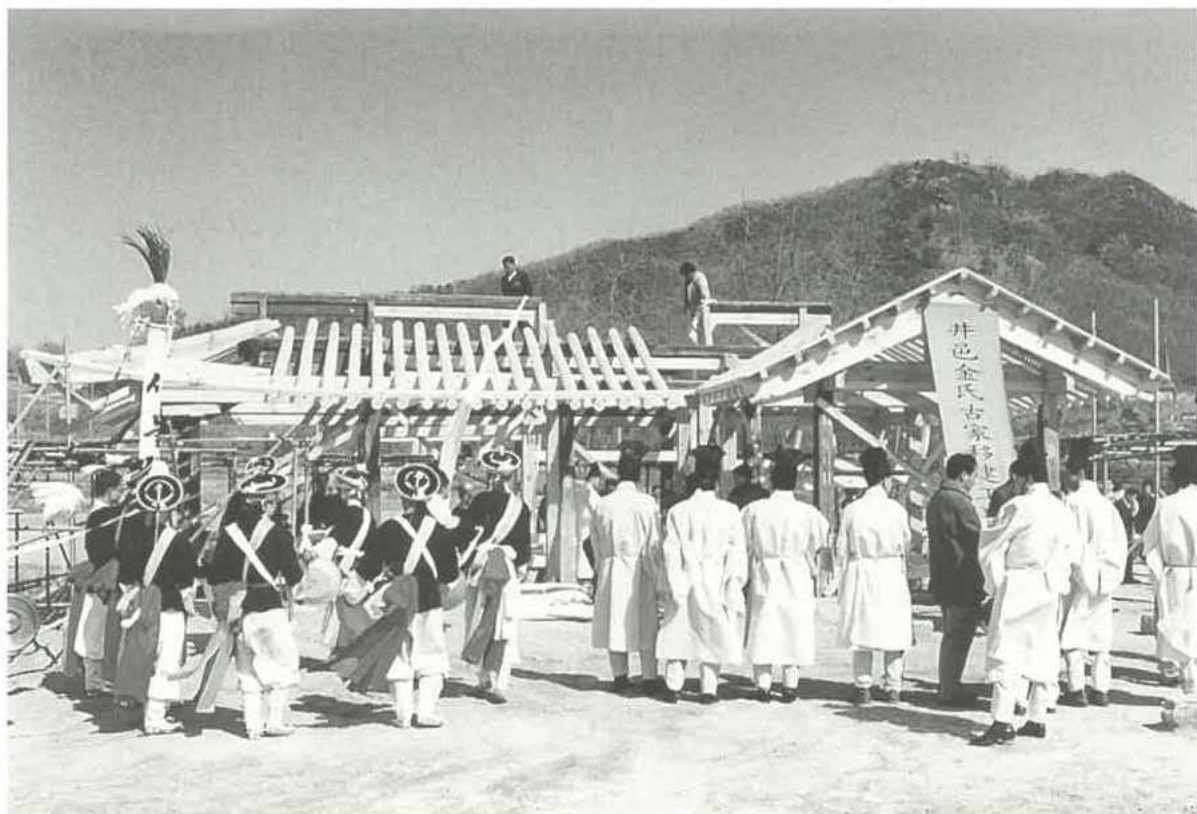
사랑채 평면도



119

출판단지에 전통의 맥과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의 한옥이 순조로운 이권 과정을 거쳐 2000년 3월 26일, 축제분위기 속에서 상량식을 가졌다. 상량식에서 참석자들은 출판단지가 전통과 현대가 살아 숨쉬는 출판문화도시로의 영원한 발전과 전통한옥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정교한 건축기술이 출판단지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기를 기원했다.

117~122 — 한옥 상량식은 농악대의 흥겨운 길놀이로 시작으로 전통의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120



121



122



123



124



125

123 - 2000년 4월 27일,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중인 출판단지 공사현장을 김윤기 건설교통부 장관이 방문했다.

124~125 - 이에 앞서 2000년 4월 21일에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파 파장, 서기관이 인포룸과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출판단지 조성현황을 점검했다.



126



127



128



129



130

2000년 우리 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성과중의 하나는 입주사와 건축가가 출판단지 건축방향에 합의 서명한 위대한 계약서 조인식을 꼽을 것이다. 이는 입주사와 건축가가 각자의 건축적 협이나 불신을 씻어내고 출판단지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정립해 나갈 것을 약속한 것으로 출판도시 모든 건축행위의 기본적인 계약이다. 물론 여기에 입주사와 건축가 모두의 공동성 실현의지를 담은 것은 기본이다.

②6 — 2000년 4월 26일, 시범지구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에서 이기웅 이사장과 승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입주사와 건축가를 대표하여 위대한 계약서에 서명을 한후 악수하는 모습.

②7~②8 — 이어 개별 입주사 대표와 섹터 및 초청건축가의 서명이 이어졌다.

②9~③0 — 위대한 계약서 조인식은 축하공연과 다과 등 시종일관 축제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131



132



133

131~133 — 2000년 5월 9일 인프룸에서 개최된 출판단지 통신시설 관계관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는 연세대 박한규 교수가 참석하여 21세기 정보화에 맞는 통신시설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134



135



136

2000년도는 출판단지의 문화적 초석으로 자리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이 가시화된 해였다. 이를 위해 우리 조합에서는 2000년 5월 25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공모전을 개최하여 2단계에 걸친 엄정한 심사 끝에 마침내 설계안을 확정했다.

134~136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공모전에는 70여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설계경기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137



138



139



140



141

137~140 — 2000년 6월 10일 한옥이 완공되어 이궁이에 불을 지피는 안택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141 — 한옥에서 보이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 세워진 풍력발전 측정기.



142



143



144



145

- 142 — 2000년 7월 1일, 출판단지 인포룸 주변에 심었던 보리를 우리조합 임직원들이 직접 낫으로 베어 수확했다.
- 143~145 — 2000년 7월 3일, 시범지구 입주사를 대상으로 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 추진과 관련, 시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146



147



148

- 146 — 2000년 8월 3일, 시범지구 사옥 설계를 진행할 건축가 그룹 회의
- 147 — 회의를 마친 건축가들과 출판단지 박스교량 설치 현장에서 교량 확장 견제 대해 업무 협의
- 148 — 2000년 9월 21일, 출판단지 상업시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가칭 상업시설개발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1차 회의를 가졌다.



149



150



151



152



153

149~152 — 2000년 8월, 출판단지 상징조형물 설치파견
153 — 2000년 8월, 이권 완공된 한옥 담장 공사



154



155



156



157

2000년 10월 10일, 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에서는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비롯,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 출판도시 상징조형물인「지혜의 빛」점등식 행사 등이 차례로 이어졌다.

154~155 — 심포지엄에서는 도시, 건축, 인문사회학적 고찰 등의 주제별 발표와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157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우수작 시상.



158



159



160



161

- 158 — 지혜의 빛 점등식(좌측부터 김도현 전 문화관광부 차관, 김영수 전 문화체육부 장관, 조각가 전수천씨, 신현웅 전 문화부 차관, 승효상 건축코디네이터, 이기웅 이사장)
- 159 — 점등식에서 조각가 전수천씨가 조형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160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전시회.
- 161 — 출판단지 상징조형물 「지혜의 빛」



102



103



104



105



106



107

102~107 — 2000년 10월 25일,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 현장을 비롯, 갈대셋강의 생태변화 관찰을 위해 조합 집행부에서는 출판단지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169



169



170



171

2001년도 본격 건축 착공을 앞두고 출판단지 조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회의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시를 비롯, 토지공사, 현대산업개발 등 관계기관과의 연석회의를 주최하여 교량, 가로등 디자인, 조경 등 현안을 협의하고 향후 사옥 건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제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169 ~ 171 — 2000년 11월 13일 인포룸에서 개최된 관계기관 연석회의의 광경.



172



173



174



175

172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작이 결정되어 2000년 11월 15일, 시상식을 가졌다.

173~175 — 2000년 11월 15일, 출판단지 2차지구 섹터 건축가 작품 전시회.



170



171



172



179



180



181



182



183

179~183 — 2000년 12월 2일, 2차지구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행사. 시범지구에 이어 2차지구 입주사와 건축가들도 위대한 계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전체 입주시에 대한 사옥 설계진행 방향을 확고히 하였다.



184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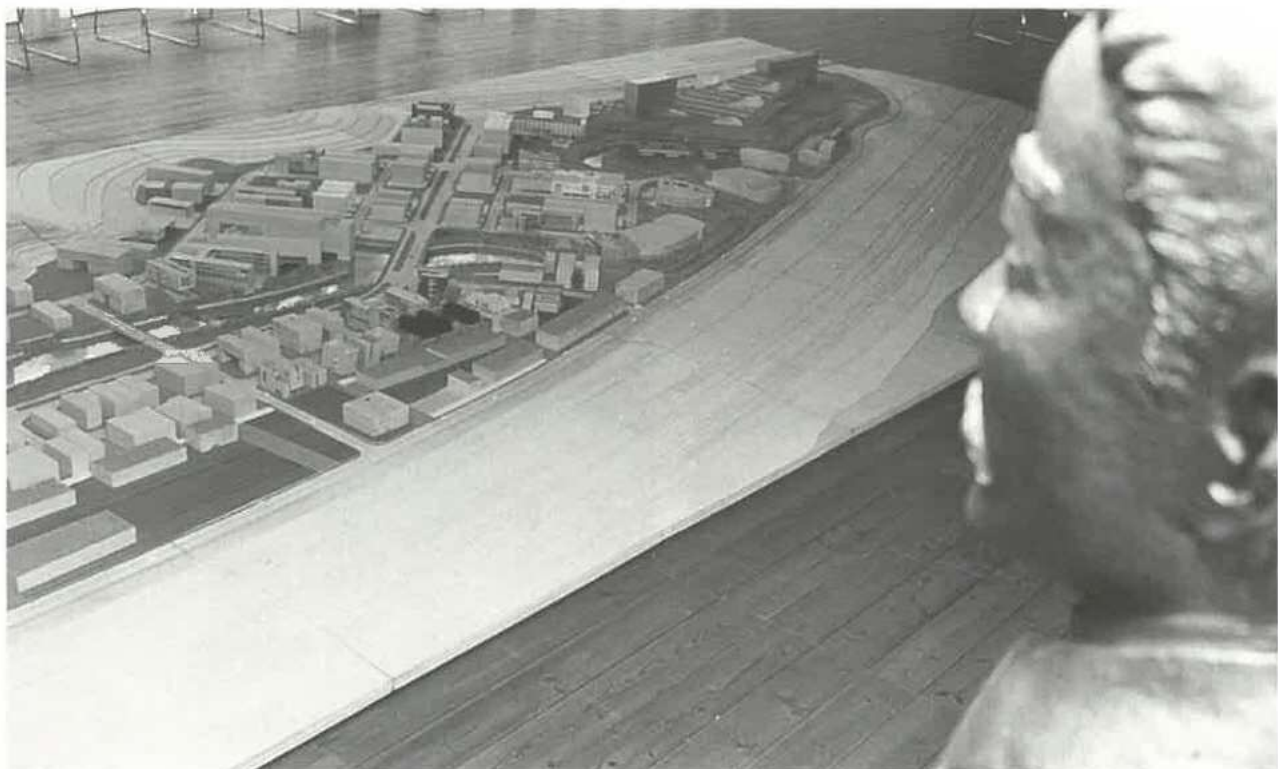


186



187

- 184 —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2차 유럽답사」
- 185 — 2000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3차 해외답사」
- 186 — 1999년 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유럽·도시문화 답사」
- 187 — 2000년 7월 6일부터 16일까지 「4차 해외답사」



189



189



190

2000년 우리조합의 마지막 행사로 시범지구 건축전시회와 안중근 선생 동상제막식이 개최되었다. 시범지구 건축전시회는 설계가 완료된 입주사 사옥에 대한 모형 전시로 200분의 1로 축소, 조성된 출판단지들 미리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중근 선생 동상 제막식은 안중근 선생의 강인한 정신력을 되살려 출판단지를 완벽하게 조성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였다.

189 ~ 190 — 2000년 12월 16일 개최된 안중근 선생 동상제막식.



191



192



193



194

191~194 — 시범지구 건축전시회는 출판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TV, 신문 등 언론의 열띤 취재경쟁이 이어졌다.

인쇄 발간된 자료

.....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출판단지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행사 초청장 및 브로슈어
PAJU BOOK CITY KOREA(해외 홍보용 영문 브로슈어)
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자료
파주출판단지 건축설계지침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강
파주출판단지 심포지엄
출판도시 공동주거 계획
파주출판도시 필지배정 확정 현황도
출판도시 산업 및 상업용지 분양 안내문
파주출판도시 섹터분할 현황도 및 지질조사 시행계획도
출판단지 건축설계 지침
출판도시뉴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자료집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파주출판단지는 98년 11월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들어갔다. 이를 계기로 우리 조합에서는
서울대학교 황기원 교수와
서울건축학교 조성룡 교장을 초빙,
도시적 개념의 출판단지 건설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건축가, 입주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정성을 들여 책을 만들듯이
추진중인 출판도시건설도 책 만들기처럼 개별 건물의
개성을 살리면서 전체적인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데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뜻을 같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

- 일 시 : 1999년 1월 14일(목) 오후 2:00~6:00
- 장 소 :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

⊙ 주제발표

황기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도시환경설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계획과 실현

조성룡(서울건축학교 교장 / 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
- 새로운 시대의 도시 만들기

⊙ 토 론

- 사 회 : 송효상(건축사사무소 履跡 대표)
민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 토론자 : 김광현(서울대 건축과 교수)
김준성(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전애(서울포럼 대표)
김언호(한길사 대표)
심만수(도서출판 살림 대표)

주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제1주제

황기원(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도시환경설계)

1949년경
주요사업 : 삼성출판문화산업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태진 엑스포,
KODEX 저서공원, 올림피움원, 도지문학공원, 독림기념관, 신명당수도,
광일·대원로, 서울대 캠퍼스 등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계획과 실현

1. 과정과 성취	5
2. 출판단지를 잘 만들어야 하는 이유	6
3. 문화정보산업의 단지화 : 출판단지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7
4. 출판단지의 입지 :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땅에 세워진다	9
5. 출판단지는 이렇게 짜여져 있다	10
6. 상세계획은 이렇게 짜여져 있다	13
7. 미리 가 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7
8. 입주 출판인들에게 바라는 바	20

⊙ 제2주제

조성룡(서울건축학교 교장 / 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

1949년경 서울지정출판, 한국건축아카데미 등 수상
주요사업 : 아사아리주변, 인덕대 학생타운, 태운대빌리지 등

새로운 시대의 도시 만들기

릴(Lille)에서의 미래도시 실험	23
파리의 라 빌레트(La Villette)공원	24
베를린의 도시 주택	25
프랑크푸르트의 미술관 거리	26
롯데타운의 항만지구	27
구마모토 아토폴리스(Kumamoto Antopolis)	28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①

시범지구에 이어 2차 지구의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계획된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부지신청 조합원들과 맺은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1999년 4월 22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부지신청 및 건축계획 약정서

• 회사명 : _____ • 업 종 : _____
• 대표자 : _____ (인) • 사업자등록번호 : _____
• 주 소 : _____

◎ 부지신청 계획

지구	구분	출판구역	인쇄, 제본구역	지원구역	기 타
2차개발지구		평	평	평	
3차개발지구		평	평	평	

◎ 건축 계획

구분	용도	사무실및창고	사무실및공장	사무실및작업장	기 타
건 물 총 수		층	층	층	
1 층 면 적		평	평	평	
연 면 적		평	평	평	

◎ 자금 조달 계획

구 분	경영여유자금	자산처분자금	기채조달	기 타
부지매입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건축공사자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합 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한 국 토 지 공 사 貴中

건의 사항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貴中
한 국 토 지 공 사

[illegible]

초청장 및 홍보 브로슈어



각종 행사시 우리조합에서 제작한

초청장 및 홍보용 브로슈어를 모두 수록했다.

특히 초청장과 봉투의 문구, 디자인 등은 받는 이에게

출판문화도시 건설에 동참했다는 자부심으로

언제까지나 머리속에 기억될 수 있게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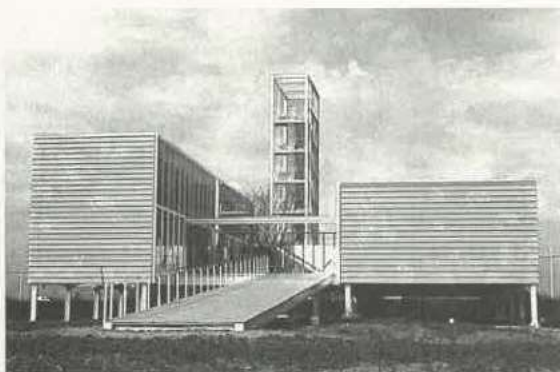
깔끔하고 독특한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Opening Ceremony of PAJU BOOK CITY Information Cente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 센터 개관기념 행사



일시 1999년 9월 9일(목) 아침9시~저녁9시
장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 센터(약도참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02511-9589-3 파주 03048942-0918
사무국 휴대전화 011-284-0365, 011-224-6355, 011-9027-7065

■ 초대사의 말씀

무더위의 맹위도 크게 꺾였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오곡백과는 알차게 영글어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계절의 위대함을 다시금 배웁니다.

출판산업계가 그동안 힘들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한뼘한뼘 예정된 그림을 따라 그 건설의 삼질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번에 단지 지상건물의 설계와 건설과 순조로운 입주 등 중 현장임무를 총괄 지휘할 인포메이션 센터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아직 어수선하기 이룰데 없는 공사현장이긴 하지만, 부디 오셔서 자리를 함께해 주시면 뜻이 더욱 빛나겠습니다.

출판단지 공사 현장에서 이 건물이 갖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1999년 9월 9일 아침 9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단지 입주의 시발점으로 약속했던 날짜와 시간입니다. 그 오래된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에 완성되는 건물 안에서 건축가와 도시설계가와 조경전문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대의 위대하고 전범적인 건축문화 도시문화를 제시할 상상력을 펼치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실행하게 됩니다. 그것은 매우 창조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번 개관 행사에는 단지 기본설계의 성과물이 제시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전시장에서 그 설계도와 도시구성의 모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가 민현식 승효상 플로리안 베이젤 김영준 김종규 신생 등 다섯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 날, 우리 사진계의 원로이신 임용식 선생께서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손수 기록해 주시는 뜻깊은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날 개관의 시간에는 마치 모래의 수면처럼 수면을 수놓은 갈대밭강의 아름다운 물결과 꽃들, 건물의 주위를 강원도 평강 봉평의 농부 박수현 씨가 직접 씨 뿌려 조성한 메밀밭, 그리고 저녁 여섯시 반이던 이 건물 전망대에 올라 한가람과 김포 산야를 물들이며 떨어지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용기있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고 정의로운 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 9. 9.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드림

아침

개관식

09:00 테이프 컷팅
09:10 인사말씀

수고하신 분들을 위한 시간

09:20 감사패 증정 및 간담
사업추진, 기본구상, 언론, 시공 등 과정에서 수고하신 분들

설계자의 시간

09:3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초설계 구상 설명
건축설계단의 출판단지 기초구상 설명회

원로 사진가 임응식 님과 함께

10:00 기념촬영—촬영지원 사진작가 황현만 씨
참석하신 모든 분이 메모발을 배경으로 함께 하는 기념촬영.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인포메이션 센터에는 주축측과 설계팀이 대기하고 있으므로 방문하시는 분들은 단지 설계에 따른 도면과 모형 등을 보시는 한편 아들과 보다 상세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저녁

갈대셋강 한가람 그리고 노을의 시간

17:00 저녁행사 시작
갈대셋강 답사, 음악감상회 등
18:00 갈대셋강 한가람 그리고 노을의 시간
전망타워에 올라 단지 부지의 조감과 한가람의 노을 보기

책마을 사람들의 시간

18:50 자유로운 대화와 다과의 시간

파주출판단지 인포메이션 센터는 단지 개발의 현황, 계획상 전시, 추진과정, 마스터플랜, 현황, 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단지 모형 등 각종 건축자재, 건축기법,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정보통신망, 기획 건축가전, 환경전시, 갈대셋강 학생극락, 환경친화 건축, 오프수 처리 계통, 유사 생태마을 사례 도서관, 건축 환경 조성 인테리어 관련 기획 도서관

전시 기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개요 및 현황, 계획상 전시 추진과정, 마스터플랜, 현황, 자료, 멀티미디어자료, 단지 모형 등 건축전시 각종 건축자재, 건축기법,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정보통신망, 기획 건축가전 환경전시 갈대셋강 학생극락, 환경친화 건축, 오프수 처리 계통, 유사 생태마을 사례 도서관 건축 환경 조성 인테리어 관련 기획 도서관

이벤트 기능

사옥설계 현장회의실 및 설명회
책의 출판인, 출판단체 현장 방문행사
기타 문화행사

회의 기능

출판단지 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 본위원회, 건축설계회의, 사무국 현장회의, 관계기관 현장회의, 입주에 따른 제반 협의회 또는 회의
입주회사 현장 설계를 위한 실무회의

사무국 기능

전시, 이벤트, 회의 등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준비 진행
각종 전사물의 제작 및 관리유지
환경관리 및 안전관리
현장 안내계점, 현장 연락사무소 기능
인터넷 등 멀티미디어 정보 제공 및 운용

자료실, 서점, 카페 등 지원 기능

자료실—인포메이션 센터의 핵심기능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건축과 관련된 각종 정보검색, 서지, 영상, 사진·도면 등 자료 활용이 가능
건축 관련 전문서적 운용으로 입주사들의 사옥 건축설계 지원
각종 현장회의시 유용한 휴게공간으로 활용
공사 현장에서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휴게공간으로서의 카페 운영

■ 원로 사진가 임응식 님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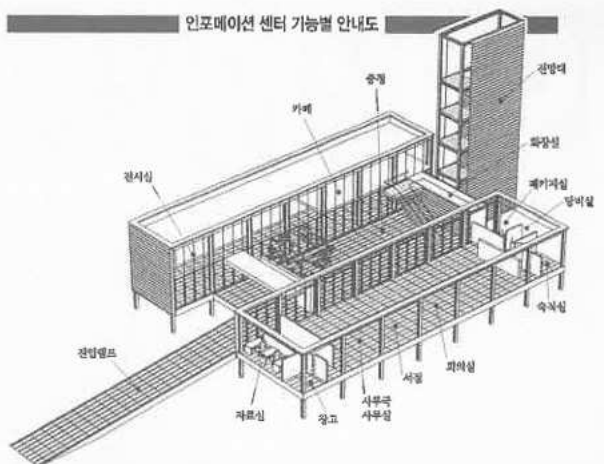
우리 사진계의 원로이신 임응식 선생께서 개관을 축하하는 기념사진을 손수 기록해 주시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임응식 선생의 명작 <구국>은 암울했던 한국전쟁 때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웅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출판이란 분야와 더불어 사진에서 그 중요성을 찾습니다. 세계 사진의 역사에서 더듬어볼 수 있는 장면들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한편 출판의 역사에 길이 남을 '99년 9월 9일의 강력스런 순간의 기록을 생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여 년을 달려온 일찍이 이 땅에 출판농사꾼과

그들을 격려하는 이웃들이 모였고, 그래서 그 얼굴들을 사진으로 오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날 임응식 선생께서 건물과 메밀꽃밭을 배경으로 해 찍으신 아름다운 사진은 참가자 여러분에게 한 장씩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어떤 물건보다도 귀하고 뜻깊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임응식 선생은 1912년 부산에서 태어나 1934년 일본 『사진살롱』지에 <鸛의 静物>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사진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방 후 부산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1952년 한국사진작가협회회를 조직,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으로 1953년부터 1974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개설된 사진강좌를 맡아 출강했고, 이후로도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여대, 덕성여대, 건국대, 숙명여대, 서라벌대, 중앙대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 문화위원, 한국장각사진협회장, 『공간』지 주간, 엑스포70 한국관 사진제작 담당, 한국사진협회 이사장, 국전운영위원, 한국사진교육연구회 대표, 한국사진교육학회 고문, '88 사진영상의 해 조직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고문과 동아일보사 '동아미술제' 고문, 한국사진문화재단 명예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인포메이션 센터 기능별 안내도



■ 행사장 오시는 길



자유로를 따라 일직선 방향으로 황주대교 기점 176m 지점에 위치한 신남동역 표지판을 보고 틀어오르면 행사장으로 향하는 진입로가 나타납니다.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장단기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02-557-1149-6 파주 031-297-1149-6

'꿈과 애절이 흐르는 문화산업도시'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입주가 2011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파주시 교하면 신남리 자유로변 실락산 아래 펼쳐진 48만여 평의 부지에 입주하게 될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자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주거시설을 조성하는 한편으로
단지 입주에 따른 제반 현상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입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출판단지내 대한 대중교통 대책은 입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삼남동 월드컵 축구경기장-백주산성-인산신도시 전편전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통일동산-책이리 아트밸리-입진각을 연결하는
'자유로 문화벨트'의 중심 축으로서 관광산업 진흥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논의나 도시개발 차원의 접근이 전무했던 까닭에 입주를
앞둔 이들에게는 이의 중립화와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파주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와 후원 아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려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그간 정부에서 논의해 온 지하철 4호선 연장을 비롯해
자유로변의 경전철 가설, 기존 지하철 역사와 단지를 연계하는 대중교통 노선의 신설 및
파주시·교하시의 향후 교통대책 등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미나에 그 동안 단지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귀하를 모시고자
하오니 참석하시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

주제발표자: 이기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정책은 있는가?"

토 론 자: 김현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윤성희 출판문화 교통정책위원
원재우 한국대학교 교수
이성훈 교통개발연구원 팀장
송효상 건축가 이윤재 대표
박상우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정철 경기도 교통사업
이철우 파주시 도시장
박종현 한국토지공사 파주시법무팀
박광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김현호 책이리아트밸리 이사장
김형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

참 가 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 및 지역주민

일시: 1999년 11월 23일(화) 14:00

장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회의실(파주시 교하면 신남리 소재)

주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후원: 파주시,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파주출판단지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풍력 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주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
 일시 2000년 3월 16일(목) 오후 3시
 장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로 122811-0998-8 전화 03462842-0218
 홈페이지 011-594-0385, 011-224-6295, 011-9021-6368

세미나 순서

사회	이상훈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15:00~15:10	참석자 소개 및 인사
15:10~16:20	주제 발표
	에너지위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필림 방송대 교수, 과학사
	풍력발전의 원리와 이용가능성 손승렬 인하대 교수, 기계공학
	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이용가능성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공학박사
	환경관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소개 이상훈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16:20~17:30	자유 토론
	임주사·환경운동가·에너지전문가·건축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가하여 자유롭게 토론

전시회 안내

이 세미나가 끝나는 대로 파주출판단지 건축다목적터 및 1차건축가그림의
 당풍설을 주제로 한 건축전시회 개막식이 시작됩니다. 건축전시회는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간 인포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람바랍니다.

전시하는 건축가

김영섭 건축문화 대표	김영준 이로계 소장
김원 광장 대표	김인철 아르카움 대표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호원 대표	송효상 이로계 대표
이종호 서울건축학교 총리·스튜디오 에바 대표	이일훈 경기대학교 정밀교수·후리건축 대표
정기용 한국예술종합학교 정밀교수·가용건축 대표	조성룡 서울건축학교 교장·조성룡도시건축 대표

풍차가 힘차게 도는 출판도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자훈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문화산
 업도시로서 무엇보다 환경·생태 우선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
 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꾸준히 단지내 갈대밭 보전운동
 을 전개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는 환경운동이나 생태건축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출판도시에 당당히 풍력발전기를 세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고무시키고, 우리 출판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모색의 시발점이자 실천적 논의의 장으로서 '파주출판단지-에너지 대안
 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려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토대로 현재 해외에서
 활발히 개발 보급중인 풍력을 시범적으로 적용, 우리 사회에 에너지 대안을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제주 등지에서 풍력 발전을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실질적인 에너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출판단지를 통해 상상
 속의 대체에너지가 아닌 현실 속의 에너지원으로서 자라갈까 하며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참석을 통해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대안 희망찾기의 시작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 회장 손승렬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은 화석연료와 원자력이 유발하
 는 에너지 고갈·환경오염·기후변화 같은 에너지 위기를 해
 결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너지 위기 해결책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
 지질약면 갈래도 저급 사용하는 에너지의 상분의 일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절약과 에너지 효율 향상은 바람직한 에너지 대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풍
 력, 태양열, 소수력, 바이오매스처럼 공해가 없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널리 보
 급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저급 재생가능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
 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체계가 거대한 장벽이 되어 에너
 지 대안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에너지대안포럼은 이 장벽을 넘어 에너지 대
 안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와 에너지대안포럼과의 만남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대
 안을 펼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파주를 녹색의 희망으로 세우는, 새천년 생명 넘치
 는 공동체의 새로운 전행으로 빛어내는 역사에 에너지대안포럼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
 고 싶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소박하지만 이 만남이 낳은 희망은 결코 작지 않다고 확
 신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찾기에 함께 해 주십시오.

3월 26일, 출판도시에서 있을 두 큰 행사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1 井邑 김동수 古家別채 이전건립 上樑式

파주출판단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정원에 우리
고유의 한옥 살림집을 이전 건립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에 3월 26일 화창한 봄날 오후, 갈대셋강변 너른
부지에서 정음 김동수 고가 별채 이전건립 상량식을
갖습니다. 전통가옥을 출판도시 안에 세우는 것은,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출판도시의
건설이념을 증거해 주는 가슴 뿌듯한 役事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는 단지의 핵심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지신밟기와 성주풀이, 비나리로
시작되는 뜻깊은 이날 행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개요 3월 26일 오후 2시부터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지신밟기/비나리/판굿
경과보고
축문 낭독
상량
기념촬영에 이어 출판기념회장인 인포룸으로 이동



2 安重根 의사 순국 90주기를 추도하며 그분을 출판도시에 모시는 모임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 출판기념회에 즈음해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의 순국 90
주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
피 출판단지에서는 지금 한창 대공
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건설공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설계·시공·감리가 요구됨은 너무
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일
일수록 어떤 위대한 힘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알찬 열매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판기념회를
하는 『안중근 전쟁, 끝나지 않았다』에서도 잘 볼 수
있듯이, 출판단지 추진력의 원천은 바로 안중근
법정투쟁기록에서 얻은 바 큼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대한
스승 안중근 의사의 강인하고도 차원높은 정신의 힘에
기대하고자 합니다. 안중근 스승이 세상을 떠나신 지 9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분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민족사·
정신사의 우뚝한 봉우리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안중근 스승을 사이버 공간의 감리사로 모시자는
데 뜻을 모으고, 그분의 넓고도 깊은 정신에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행사 개요 3월 26일 오후 3시부터
안중근 의사 순국 90주기를 추도하는 말씀과 기도 함세용 신부
감리, 그리고 감리사란 무엇인가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출판기념 축사 김경희 자식산업사 사장
· 옮겨 엮은이 답사 이기용 이사장
와인과 함께하는 소연

일시 2000년 3월 26일(日) 오후 2시부터

장소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02) 511-9566~8, 파주 (0348) 942-0016

파주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경기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
심포지엄-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
출판도시 상징조형물-전수현 작 '지혜의 빛' 점등식

2000
1010

일시 2000년 10월 10일(화) 14:00~19:00
장소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및 부지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사무소 011-4550-4, 465 011-6508
출판단지 인포룸 031-942-0019-4, 031-942-0019

■ 행사개요 ■

14:00 심포지엄

주제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
사회 한일희 출판단지 이사, 출판계 대표
발표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
김원호 경희대 교수
정기용 가톨릭대학교 교수
토론 안건혁
유홍준
한기호
김경희
김형윤

17:00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경기

시상식 및 전시회 개막행사
당선작 발표
시상식 우수상-안희정 서울특별시
이중기 한예종
류승규 가이그
가작-시공인건축 출품작 외 4개 작품
전시회 개막

18:00 '지혜의 빛' 점등행사

- 조형물 제작자 전수현 교수
점등식
다과회

오시는 길



서울시를 떠나 양주방향으로 양주대교 기점 17km지점에 위치한
안남향간 도시개발 부지 출제도시인 행사장입니다. 출제는 전담자가 내려옵니다.

■ 초대합니다 ■

출판도시의 아침은 요란한 중장비들의 엔진 소리와 수로를 둘러싼
건설대들의 출몰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모처럼 밤을 내 출판도시 한옥에 앉아 창명한 가을하
늘을 벗삼아 책을 읽었습니다.

문득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표지에서부터 마지막 페이지까
지 한장 한장 순서대로 읽을 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건설중인 출
판도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획에서부터 인공의 노력을 거쳐 추진한 성과라는 생각이 넘
기면 책장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아시아도시 출판도시는 사육건축을 위한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도 응모작품을 접수받아 우수작품과
가작을 선정하는 등 건축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출판도시는 집 짓는 일만 남았습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출판문화산업
단지로서 위용을 자랑할 위대한 출판도시를 그려보는 것은 참으로 감동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집행부에서는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을 재조명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심포지엄을 비롯, 문화산업단지로서 위상을 확고히 다질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경기 우수작과 가작에 대한 시상식 및 전시회, '지혜의 빛' 점등식 등 작지만 큰
뜻이 담긴 행사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출판도시가 가야할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0. 9. 29.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드림



■ 심포지엄 ■

2000년 10월 10일 14:00~17:00 출판단지 인포룸

주제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 도시적 성격 재조명
사회 한일희 출판단지 이사, 출판계 대표
발표자 양승우, 김원호, 정기용
토론자 안건혁, 유홍준, 한기호, 김경희, 김형윤

진행 순서

제1부 개회식

14:00 개회 선언
국민의례
연사말 출판단지 IPJ를 이사장
발표자 및 참석인사 소개 출판단지 IPJ를 이사장

제2부 심포지엄

14:40 사회 한일희 출판단지 이사
주제발표
지침토론 / 자유토론
17:00 폐회



지주출판단지는 국내 최초 출판문화산업단지로서 계획 당시 목표했던 문화의 신업, 전통과 현대, 그리고 건축, 자연 등이 함께 어우러진
위대한 출판 문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를 꾀하는 데와 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제 발표

건축적 도시로서의 파주출판단지

양승우 서울산업대 건축도시계획학과 교수

건축의 정지성, 주거기능의 부족, 단일용도의 출판기능, 사이버시대에 출판업의 집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건축적 도시건설의 문제, 전자시대에 출판컴퓨터 센터의 필요성 등



출판단지의 소프트 인프라구축을 위한 제안

김종호 서울과학기술대 신문화융합학과 교수

문화정보산업의 21세기를 위한 비전과 전략, 출판산업의 소프트 인프라구축에 대한 보완, 출판산업의 제조업적 성격에서 문화산업적 성격으로의 변화 전망



역사적인 도시, 갈대로 빛나는 도시의 탄생을 위하여

정기용 건축가, 서울건축연구소 소장

모든 도시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산물이다. 즉 도시는 그것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가치와 의지에 따라 통합적으로 연결된 밀접한 집합체이다. 따라서 역사적인 도시, 갈대로 빛나는 도시의 탄생은 '새로운 가치'와 그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새로운 의지'를 필요로 한다. 또한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은 뜻을 같이한다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뜻을 신념으로 헌신시킬 당위성을 공유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토론지 소개

안건혁 서울대 교수

유용준 영남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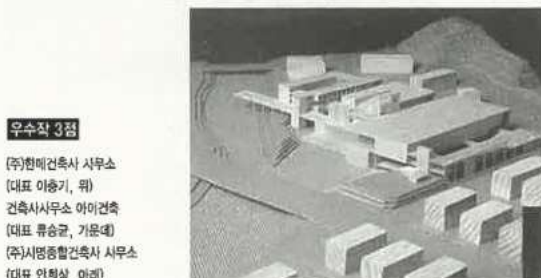
한기호 한국출판문화경영연구소 소장

김경희 지사산업사 대표

김형운 김형문화집사 대표

설계경기 사상식 및 전시회 개막

2000년 10월 10일 17:00~18:00 출판단지 인포룸



우수작 3점

(주)한미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충기, 위)
건축사사무소 아이건축
(대표 류승규, 가운데)
(주)시영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안희상, 아래)

심사진행 및 결과 보고

우수작 3점, 가작 5점 선정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경기 응모작품 접수결과 우수작 3점과 가작 5점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일) 인포룸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총 8개 응모작품에 대해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심사는 심사위원장인 이기용 이사장을 비롯, 민현식, 송효상 심사위원이 주도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민선주 건설부장, 김영문 협력코디네이터가 심사진행을 도왔습니다.

심사에서는 1차로 18개 작품을 심사위원 각자가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위원장을 포함 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하위 8개 작품을 탈락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했고 2차 심사는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합의 평가하고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3차에서는 설계요강에 충실하라는 노력이 엿보인 8개 작품을 선정, 그중 우수작 3점과 가작 5점을 엄선하였습니다. 제출된 작품들이 대부분 나름대로 중요한 시설에 대해 창의적이고 독창성이 엿보였다는게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특히 우수작으로 선정된 3개 작품은 출판도시가 지향하고 있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생태도시 건설에 부합하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명실공히 국제적 명소가 될 수 있기에 충분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출품작품 당선작으로 결정할 만 할 수적이 없어 우수작 3점을 대상으로 설계의 보완을 통해 당선작을 선정키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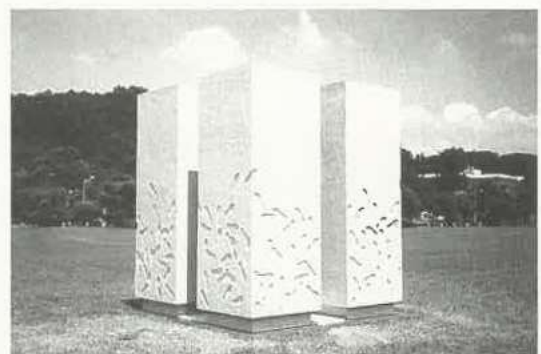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우선 이들 우수작과 가작의 시상식을 비롯, 전체 응모작품을 전시하여 앞으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대내외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수상식 심사 코디네이터부하 이기용 심사위원장, 송효상, 민현식 심사위원

'지혜의 빛' 점등식

2000년 10월 10일 18:00~18:30 출판단지 푸치네



연수원 '지혜의 빛' 300x300x200mm, 기둥 12.5m x 4, 총 30층, 회담당, 조형

작가의 작품설명

새로운 바람이 이는 21세기는 우리민족에 각별한 시작의 의미를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문명은 개인 지혜가 모아져 발전되어 왔다. 조형물 "지혜의 빛"은 21세기의 가능성과 변화의 메갈 그리고 남북의 민족이 하나되어 줄이 날 지혜를 상징하여 구상한 작품이다. 우뚝 솟은 네개의 기둥은 흔들림 없이 한반도에 서 있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으며, 기둥의 외부표면에는 발자국을 새겨 남북의 민족이 "지혜의 빛"을 향해 모여드는 시각적 이미지와 정신적 상징성을 두었다. 네 개의 기둥의 중앙을 사방으로 트이도록 하여 세계로 열리는 실질적인 소통과, 기둥 안에 들어서면 하늘이 열리는 정신적인 소통의 세계를 동시에 담으려고 했다. 원형으로 둘러싼 중앙 공간의 바닥은 지구의 한 부분인 한반도에서 지혜가 발생하는 상징성으로 밝은 빛이 하늘을 향해 빛나도록 했다. "지혜의 빛"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루어질 남북통일을 생략하여 구상 제작된 것으로 특히 통일과 지혜의 도시,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을 위한 것이다.



© 2005 Blackwell Publishing Ltd,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258: 105–114

제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현황포함
전화 02311-0588~8, 001342-0018

안중근 선생은 그의 육종 투쟁일지에서 잘 보여주듯이 강인하고
굴절 줄 모르는 차분한 정신으로 이 시대 많은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파주출판도시 현장에 다시 모
임을 드러내신 안중근 선생을 만나 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닐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표현해 내는 조각예술의 경치가 아
닐라 합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육사 시비, 백의 날 기념조각상, 사물놀이 기념상, 성산 김창숙 님 동상, 태현 윤봉길 님 동상, 신라호텔 야외조각, 국립현대미술관 작품, 이태구 님 동상 등이 있다.

pajubookcity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 전시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파주출판도시의 건축설계제철을 완료하고, 2000년 4월 시범지구 8개 섹터의 담당 건축가를 선정하여 현재 23명의 국내 외 건축가가 40여 출판사의 사옥과 출판 관련 산업시설의 기본설계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초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무는 12월에 다음과 같이 시범지구의 건축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개전 행사에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전 2000 12 16 오후 2시

장소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전화 031 942 0016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이기웅

invitation

on behalf of the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I would like to request the honour of your presence at the opening of the exhibition: communality, architectural exhibition, phase-1 on saturday, december 16 2000 at 2:00 pm

at the inforoom of paju book city, paju, kyongki-do, korea (telephone 031 942 0016)

yi ki-ung, chairman,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공동성의 실현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 전시회

communality

architectural exhibition, phase-1, paju book city, korea

일시 2000 12 16 - 2001 01 16

장소 파주출판단지 인포룸(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전화 031 942 0016)

심포지움 symposium 1 - 공동성의 실현

일시 2000 12 16 토요일 오전 10시

참가 김병윤 김명섭 김영준 김원 김인철 민현식 송효상 이종호 이일훈 정기용 조성룡

심포지움 symposium 2 -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향약' 만들기

일시 2001 01 16 월요일 오후 2시

전시회 참가건축가 architects

김광수kim kwang-soo 김광현kim kwang-hyun 김병현kim byung-hyun

김병윤+안희상kim byung-yoon+ahn hee-sang 김명섭kim young-sub 김영준kim young-joon

김원kim won 김인철kim in-cheul 김현kim hun 김종규kim jong-kyu 민현식min hyun-sik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에kazuyo sejima+ryue nishizawa 스탠리 알렌stanley t. allen

송효상seung h-sang 이일훈il-hoon 이종호yi jong-ho 이항배lee hang-bae 이호추lee hyo-choo

정기용chung guyon 정성원jung sung-won 조성룡joh sung-yong 최욱choi wook

플로리안 베이젤florian beigel

PAJU BOOK CITY KOREA 해외 홍보용 영문 브로슈어



파주출판도시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비단 외국 건축가들이 참여해서가 아니라

출판문화도시 건설이 문화선진국에서조차 볼 수

없는 사상 유래 없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영문 브로슈어에는 파주출판도시 추진경위와 조합 및

참여 건축가 소개를 비롯 출판도시핵심시설인 출판유통센터 건립계획 등이

자세히 수록되어 국제사회에 우리의 출판문화를 홍보하는 데 주로 사용됐다.

영문브로슈어는 외국의 도서관 및 유통업체 시찰 등을 통하여

각국의 출판문화인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국내를 방문한

외국인사들에게도 브리핑 자료로 활용하여 출판단지 건설사업에 대한 국제적

이해증진에 큰 역할을 했다.

PAJU BOOK CITY KOREA

INCLUDING: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ENTER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build a Book City integrating culture, information, and technology. This Book City is now planned in Paju—not far from Seoul—in a grand scale. The government has put much effort into the development of Paju Book City as a strategic model of technological city in the face of high-tech information society in the 21st century.

Paju, the new site of the Book City is near the new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2002 Worldcup Football Game stadium. Which will be the center of transportation in East-North Asia. All publishers' dream will finally come true in here. Come in! Investment and take part in The BOOK CITY! Our Book City(INCLUDING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enter) is widely opened for you.



The model of Paju Book City
This model will be put on the 19th Biennale Exhibition
which will be held by Seung Il Sang on June, 2000
CHANGHWA, JangCh

To join Paju Book City (Investment)

→ Industrial District: Purchase a site or rent an office

→ Distribution Center:

- 1) Invest in shares of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o., Ltd., a single distributor in Paju Book City pursuing publications wholesale/retail businesses (books, periodicals, electronic materials, etc.), warehousing, transportation, and information processing businesses
- 2) Utilize comprehensive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enter as your local distribution base or become our partner

→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Become a private partner in the fields of building large-scale accommodations and event facilities.



Location of Paju Book City
The distance from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s about 10km. The distance from Seoul City Hall is about 30km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506, Ghasan-Gong, Kangnam-Ku,
Seoul 135-130, Korea
TEL. 82-2-511-4568 / FAX. 82-2-511-4369
E-mail: pajubookcity@unifail.co.kr

A Book City Burgeoning in Korea

Yi, Ki-Ung President of Paju Book City, President of Yod Hwa Dang Publisher



Do you know Korea? Do you know the culture and history of Korea? Come and visit Paju Book City, where you can find the archetype of Korea and its culture. Paju Book City is a major attempt to overcome Korea's geopolitical circumstances such as the North-South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present Korean society to the world through its specially planned aim. It was some thirty years ago that we first came up with the idea of building this City. Specific designing of the City was initiated twelve years ago. In 2002, we will be able to see its completion.

In the City, all procedures — the planning, producing and consuming of books, culture and information — are conducted as a package. The City is eco-friendly as well as highly effective; in this City of production, costs will be reduced through predictable production, while consumption will be highly self-restrained.

Paju Book City is also designed to be an educational program. People in the City want to create a new Korean archetype by building a book city based on the spirit of the Patriot Ahn Jung-Gu, who in the name of Korean people punished the Japanese invasion into Korea in Haein on October 26, 1909. It is in the City that all kinds of bad habits that are prevalent in our lives — idleness and uselessness, injustice and corruption, inhuman individualism, excessive consumption and destruction of nature, — are refreshed by the healthy community educational program. The very process of building the City is oriented to be an educational program. And after the completion, the City itself will function as an educational space.

Get the full experience of Korean book history newly beginning in Paju Book City. Starting in 2002, some 600 book-related companies will be moved in by 2005. People in Paju Book City will welcome you April, 2000.

History of Paju Book City Project

- 1989. 9. 5 Paju Book City Construction Committee Initiation Convention
- 1991. 1. 8. Government approval for establishing Cooperative Paju Book City
- 1994. 5. 26. KOLAND(Korea Land Corporation) report of Paju Book City Project Blueprint to the President
- 1994. 7. 1. The Ministry of Culture announced detailed project plan as instructed by the President
- 1994. 9. 1. Organizing project team participated by working level managers of related government agencies. (Chairman: Vice Minister of Culture)
- 1995. 10. 20. Selecting "Paju Book City" as project title and hold a naming ceremony
- 1996. 1. 25. Establishing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o., Ltd. a comprehensive publication distribution organization
- 1997. 3. 21. Designating Paju Book City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 1998. 11. 20. Groundbreaking Ceremony participated by Prime Minister
- as of Oct. 1999 50 percent of site construction completion
- 1999. 8. 15. Completing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Information Center
- 1999. 9. 9. Opening Ceremony of Paju Book City Information Center and exhibition of basic design of complex (hold construction exhibition and open a bookstore, book cafe, conference room and library)
- 2001. 2. Starting construction of individual buildings
- 2002 (first half) Completing construction of individual buildings at pilot district

The Executive of Paju Book City

Director



Han, Hyon-Seon
President of Bohman Si



Kim, Kyung-Hye
President of Bokhansipso



Kim, Eon-Ho
President of Hwangja Publishing Co., Ltd.



Kim, Hyung-Yoon
President of Seoul Hyeonhan Publishing Agency



Ryu, Jo Dong
President of Kyohakda Ltd., Publishers



Kim, Jung-Gun
President of Pochonseo Printing Co., Ltd.



Sim, Min-Su
President of Solon Publishing Co.



Lee, Gun-Bok
President of Daegwag Publishers



Kim, Chong-Su
President of Hantul Publishing



Han, Chul-Hye
President of Daehaeje



Kim, Sang-Gyun
President of Hwangja Publishing Co.



Kim, Hye-Kyung
President of Pansong Publishing Co.



Ryu, Do-Youl
Managing Director



Lee, Hwang-Ju
Manager of Bohman



Minn, Sehan-Joo
Chief of Construction Head office

Executive Office

City of Communitality Architectural Landscape Design of Paju Book City

Seung, H. Sang Architect, Coordinator of Paju Book City



Seung, H. Sang



Kim, Young-Joon
Vice-Chairman of Paju Book City

Paju Book City, now under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stage, aims to integrate diverse facilities related with publishing industry and to promote a base for the new collective culture in Korea. This special city is sponsored by Korean government and has been organized and promoted by the Association of Korean Publishers Co. since 1990. By the first half of year of 2002, more than 150 buildings would be set up on this 190 ha land.

The site was created by building Jangui highway, linking Seoul and DMZ, on the east side delta area of Han River. This politically very important site, 4.5km long along the freeway, is basically wet land with plentiful wild reeds around comfortable stream in the midst and is the home of migratory birds. Preserving wild nature was top priority for this project, even though conventional master-plan-we didn't like this kind of dangerous word — was given beforehand and its street plan had to be incorporated into scheme inevitably.

The first rule we made here is about emptiness. Emptiness was recognized essential virtue to Koreans in old time, though it is vague now in Korean modern society indulged into economic growth during last several decades. But we have come to realize the true value of the void to engulf our life. Thus we set various emptiness prior to filling the land with buildings. Han River is well connected with Sinbuk Mountain through the emptiness as the roads in green corridors, interstices between buildings or indeterminate spaces provided here and there. These emptiness create characteristic places where all building belong to. Thus we categorized several building types to be featured in the places, as like, highway studios-printing factories lower than the freeway level, book shelves allowing views to the river and mountain for inhabitants, stone-set on reeds, canal bank, allocated along the stream, urban hill-as landscape form for a biggest structure, etc. We hope all the kind of architecture here are understood as landscape or infrastructure for human settlement.

First of all, what we want to establish here is community. This city is new one, but we don't want this to be strange, new land. On the contrary we want this new city to be accustomed to everybody based on our beautiful memory about ourselves. That is so called communality, we have forgotten in modern time and it is something that could let our lives endure. We never question this special city would be the first cultural city built in our new age.



The Executive and Architects of Paju Book City in the workshop place, Sanggyung in Gangneung.

The Model Area Sector Architect of Paju Book City



Kim, Won
President Architect Group Forum Seoul



Job, Sang-Yong
Principal, Jihungyoung Architect Associates



Chung, Gu-Yon
Director, GYON Architects Associates



Min, Hyun-Sik
Professor at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Art



Kim, In-Chul
President of Artium Co., Ltd.



Kim, Young-Suh
Architectural Firm Architects, Architects of The Culture of Architecture



E, Hyeon
President of E. Choi Architects, STC (S) DMF Architects



Yi, Jung-Ho
President, Studio M21



2000. 2. 9. President Yi, Ki-Ung and Coordinators Seung, Hwang and Partners of Paju Book City visited the Architects and discussed with the architects about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of Paju Book City with the architects. Photo: Victor

Project of Paju Book City

Paju Book City Project, one of "five government supported and private sector part-funded projects", aimed at establishing "knowledge infrastructure", includes the next tidings.

1. Building Paju Publication, Culture and Information Industry Complex

- Integrating culture industries centered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industry including publication in preparation for the advent of the information era in the 21st century
- Developing Paju as a culture center providing public culture education services in a reunified Korea
-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promoting the maximization of profitability in the value added industries including advanced information industry and media industries
- Creating environment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ublication industry and introducing advanced distribution and marketing structure
- Promoting international exchange in the culture and information industries and developing a tourism destination attracting tourists in the world by holding exhibitions and performances showing Korean traditional culture.

2. Effectiveness of Project

- Functional Aspects: 1) Maximizing the profitability of the publishing industry by integrating diverse aspects of the industry in a systematic manner
2) Enhancing the functionality of the publication industry by sharing national industry infrastructure
- Business Aspects: 1) Building state-of-the-art information industry complex by creating an economic publication infrastructure.



People of Paju Book City. At the central garden in February 1998. (P. 9-10)

- 2) Securing industry site at a low cost by taking the advantage of national industry complex.
 - 3) Reducing logistics costs by providing easy access through Pae, Highway and by introducing a systematic distribution channel.
- Cultural Aspects: 1) Laying the groundwork for holding various cultural events with the publishing industry as a medium
- 2) Main pillar of "Three Highway Culture Belt" linking World Cup Stadium in Sangam-dong (South or Seoul) being built in preparation for 2002 World Cup soccer events, Hangeo Wall Convention Center in Ilan new town, Paju Book City (Education Park) (Ilsan Valley) and Imjingak.

Main Features of Paju Book City

Main features of Paju Book City can be divided into utility function(industrial function) and supplementary function(cultural function) aimed at meeting the objectives of building the city. Utility functions refer to major features of the Book City of production planning, manufacturing and materials) and distribution while supplementary functions refer to features supporting the utility functions centered on cultural functions of holding various events for promoting international and cultural exchanges, tourism and leisure activities on academic and technological researches and on-site trainings and education.

With the integration of the utility and supplementary functions, Paju Book City aims at creating an environment of a culture and industry complex incorporating publishing, culture and information industries in a comprehensive manner as well as providing production functions which is the main objective of other industrial complexes.

Project Profile

- Location: Munheon-ri, Kyohu-myun, Paju-City, Kyonggi-do
- Size: 881,000 pyong (1,990,000m²)
- Unit Price: 1 pyong 700,000 won (1,000m² = \$170,140)
- Project Period: 1991. 1. - 2005. 12.
- Project Managemen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 Project Implementation: Korea Land Corporation
- Project Promotion: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Chairman Yi Ki-Lang)



The complete view of Paju Book City (Imaging)

Major Businesses and Functions

Classification	Function
Advanced Electronic Publishing	Computer-aided electronic publishing, Online publishing with internet IT-tech industries including software, game and Multimedia
Book, Printing and Publishing	Publishing company, planning-designing and related functions Printing and related supporting functions (finishing, laminating, bookbinding, material provision, etc.)
Advanced Media Industry	Computer animation, advertising, designing and development
Media Production	Studio, audio recording, captioning, film printing Cartoon, CATV companies, character product provider
Fashion Industry	Fashion designing, fashion research center, etc. Multi-convention center
Education and Research	Publication and culture academy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Library), Translation service center, Animation industry research center, Faculty supporting authors and writers
Distribution and Marketing	Comprehensively Publication Material Distribution Center International Animation Center
Tourism, Leisure and Culture	Special purpose shopping malls including bookstore mall, Fashion shopping mall and event mall Concert hall, publications exhibition center, event square and Fantasy Land Culture Industry Museum (Language publications, cartoons, media, fashion, etc.) Publishing Center-New publications, electronic publishing, animation, etc.) World Book Fair, World Media Festival Holding railroad and international events, cultural exchange center in South-North Korea, accommodations and training facilities Sculpture Park, Outdoor Theater, character businesses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As a major facility of Paju Book City, the Center is to play important roles for providing culture services. Not only domestic but also foreign publication companies and industries are allowed to make investments into building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government is to provide financial assistance in the Center providing following public services.

- Collect information on culture industries including publications, media, animation and new media and facilitate information exchanges
- Collect and display related materials
- Provide education programs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culture industries
- Hold culture events and international shows

Companies have already purchased 18,000m²-wide land for building Asia Publication-Culture & Information Center and the government will finance the construction of the Center. Thus, there would be no financial burden for participating companies in building the Center, ensuring their investment and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in various forms.



The Korean historical record (Gwanbok) depicting a group of the Paju Book City. They published various information record of which had been severely damaged by war, which is located in Paju and has been a building, today. This is called the corner of gateway to the city, and.



The model square for the book square shopping in Paju Book City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o.,

Foundation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o., Ltd. is a company providing information services as well as distribution, warehousing and transportation of books, which was founded by 386 Korean publishers and booksellers in January 1996 to build up comprehensive distribution service channels and establish an Integrated Distribution Center equipped with state-of-the-art automation facilities at Paju Book City of Kyonggi province. The foundation of KPD was a great and brand-new step in the history of Korean publishing business and book trade.



Yoon, Seok-Kwon
Chairman

Yi, Ki-Ung
Chairman of
Steering Committee



Hong, Sang-Dae
Vice President



General Information

Serving more than 2,000 retail outlets and representing more than 1,500 publishers, KPD is the largest wholesale distributor of trade books in Korea. More than 1.5 million books are shipped each year to domestic and foreign customers. With more than 100,000 titles in inventory, our stock includes subjects ranging from children's and popular fiction to inspirational and computer books. KPD provides a broad selection of titles with depth to ensure a high in-stock availability for its customers.

The Value Chain



Why is there potential in Korean Book Distribution Market?



New Project

- Plan to construct a new distribution center with highly automated has obtained about 7,300 sqm work area in Paju Book City, National Industrial Complex.
- Have the new enterprise Chain Bookstore / Cyber Bookstore to meet increasingly diversified needs and wishes of Korean readers.
- Provide and transport the goods with retailers, logically related books/GIS/Software / Stationery, etc.
- Develop the advanc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for publishing and bookselling industry (Book VAS)



The world of Korea Publication Distribution Center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

파주출판도시는 자유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 등에 인접해 있는 교통의 요충지면서도

당분간은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지역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2년 5월까지의 장단기적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 11월 23일에 개최된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의 교통대책 세미나 자료.

세미나에서는 출판단지 이기웅 이사장의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정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발표와

각계 각종 전문가들로부터 열린 토론이 전개됐다.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장단기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하여

- 일 시 : 1999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 주제발표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

◎ 토 론

토론자 :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음성직 중앙일보 교통전문위원
원재우 한양대학교 교수
이상용 교통개발연구원 팀장
송효상 건축가·이로써 대표
박상우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정렬 경기도 교통과장
이창우 파주시 부시장
박중진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박광석 한국산업단지공단 차장
김언호 베이어아드벨리 이사장
김형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

주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후원 : 파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

◎ 주제발표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1. 출판단지 건설의 목적과 배경 1
2. 출판문화정보산업의 단지화 2

출판단지 교통현황 및 예상수요

1. 입지 6
2. 예상 인구추정 7
3. 교통환경 분석 8
4. 광역 교통체계 22

파주출판단지 입주자를 위한 대중교통 대책 제언

1.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24
2. 출판단지 주변 가로망 현황 24
3. 대중교통 대책 제언 24
 - 1) 일산선 지하철 연장선 출판단지까지 연장
 - 2) 경의선 전철 복선화 조기 완성
 - 3) 직행버스 노선 신설·확충
 - 4) 파주 시내버스의 연계
 - 5) 단지내 셔틀버스 운행
 - 6) 자유로 문화벨트를 잇는 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충용시설의 신설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파주출판단지는 문화와 산업, 전통과 현대, 출판과 건축,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 숨쉬는
위대한 책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단지를 가로지르는 갈대샛강과 그곳의 많은
동식물 등의 보호와 보전 등은
출판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에
풍력발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봄 개최된 에너지 대안 심포지엄 자료.

파주출판단지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 일 시 : 2000년 3월 16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 주제발표

이필렬(방송대 교수 / 과학사)
- 에너지위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손충렬(인하대 교수 / 기계공학)
- 풍력발전의 원리와 이용 가능성

오대균(에너지관리공단 / 공학박사)
- 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이용 가능성

이상훈(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 환경관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소개

● 자 유 토 론

주최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공동조합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

● 제1주제

이필렬(방송대 교수 / 과학사)

- 에너지위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5

● 제2주제

손충렬(인하대 교수 / 기계공학)

- 풍력발전의 원리와 이용 가능성 12

● 제3주제

오대균(에너지관리공단 / 공학박사)

- 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이용 가능성 20

● 제4주제

이상훈(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 환경관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소개 26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강



파주출판단지의 문화적 초석으로 자리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강.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출판단지 2만여평의 부지에
컨벤션센터는 물론, 호텔, 정보센터, 도서관, 전시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현재 당선(안)이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2001년 4월경에 착공될 예정이다.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강

2000. 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목 차

I. 설계경기의 목적

II. 중요요건

1. 경기형식
2. 설계경기의 주체
3. 연락처
4. 참가자격
5. 일정
6. 공모지에 제공되는 것
7. 공모지가 제출하는 것
8. 제출방법
9. 심사위원
10. 시상
11. 결과발표 및 전시회 개최
12. 작품의 반응
13. 저작권
14. 작품의 권리
15. 기타

III. 설계요건

1. 시설계획의 개요
2. 대지
3. 배치의 설계요건
4. 건물의 설계요건
5. 예상공사비
6. 사업스케줄

【첨부자료 #1】 파주출판단지 및 출판문화정보센터 개요

【첨부자료 #2】 자질조사지로

【첨부자료 #3】 전체마스터플랜

【첨부자료 #4】 대지 및 주변 대지

【첨부자료 #5】 도면과 서류의 기호표시 위치

【첨부자료 #6】 출판문화정보단지 건축설계지침 요약

첨부자료 목록

- #1. 파주출판단지 및 출판문화정보센터 개요
- #2. 지갈조서자료
- #3. 전체마스터플랜
- #4. 대지 및 주변 대지
- #5. 도면과 서류의 기호표시 위치
- #6. 출판문화정보단지 건축설계지침 요약

파주출판단지 도시적 성격 재조명 심포지엄



우리가 출판도시를 계획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국내외 정세를 비롯, 출판환경 등도 눈에 띄게 달라져
그에 따른 출판도시의 성격을 재조명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2000년 10월 10일 열린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

도시적 성격 심포지엄 자료.

심포지엄에서는 출판도시로서 출판단지의 건설방향과 출판도시의 건축,

출판단지의 인문학적 고찰 등

다방면의 주제발표와 토론 등이 전개되어

출판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조명했다.

파주출판단지 심포지엄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단지 도시적 성격 재조명

- 일시 : 2000년 10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파주 출판단지 인포룸

● 주제발표

- 양 승 우 서울서원대 교수
- 건축적 도시로서의 파주 출판단지
- 정 기 용 기용건축연구소 소장
- 역사적인 도시, 갈대로 빛나는 도시의 탄생을 위하여
- 김 용 호 성공회대 교수
- 문발리의 부드러운 대지를 꿈꾸며

● 토론자

- 안 건 혁 서울대 교수
- 조 성 통 서울건축학교 교장
- 한 기 호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 김 경 희 지식산업사 대표
- 김 형 운 김형문화집회사 대표

주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목 차

I. 건축적 도시로서의 파주 출판단지

1. 파주 출판단지과 목적(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5
2. 파주 출판단지와 사람(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6
3. 파주 출판단지와 건축적 도시	7
4. 파주 출판단지와 주거기능	9
5. 기타	10

II. 역사적인 도시, 갈대가 빛나는 도시의 탄생을 위하여

1. 다시 제자리에서	12
2. 세 개의 가치	13
3. 열 개의 질문들	15

III. 문발리의 부드러운 대지를 꿈꾸며

1. <책시>이야기	19
2. 책심질문	21
3. 예상되는 난점	2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동주거 계획

㉠

출판단지 조성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조합에서는
출판도시 입주사 종사원들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출판단지 주거시설용지 8천여평에 들어설 공동주택은
주택조합아파트를 비롯, 일반분양주택, 사원주택, 사원임대주택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출판단지 시범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2002년 5월과 매를 같이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있다.
현재 유보중인 공동주택 안내 팸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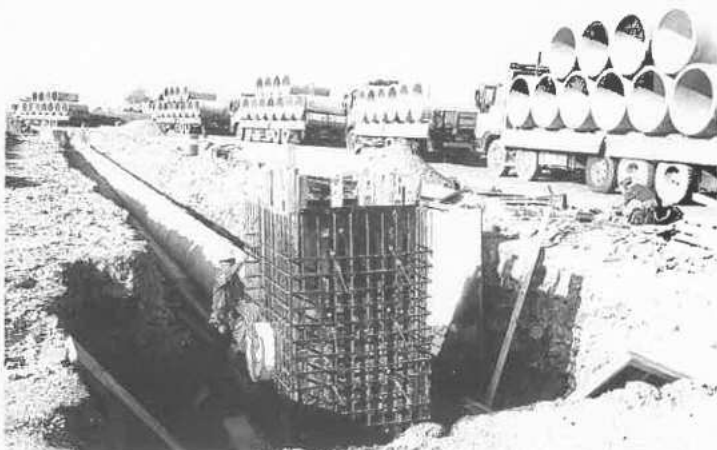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자족도시
파주 출판단지에
우리의 보금자리가
꾸며집니다.

파주출판도시공동주거계획200010

파주출판단지 주택조합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출판단지 인포로 전화 (031)942-0016~8 팩스 942-0019

출판단지 공동주택은 어떤 성격을 갖는 삶의 공간일까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내 최초 문화산업단지로서 현재 파주시 교하면 일대 48만여평의 대단위 부지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현재 출판단지 조성공사는 기반시설공사가 5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출판단지 입주사 임직원들이 출판도시에서 평생직장이라는 사명감으로 자기가상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안락한 보금자리를 함께 마련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판단지 공동주택은 출판단지가 일반산업



단지가 아닌 출판문화도시로 건립되어 직장과 가정생활은 물론 문화생활, 여가생활 등을 출판단지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들을 두루 갖추게 됩니다.

따라서 출판단지 공동주택은 판매 박힌 듯한 고층의 획일화된 주택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저층의 열려진 공간형식의 독특한 주택으로 입주사 직원들의 근무편의는 물론 각종 복지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직장과 주택이 가깝게 있어 교통비 절감 및 출퇴근 시간 절약을 통해 운동, 취미, 학습 등 자기개발과 여가 시간의 활용은 물론 단지 내 협동화사업 수행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출판단지는 현재 공동주택을 비롯, 입주사 사옥,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상업시설 등의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알표지 / 파주출판도시 모형도

2

출판도시 전체가 작품입니다.

출판도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유통센터, 상업시설, 공동주택뿐 아니라 출판관련 각 사옥들도 국내의 뛰어난 건축가와 세계적인 외국 건축가들이 참여하여 설계 경쟁을 벌이는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설계와 시공은 건축주와 건축가가 약속한 '위대한 계약서' 정신에 따라 진행됩니다.

공동주택 개요

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대지면적 28,955㎡(8,759평)
건축면적 16,140㎡(4,885평) 연면적 34,784㎡(10,522평) 건폐율 55.8% 용적률 120%
규모 지상 3~5층 세대수 402세대 주차대수 계획 400대 세대별 분양면적 25평(전용면적 18평)
본 계획은 설계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파주출판도시의 공동주택 실현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특히 입주사 임직원들을 위한 공동주택은 출판도시를 생동감 넘치는 자족도시로 만드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사진은 건축설계를 위한 건축가-입주자들의 회의 모습.

위대한 계약서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일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안해 있는 건축예의 형오나 출판예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물 새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진흥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행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

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나 입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장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는 물자와 시간을 아끼며, 일하는 아들끼리의 건강과 우정을 두터이 하여, 거친 건설현장과 대규모 이주에 따른 위험이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꿈과 예절과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동네로 꾸미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요약>

공동주택의 건설을 향해 우리 의지를 한데 모았습니다.- 주택조합 창립총회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 곧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산업계 종사자들의 평생 일터로서 대를 이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출판단지 공동주택은 우리 출판산업계 종사자들의 안락한 보금자리로서 입사에서부터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중간관리자로서 거쳐 전문경영인인 대표이사에게 이르기까지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과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가치관, 깊은 사고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출판도시 자체를 산 교육의 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가 될 출판도시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강호 이사장 인사말 중에서



파주출판단지 주택조합은 지난 7월 22일 출판단지 인모동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원들은 출판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과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한국출판유류 이종호 부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앞으로 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들로부터 사업추진비를 납부 받아 부지 매입, 설계 및 건축 등 오는 2002년 시범지구 입주와 매를 같이 하여 공동주택 입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직주근접의 혜택은 모두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출판도시의 공동주택은 출판산업계 종사자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해 종사자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건설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서 직장과 집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출퇴근 시간 절약은 물론 여가선용 및 자기계발을 위한 재투자 등 우리 직장인에게는 더없는 호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주택조합을 결성함과 동시에 조합원들로부터 업무추진비를 납부 받아 토지 매입 등 건설업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범지구 입주사들의 입주가 완료되는 2002년 5월에 맞춰 우리의 공동주택 입주를 완료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파주출판단지 주택조합
이강호 조합장 개회사 중에서

자연과 문화와 경제가 어우러지는 최적의 주거환경을 형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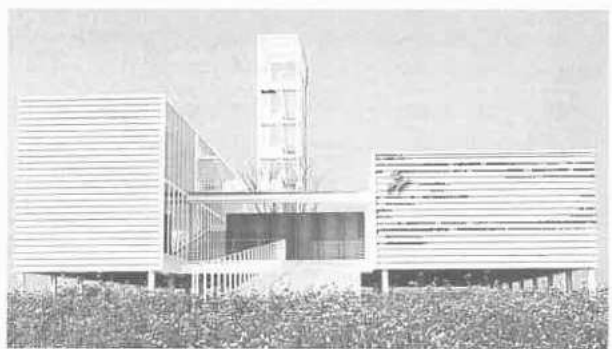
1. 갈대밭강에서 자연을 배웁니다.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공동주택 건립 예정지는 동쪽으로는 심학산, 서쪽으로는 자유로와 한강이 보이고 갈대가 군락을 이루는 천혜의 수로가 가로지르는 쾌적한 환경과, 북으로는 봉일동산과 임진각으로 연결되는 문화관광코스, 통일 대비 남북 문화교류 거점도시 내에 위치하여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최적의 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갈대밭강에는 야생동물을 비롯 야생조류, 양서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갯가지 습생식물 등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출판단지 조합은 물론 학계의 수차례에



출판도시의 갈대밭강은 자연 그대로의 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갯가지 등 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출판도시 내 인모동에 주변의 여정공간과 어울려 정겨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결친 생태계 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것으로 우리조합에서는 단지를 개발함에 있어 갈대밭강의 생태계 보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숨쉬는 게 즐겁습니다,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서쪽으로 탁 트인 곳에 자리하여 시원한 북서풍과 정면으로 불어오는 해풍의 영향으로 항상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합니다.

특히 주변 공해시설이 전혀 없고 출판도시 전체 건물이 저층으로 구성되어 때문에 막힘



출판도시에 풍력발전기 설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무공해 에너지인 출판도시 전체에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은 물론 재생에너지 활용의 선두주자로서 앞서 가는 출판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없이 대자연의 깨끗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심내 매연과 공해로 인해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거나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던 도시민들에게 유창한 녹지에 둘러싸인 깨끗하고 조용한 전원도시의 상쾌한 주거문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한강 너머 김포 산야로 떨어지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3. 풍차가 도는 출판도시, 국내 최초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자연자원 고갈의 심각성은 두말할 필요없이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은 고유가 시대에 미래 에너지인 풍력에너지 개발은 우리나라에 있어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판단지는 자유로변에 풍차를 설치하여 출판도시 내 전력공급은 물론 공동주택의 전력 공급 등 무공해 에너지 사용으로 지구촌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에도 단연 앞서갑니다. 게다가 시범사업으로 10kw 풍력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열 에너지를 출판도시에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4. 도시간에 또하나의 완벽한 주거도시, 공동성 실현의 최대 수혜자가 됩니다.

단지 내 상업시설에는 대형 유통매장을 비롯, 백화점, 쇼핑몰, 기념품점, 브랜드의류점, 문점, 캐주얼점, 공예가구점 등 최고품격의 브랜드를 입점시킬 계획이며, 대형음식점, 레스토랑, 노래방, 각종 주점, 약국, 은행, 의원 등 다양한 시설의 입주로 생활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더욱이 이들 시설들은 단지내 협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어떠한 할인매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자들의 구매욕구를 충족시켜 드릴 것입니다.

5. 도시전체가 전시공간, 날마다 새로운 공연을 만납니다.

출판단지 내 5,400여명에 건설되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는 각종 전시장, 박물관, 이벤트홀, 청소년문화센터, 정보센터, 출판인수원, 출판연구소, 공연장 등의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또한 21,700여명에 건설되는 출판물유통센터는 상적, 물적, 정보, 금융, 인적유통의 기능을 두루 갖출 예정이며, 생산지구에는 전문업체들이 운영할 대형교외서점, 출판, 미술, 음악 등의 전문학교, 국악공연장, 음반, CD 등의 전시 판매장, 종이박물관, 고서박물관과 서점들, 이벤트홀, 문화상품들 등이 도입됩니다.

이곳에서는 문화공연을 위한 예술영화관, 애니메이션 테마파크, 연극전용극장, 문화예술공원, 희망가 등이 들어서 각종 이벤트 행사, 거리축제, 전시회 등 풍성한 볼거리가 매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2단계 지구에 조성되는 첨단영상산업 지구에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상스튜디오, 만화, 필름 등과 관련된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도시 전체가 공연장, 전시장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중심으로 날마다 색다른 전시와 공연이 펼쳐짐으로써 입주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는 주변의 자유로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철 일산선 등과 근접한 최적의 교통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전철, 모노레일 등의 추진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의선 철도 복원으로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6. 서울 부도심보다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조건입니다.

출판단지 공동주택은 자유로변에 위치하여 광화문까지는 40분, 마포까지 20분 등 서울 시내와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합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여 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고 반대편 수도권 도시들과도 1시간 이내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시 광역여객 수송은 국도 1호선과 자유로가 파주와 서울을 잇는 남북방향, 국도 37호선이 파주시 동서방향의 교통을 처리하고 있으며 경의선 철도가 파주시 중앙부를 남북으로 관통하여 철도여객 수송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의선 철도 연결 기공식에 이어 통일시대 신의주, 개성 등을 왕래하는 관문으로서 남북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또한 지하철 일산선, 출판단지 경유 통일동산까지 연장운행을 비롯, 경의선 전철 복선화 조기 완공, 파주·일산 시내버스 노선 조기 연계, 단지내 상암역 또는 합정역까지의 직행버스 운행, 단지내 셔틀버스 운행, 자유로 문화벨트를 잇는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수송시설의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7. 투자가치 상승은 시간문제. 넓은 내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전통문화의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명소로 개발되는 출판문화도시로서 쾌적한 자연환경과 갈대갯강이 흐르는 생태도시,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출판도시, 헤이리 아트밸리,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관광도시,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재산적 가치가 급상승할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판상의 고층아파트가 도시는 물론 농촌의 논두렁에까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파주출판단지 공동주택은 넓은 부지에 저층의 열려진 공간으로 건설됨으로써 기존의 공동주택이 갖고 있던 획일성을 완전히 탈피한 새로운 공동주택의 모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신개념·신기술공법, 새천년을 여는 최첨단 시설로 문화생활을 누리는 미래형 공간으로, 가구당 토지에 대한 지분율이 높아 주변의 아파트와 비교할 수 없는 재산적 가치가 내재해 있어, 3년 후면 차츰은 재산가치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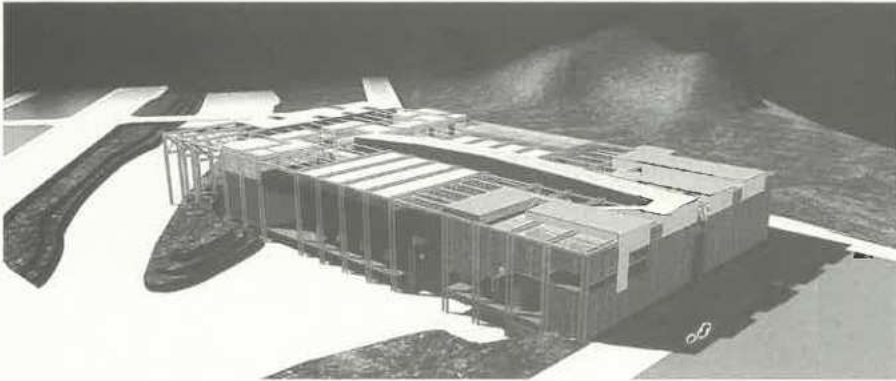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웅장한 모습. 출판도시는 월드컵 경기장, 통일동산, 헤이리 아트밸리, 임진각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는 등 남북통일의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관문으로서 발전은 무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문화활동의 중심으로 자리합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우수작 (3점)



(주)한메건축사 사무소(대표:이종기)



건축사사무소 이미건축(대표:류승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작품심사가 지난 9월 24일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당선작을 제외한 우수작 3점과 각각 5점 등 총 8점의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들 우수작 3점을 대상으로 설계의 보완을 통해 11월 안으로 당선작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는 호텔을 비롯, 국제회의장, 공연장, 전시실, 박물관, 정보센터, 연수원, 레스토랑 등 각종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동주거에 입주하는 우리 출판가족에게는 언제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단지 입주자들은 물론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서울시내 중심가와 대등한 수준 높은 전백선문화와 역사문화, 공연, 전시, 숙박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됩니다.



(주)시공문화건축사 사무소(대표:한희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정원에 우리 전통의 맥을 잇는 살림집의 원형이 들어섭니다.



2000년 3월 28일 한국 이진 상행사 풍경

출판도시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부지에 조경개념의 일환으로, 우리 고유 의 멋과 건축적 예술이 살아 숨쉬는 조선시대 한옥이 이전되었습니다. 한옥은 장유 김동수 씨 가족의 별채로 고전과 현대가 함께 어우러진 출판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과거에서부터 현대를 거쳐 미래를 잇는 출판도시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옥은 과거와 전통을 잇고 사는 우리들에게 잊혀진 우리의 옛 것에 대한 향수와 우리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일깨우는 귀중한 교육적 자료가 될 것이며, 특히 이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우리 온돌문화의 전형을 보여줄 것입니다.

11

열려진 도시공동체로서의 공동주택-설계의 개념을 말한다 ①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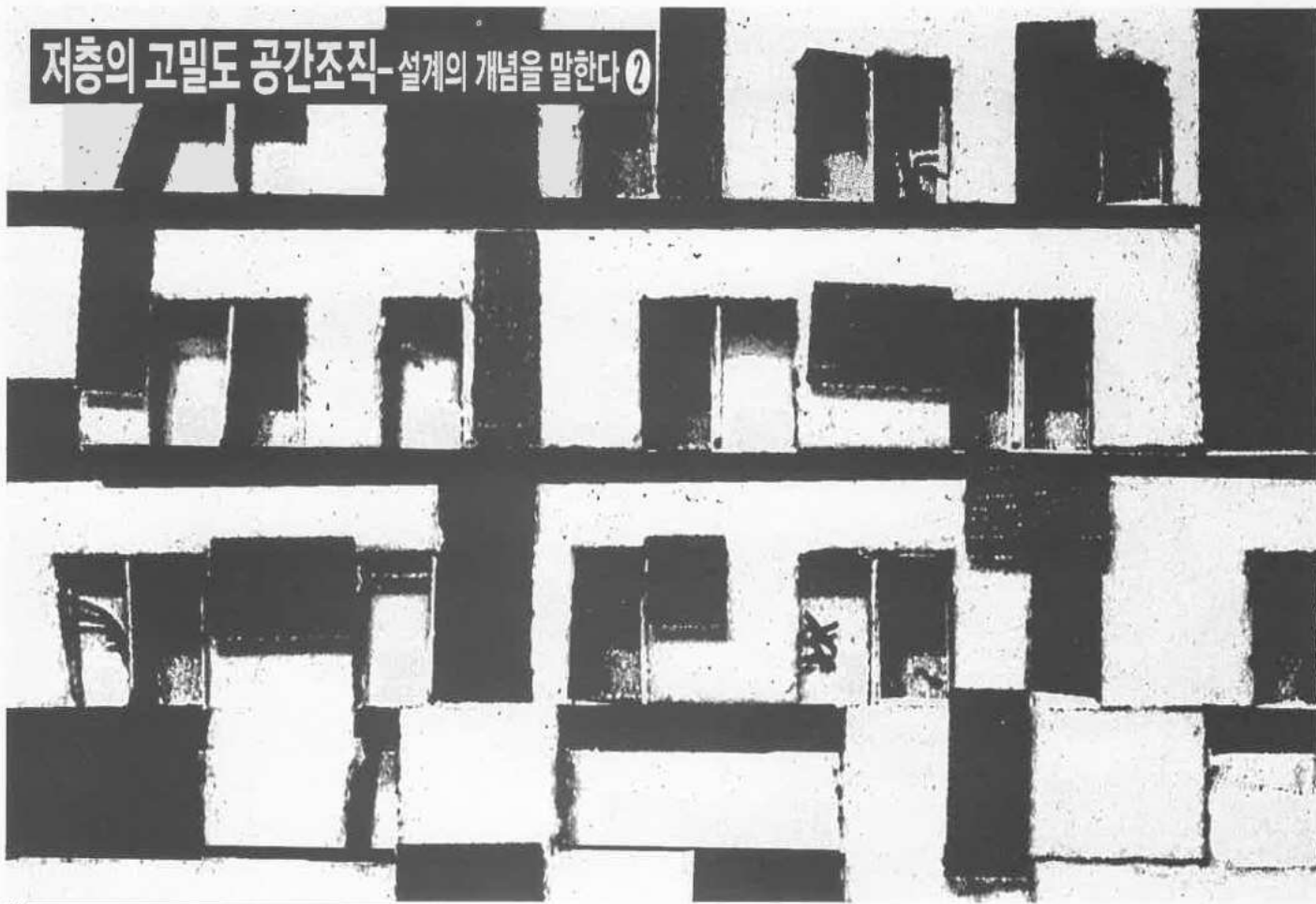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이 시대의 다양한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의 목표가 공동 주거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거는 도시 내에 별도로 구획된 자만의 성이 아니라 출판사, 인쇄소 등과 함께 호흡하는 열려진 도시 공동체로 계획될 것입니다.



0 100M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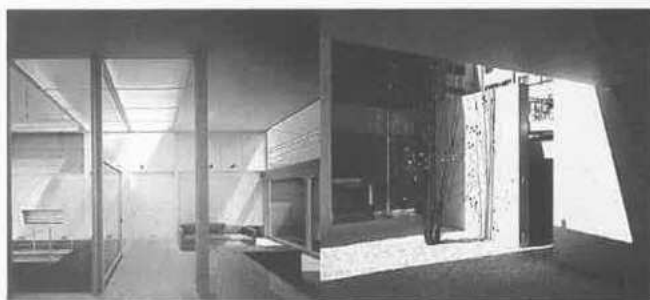
저층의 고밀도 공간조직-설계의 개념을 말한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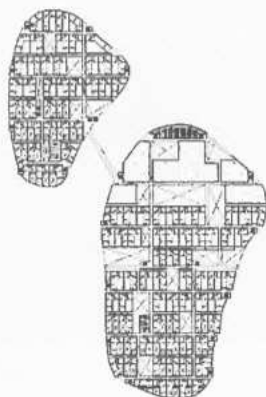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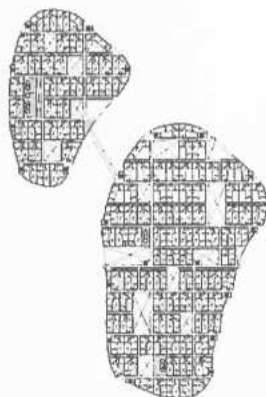
저층의 고밀도 공간 조직이 제안되었
습니다. 그것은 채워진 공간이기보
다는 비워진 공간이며 닫혀진 조직이
기보다는 열려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나 적용되는 익명의 완결된 형태이기보다는 출판도시와 닮아 있는, 상대적인 개성과 미완의 형태입니다.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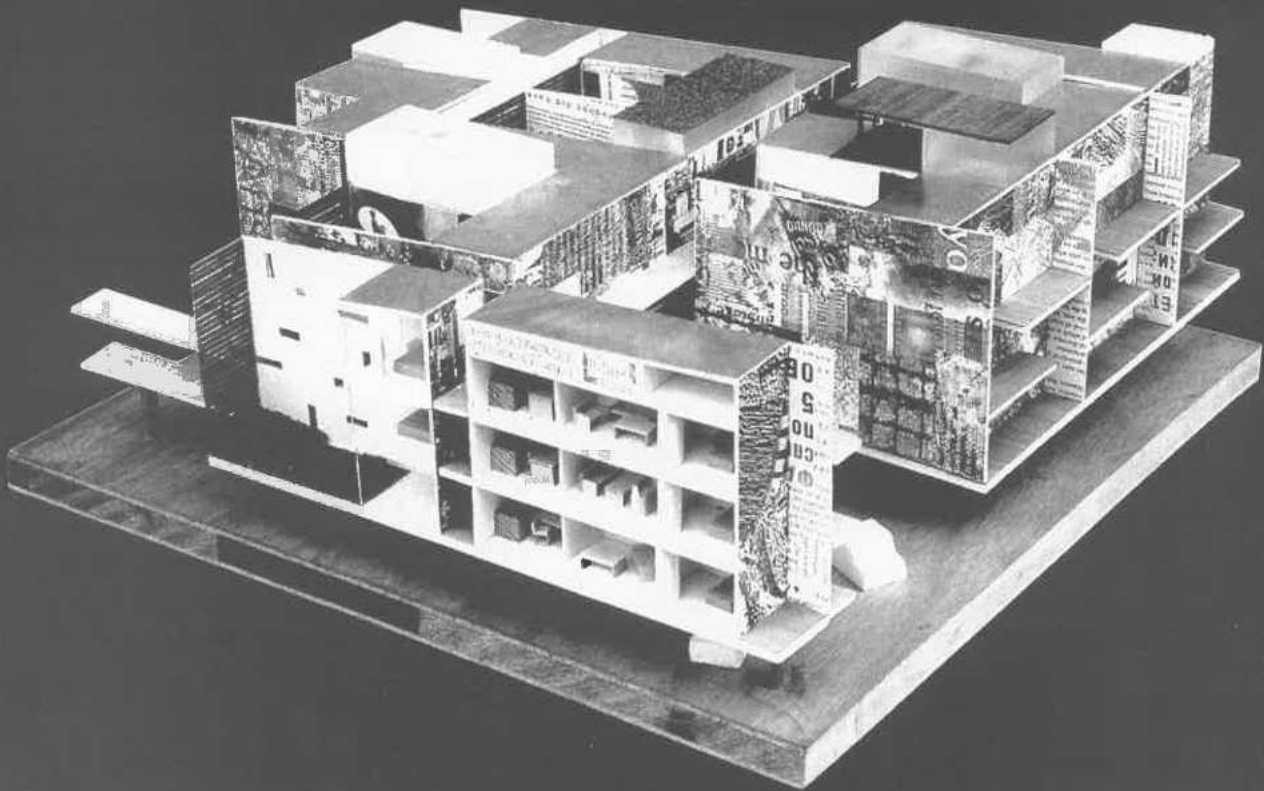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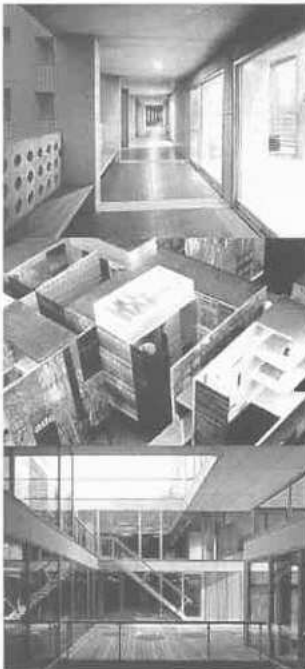


5층 평면도

오픈스페이스의 공동성 그리고 준비된 외부공간 - 설계의 개념을 말한다 ③



16



사방으로 연결된 복도와 군데군데 마련된 오픈 스페이스가 공동의 삶을 마련합니다. 개인의 공간을 넘어서는 같이 사는 삶의 터전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간이 중시될 것입니다. 공동주거란 결국 공동체를 위한 또 하나의 작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7

다양한 삶에 대응하는 가변의 공간-설계의 개념을 말한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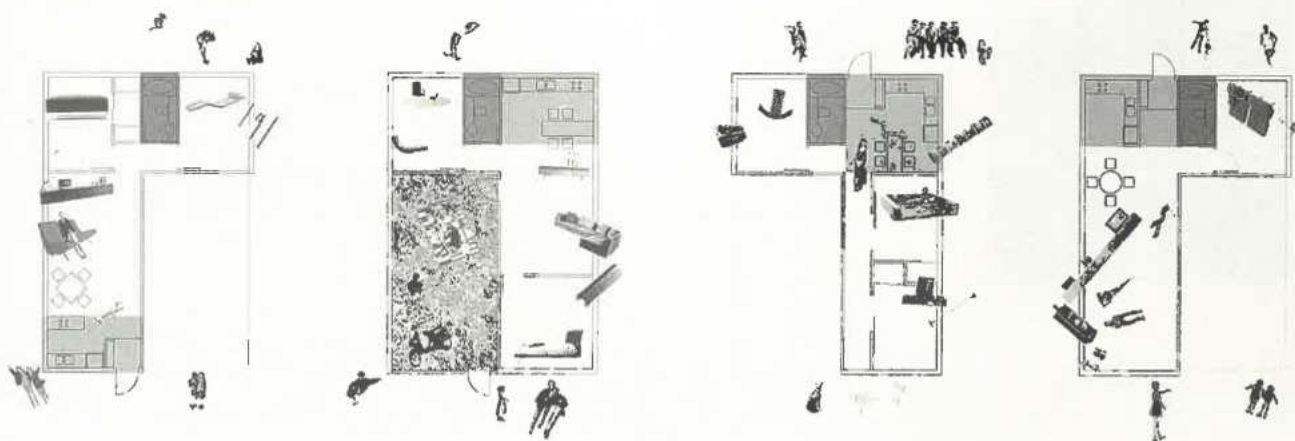


18



다양한 삶에 대응하는 가변의 단위 공간
이 제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독립된 마당
(1층), 여분의 테라스(2층), 높은 천장과

다락(3층)의 층별 특성 외에도 입구, 벽체, 가구 등의 특성으로 제한된 복제의 틀 내에서도 변화 가능한 삶의 유형이 제안된 것입니다.



19

출판도시에서 우리나라 공동주거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합니다. - 설계자의 말

우리의 공동주거는 1980년대 이후 완전히 획일화되고 있는 퇴행적인 상황입니다.

주거 공급의 대부분을 개인 기업이 담당하게 되고 부동산의 열풍이 시작된 사회적인 요인 탓이기도 하지만, 고밀도와 경제성의 요구에 합당한 다양한 주거의 유형이 제안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층의 판상형 주거유형과 대단위 개발의 주거유형만이 사회 시스템의 지지를 받으면서 살아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구의 집중과 밀도의 집적을 해결하기 위한 '고층건물과 오픈 스페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이었을 뿐 공동주거를 위한 수많은 논의가 무시된 시도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주거와 도시 문제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분절시키고 곳곳에 단절된 섬을 만든 주거 유형, 공동체의 삶이 생략된 건물과 녹지만의 주거 유형, 도심이건 작은 마을이건 어디에나 적용되



주택조합 창립총회에서 공동주택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김영준 이무재 소장.

는 고층 고밀의 획일적인 주거유형,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새로운 주거유형이 제안되어야 합니다.

이제 출판도시의 공동주거는, 직장과 가까이 있는, 그리고 밤에도 깨어있는 도시를 만드는 수단만이 아니라, 공동체 삶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수단이어야 합니다. 통신의 혁명과 생태환경의 변수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지금, 불분명한 시장의 논리에만 우리의 삶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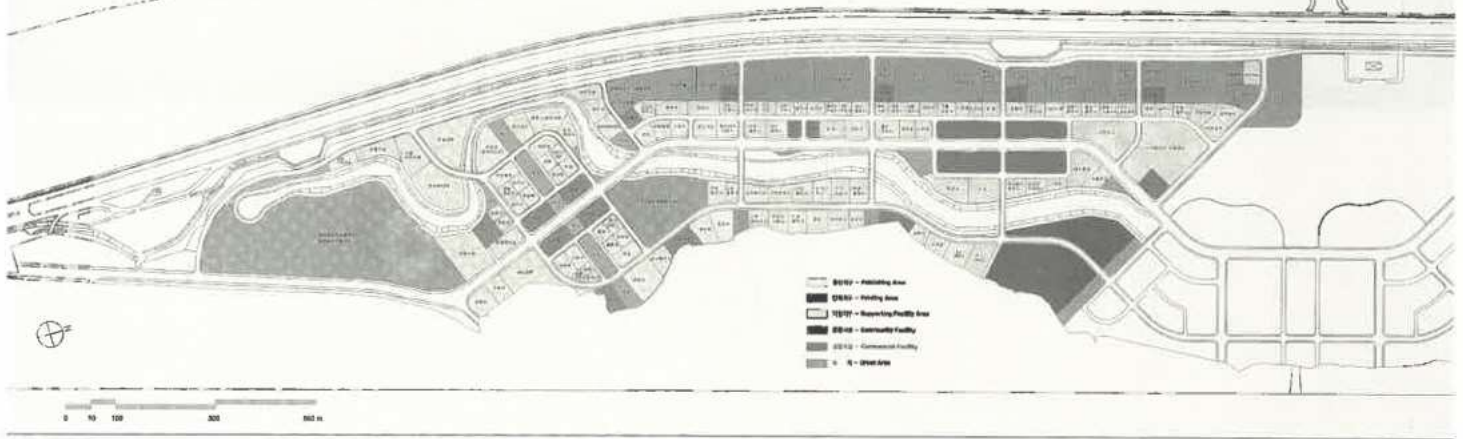
공동주거의 유형을 제시하는 일이 지적이고 비판적인 수준에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가장 평균적인, 우리의 도시를 이루는 공동의 이상을 제안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시대 출판도시에서 실현하려는 이상에 비급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과제입니다.

파주출판도시 필지 배정 확정 현황도
출판도시 산업 및 상업용지 분양 안내문
파주출판도시 섹터분할 현황도
파주출판도시 지질조사 시행계획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필지배정 확정 현황도

PAJU BOOK CITY FACILITY DISTRIBUTION MAP

우리는 이 한 장의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산업용지 분양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필지 배정 확정 현황도 및 분양안내를 2단계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내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양 대상은 1단계 구역 내 출판지구 367필, 823필과 828필(1,448필)으로 총합 1,638필 및 3단계와 인쇄지구 628필 1필지 등 총 4필지의 산업용지에 대한 이차적 분양 기회로 조달가능해 동시에 분양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 분양대상지구는 1단계(현행)의 산업용지로 수요조사결과를 통해 그로인 단지 개발에 참여하지 못했던 필 출판용지를 참여시킴으로써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안내는 국내 최초로 출판문화산업의 입지지를 통해 출판산업의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정책에 적극 부합하기 위해 필 출판관련 산업에 관련된 입주기회를 부여 하기 위한 우리 조합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이러한 필지의 공급하여 우리 조합에 가입되거나 입주할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분양예약을 가능하시어 2000년 9월 10일까지 우리 조합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

1.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출판산업단지내 종업원하는 저부담과 공제 부여
2. 자영로 문화정보의 중심축으로서 세계적인 출판도시 부각
(출판문화진흥법 제14조-출판단지-세이디비트출판-인간적)
3. 조성필자 공제에 따른 책정된 재산에 가치 보충
4. 인쇄부동산 지가의 3분의 1이치의 공공가격으로 판매의 부담 경감
5. "출판물 발행, 유통"에 대한 공공사업 실시의 전제로 개발 인주사의 부담 최소화
6. 출판산업단지내에 있어 출판산업단지로서 원경 친화적인 깨끗한 생태도시로 건설
7. 출판, 인쇄, 제책, 지류, 전자출판, 시정, 출판유통, 원상 정보 등 모든 출판관련 업종 입주 가능
8. 원 출판업계의 일체화로 출판비용 절감
9. 다양한 시설을 입주로 활용과세임을 통해 출판 책도 많이
10. 출판사들을 모아 남북한 교류의 전진기지 역할 수행.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필지배정 확정 현황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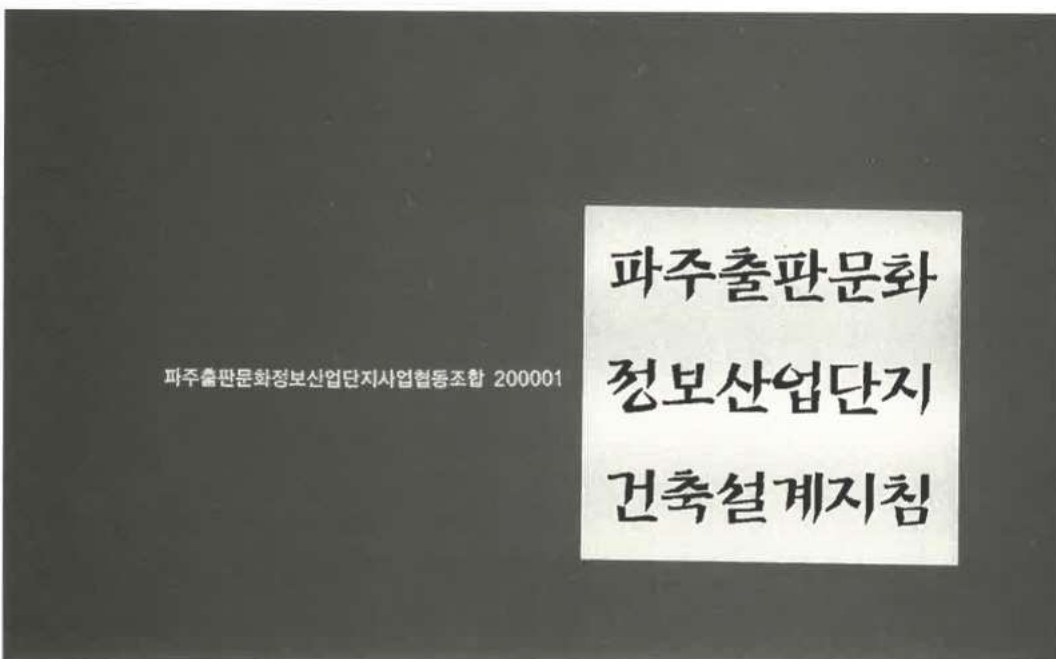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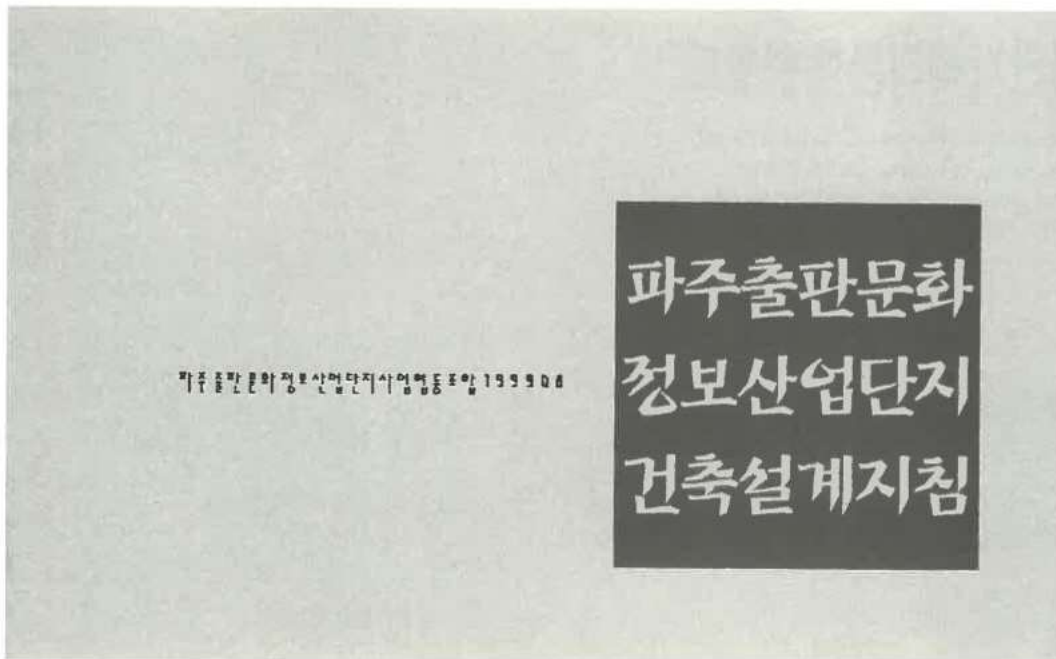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306 신남출판문화재단 관내 511-0008-8 팩스 511-0009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출판단지 인쇄동 관내 0327-3947-6019-6 팩스 942-6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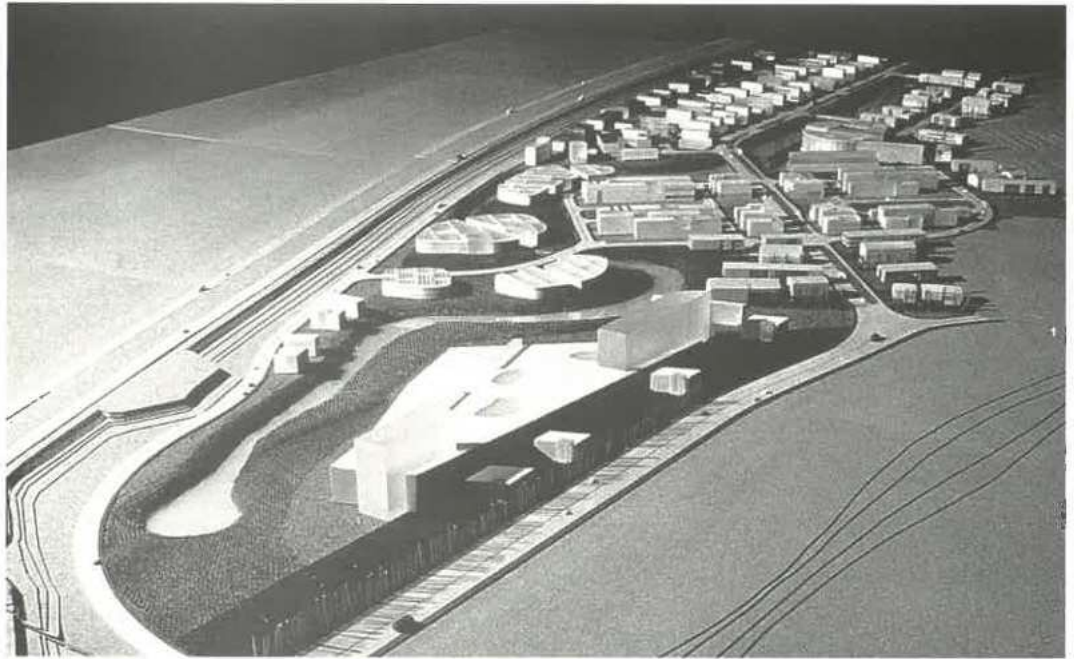
99

출판단지 건축설계 지침



출판단지 건축설계 지침은 출판단지 모든 건축에 적용되는
것으로 시범지구 건축지침에 2차지구 건축지침을 보완하여
두차례에 걸쳐 발간되었다.





● 명 칭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방리, 산남리, 서패리, 선촌리 일원

● 면 적 : 1,555,009 m² (470,390평)

1단계 : 822,519 m² (248,612평)

2단계 : 732,490 m² (221,578평)

●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 출판업,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영화 방송 및 기타 공연 관련산업, 출판유통업

● 시범단지면적 : 170,476 m² (51,569평)



④ 기본계획의 수용과 발전

1. 계획 목표

- 문화적 관습적 제약을 탈피
- 전통사회의 행위를 전통문화의 전통으로 해석해 탈신비화
- 역사, 문화, 예술 분야를 적극 도입함
- 사회적 책임지고 국제적 수요도 늘
- 사회적 책임하는 젊은이들 많아
- 문화적 다양성 인정, 다양성을 지닌 생활문화, 교육적, 문화적, 예술적 수용능력
- 교육적 및 경제적 잠재력 높여주는 기능
- 문화와 경제는 긴 호흡으로 추진한다
- 정부 고위층은 문화에 능숙한 리더가 될 필요도 교육적
- 사회적 고질 문제해결은 문화 기반의 접근

[illegible]

2. 계정의 목적

[illegible]

- 부인: 고인이 요새와 마찬가지로 항상
 - 부인과 함께있던 집안에서 항상 부인과 요새
 - 부인과 함께있던 집안에서 항상 부인과 요새
 - 부인과 함께있던 집안에서 항상 부인과 요새

2. 실험 계획 방법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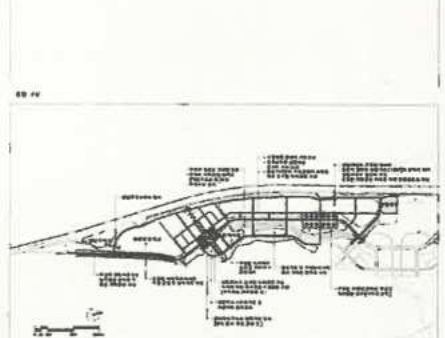
● 本書の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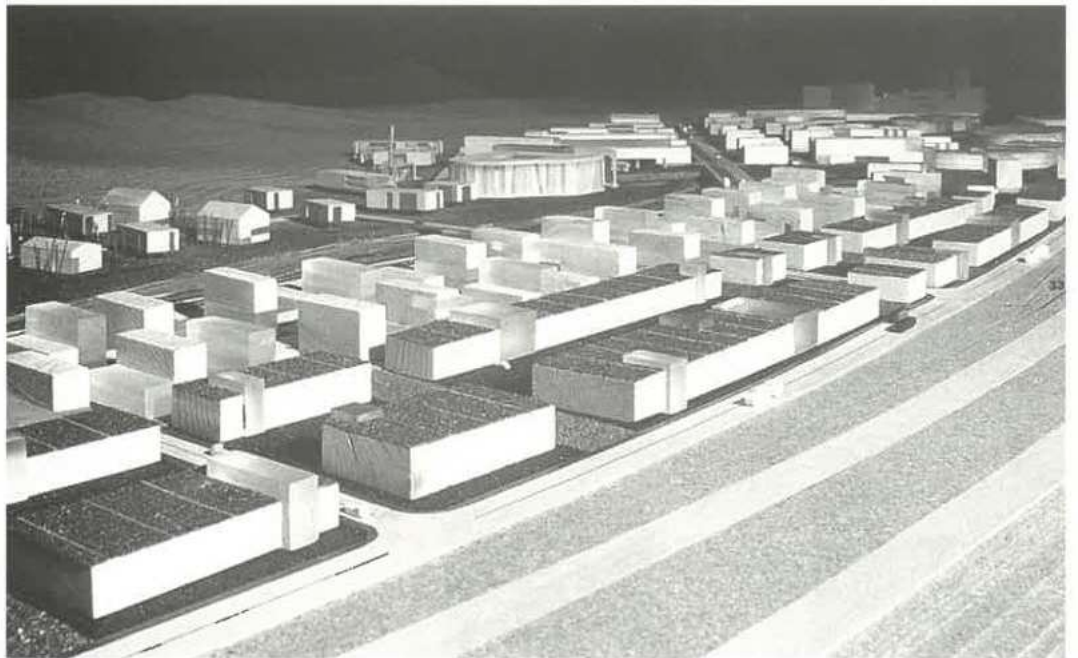
[illegible]

4. 「영양개선법」(2002. 12)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5. 「식품위생법」 제 104조 제 1항 제 2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속하는 식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는 2002. 12. 28. 제정된 「영양개선법」 제 10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위원회」는 2002. 12. 28. 제정된 「영양개선법」 제 10조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식품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illegible]

1000





휴식공간이 확보된다. 이는 단지 수공간뿐 아니라 수공간 주변이 각종행사나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공간은 단지 전체 수로주변의 지형특성, 위치, 조망 등에 따라 각각의 성격을 강화하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또한, 단지 내부뿐 아니라 자유로 통 외부에서의 조망 역시 수로와 그 주변의 습지 등의 자연요소로 펼쳐지므로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심리학적으 영향을 주게된다.

● 어떤 이점이 있는가?

• 수자원관리

습지의 식물 및 하부지층의 미생물 작용에 의해 물의 정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작용으로 인하여 각종 독성물질이나 폐기물이 동식물의 영양분 및 유용물질로 전환될 수 있다.

• 수위조절

갈수기의 가뭄, 경마철의 폭우 및 홍수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인공적인 조절이 아닌 습지에 의한 물의 흡수 및 배수에 따라 자연 스스로의 조절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관계수량, 용수, 용로수 확보

수로 및 습지가 만들어져 물의 정화 및 수위의 조절이 가능해지면 이들을 이용한 관계수의 공급, 단지 내에서 필요한 각종 용수의 확보, 나아가서는 생활용수로도 사용 가능하다.

• 지하수 공급의 보충

습지 주변대지의 수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될으로써 일년 내내 지하수의 이용이 가능해지므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 미생동식물 거주공간 확보

습지는 미생동식물에게 좋은 거주공간이 된다 특히 비주단지의 수로는 최귀한 일세의 서식지로 이용될 수 있다.

• 수공간에 의한 기온조절 효과

단지내 위치한 수로 및 습지는 계절에 따라 조절되는 수위에 따라 하절기에는 기온차로 기류를 발생하게 하여 기온조절 기능을 하게 된다.

• 레크레이션 공간 확보

수공간 및 수공간 주변의 공간은 단지내 거주자 및 방문자로 하여금 각종 행사 및 여가생활,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 미적 경관 확보

습지에 자생하는 갈대밭과 수로의 수공간은 훌륭한 경관이 된다. 이는 단지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게 된다.

22 규격의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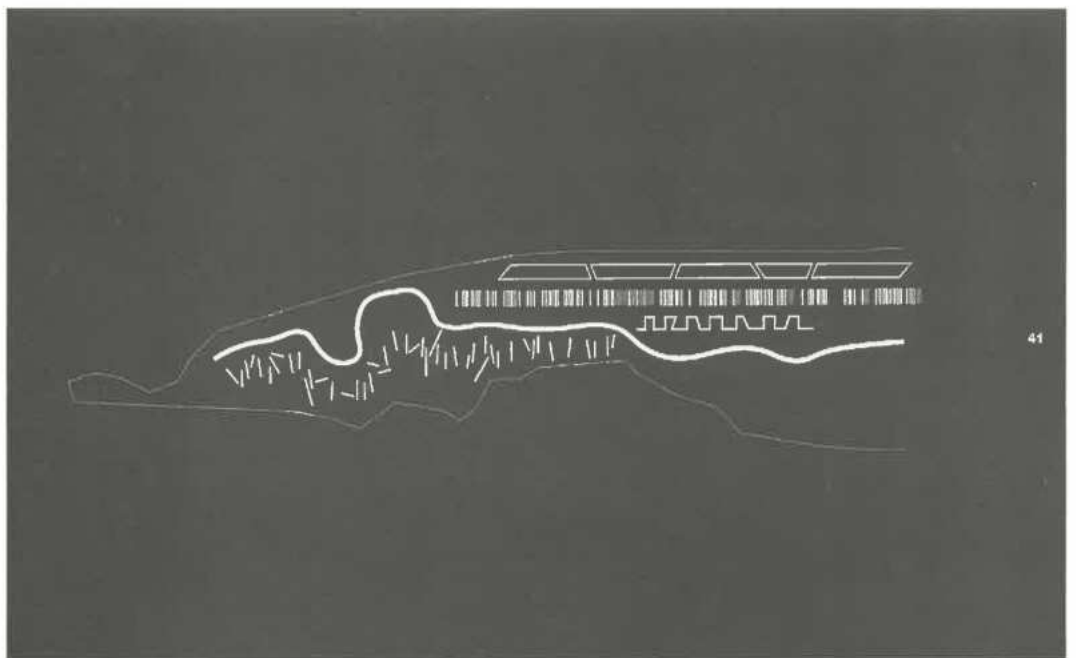
이러한 랜드스케이프의 거시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형적 형상과 공간의 성격에 따라 평면적인 4가지의 선line과 수직적인 5가지의 위상 topo를 상징한다

■선1 고속도로 그림자highway shadow : 공경, 부분적으로 잔디의 지평을 가지는 2열의 띠형 건물, 높이 8m

■선2 서가유형bookshelf units : 출판사, 도로에 면한 부분은 반지하에 주차장을 가지는 중정형 건물이며, 그것의 상부에 강으로의 조망을 확보한 자연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건물, 높이 15m

■선3 중추부 건물spine units : 출판사, 고밀도의 중정형 건물, 높이 15m

■선4 수변 건물canal lofts : 출판사, 운하변의 작업건물canal wharf building 같은 건물로 얇은 경사지형을 가진다. 폭 9m이하의 좁고 긴 건물, 자연채광과 통풍수로와 실화선으로 양면이 열린다. 그사이 격간으로 주차장, 높이 가능한 15m 이하



기존 습지 생태지형의 보존과 부지의 성토에 의한 대지의 건조에 관한 토론

- 단지의 몇 영역들은 현재 배수를 담당하는 수로와 그의 지류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특징지어져 있다. 이 배수체계는 갈대군락, 야생 초, 그리고 물과 관련된 것 등이 넓게 퍼진 저습지 wetlands로 조성되어 왔다. 이 수로는 낚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조류와 곤충들의 생태 또한 이러한 조건을 잘 보조하며 지원하고 있다.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다면 높은 가치의 생태지형 biotopes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생태지형의 더욱 상세한 생태적 조사, 기록 mapping은 파주 도시 랜드스케이프 urban landscape의 건축적 성격을 규정하고 계획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개발의 편의성을 위하여 땅을 건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성토작업이 진행중이며 이로 인하여 습지는 지금 위험을 받고 있다. 아직 성토작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토계획은 재고되어 그 진행이 잘 다들어 질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현재상태에서 성토작업이 단계별로 되어 질 수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 변경되어 질 수 있는지 등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지만, 우리는 이 습지에 조심스럽게 성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성토전략이 충분히 선택적이어도 좋겠다고 생각한다.



- 1단계 단지를 위한 랜드스케이프 초기 전략은 몇몇의 영역들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 영역들이란 각각 영역의 랜드스케이프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것과 밀접하여, 미리 문명지워진 것들같이 보여진다.

- 수로로 뿔어나가는 유흥센터구역의 서측과 북측 지역
- 수로의 사행으로 생겨난 반도지역과 그 건너편의 동편 쪽
- '도시의 섬 urban island'의 서측 지역

- 수로의 사행이 무뎠던 평은 지역들 중 하나로 현재 수로는 못을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시설인 아시아경보문화센터의 예정지이다.
- 전 도시체계를 가로지르는 '랜드스케이프 복도 landscape corridors'로 제안된 부분, 그것은 실향산으로부터 한강에 이르는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다.

- 대체적으로 보아 단지의 1단계 지역에서 갈대군락으로 덮인 오픈 스페이스는 수로가 사행해 가는 단지의 남측 끝 부분과 수로의 뚝을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가능한 성토되지 말아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속도 measure로 길대들의 성장은 강화될 것이다.

- 여기서 우리는 폴 클레 Paul Klee의 그림들을 마음에 떠올리게 되는데, 그는 랜드스케이프의 움직임을 묘사하는 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 중 한 특별한 작품 'N6-도시들의 책에서 뽑아낸 한 페이지 N6-a page out of the book of cities'라는 제목의 그림을 상기해본다.
- 폴 클레의 그림 '1928, N6 ein Blatt aus dem Städtebuch N6 도시들의 책으로부터의 뽑아낸 한 페이지'는 하나의 경전이다. 도시 요소들의 표이며, 직물 또는 직물의 짜임새와도 유사하다. 그림의 바탕은 흰 명판을 나타내고 있다. 이 명판의 아래 부분에는 그림의 제목이 새겨져 있고 클레가 서명하고 있다. 낱장인 한 페이지는 흰 위에 올려놓은 앙피지 같다. 낱장의 삼분의 일 상부는 위의 하늘 선과 아래의 수평선을 가진 추상화된 태양으로 표시된 장의 시그널이다. 그 아래 상황문자의 텍스트가 낱장의 하단까지 이어져 있다. 이것은 전개된 하나의 도시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 상황문자 pictograms같은 어떤 때는 붙어서, 어떤 때는 벌어뜨려서 그어놓은 수평선을 하나의 시리즈 안에 배열되어 있으며 그리고 선들 안에도 상황문자들을 붙여 놓기도 하고 벌어뜨려 놓기도 한다. 고도의 형태의 반목으로 이루는 절감에 기본적인 패턴이 있다. 어떤 선들은 변형된 기본유형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



- 이 낱장을 하나의 도시라고 본다면 그림 속의 상황문자들과 건축의 유형과를 연계시킬 수 있겠다. 이것은 세련되고 풍부한 검지시선이다. 이것은 도시의 흥미로운 제한이다. 이것은 읽기와 쓰기 이전의 시대의 감각을 환기시킨다. 문명의 기록 또는 도시의 기록은 부시도적으로 묘사된 그림으로 만들어진다기 보다 쓰여진다고 볼 수 있다.
- 이 낱장은 도시의 유일한 기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권의 책에서 뽑아낸 한 페이지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은 제목에서 'N6'라는 숫자에 의해 표기되어 있음을 보아 알 수 있다. 이 그림은 어떤 관점에서 특성들의 집합체와도 같이, 복합적 공평 또는 평등성의 아이디어를 전해주기도 한다. 그것은 또한 어떤 표현성을 제한하기도하며 또한 그것은 강한 상대성을 축약하기도 한다.
- 여기 제안된 파주출판단지의 계획은 이 그림과 여러 점에서 닮아 있다. 비슷하게도, 이것은 위에서 기술한 대로 랜드스케이프 쓰기 landscape script란 점에서 유사하다. 도로, 하부구조 등 모든 계획의 도큐먼트들이 경도방향의 선들에 첨가되어 있다.
-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주출판단지 유형의 선들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허이웨이의 그늘아래 녹지의 자를 가진 공장들의 선(선1/고속도로 그림자), 출판거리를 구성하는 출판사 건물들의 선(선2/서가 유형), 쓰기의 종추부에 자리잡고 있는 고밀도의 중점형 출판사

A group of publishers of the association will have visited the island of Honbreich in Germany. They will perhaps remember the landscape carpets of this site. The strategy outline above will generate a character similar to the island on parts of the Paju site.

Paju landscape script - generating the form of the city landscape

On reading the large landscape from the mountain in Paju one cannot escape the phenomenon of its longitudinality and its N-S linearity. Reading the lines from the top to the bottom the furthest line is the mountain range on the west side of the river. Below is the line of the west bank. In the middle of the river are some discontinuous lines slightly shifted against each other of sand banks at low tide. There is the line of the east bank of the river. The motorway is signalled by the long dark band of the east embankment in the shadow and by the rhythm of the very fine lighting masts. The low land of the Paju site is structured by the shorter lines, also in N-S direction of agricultural detentions and former flooding defensive banks.

The 2 sinuous lines moving across this pattern of more or less parallel lines at different intervals are the winding line of the watercourse on the site and the line of the foot of the mountain. Paintings and drawings of Paul Klee come to mind, who has created many pieces that could be described as depicting movement across landscape. One is reminded of one piece in particular, which has the title 'N6 - a page out of the book of cities'.

Paul Klee's painting '1928, N6 am Blatt aus dem Städtebuch', (N6 - a Leaf from the book of Cities, 1928) is a scripture. It is a tabulation of city elements, similar to a textile, a texture. The ground of the painting appears to be a stone tablet. At the bottom of this tablet, the title of the painting is inscribed and signed by Klee. The leaf appears to be a parchment laid on this stone. The top third of the leaf has a kind of chapter signum which could be an abstracted sun with a strip of sky above and a horizon below. Below this is a text of pictograms continuing to the bottom of the leaf. It consists of an evolving city typology. The pictograms are arranged in a series of horizontal lines sometimes attached, sometimes detached, and there are detached pictograms and attached pictograms within the lines. There are basic patterns in variations. It is possible to associate building typologies with the pictograms. It is a sophisticated and rich com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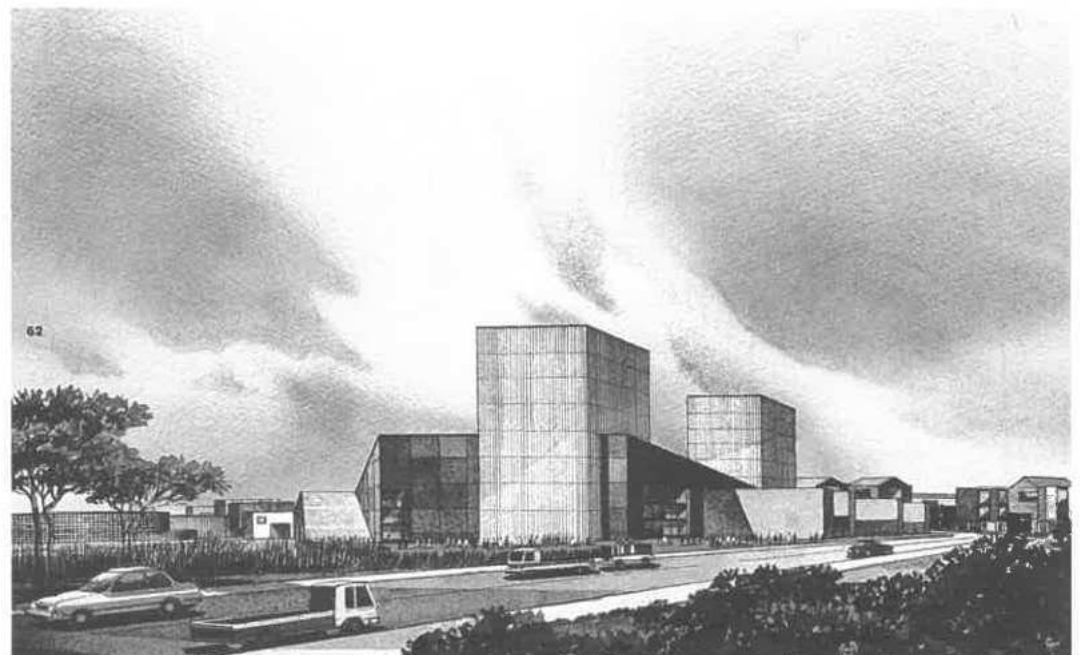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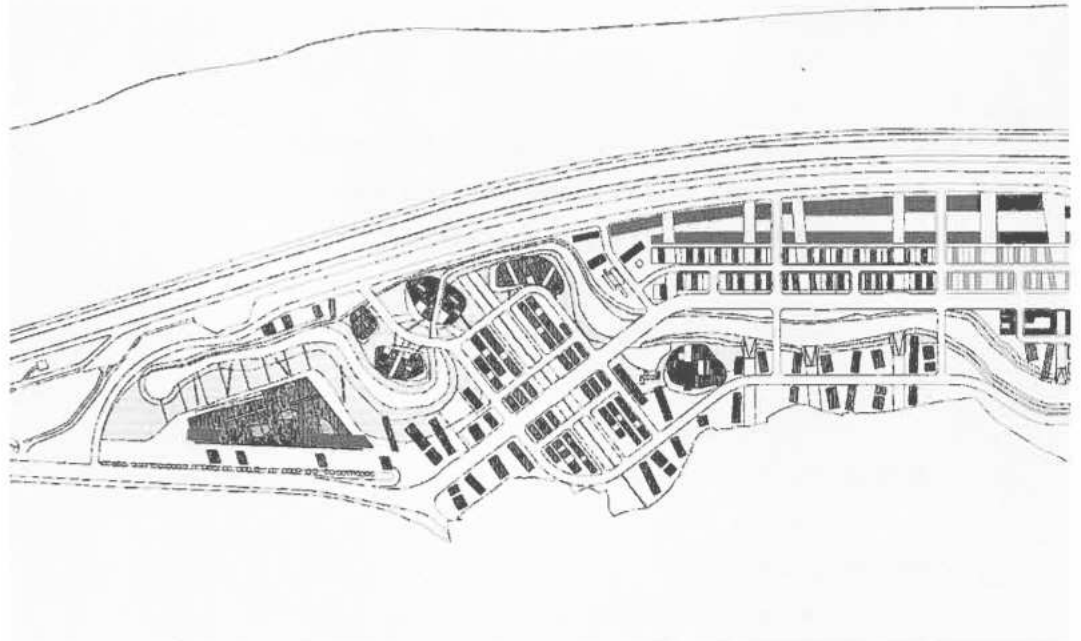
This is an interesting representation of the city. It evokes a sense of a time before literacy and writing. A record of a civilisation, or the city, is written down rather than made into a picture as in a perspective description. This leaf is not a finite description of the city, because it is only one page out of a book, a fact signalled by the number 'N6' in the title. The painting somehow conveys an idea of a complex evenness and equality, like a group of characters. It also suggests a certain exchangeability and it encapsulates a strong sense of rela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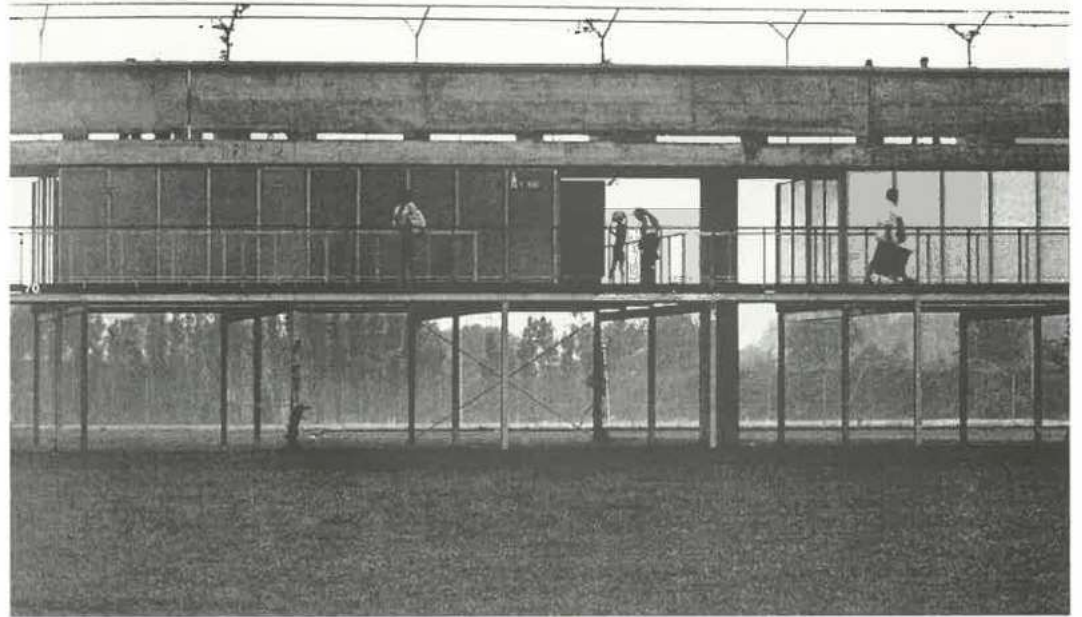
The proposed plan of Paju Book City has some resemblance with this painting. Similarly it resembles a script in the landscape as described above, the lines of the road infrastructure of the planning document having been added to the set of longitudinal lines. Reading the lines of Paju city typologies from the top to the bottom there are the lines of the factories with green roofs in the shadow of the highway, the lines of publishing houses constituting the publishing street ('bookshelf typology'), the line of the high-density courtyard and publishing houses constituting the spine of the script and the sinuous line of publishing houses on the east bank of the water channel, all having an oblique view of it.

The characters of these lines are sufficiently spaced apart to generate an East West transparency. In reality this means the interval spaces between buildings facilitate local views of the river and of the mountain. A pattern of East West public voids (landscape corridors) connect the pattern of parallel lines across and facilitate the river and the mountain views at a more public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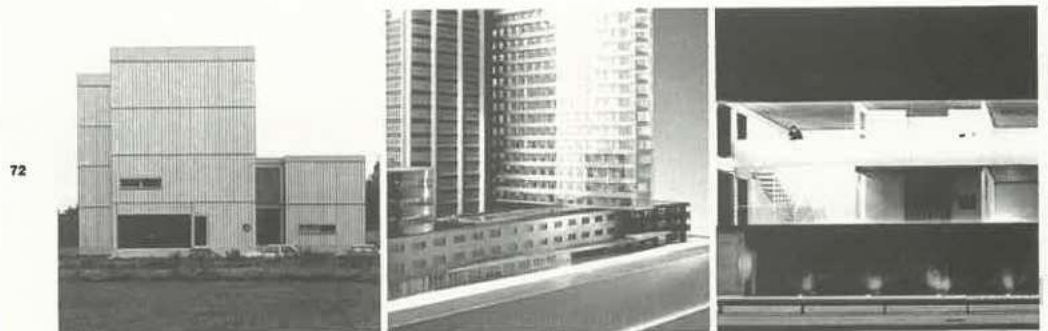
The mountain forming a focus from many points in the Paju City fabric and providing a viewing point, being situated quite close to the long lines has obviously lead the planners to overlay the limiting lines of a viewing angle over the pattern of longitudinal lines. These viewing angles lines have generated the angular geometry of the road infrastructure. The proposed plan acknowledges this geometry in form of the 'urban island' pattern in the South and the idea of the pond terraces in the North.

Prof. Florian Beigel, Architect
18 June 99





생산 공장, 폭 18m 내외의 대형linear의 건물이 작업장을 사이에 두고 2열로 놓인다. 앞은 경사의 지붕은 일부가 잔디 등으로 덮일 수도 있다. 벽식 건물wall type, 최고 높이 8m, 2층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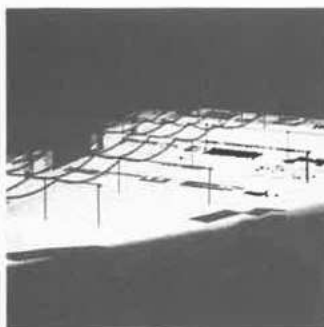
출판사, 높이 8m이하 2층 이하의 하층부는 도로 또는 내부의 수로와 연계되고, 높이 8m 이상의 상층부는 현강과 연계되어 강으로의 조망 이 확보된다. 반지하의 공간에 주차장, 벽식 유형, 거점 유형, 최고높이 15m

76



출판사, 상업시설, 폭 9m-12m의 좁고 긴 건물이 폭 5m-7m의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병렬배열, 편상형 건물의 일부는 필로티, 공동정원 등으로 겹쳐서 서로 투시되고 연결된다. 공간적 연결 브릿지, 최고높이 15m, 4층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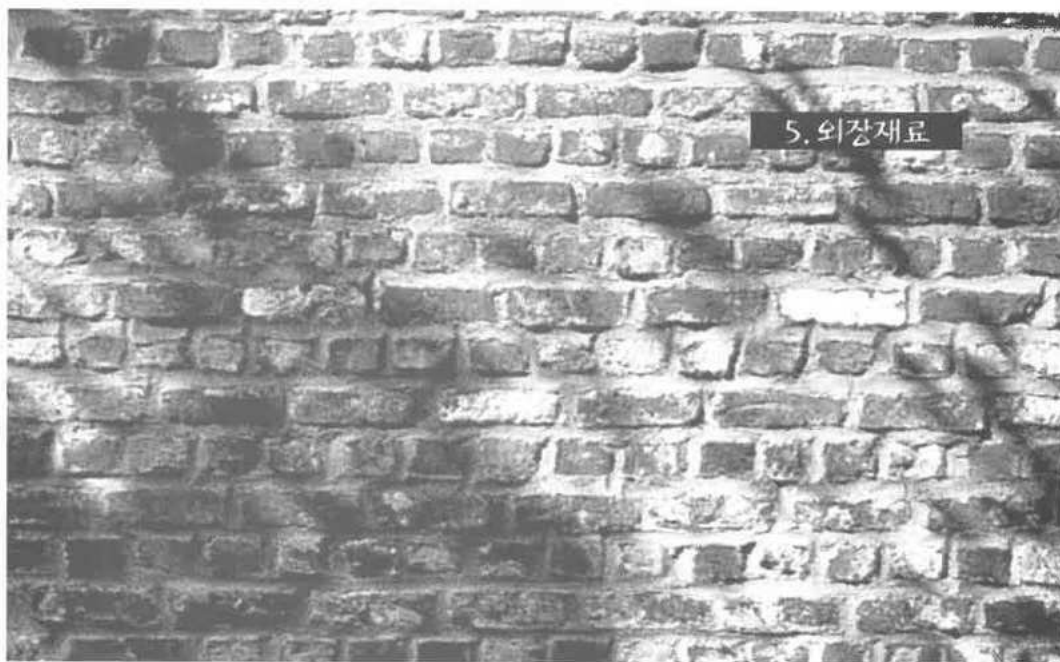
hll 일덕



77

유통센터 부지의 형상을 따라 이형의 사다리꼴 평면을 가지고 6m-18m에 이르는 경사진 언덕형상의 거대한 배트의 지붕, 아생초의 매트 아래 광대한 공간의 확보, 최고높이 3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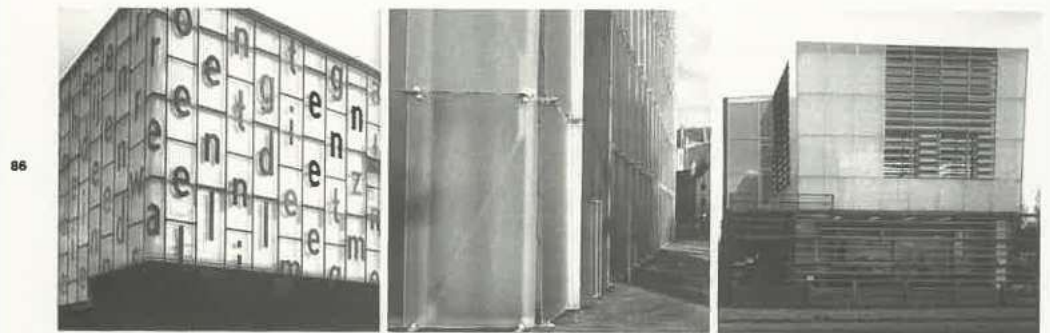
5. 외장재료





85

공장생산 콘크리트 판, 유색편을 제작할 수도 있음, 조합을 권장하는 재료 : 유리, 목재, 내후성 강판



86

반투명의 단순한 우수막rain screen으로서의 유리판, 후부의 벽과 함께 이중벽double skin을 만든다



87

자연산 목재natural timber, 아연판 · 기타 금속재

지표수관리

파주출판단지의 지표수치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는 다음 세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땅위와 흐르는 빗물의 일원으로 다루는 자연
조경 기술
 - 잠마실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람의 피해 최소화
 - 지표에 깨끗한 물을 유지하는 수처리 제안
- 배수시스템은 땅마개의 갈수기의 수위, 산의 측면
에서 흐르는 맑은 시냇물, 강의 영향에 의한 지표
수의 제법면적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자연으로서의 조경

도시의 대부분은 자연배수용 위에 건설된다. 이로
인해 배수성에 의해 물이 스며들게 되어 대지 내
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붕과 지표로 스며들 수 없는 지표수들의 처리가

요구된다. 이를 모아서 여러 용도로, 예를 들면 세
차나 향문되기 등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의 깨끗함 정도이다. 빗물
은 정화처리없이 마실 수 없는 그레이 워터이다.
이는 간단한 과정을 거치면 목욕, 주방 등에서 사
용할 수 있다. 이 물은 땅에 물을 채우거나 청소
등에 사용될 수 있다. 불쾌취는 하수인데 본질
적인 처리가 요구된다.

• 지붕의 물처리

지붕 상부의 물은 일반적으로 깨끗하다. 선출물을
통해 저장탱크로 모아 위에서 기술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하지만 갈수기 이후 오랜만에 내리는
빗물에는 지붕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경
장 양동어와 같은 간단한 정치를 이용하여 분리,
배출시킨다. 파주출판단지의 많은 건물들의 지붕
은 녹색공간으로 덮인다. 이 지붕 위의 초목은 이
러한 오염 물을 걸러 주게 된다. 또한 더욱 중요

한 것은 이러한 녹색공간의 지붕이 물을 함유할
수 있으므로 장마철 물의 배수율을 낮출 수 있
는 점이다. 물을 두고 있는 지붕의 면적이 크면
물수록 땅의 물과 건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
지 공급할 수 있다. 또한 루프드레인이 있으면 수
로나 습지에 직접 물을 공급할 수 있다.

• 흙수물이 적은 비록표면의 지표수

흙수물이 적은 재료의 바닥표면은 도시 지표수 중
의 많은 양을 공급한다. 이러한 호르는 지표수의
많은 다공질의 표면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 충분
히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모래석인 세석 포장
은 대지내 도로와 주차장의 바닥에 사용할 수 있
다. 지표상의 물은 이러한 재료들을 통과하여 하
부층에 도달하게 된다. 허무송은 저수층의 역할을
하게 되어 비가 많이 오는 경우 허무송에 침투 과
이프를 통해 습지표 물을 보내게 된다. 지표수는
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기름이나 기타 물질로 인한



여 오염이 되도록 별도의 처리가 없으면 이 오염
물들의 유독성이 수로 인의 침전물로 물이거서
수생생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습지와 갈대
밭 시스템은 길의 지표수를 정화시킬 수 있다. 하
지만 주차공간이나 유통지역은 특별히 오염의 위
험이 크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지표수가 습지
로 가기 전의 위치에 기술된 트랩을 만들고 갈대
밭에 보내야 한다.

• 습지

지표수는 습지를 통해서 수로와 갈대지역으로 이
동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파주 단지의 습지
는 갈가와 보행로 가장자리에서 위치한다. 이들은
녹지대를 통해 갈대지역의 수처리 시스템으로 연
결된다. 육자 습지는 분해되거나 경계로 나뉘어지
지 않고 전지로 처리됨을 기본으로 한다. 전지의
높이는 150mm를 유지하도록 한다. 습지는 아주
작은 경사를 가지도록 한다. 빗물의 양에 대한 상

세한 검토 후 습지의 깊이와 넓이에 대해 고려해
야 한다.

• 습지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물의 침투를 방지한다. 물을 두고 정화하면서 재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를 만들어 허무 토양으로
공급한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많은 수
분이 침투한다.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 습지는 충
분한 물을 보유하게 되고 수로와 갈대지역으로
물을 공급한다.
- 그레이 워터의 불순물을 정화한다. 오염물 제거는
석물, 토양, 토양층 속에 있는 유기체의 미생물 분
해작용으로 인해 정화작용이 이루어진다.
- 습지는 식물을 위해 풍부한 영양공급 역할을 한
다. 만일 나무를 습지에 심는다면 더금 물이 들어
서 부식도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또한 물을 흡수
하거나 저장하는 능력을 키운다. 또한 습지는 인
공적인 산호, 파이프, 하수구, 도랑 등과 같은 방

법에 비해 단순하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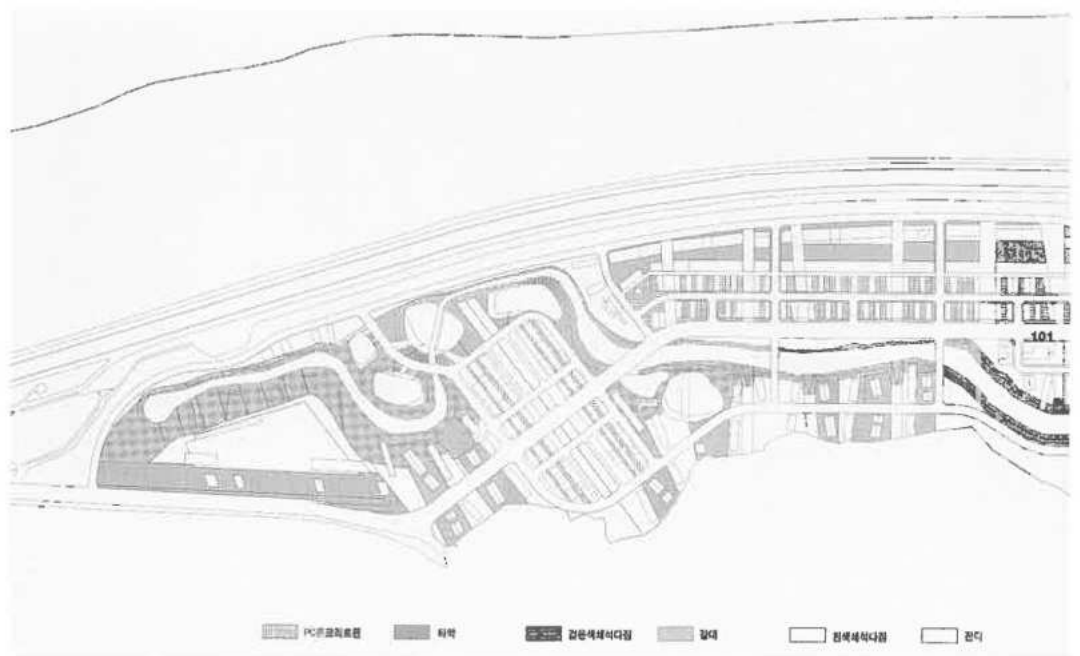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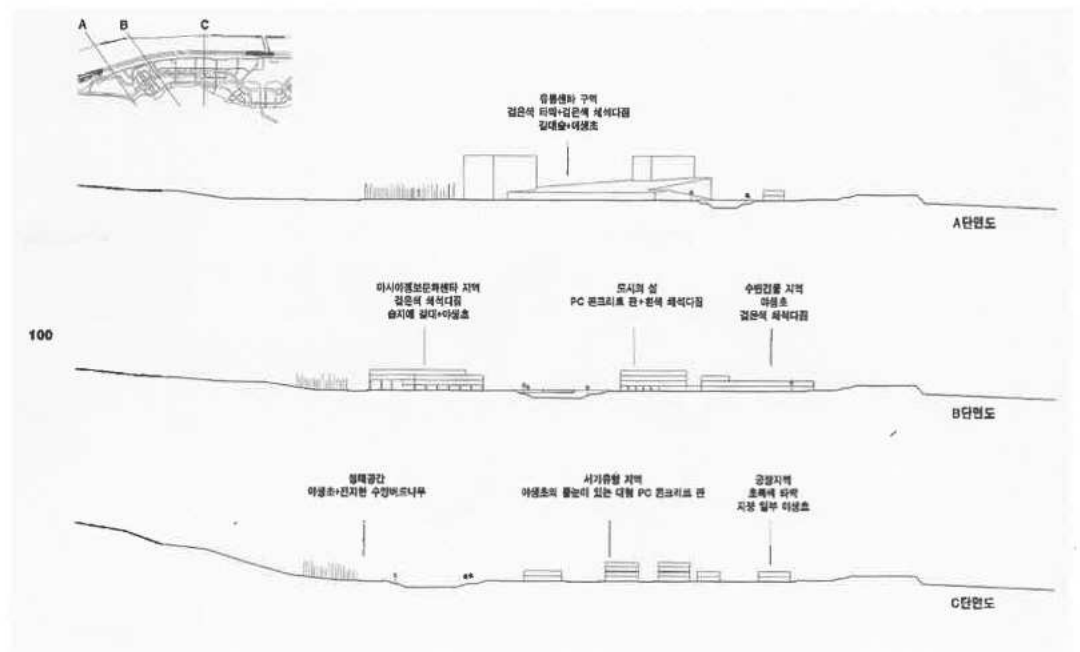
• 프렌치 드레인

파주단지의 경우 충분한 공간이 부족하여 습지조
성이 불가능한 곳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프렌치
드레인 설치물 대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는 배
수가 가능한 파이프를 매설한 채석층을 저장하는
것으로 습지와 동일한 작용을 한다. 하지만 파이프
를 통한 지표면의 불순물로 막히지 않을 수 있다.

• 지표수 수로

산의 측면에서 출판단지내로 유입되는 정화물 도
함한 수로에 의해 물길이 만들어진다. 갈대지역
에 근접한 수로는 갈대식물들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의 공급역할을 한다.

Jonathan Cook, Landscape Architect
August 1999



64 식재계획

● 유효 토심의 확보

성토에 의해 조성된 단지 기반 층이 파쇄암을 주재료로 사용하며, 과도한 물 침투에 의해 지표면이 건조해지고 비속도가 낮아 수목생육에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녹지 조성부는 평균 1.5m, 개별대지는 1.0m이상의 양질 토심을 확보하여야 한다.

● 관수시설 설치

토양의 과도한 투수 및 모세관수 차단에 의한 건조를 감안하여 가로수와 잔디밭에 관수시설을 고려한다.

● 수종선정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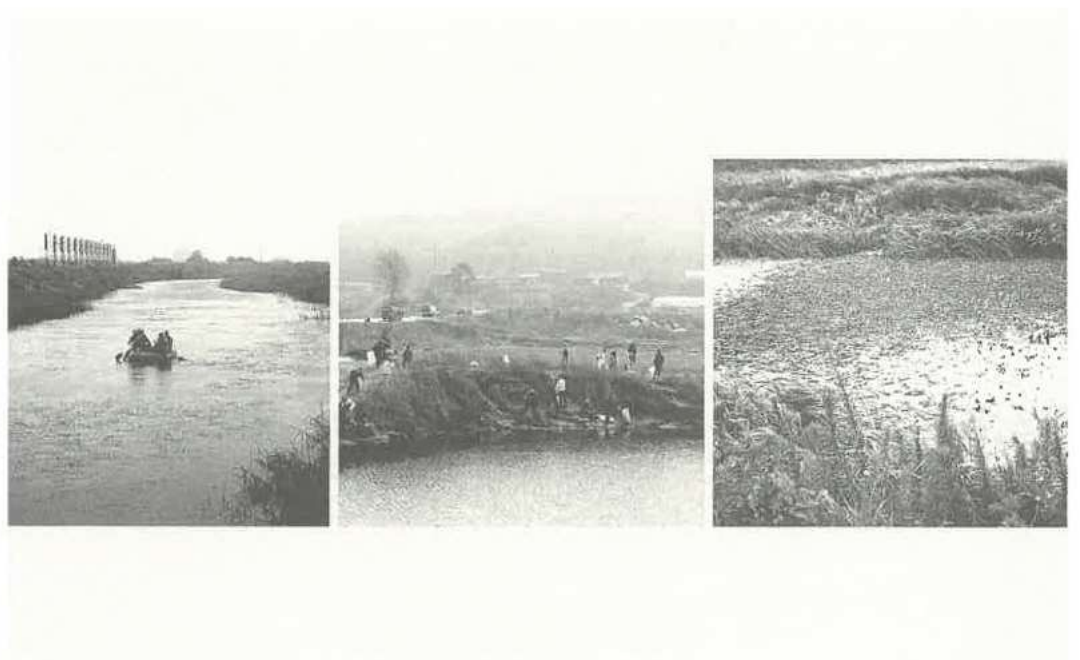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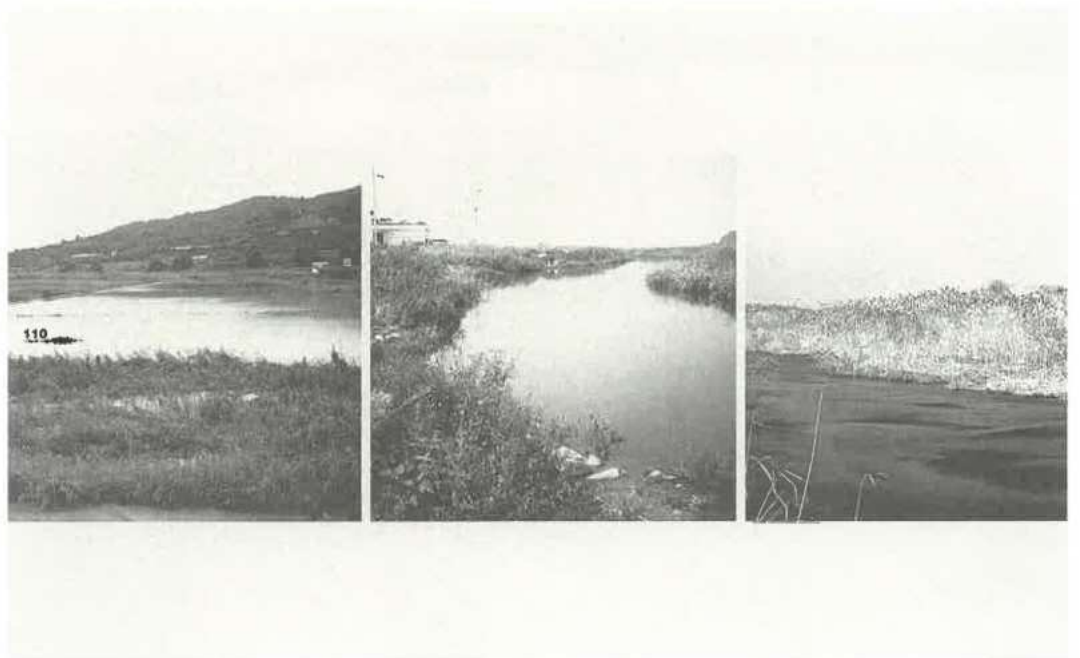
- 지역기후에 적합한 장토 수종(외래 수종 배제)을 선택한다.
- 습관·문화의 단지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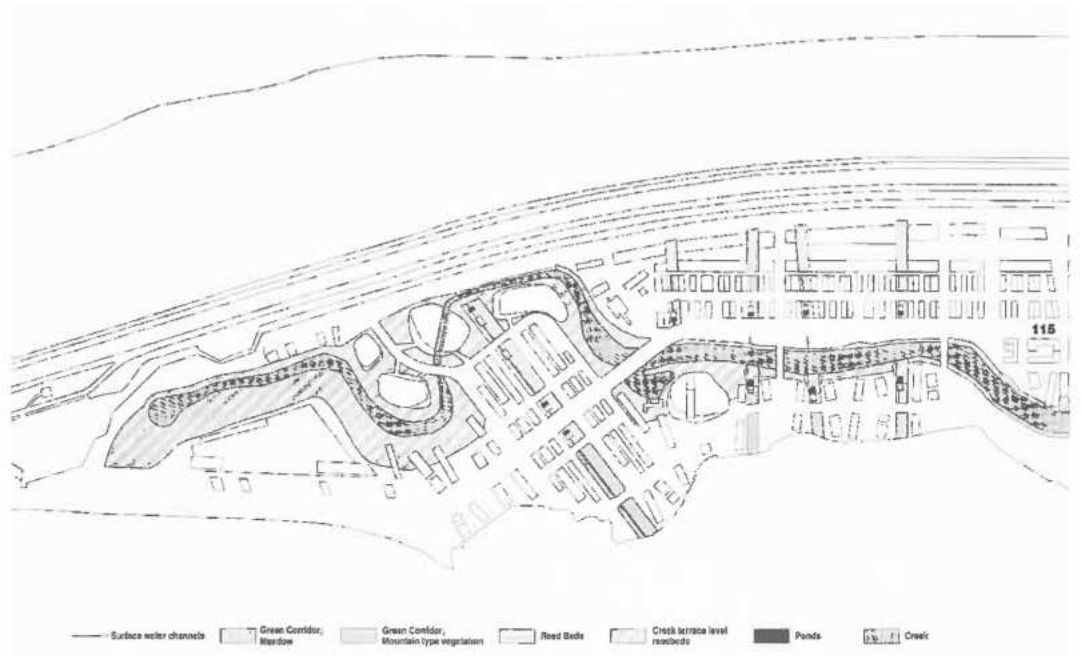
- 일대·꽃이 있어 생태녹지조성에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한다.

- 병충해에 강하고 유지관리가 용이 해야 한다.

● 선정수종

- 가로수 / 회화나무, 은행나무, 계수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 경관녹지(신록부) / 소나무, 참나무,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 경관녹지(초지부) / 잔디, 클로버
- 수로변녹지 / 버드나무, 낙우송, 떡갈나무, 모감주나무, 단풍나무, 산벚나무, 은행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 완충녹지 / 잣나무, 측백나무, 청단풍, 중국단풍, 마가목
- 관목류 / 철쭉, 장미, 화살나무, 개쉬나무, 고령나무, 조팝나무
- 지피초화류 / 갈대, 부들, 꽃참깨, 원추리, 발개미취, 맥문동, 인동넝쿨





81. 구조계획

● 지층의 현황 및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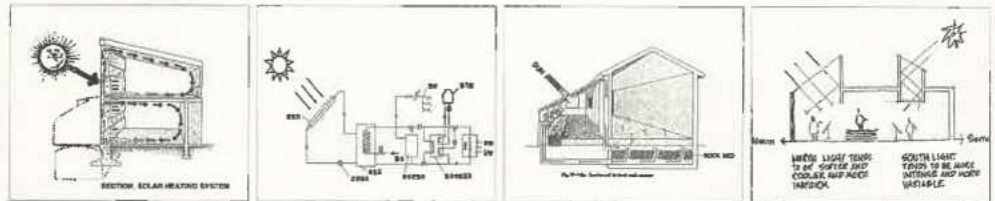
- 매립층 : 상부로부터 1~2.0m의 두께의 매립토층이다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로 대단히 연약한 토질)
- 상부퇴적토층 : 상부로부터 14~15.5m깊이까지 분포되어 있다. (세립의 모래섞인 실트, 대단히 연약한 토질로 매립전 논 혹은 하상이었음 것으로 추정됨)
- 중화암, 연암 : 하부퇴적토층 아래에 위치하며 매우 단단하다.

● 기초공법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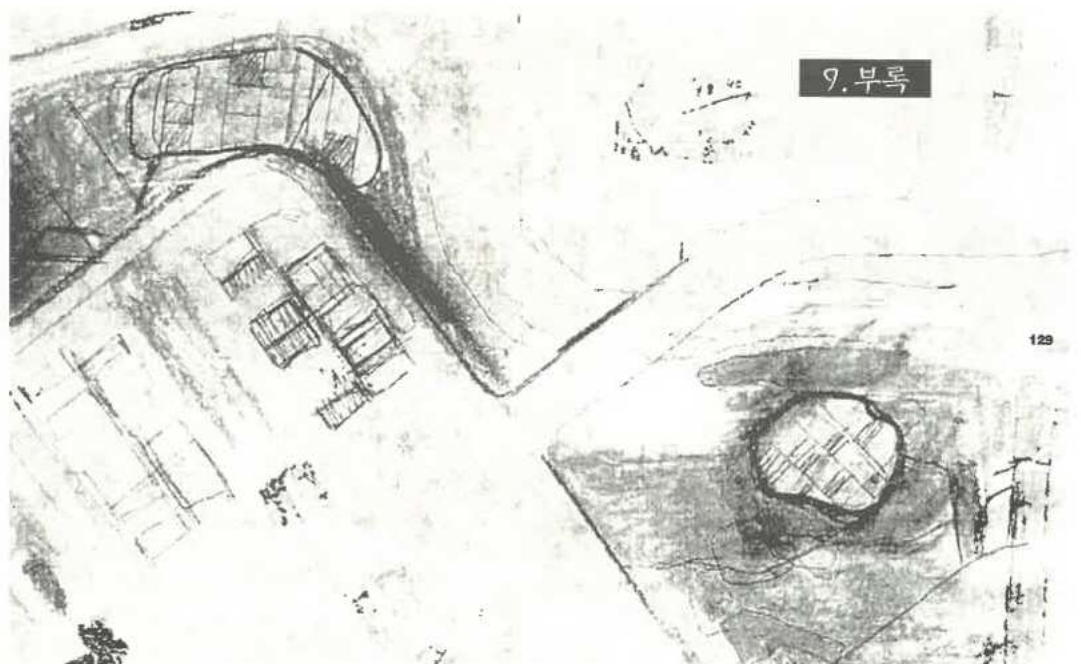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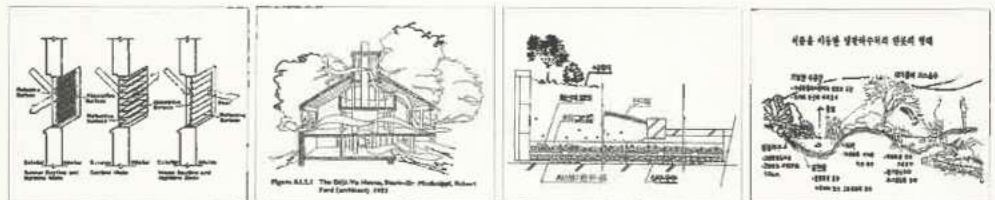
- 위에서 열거한 지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의 4가지 공법을 고려할 수 있다. 중대형 건물은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을 타격공법에 의해 시공하는 것이 가장 보편화된 공법이므로 경제성 및 시공성이 매우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의 직경을 400mm로 사용한다면 대략 60t/본(경기내력)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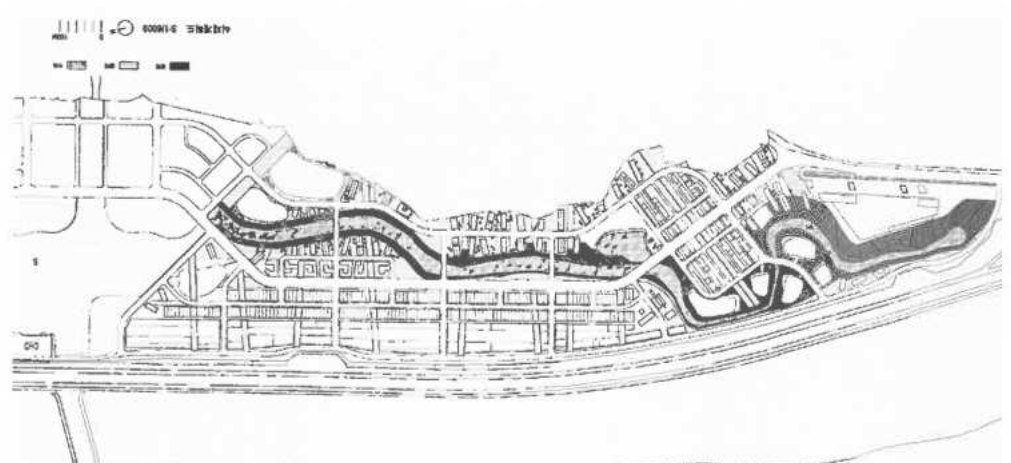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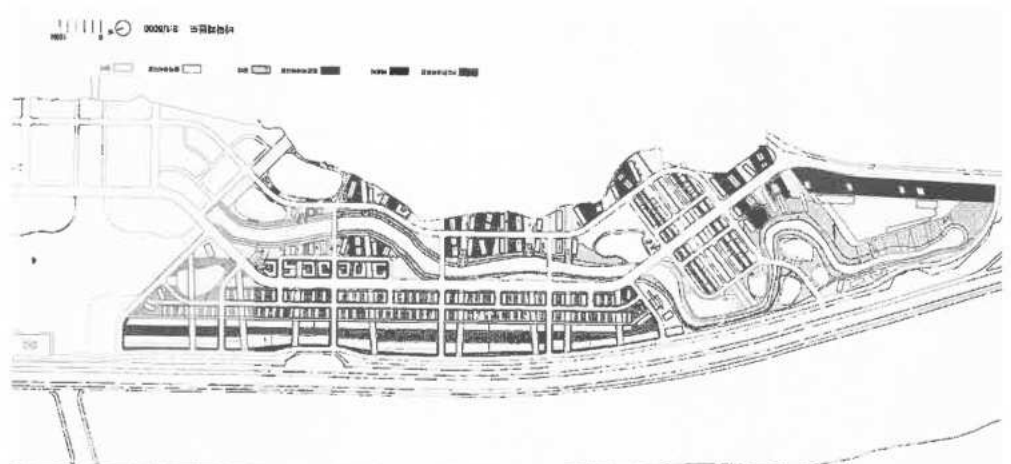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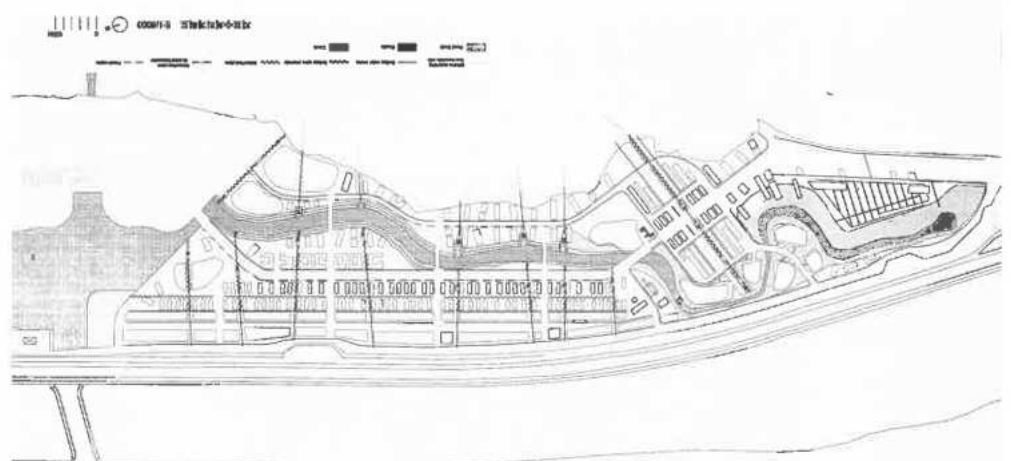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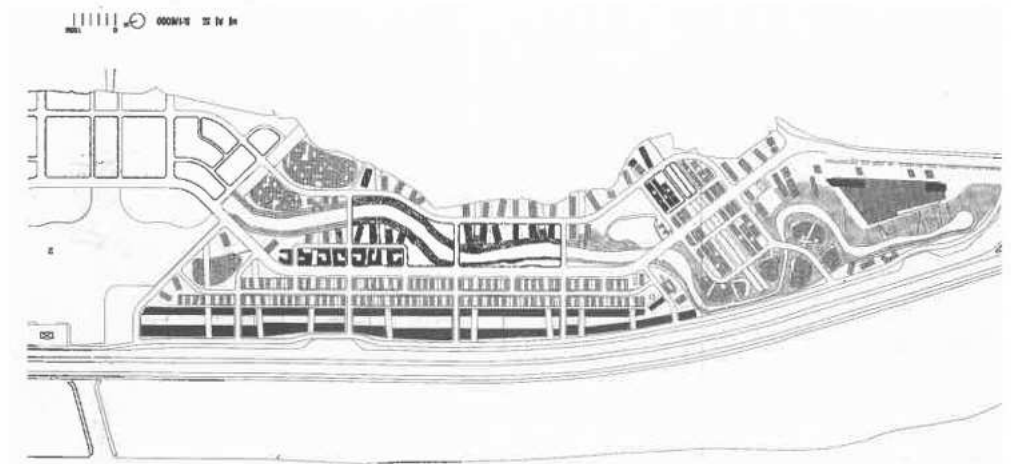
구분	요소기술 및 기법	상세기술	적용지역	경제성(문화자료)등
외부공간	Biotope의 연계	• Green Corridor(녹지) • Eco-Bridge(생태통로)	Distribution Center Line 2	중
	자연경관의 보존	• 지표의 다양성 보존 - 초지, 숲, 습지 • 지표의 직통을 • 토양 조사를 최소화	Line 1, Line 2, Line 3	중
	우수의 침투 유도	• 우수 분기 유도 • 우수저류 및 침투방법 • 우수정 조성	All Area	중
	기존 녹지의 보존 및 개선	• 자생, 상토 수종의 선정과 식재 • 다층 구조화	Line 2, Line 3, Urban Island	중
	수변공간의 조성(Biotope와 조림)	• 습수지, 지류 복원지 조성 • 자생식물군락 복원 • 동식물 서식환경 복원	Line 2, Line 3, Distribution Center	중
공급체계의 시스템	구조물의 녹화	• 단공지반녹화기술 • 지중, 옥상녹화기술 • 벽면녹화	Line 1	중
	고효율, 열파형 요소기기	• 열수열 급수기, 열수열 위상기, 열교환기, 열전환 조압기, heat pump, 자연열 이용시스템	All Area	고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 열 - 동력 연계시스템(열병합발전) • 중앙냉난방 시설구축	Line 2, Line 3, Line 4, Urban Island	고
	설비를 태양열 이용	• 태양열 축열난방 시스템 • 태양열 온수공급 시스템 • 태양과 풍력시스템	Line 2, Line 3, Urban Island	고
	태양열 에너지 이용	• 중핵발전 기술(상중핵융합)	Line 2, Line 3	고
	태양에너지 회수	• 에너지 집광회수 시스템 구축기술 • 쓰레기 소각열 이용기술	Line 2, Line 3, Line 4, Urban Island	중
	배선 및 배관 최소화	• Sub-Center 설치(부하가 집중되는 곳) • 설비량 축소 설치	-	중
	생활 하수 순환활동	• 중수도 시스템 기술 • 하수처리기술	All Area	중
	우수차집	• 우수차집 • 우수저류 - 우수저류용 호수(우수지)	All Area	중
	폐기물처리	• 생쓰레기 처리기술 • 분리수거장 설치	분류별, 건물별	중



125



129



출판도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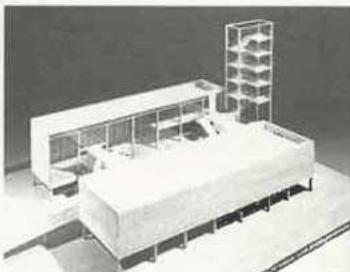
출판도시뉴스는 조합에서 추진중인 각종 행사와
소식들을 실어 조합원은 물론 관련기관,
관련인사 및 언론 등 각계 각층에 무료로 배부됨으로써 우리조합의
소식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다.
이번 자료집에는 17호부터 23호까지
출판도시가 본격적인 건설되는공사현황에서부터
각종 행사, 심포지엄 지상중계 등의
현장감 있는 뉴스가 담겨 있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이렇게 짓는다.

이영준 파주출판단지 개발팀

자, 이제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고, 향후 집행되는 전체 공사를 포괄하는 공사관리, 환경 업무수행에 관한 1차 계획을 한계로 파주출판단지 정보룸(PAJU BOOK CITY InfoRoom) 건설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보룸은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화 될 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정보문화, 정보산업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심축에 있어 우리 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이영준 파주출판단지 개발팀을 맡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룸은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화 될 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정보문화, 정보산업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심축에 있어 우리 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이영준 파주출판단지 개발팀을 맡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룸은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화 될 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정보문화, 정보산업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심축에 있어 우리 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이영준 파주출판단지 개발팀을 맡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룸은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화 될 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정보문화, 정보산업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심축에 있어 우리 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이영준 파주출판단지 개발팀을 맡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룸은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화 될 때에 있어서는 정보통신, 정보문화, 정보산업 등 3대 분야를 아우르는 중심축에 있어 우리 단지의 개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룸을 통해 우리 단지의 개발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상설·가설 전시·판매·전시·판매 기능을 수행해 줄 것입니다.

무엇을 지을 것인가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

인원식 한국문화정책연구소·파주출판단지 건축도시개발팀

"인간 존엄성의 이름으로 마음을 변혁시키고
순을 치켜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혁명입니다." -칼 마르크스

1997년 10월 10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파주출판단지의 도시적 목표를

상량식에 이어 안택식 개최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raditional Korean Hanok building. The building features a long, low profile with a dark, tiled roof that has a slight curve. The walls are light-colored, and there are several windows, some with white frames. A small, white-walled structure with a tiled roof is attached to the right side of the main building. The building is situated in a courtyard with a dirt path leading towards it. In the background, a hill or mountain is visible under a clear sky.

[illegible]

안정근 의사 순국 90주기 추도 및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과제번호: 2017-00089-A1A1A1A1A1A1).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실시되었음(과제번호: 2017-00089-A1A1A1A1A1A1).

출판도시 내 상업용지 개발계획 수립중

특정된 사업수익금 소액까지 영점세율 적용을 받는다. 최근 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흔한 아내와 상급
계되는 중심도로의 주
피해, 건물 붕괴 같은
일과 부에 큰 피해의
에 집중하고 있는 것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⑤
1995. 2. — 1998. 10.

출판도시 건설로
위대한 책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 문

1998년 11월 20일, 우리가 출판도시 건설을 발의한 지 꼭 10년만에 드디어 이곳 綾州市 文翰 文藝里 부지에서 그 공사의 첫 삽을 뜹니다.

세상 모든 일이 역지사지 일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첫 삽을 뜨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일에 시달릴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1989년, 우리는 일약한 출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출판관련 산업의 활성화 사업계획」에 착안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는 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으로 발전, 추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사업추진의 초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일에 따르는 모든 자료들을 모아두고, 이를 체계 있게 정리해 일장기간마다 자료집을 발간해 왔습니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만이 살아남는다는 사실은 어학문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이야말로 이렇게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출판」을 증흥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발간되는 다섯번째 자료집은 제4집을 낸 지 삼년 만개월이 지나서 겨우 빛을 보게 됐습니다.

제4집 발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는 삼사년 간의 기록을 담은 이 자료집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조 지정 받는 동안 겪어야 했던 험난한 장애들과 이를 뛰어넘는 슬기로운 기록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황없이 시간을 보내느라 제5집의 발간이 늦어진 셈입니다.

기관공사가 시작되는 무지의 황량한 들에 서서 오늘 우리는, 시립지구 입주 설계와 이에 따르는 어려운 과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칠 난관은 앞으로 수없이 많으리라 상상됩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다져온 십년의 사업추진 일정과 그 기록이 보여 주듯이, 이기고 잘 견뎌낼 것입니다.

1998년 11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응

Foreword

Nov. 20, 1998, We finally start the construction at Moonbat-Ri, Kyoha-Myun, P'AJU-City after one year since we set up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of publication. We already realised that things were very hard, however we hardly imagine of passing such a tough times until we start the work.

In 1989, we paid attention to "The plan of the work for cooperation of allied industries of publication" as the definite strategy for improving difficult circumstances of publication. Its plan developed into the construction of the city named "P'AJU publishing culture and information industrial complex" as a national industrial district.

We have collected all the related materials up to now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plan, and we have published the material book for every fixed times. You must know well that the people who care the importance of the record can only survive. Our work is indeed to restore the publication which cherish the record. This fifth material book has published after three years and eight months since the publication of the fourth material book.

We can see in this material book, containing the record for 3 to 4 years after the fourth material book, the difficult situation and its record that we had experienced to be appointed as 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publication of the fifth material book was delayed as we were just too busy for preparing. Today we stand here where the foundation construction work start, and we can see that the hard times related to the plan of moving into the model district are approaching.

Moreover, we can imagine that there will be too much difficulties from now on. However, like its record and plans which have been forwarded for ten years, we can successfully get through.

November, 1998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Chairman Yi, Ki Ung

신문·잡지에 보도된 자료

파주출판단지는 지난 98년 11월 20일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에 돌입하였다.
2000년 12월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별 입주사
사옥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기까지 공동성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대외 언론에 가감없이
투영되어 감회를 새롭게 하고 있다.
특히 공동성 실현이라는 계획된 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우리의 의지들을 표출한 각종 대내외적 행사를 비롯,
관계기관과의 협의, 목표달성을 위한 내부적 협의 등의
진행상황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언론은 항상 우리에게 당근과 한편으로 채찍으로
우리의 분발을 유도하였다.
뒤돌아 보면 한편의 사건 기록과도 같은
언론보도를 순차적으로 게재하여
역사적 사료로 남기고자 한다.



파주 출판단지 기공식

21세기 한국문화 중심지역을 지향하는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서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파주 출판단지가 지식문화산업의 전진기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왼쪽부터> 국회 이재창(李在昌) 파주지역구 의원, 박상규(朴尙奎)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이협(李協) 문화관광위원장, 김종필 국무총리,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김윤기(金允起) 한국토지공사 사장 등과 주민 1,000여명이 참석했다. <朴海鉉기자·hhpark@chosun.com>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교하면문발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와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이협(李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강병기기자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될 경기 파주시 교하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오전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출판영상을 비롯한 문화산업 전부문을 망라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

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이협(李協) 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일윤(金一潤)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전승훈기자>

raphy@donga.com

① — 조선일보, 박해현 기자, 1998년 11월 21일

② — 중앙일보, 1998년 11월 21일

③ — 동아일보, 전승훈 기자, 1998년 11월 21일



김종필총리 등이 출판단지 건설을 알리는 첫 삽을 뜨고 있다.

파주 출판단지 기공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오전 10시 경기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자유로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신낙균(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박상규(朴尙奎) 국회중

소기업특별위원장, 송달용(宋達鏞) 파주시장, 나춘호(羅春浩)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 박충일(朴忠一)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윤양중(尹亮重) 간행물윤리위원장, 김윤기(金允起) 한국토지공사사장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철훈기자

파주 출판문화산업단지 기공

지식과 정보 등 21세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한 곳에 집중시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오전 10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현장에서 열렸다.

교하면 일대 48만1천평에 터를 잡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2년까지 24만9천평의 터에 모두 500여개의 출판사와 500여개의 인쇄소, 출판유통회사 1곳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



파주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기공식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될 경기 파주시 교하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20일 金鍾泌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申樂均 문화관광부장관, 李廷武 건설교통부장관, 李協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金一潤 국회건설교통위원장, 李起雄 파주출판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란 기자

① — 한국일보, 김철훈 기자, 1998년 11월 21일
② — 한겨레신문, 이상수 기자, 1998년 11월 21일
③ — 내외경제신문, 이영란 기자, 1998년 11월 21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첫삽'

20일 기공식 "21세기 지식산업 전진기지로 조성"

파주출판단지 건립이 본격화됐다.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지에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와 신남균 문화부장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이협국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김윤기 한국토지개발공사사장등 정·관계인사와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나춘호 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군관계 인사들 비롯한 1천여명의 출판·인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필총리는 치사를 통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이곳에 출판 인쇄 문화 단지가 조성되게 돼 가슴

문발리
현지에서
개최됐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지난 20일
파주



뿌듯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또 "출판단지의 발

전을 위해 출판인은 물론 전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출판단은 2005년까지 공사가 진행된

다. 출판 인쇄 영상 정보 문화 상업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우리나라 최초의 지식·정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파주 '첨단 출판단지' 드디어 착공

48만평 국제규모 계획

94년 발표후 건설 미뤄와

2005년까지 파주시 교하면 자유로변 48만평 부지에 첨단 출판·영상·인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공사는 20일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사업현장에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조감도> 토지공사는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2년 말까지 900여억원을 들여 총 48만평 터 가운데 25만평을 조성, 출판·인쇄·유통·문화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곳에는 한국출판유통을 비롯, 학원사 세종서적 한길사 등 55개의 국내 유명 출판사와 인쇄소들이 1차 입주할 예정이다. 특히 2001년까지 컨벤션센터, 출판문화박물관, 연구소, 시청각실 등을 갖춘 복합문화센터인 「아시아출판정보센터」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명실상부 국제적인 출판단지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토지공사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732



여여원을 추가 투입, 23만여평 규모의 2단계 지구를 조성, 영화방송과 소프트웨어 자문 및 공급 업체들을 입주시키고 1만 3,000명 규모의 주거시설 용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지난 94년 7월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중앙부처간 협의, 군부대 협의 등이 지연되던데 IMF 한파까지 겹쳐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거쳐 4년여만에 착공됐다.

한국토지공사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 출판과 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해 국가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메카로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承仁培기자>

① - 인쇄신문, 1998년 11월 27일

② - 조선일보, 승인배 기자, 1998년 11월 20일

출판단지 기공식 열려

20일 파주시교하면문발리, 산남리 일원에서는 파주출판

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김종필 국무총리,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임창열 경기도지사, 송달용 파주시장을 비롯한 토지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7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립국악원의 지신밟기, 가야금병창·궁중무용 등 식전행사에 이어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의 경과보고, 김종필 국무총리의 치사, 문화관광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축사, 공사현황보고에 이어 주요인사 시삽식과 폐회순으로 이어졌으며 기공식을 마친후 국무총리 출발과 함께 정악연주와 사물놀이 공연으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시작을 알리는 문화마당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파주 출판문화정보단지 기공식
어제, 10년 산고끝 '문화밸리' 첫삽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비카」를 목표로 경기 파주시 교하면 일대에 조성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 기공식이 약 10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일 오전 10시 열렸다.

이날 첫삽을 든 출판단지는 총면적 48만여평 규모에 사업비 3천8백억원이 투입돼 2005년 완공될 예정이며 출판·인쇄·출판유통·영상 등 문화산업 관련 500여개 업체가 입주하게 된다.

이로써 지난 89년 6월 「출판단지추진위원회」 발간준비위원회」 결성 이후 정부 각 부처 및 출판계 등의 이해가 엮이며 관련 공식회의가 2,000여회를 기록한 만큼 난산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신도시 전체가 지식정보산업의 요람으로 탄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치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문화산업이 왕흥하는 국부(國富)가 이미 국가총생산의 3분의 1을 넘어선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문화산업을 21세기 우리나라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문화산업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 이젠 출판단지에 대한 기대를 피력했다.

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기용

이사장은 「앞으로 건축계획, 입주자 분제, 재정확보 등 출판계의 역할을 총괄집하는 일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출판단지가 「문화밸리」로서 본궤도에 오르려면 민자유치 등 1조원에 달하는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창 파주시국회의원, 박상규 국회중소기업특별위원회장, 이철 국회문화위원회장,

48만평 3,800억원 투자
지식·정보의 요람으로

2005년 완공이후
500여 관련업체 입주

김종필 총리,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김윤기 한국토지공사 사장, 김덕배 경기부지사, 송달용 파주시장(사진 왼쪽부터), 유인균 현대산업개발 사장, 민태승 파주시의회위원장, 이상태 육군 9사단장,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이기용 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주민대표 유희무씨 등 700여명의 관련인사들이 참석했다.

파주 / 김종식·사진 정지용기자

파주출판단지 “첫 삽”

- 20일 기공식 가제

파주 출판단지 건립이 본격화 됐다.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개발공사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0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지에서 파주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기공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공식은 김종필 국무총리와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이철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김윤기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등 관계인사와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나춘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군 관계 인사들 비롯한 3백여 명의 출판, 인쇄인들이 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 김종필총리는 치사를 통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이곳 출판 인쇄문화 단지가 조성되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지식산업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총리는 또 「출판단지의 발전을 위해 출판인은 물론 전 국민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을 가진 출판단지는 2005년까지 공사가 진행될다. 출판 인쇄 영상 정보 문화 상업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되며 우리 나라 최초의 지식·정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된다.

〈방재일 기자〉

- ③ — 경향신문, 김종식 기자, 1998년 11월 21일
- ⑩ — 파주연합신문, 1998년 1월 30일
- ⑪ — 독서신문, 방재일 기자, 1998년 11월 22일

파주출판단지 지식정보 국가산업으로 우뚝

지난달 20일 기공식 출판·인쇄산업 현대화 기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지난달 20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지에서 거행됐다.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중심지가 될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기공식이 지난달 2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지에서 거행됐다.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개발공사 주최로 열린 이번 기공식에는 김종필 국무총리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모였다.

오지철 문화산업국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91년 이기용 열화당 대표를 중심으로 350여명의 출판인들이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을 설립한 이래 올 2월에는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를 완료했고 6월에는 한국토지공사에서 1단계 공사를 발주했으며 10월에는 시공사를 (주)현대산업개발로 결정하게 됐다'며 2005년까지 총사업비 2천95억원을 들여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종필은 치사를 통

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앞두고 이곳에 출판·인쇄문화 단지가 조성하게 되어 가슴이 뿌듯하다'며 '출판·인쇄를 비롯한 문화산업 전 분야를 망라한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이정무 건설교통부장관, 이철 국회문화관광위원장, 김일운 국회건설교통위원장, 이기용 파주출판조합이사장, 나춘호 출판문화협회회장, 박종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등 관련 단체장 군관계인사를 비롯한 700여명의 출판·인쇄인들이 참석했다.

1단계 지구는 2002년 월드컵 개막전에 임주를 마칠 것이며 문화시설 부지내에 각종 전시장 컨벤션센터 연구소 박물관 등을 갖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칭)가 2001년 완공을 목표로 들어설 예정이고 현재

운영 인원진 구성을 추진중에 있다.

파주출판단지는 향후 출판 인쇄 영상 정보 문화 산업 공공시설이 들어서게 돼 우리나라 최초의 지식정보 국가 산업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한길북하우스 개관 한길사 열화당 민음사 등

(주)도서출판 한길사(대표 김연호)는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강남출판문화센터 2층에서 50여평 규모의 한길북하우스를 개관했다.

한길북하우스는 1976년 창사한 이래 동사가 출간한 1,400종의 책뿐만 아니라 민음사 열화당의 책들도 함께 전시·판매하여 독자들에게 책읽기의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열린 대화공간을 통해 우리 시대와 우리 문화, 지식정보에 대해 저자와 독자가 서로 고민하고 답답하는 점을 제공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날마다 새로운 주제와 내용으로 이 곳에서 많은 관심자들이 참여하여 동서양 고전읽기 모임과 저자와의 대화, 저자의 출판기념회, 연구모임을 갖는 등 독특한 문화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 출판 정보산업단지’ 기공

2002년 1단계 완공

문화관광부는 건설교통부·한국토지공사와 공동으로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1단계 조성사업 기공식을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자유로변에서 개최했다.

사업시행 주체인 문화관광부와

한국토지공사는 오는 2005년까지 총 3천8백억원을 투자, 자유로변 교하면 산남·문발리 일대 48만여평에 출판·영상업체 등 관련업체 입주시설과 출판·영상분야 정보교류·전시·교육·연구활동 등을 위한 출판문화종합정보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1단계로 25만평 조성공사를 2002년 말 완공하고, 이어 2

단계 23만평에 대해서는 2003년 이후 착수, 영화·방송·애니메이션 등 영상 소프트웨어업체 입주시설 등 영상산업 지원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지난 94년 7월 조성계획이 발표된 이후 4년 4개월여 만에 이뤄진 이날 기공식에서 김종필 총리는 치사를 통해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체적인 문화산업 진흥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식 기자〉

12 — 인쇄산업신문, 1998년 12월 14일

13 — 전자신문, 김홍식 기자, 1998년 11월 21일

618

파주출판단지 건축 심포지엄

훌륭한 단지 건설로 좋은책 만들자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4일 김남출판문화센터에서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사동 소재 김남출판문화센터 이원빌딩에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파주출판단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심포지엄은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단지내 시범지구의 바람직한 건설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서 보다 좋은 정보, 좋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기웅 이사장에 의하면 심포지엄의 목적은 △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이 본격화됨을 통해 △시범지구 참여자의 공동과제에 대한 이해도 고조 △도시, 건축의

경합과 과정을 살펴본다.

토론자로는 김평원 서울대 건축과 교수, 김준성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 김연호 한진사 대표, 심만수 도서관 살림 대표가 참석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아울러 조합은 오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건축 기획협사를 갖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행사를 연계할 예정이다.

〈謹賀新年〉

출판도시 건설로
위대한 책의 시대를
열어 갑시다

1999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 사장 이기웅
사무이사 유도열

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

업단지사업협

동조합이사장

=10일 오후2

시 대한출판

문화협회 강

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갖는다.



파주출판단지 조성 금년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일 정기총회 열어 사업계획 확정... 출판산업발전에 기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0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시간동 소재 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강당에서 99년도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기웅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달 하순부터 대대적인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이 본격화된다」고 밝히고 「파주출판단지 초기 설립목적을 끝까지 성취하기 위해 사무국을 강화하고 관련 전문가와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10일 대한출판문화협회 강당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오지철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은 「21세기 지식산업을 리드하고 있는

출판산업은 파주출판단지를 통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주출판단지가 완공

하는 날까지 출판계가 합심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다방면의 정부지원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9년도 결산 승인 건 △임여금 처분(안) 승인 건 △1999년도 사업

계획서(안) 승인의 건 △1999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1999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등을 상정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조합은 초창기 파주출판단지 추진을 도와준 최구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구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에서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조합 김재영 씨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 22 — 인쇄산업신문, 1999년 1월 25일
- 23 — 출판저널, 1999년 1월 5일
- 24 — 서울경제신문, 1999년 2월 10일
- 25 — 인쇄산업신문, 1999년 2월 22일

서적도매상 연쇄부도... 날개잃은 지식산업

98 출판계 결산

보문당 등 20여곳 치명타 유통망 붕괴 위기
정부 500억 긴급융자 조건 까다로와 효과 미흡
새해부터 출판시장 전면개방 "앞전데 앞친격."

국제통화기금 한파가 몰아친 올해, 출판계는 어느때보다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출판유통 체계는 연초부터 시작된 서적도매상의 부도로 감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져들었으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가독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온 출판인들의 일터를 앗아갔다. 환율상승과 이에 따른 도서 제작비의 상승은 도서출판 종수의 급감으로 이어져 문 닫는 출판사가 속출했다. 10여년의 산고 끝에 지난 11월 첫발을 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움츠러든 출판계에 그나마 위안을 주었다.

98년 출판계의 최대 뉴스는 서적도매상 연쇄부도. 일계 2위의 송인서림이 1월 말 부도를 낸 데 이어, 3월에는 수위를 달리던 보문당이 맥없이 무너졌다. 이어 일계 4위의 고려북스가 도산하는 등 70여개의 전국 단행본 도매상 중 20여개가 타격을 받았다. 이들이 줄줄이 쓰러진 것은 위탁판매와 아울링 등 전국대체 유통망형 때문. 이로 인해 전

국의 도서유통체계가 일시에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다.

도매상 연쇄부도와 경기위축으로 위기에 직면한 출판사들은 속속 문을 닫거나 축소경영을 단행했다. 97년 말 현재 등록된 출판사는 1만2천7백여개사. 이중 일년에 한 권 이상 책을 내는 출판사는 지난해 2천여개에서 올해 1천3백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판량도 전년에 비해 18% 정도 줄었다. 도매상의 붕괴는 소매상에도 치명타를 안겨 전국서점조합연합회 소속 서점 4천여개 가운데 5백여개가 폐업한 것으로 추산된다. 출판계가 초토화되자 일각에서는 『이러다간 국내 지식산업 기반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6월 5백억원의 긴급 협조융자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금의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기대 만큼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전데 앞친격으로 지난 10월엔 국내 출판시장의 전면개방 방침이 발표됐다. 내년 1월부터 서적출판업과 잡지발행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1% 허용키로 한 것.

11월에는 단행본 출판사 대표 3백50여명이 「한국출판인회의」를 출범시켜 관심을 모았다. 이 단체의 태동으로 출판계가 출판출판인회의로 양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



◇출판문화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오랜 산고 끝에 지난 11월 기공식을 가졌다.

기되기도 했다.

11월20일에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이 열려 모처럼 출판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파주시 교하면 일대 48만여평에 조성되는 출판문화단지는 국내 출판문화산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지식산업」의 메카. 2002년 완공될 이 단지에는 5백여개의 출판사와 50여개 인쇄소, 유통사 등이 입주해 출판-인쇄-유통을 일괄처리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게 된다. (廉浩相기자)

기반공사 조성사업 본격다짐 파주출판단지조합 9차 정기총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10일 서울 종로구 사간동 출현강당에서 제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20일 기공식 이후 단지 조성 기반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99년을 맞아 개최된 총회에서 그 동안 출판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정확한 언론 보도와 상황 전개에 따른 시의적절한 해설 등으로 도와준 언론에 대하여 감사와 우정을 전달했다. 특히 출판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된 1989년부터 1994년 6월까지 조선일

보 문화부 출판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깊은 이해로써 사업의 전개 과정마다 힘을 실어준 최구식 기자(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대우)에게 출판문화 관련 산업계의 우정을 담은 감사패를 증정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10년간 출판단지 조성사업이 추진과정에 있어 처음 갖는 이번 증정식은 수상자 개인 뿐 아니라 그 동안 이 사업을 국내외적으로 확고하게 인식시키는데 기여해 온 전체 언론에 대한 감사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출판단지 관리권자인 문

화관광부와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그리고 대한출판문화협회, 대한인쇄문화협회, 한국잡지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출판문화산업 관련 단체장들이 함께 참석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본격적인 조성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로 치러졌다.

파주출판단지 건설 심포지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이 14일 오후 2시 서울 신사동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열린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송효상(건축가)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씨의 사회로 서울대 황기원교수(환경대학원)와 조성룡 서울건축학교장이 논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 건축학자 김광현(서울대) 김준성(경기대)교수, 김진애(서울포럼)·김언호(한길사)대표가 참여한다.



27

26

- 26 — 세계일보, 강호상 기자, 1998년 12월 25일
- 27 — 독서신문, 1999년 2월 28일
- 28 — 경향신문, 1999년 1월 14일



◆ De Zuid-Koreanen stonden versteld van de ouderdom van Bredevoort en de veelheid aan boeken. (Foto Willem Hissink)

Zuid-Koreanen helemaal 'weg' van Bredevoort

19-2-99

Van een onzer verslaggevers

BREDEVOORT - De faam van Bredevoort Boekenstad wordt internationaal steeds groter. Twee delegaties van samen zo'n 45 personen uit Zuid-Korea brachten gisteren een werkbezoek om zich te oriënteren in verband met de bouw van een boekenstad bij de hoofdstad Seoel. Voor de twee delegaties, die een bestaande uit boekenmensen en de ander uit bouwers, was het gisteren ook een toeristisch uitje naar een middel-eeuws stadje, compleet met windmolen.

Na aankomst per Duitse bus bij 't Wapen van Bredevoort schudde de 45 gasten achter elkaar glimlachend en buigend de handen van het 'ontvangstcomité', bestaande uit het college van B en W, directeur Henk

Ruessink en voorzitter Bouke Meiderma van Boekenstad. Het aanhoren van alle namen was aan het ontvangstcomité nauwelijks besteed. „Ik geloof dat ze allemaal Kim heten“, nep een van de gastheren vertwijfeld.

Burgemeester Bouwers sprak in het Engels een welkomswoord. Hij wees op het eerdere bezoek van een Aziatische delegatie, namelijk van het Maleisische boekendorp, dat momenteel al volop draait. Alle gasten kregen een Engelstalig informatiepakket aangeboden, bestaande uit de Kroniek van Bredevoort, de brochure Bredevoort impressies en de Engelstalige folder. Met hun hypermoderne digitale foto- en videocamera's, meest van het merk Samsung, maakten de gasten opnamen van alles wat ze onderweg aan fraais zagen en vooral van elkaar met de molen Prins van Oranje als

achtergrond. Ze waren sterk geïnteresseerd in de naam Oranje, die in het Koreaans een lachwekkende bijbetekenis blijkt te hebben. Met rode oortjes aanhoorden ze tijdens de stadswandeling hoe de prins van Oranje ooit de vesting bevrijdde van de Spanjaarden en waarom de koning van Nederland nu beschermvrouwe van Bredevoort is. De Zuid-Koreanen stonden herhaaldelijk versteld, niet alleen van zoveel boeken, maar overal lelijke dingen die hierzo gewoon zijn. Een bezoeker merkte op dat het in Nederland kennelijk zoveel regent dat in de straten speciale gootjes zijn met straatputjes om het water op te vangen. Ook een hoopje sneeuw kreeg de volle aandacht.

T-shirts

Bezocht werden de Nederlands Hervormde kerk uit 1600, het

gebouw Boek op 't Zand met de Engelstalige boekwinkel en het antiquariaat Pergamon. In de hal van het gebouw van Boekenstad vonden vooral de ansichtkaarten en de T-shirts gretig aftrek. Velen lieten hun wonderlijke namen in het gastenboek achter.

Dat de delegatie zo groot was, kwam doordat ze niet alleen bestond uit boekhandelaars, maar ook uit uitgever, drukkers, studenten en architecten. Anders dan Bredevoort wordt het boekenstadje bij Seoel van registringswege helemaal nieuw opgebouwd op een voormalig industrieterrein, maar wel in oud-Koreaanse stijl. Over een jaar of drie moet het open gaan. Verder werden door delegaties uit Zuid-Korea ook al de boeksteden in Engeland Hay-on-Wye en België (Redue) bezocht.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심포지엄

파주출판단지 창조적인 산업단지로 기획

최근 유럽문화도시 순방계기... 가치관 공유·협력 다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조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최근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속개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간 독일과 영국 등의 유럽문화도시를 순방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는 문화생산업의 토대를 건설하는 데에 나서 창조적인 도시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기획

됐다. 조합은 이기웅 이사장을 비롯해 파주출판단지 및 헤이리 아트밸리 입주자와 민현식·송효상 건축코디네이

터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순방에서 문화도시와 건축에 관한 의견을 서로 수렴해 다각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순방기간동안 자체적으로 열린 워크숍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 형태가 아닌 새로운 문화산업단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각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계기가 되었다.

이번 순방은 크게 유럽문화도시 탐방과 유럽현지 건축프로젝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뉘른베르크의 생터바흐와



Hombroich 및 문화마을을 답사했다. 또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바이칼호프와 국제정원 박물관, 중앙박물관, 네덜란드 헤마울 등을 방문했다.

한편 조합은 유럽순방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와 관련한 자료와 사진, 추진방향으로 구성된 단행본을 가까운 시일내 발간할 예정이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도시·건축심포지엄

건, 단지성격, 상세계획 등에 대해 발표했고, 조성룡 소장(조성룡도시건축연구소)은 제2주제로 릴, 파리, 베를린, 프랑크푸르트, 뉘른베르크, 구마모토 등의 외국사례를 고찰하며 '새로운 시대의 도시만들기'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는 송효상 대표(건축사사무소 履露齋)와 민현식 교수(한국종합예술학교)의 사회로 김광현 교수(서울대 건축과), 김준성 교수(경기대 건축대학원), 김진애 대표(서울포럼), 김언호 대표(한길사), 심만수 대표(도서출판 살림)가 토론자로 나선 가운데 시범지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9 - 네덜란드 책마을 브레드부트 방문시 현지신문 게재, 1999년 2월

30 - 인쇄산업신문, 1999년 3월 15일

31 - 월간 환경과 조경, 1999년 3월호

파주 출판단지 2차 답사 실시 전남 순천 선암사와 송광사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2차 답사를 가졌다.

50여명 시범지구 입주자들이 참석한 2차답사는 지난 2월 유럽문화 도시순방에 이어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창조적인 도시와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또 전통적인 사찰을 새롭게 해석한 전남 순천 조계산 선암사와 송광사를 비롯해 사람과 도시의 관계를 생각해하는 낙안성 민속마을 답사하였다.

특히 전문 건축코디네이터인 승표상 이로재 대표와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7, 28일 파주출판단지 시범지구 건설을 위한 2차답사를 가졌다.(사진은 답사에 나선 출판인들)

민현식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각자의 건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건축물 간의 조화는 어떻게 이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한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가 답사

지의 도시적 구조와 건축의 미 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다각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본격화 하자

지난달 26일 정기총회 열고 사업의욕 다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회장 홍일식)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 서울시 종로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홍일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해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의 초석을 다지는 한해였다"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기능과 가치를 높여줄 핵심시설로 민·관 합동으로 투자해 건립됨으로써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센터 건립의 기본이 되는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연구, 파

업지침서 작성, 설계용역자 선정 등의 중요사업이 착수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사업계획은 건설사업 부분과 운영관리 사업으로 구분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

안전심의에 들어간 총회에서 △1998년도 결산 승인 의견 △1999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을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지난달 26일 제1차 정기총회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심포지엄 개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 이기웅)는 지난 1월 14일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파주출판단지 내 시범 지구 건설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황기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와 조성룡 서울건축학교 교장이 파주단지 건설 계획과 외국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으며, 김광현 서울대 교수와 김준성 경기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32 — 인쇄산업신문, 1999년 4월 12일

33 — 인쇄산업신문, 1999년 3월 15일

34 — 출판문화, 1999년 3월호

파주 新주거타운 부상



파주시는 2003년까지 금촌2.2택지지구에 1만1,000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파주시 중심부인 금촌시까지 전경.

「분당에 수지가 있다면 일산에는 파주가 있다」 「통일길목」 파주시가 일산 신도시 외곽의 신주거단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휴전선과 가까운 탓에 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다 90년말 한국토지공사(가) 2000년대 통일신도시로 키우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면서 자유로를 따라 눈부신 개발 붐을 타고 있다. 2000년말 통일동산 조성이후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정도다. 주거환경이 쾌적해진다 교통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어 교하지구 입주가 완료되는 4~5년 뒤에는 일산신도시에 이어 서울 서북부 지역의 신중주거타운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개발계획

한국토지공사는 2003년까지 일산에서 4~5km 떨어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다율리 일대 67만5,000여평에 교하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1만5,500가구의 아파트와 500가구의 단독주택이 들어선다. 또 교하지구 맞은편 문발리 일대에는 출판·유통·인쇄·영화 등을 망라한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가 2005년까지 들어선다. 인근 탄현면 금송리와 낙하리 일대에는 영세중소기업전용공단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탄현면 법흥리, 성동리 일대에 실업자들을 위한 주거·휴양단지인 통일동산이 꾸어지는 등 수도권 개발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잡게 된다. 파주시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2018년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3개 대학교 유치와 3개 지구공단의 추가개발, 순환도로 개설 등을 골자로 한 도시기본계획안대로 개발이 추진되면 명실상부한 서울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떠오를 잠재력을 갖추게 된다.

입지여건

자유로를 이용,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진 시간이 제법 걸린다. 앞으로

‘통일길목’ 개발 잠재력 무한 교하지구 16,000가구 입주

문발리 일대 출판단지 건설

경의선 복선화등 교통도 좋아져

310번 국도가 확장되고 2004년 12월 경의선(용산-문산)이 전철복선화되면 교통여건이 한결 나아질 전망이다.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아직 적어 학교·관공서·쇼핑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일산신도시까지 자동차로 10여분이면 도달할 수 있어 당분간 일산신도시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각종 편의시설을 완비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획

월드건설, 복산건설 등 5개사가 교하지구 인근의 와동리, 아당리를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 복산건설은 5월중순 교하면 동폐리에 28~68평형 1,2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월드 메트로와 1차 1,507가구를 분양한 월드건설은 5월말 2차분 600가구를 공급한다. 평당 분양가는 330만원 안팎. 이어 하반기중 33~66평형 1,000가구를 추



● 파주시 아파트 분양계획

지역	업체	평형	가구 수	분양 시기	문의
교하면 복산건설	28	344	5월	(02)	
동폐리	34	618	중순	767-5203	
	44	150			
	55	88			
	68	50			
교하면 월드건설	28-57	600	5월말	(0344)	
와동리	33-68	1,000	하반기	906-3451	
교하면 동산	25-43	1,210	11월	(02)	
와동리				3451-2800	
교하면 건영	24-62	512	11월	(02)	
아당리				369-7315	
금촌동 산인건설	34-58	710	하반기	(02)	
산인				320-9868	

가로 공급한다. 동산과 건영은 11월 분양을 추진중이다.

투자가치

업체들의 분양예정가는 평당 300만~380만원선. 일산신도시보다 평당 150만원, 고양 탄현지구보다는 평당 100만원 정도 싼 수준이다. 최근 한창 뜨고 있는 용인 지역의 신규 아파트와 비교하면 평당 200만원을 어릴 수 있을 정도. 3월말 분양을 마친 교하면대아파트의 32평형은 1억1,400만원으로 일산(1억5,000만~1억7,000만원)에 비해 5,000만~6,000만원 가량, 분당(2억~2억5,000만원)에 비해 2배 가까이 싸다. 가격경쟁력과 중장기적 발전전망 등을 감안할 때 서울 강북지역에 직장을 둔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기게 한다.

／김혁기자 hyuk@hk.co.kr

파주시는 택지지구 및 청단공단 조성 등을 계기로 서울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주거타운이자 통일시대에 대비한 거점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파주시에서 추진중인 주요 사업을 일별해본다.

167만평 통일동산 첨단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 파주시 추진 주요사업

1. 모토로라 코리아

교하면 문발리 477 문발2공단에 97년 10월 완공한 반도체 공장에 1,400명이 근무중이다.

연간 3억2,000만달러의 반도체 무선 통신기기 센서류 등을 생산, 전량 수출한다.

2000년까지 2개의 생산빌딩을 추가로 건설하면 약 1,000명이 추가로 고용된다.

2. 통일동산

한국토지공사가 12월말까지 탄현동 성동리 일대 167만5,000평에 기반 및 공공시설 공사를 마친뒤 2000년 6월까지 민간투자부분의 개발시설을 유치할 계획이다.

영화관 사정복합건물 화랑 콘서트홀 등이 들어서는 교외형 종합문화예술타운인 서화촌(書畵村)이 4월 착공, 2001년 개장한다.

이밖에 망향촌, 만남의 광장, 이주단지, 팔도민속촌, 숙박시설 등이 조성된다.

3.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도공이 교하면 문발·산인·신촌리 일대 자유로변 48만평에 2000년 6월 완공 목표로 산업·문화·상업업무·생산시설 등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한다.

특히 문화시설지구에는 컨벤션센터와 정보자료센터, 박물관 등을 갖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가 들어선다.

4. 파주첨단산업단지

파주시와 도공이 낙하 인터체인지 인근 탄현면 금송·축현리 일대 30만평에 2001년까지 완공, 50~100개의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5. 금촌2지구 택지개발

파주시와 대한주택공사가 2003년까지 금촌·금능동, 교하면 교하리 일대 27만평에 9,000가구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97년 택지지구로 지정된 「금촌1지구」(4만7,000평)와 교하면택지구가 인접해 있다.

6. 교하지구 택지개발

도공이 2002년까지 교하면 문발·신촌·다율리 일대 67만5,000평에 1만1,000가구 3만9,000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탄현면 금송·낙하리에 「영세중소기업전용 국가산업단지」, 문산읍 당동리 일대 「방동지구 주거지역개발」, 「오산리 출판문화단지」, 「교하지구 지방산업단지」 등이 2000년대 초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 가져

출판단지건립 종합적인 총괄본부로 활용할 예정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7일 오후 5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소재 파주출판단지 현장에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을 가졌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은 단지 조성에 관심있는 방문자들의 영접 및 강연장으로 활용된다. 나아가 입주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회실과 자료실, 각종 행사장·전시장 등 다용도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 출판단지 전체 공사를 조망하는 장소로서 현장 업무수행의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라는 것이 조합측의 설명이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은 오는 5월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 기공식은 김경희 지식산업사 대표의 축문낭독에 이어 기공시삽, 기공 고유제와 민현식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인포룸 모형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은 지난 7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은 전통제례의식에 따라 행사가 진행됐다.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장, 송달용 파주시장, 오국환 한국

토지공사 부사장, 이재창 국회의원, 이정복 한국산업단지공단 본부장, 전덕수 대한제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선호 한국출판협동

조합 이사장, 한명희 국립국악원장, 허창성 한국출판유통 대표등 범출판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착공식

파주출판단지조합(이사장 이기웅)이 부지조성 공사현장에 전시장·이벤트홀·회의실·자료실·현장 사무국 기능을 담당할 인포룸(인포메이션 센터)을 신축한다. 지난 3월 초 건축코디네이터인 한국 종합예술학교 민현식 교수와 이로제 승효상 대표가 설계한 도면을 부지조성공사 시공회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 전달하고 시범지구 내에 부지를 선정해 이달 중으로 준공할 예정이다.

인포룸 센터 착공을 위해 오는 7일 오후 현장에서는 착공식과 함께 영국 북런던 대학교의 플로리안 베이젤 교수가 '출판도시의 건축과 Landscape'를 주제로 한 초청강연도 할 예정이다. 특강 후에는 플로리안 교수의 슬라이드 쇼와 함께 뒷풀이가 이어진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 기공식이 지난 7일 파주시 교하면 현지에서 개최됐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 기공식이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리리 현장에서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경희 한국전자출판협회회장, 전덕수 대한제본공업협동

조합이사장, 김정선 대한인쇄문화협회부회장 등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되는 이 인포룸(INFOROOM)은 단지조성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VIP의 영접 및 강연장소로 사용되며 입주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회실 및 자료실, 각종 행사장·전시장 등 인포메이션 센터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기공고유제, 기공시삽 등에 이어 세계적인 건축가인 북런던대학교의 플로리안교수를 초청, 특별강연회도 열렸다.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7일 파주 교하에서 자료전시·강연장으로 쓰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을 가졌다. 5월말 완공 예정.

36 — 인쇄산업신문, 1999년 4월 26일

37 — 출판저널, 1999년 4월 5일

38 — 인쇄신문, 1999년 4월 23일

39 — 한국경제신문, 1999년 4월 8일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2차 설명회

단지조성 사업추진 경과보고와 향후 공사일정 소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차 개발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가졌다.

이기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출판단지 전체개발의 중심지인 인포메이션센터 착공식이 6월에 완공되는 것은 물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물종합유통센터도 정부의 단계적인 지원을 받아 그 면



▲파주출판단지조합은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강남출판문화센터에서 ‘파주출판단지 2차개발지구 조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모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또 “조합은

사무국 절반을 파주출판단지 현장으로 파른 시일내 옮기고 이주시 장애가 될

요소들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파주시와 함께 출판단지 완공을 빠른 시일내 추진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과 입주자들이 출판단지 건립현장을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입주자들은 가능한 적기에 적정규모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공사 5월에 2차 개발지구의 부지공급 공고 계획을 통보함에 따라 2차지구에 입주할 조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와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자 마련된

자리라고 조합측은 밝혔다.

2차 입주예정자들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 △부지매입 계약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 부지매입비에 관한 사항 △부지신청 약정서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출판단지부지 아파트건설 안된다”

일산시민단체, 계획도시 교통난등 초래 용도변경맨 다른 문화시설 들어서야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출판단지부지에 대단위 아파트 건설 사업이 추진되자 시민단체들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자족도시 기능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고양시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 일산사업단은 당초 출판단지 용도의 업무지구로 지정됐던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4 일대 3만3천5백81평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키위해 지난해 12월 공개입찰을 통해 Y산업에 6백40억원에 매각했다.

Y산업은 일반 상업지구로 묶여 있는 이 땅 가운데 2만3천6백평을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 신청서를 지난 2월 고양시에 제출했으며 앞으로 18~25층의 고층 아파트 1천5백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

다. 이에대해 일산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채수현)와 고양시민회(회장 유재찬) 등 시민단체들은 “당초 계획도시로 조성돼 이미 27만명이 입주를 마친 상태에서 1천여가구의 아파트가 추가로 들어서면 도시기반시설 부족현상이 빚어질 것”이라며 “문화시설이 있는 문화산업단지등의 문화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토공 관계자는 “그동안 벤처기업 육성단지 조성 등 활용방안을 모색했지만 전망이 어두운데다 토지가 오랫동안 매각되지 못하는데 따른 경영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거용도로 매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오명근기자>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식

4월7일, 회의실 및 전시장 등으로 활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4월7일 오후5시 출판단지 개발의 중심지로서 활용하게 될 ‘파주출판단지 인포룸(INFOROOM)’의 기공식을 가졌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출판단지내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 송달용 파주시장, 전덕수 대한제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선호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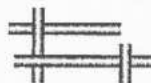
이날 참석자들은 전통 예복을 입고 기공 고유제를 진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은 북런던 대학의 플로리안 교수를 초청, 세계 건축의 경향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련했다.

40 — 인쇄산업신문, 1999년 5월 10일

41 — 문화일보, 오명근 기자, 1999년 5월 13일

42 — 인쇄문화, 1999년 5월호



출판문화의 근간... 서점문화의 정착 충실한 업계 대변지로 제2의 출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용



서점조합연합회의 「서점신문」 복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도서유통 대란의 와중에서 지난 해 「서점신문」의 휴간은 재건 어렵기 그지없는 소식이었습니

다. 출판문화산업의 근간이 되는 서점, 그리고 그 문화를 일으켜 세우는 소임을 수행해야 할 「서점신문」이 이번 복간을 맞아 그 동안의 부족한 점을 대폭 보

완하여 본실한 매체가 될 것을 희망하며, 그러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비운 뒤편이 더 단단하고, 음지를 경험한 연후에 빛의 소중함을 깊이 체감할 수 있기에 거듭나는 「서점신문」의 형보에

가는 기대는 각별합니다.

일찍이 우리는 출판문화 관련 산업에 전반에 드리워진 각종 법률적인 제약이나 부담한

관행, 혹은 열악하고도 비효율적인 구조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추진해 왔습

니다.

그 가운데서도 출판유통의

문제는 가장 첨예한 현안의 하나로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적인 목표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출판유통의 근간을 이루는 서점문화의 정착은 출판단지, 나아가 우리 출판문화산업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

닌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판유통은 일선 서점부터 개혁되지 않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동안 서점을 경영하시는 분들 스스로가 효율적인 진열 방식을 개발하면서, 도서사입의 엄격한 방식을 수립해 상

하고도 알찬 내용의 책들을 신속히 준비함으로써 독자들을 확보하려는 각별한 노력이 있

었는가 하는 자성에서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논란을 받고 있는 대형 할인매장에서의 서적 할인판

나, 도서정가제에 대한 뿌리 흔들기 양상 등은 어쩌면 스스로 이러한 문제들을 방법론적으로

잘 해결해 보려는 인식과 기술이 부족했다는 데서 연유한 것

인지도 모릅니다.

궁극적으로 서점계 스스로 개혁에 심혈을 쏟지 않고서는

대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때문에 「서점신문」은 앞으로 서점계의 계도와 개혁에 앞장서서 서점경영자의 의식을 고

양하고, 종사자들의 성실성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적으로나 사

회적으로 정칙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기록적 역할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현인의 정확한 파악에 기초한 보도와 논설이

필요하고, 정당한 편집으로써 독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할

기대합니다. 물론 심입이철연 최장년의 역량을 믿고, 기대하

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출범을 시작하는 「서점신문」에

거는 우리의 기대는 남다른

다.

모쪼록 출판산업계의 충실한 대변지로서 정진하시길 바라며,

우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

지 또한 적극적으로 성원한 것

을 약속드립니다.

출판발전 좌표설정에 기여를



이기용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주간 인쇄산업신문이 우리 인쇄산업 업계에 동지를 불고 널리 알릴 것은 바르게 알리는 한편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짚어주는 전문지로서 자리잡아온 지 여

연 묵년이 되었습니다.

그 묵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산업 전반, 특히 인쇄산

업계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온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인쇄산업신문 스스로도 어려움 속에 오늘

을 맞은 감회가 남다른 것

입니다.

날로 전문화·세분화 돼

가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언론, 특히 한 분야의 전문지

가 차지하는 위상은 그분야

산업의 원성도·신속도뿐 가 능하는 척도일 것입니다.

오늘날 출판문화산업이 지식기반산업으로 자리매

김 되고 있으며 국정지표에 서도 지식기반 확충을 목표

로 삼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우리 출판문화산

업계가 제갈할 수 있는 국

가사회적 여건은 이러한 명

제가 무색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수인선 다변화 해

체, 나날이 잠정되는 산업

구조조정의 물결, 혼탁하기

만한 유통체계 속에서 흔들

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우리는 이렇듯 열

악한 출판문화산업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으로 '출판관련

산업의 협동과 사업계획'에

지 우리의 일에 따르는 모든 자료들을 기록하고 이를 체계있게 정리함으로써 이를 추진의 커다란 힘으로 삼아 왔습니

다.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만이 살아남는다는 사

실은 여러분도 잘 아시

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

이야말로 이렇듯 기록을

소중히 여기는 '출판'을 중

흥시키는 일입니다. 인쇄산

업신문이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록해 온 모

든 것들은 곧 우리 인쇄산

업의 한 역사요, 좌표라 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가 보아온 인쇄

산업신문은 발행인이 직접

필봉을 잡아 시의적절하고

도 예리한 칼끝으로 본연

의 소임을 다하는 젊은 전

문지였습니다.

때문에 8주년을 맞은 오

늘뿐 아니라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 또 엄정한 인사를 견

지하여 우리 출판문화산업

의 주요한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올곧고

명철한 동반자로서 우리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정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

립니다.

파주출판단지 인포콤 기공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콤 기공식이 지난날 7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장에서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박충일 대한인쇄문화협회장, 김경희 한국전자출판협회장, 장영수 대한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강경선 대한인쇄문화협회장 등 내빈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5월말 준공을 목표로 신축되는 이 인포

콤(INFORCOM)은 단지조성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VIP의 영접 및 강연장으로 사

용되며 입주자 및 관계기관의 협정회의

실 및 자료실, 각종 행사장·전시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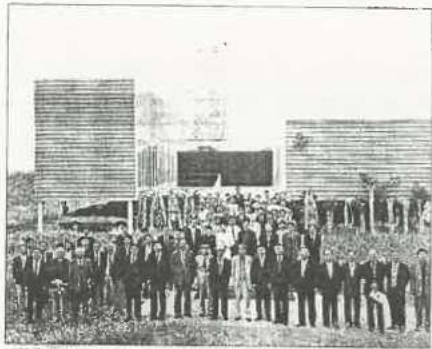
인포메이션 센터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기공고유제, 기

공시식 등에 이어 세계적인 건축가인 북

런던대학의 플로리안요수를 초청, 특별강

연회도 열렸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현장을 출몰지휘할 '인포메이션센터'가 최근 개관돼 출판단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파주 출판단지 건설. '베이스 캠프' '인포메이션 센터' 문열어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현장을 출몰지휘할 '인포메이션센터'가 최근 개관돼 출판단지 조성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인포메이션센터는 20m 높이의 전망대와 건물 2백42평 규모의 2층 철골구조건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민선시 교수가 설계, 삼협종합건설사공으로 완공됐다.

이 건물은 건축가와 도시설계가, 조경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후대에 물려줄만한 출판단지를 만들기 위해 설계작업을 하고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 환경과 관련된 전시 이벤트 행사를 할 수 있는 전시실과 건축도면 인테리이에 대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자료실, 건축 설계 및 현장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이 마련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출판사업협동조합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페와 휴게실공간을 운영하며 심화실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수조가 자라는 갈대밭과 건물주위에 심은 메밀꽃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구경하기

건평 242평 2층 철골구조
설계실 - 현장회의실 설치
이벤트행사 전시실도 마련

위한 전망대를 개방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관광객은 물론 해외출판인이 이곳을 방문하면 출판단지 건축 설계도와 도시구획의 모형을 관람할 수 있으며 출판단지에 들어선 건물과 놀이와 현대, 자연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통과 현대가 혼화된 조경시설과 함께 문화도시로서 관광명소가 될 전망이다.

인포메이션센터는 각종문화행사를 개최, 출판인들의 정보교환장소 역할을 하며 다양한 양식의 건축물을 그룹형태로 재배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난 89년부터 한국출판문화산업단지 추진위원장을 맡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섰던 이기웅(李紀雄, 59·열화대대) 출판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출판단지 조성준비로 이제 겨우 밑받침대에 배를 진수시켰다"며 "21세기 출판산업은 교육, 과학, 예술 등 인접문화가 급격하게 변화될 문화제일지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사업비 1천9백35억원을 투입,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48만평의 부지에 사출출판구역과 상업인쇄구역, 영상업무구역, 대형서점·쇼핑센터 등의 유통상업구역, 문화공공시설, 출판인 주거지역, 녹지 등이 2005년까지 2단계로 조성돼 수도권주민들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파주=오명근기자>

파주 인포메이션센터 내일 개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첫 건물
물물 어우러진 '생태도시' 지향

21세기 한국 출판산업의 요람이 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의 첫 건물인 인포메이션센터가 지난날 25일 준공됐다. 사업협동조합은 인포메이션센터 개관기념 행사를 오는 9일 오전 9시 이 센터에서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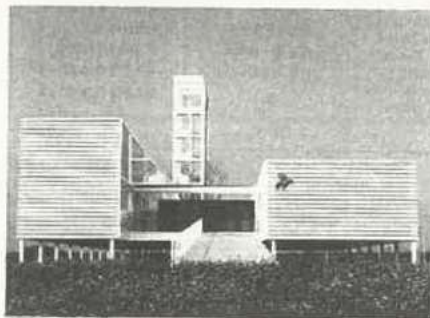
연면적 242평에 5층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센터는 입주자들의 사옥 건축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현장 사무소로 쓰이게 된다. 이 센터는 또 앞으로 세워질 건물들의 생을 노련도 하게 된다. 협동조합측은 인포메이션센터 준공과 함께 단지의 건축설계 지침을 완성했다. 단지는 △환경친화 생태도시 △복합기능을 갖춘 3차원 도시

△도시의 일상이 유지되는 자족도시 등을 지향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다. 이 지점은 단지의 터 안에 구불구불 흐르는 물길과 그 주변의 습지를 전혀 훼손하지 않은 채로 건물을 세우고 길을 내도록 했다.

이 습지에는 현재 수십종의 민물어류가 살고 있고, 여러 종류의 물풀이 살고 있으며, 주변은 갈대밭이다. 이들을 원형대로 보존하면서 도시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 지침대로 도시가 세워지면 자연환경과 긴밀하게 결합한 생태도시가 탄생하게 된다. 건축 설계 지침 작성에는 민선시 승후상씨를 비롯해 플로리안 바이젤·김종규·김영준씨 등 다섯 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했다. 전체 48만여평 가운데 1단계로 24만8천여평에 출판유통센터·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출판사와 인쇄소, 상가가 들어선다. 2단계

공사는 1단계 공사가 끝난 직후 또는 1단계 공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체 공사가 끝나면 단지는 5천명의 인구가 생활하는 소규모 자족도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기웅 이사장은 "현재의 추진속도로 보아 1단계 시범자구는 오는 2001년께 착공해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6월까지 완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02) 511-9566, 고명섭 기자



파주 출판문화단지 이기웅 이사장

"자연과 함께 하는 책마을 조성"

첫 건축물 사무국 9일공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의 첫 건물인 인포메이션센터가 오는 9일 개관식을 갖고 단지 내 첫 건축물로 일반에 공개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는 연중 60여종의 새가 관찰되고 두루미 등 희귀 조류가 머무는 보존지역. 그동안 환경친화적인 도시 개발을 천명해온 이기웅 이사장(59·열화대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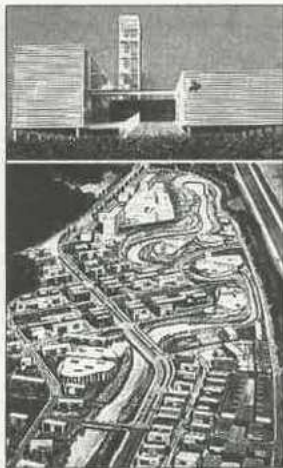
은 "단지 내부를 관통하는 갈대숲과 저수지, 배수로를 훼손하지 않고 보존키로 했다"며 "폐수를 따로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도로변에 떨어진 빗물도 정화한 뒤 흘려보내는 철저한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땅의 특성을 살려 공장지대와 저·고밀도 지역 등으로 나눠 건물을 세우고 도로 포장재와 건축 자재 등을 제한하는 건축지침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 동안 '좋은 공간에서 좋은 생각과 좋은 책이 나온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었다"는 이



이사장은 "출판단지를 상업동, 통일동산, DMZ로 이어지는 21세기 친환경적 문화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영미 ymlee@kukminilbo.co.kr



출판단지내 인포메이션 센터와 단지 조감도.

파주출판단지 환경친화적 조성

건축설계지침 9일 발표

인포메이션 센터도 개관

출판문화 정보의 산실이 될 파주 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이사장 이기웅 열화당 대표)내 첫 건물인 인포메이션 센터가 9일 개관한다. 이날 개관 행사에서는 출판단지 조성의 기본 개념이 될 건축설계지침도 함께 발표된다. 이로써 지난 89년부터 추진돼온 출판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될과 동시에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됐다.

건축가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의 설계로 만들어진 인포메이션 센터는 단지에 입주할 출판사 및 인쇄·유통회사들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및 원장사무소 기능을 하게 되며 각종 전시·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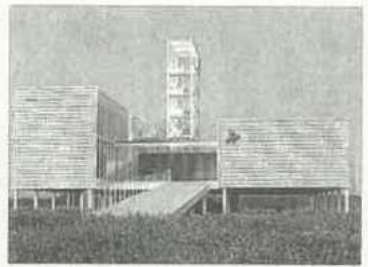
또 건축설계 지침에 따르면 한강 하류 저습지와 단지 내 수로가 있는 지역 특성에 따라 건축의 용도를 결정하는 생태친화적 단지를 만든다는 것.

가로수 없이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건물의 높이·태치도 주위 환경과 조화시킬 계획이다. 또 도시환경을 위해 외장재의 사용도 엄격히 제한된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자유로 인근에 전체 48만여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출판단지는 건축공사가 2001년 상반기 착공돼 2002년 중반이면 시범지구(5만여평)공사가 완료되고 2003년말 24만9천평 규모의 1단계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출판단지에는 관련업체 1백20여개가 입주해 출판·인쇄·유통을 한군데서 일괄처리하게 된다.

신용호 기자

< novae@joongang.co.kr >



인포메이션센터 문열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 이기웅 열화당 대표)내의 첫 건물인 인포메이션센터(사진)가 지난 9일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연건평 242평인 이 센터는 출판단지에 입주할 120여곳의 출판사와 인쇄·유통회사에 대한 정보·자료를 제공한다. 단지 건축공사는 2001년 상반기에 시작된다.



출판사업 메카 '웅장한 자태'

파주시 '인포메이션 센터' 개관식

【파주】 21세기 한국출판사업메카가 될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이사장 이기웅)의 총괄업무를 담당할 중심인 '인포메이션 센터' (소장 유도일 상무이사) 개관식이 9일 오전 9시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현장에서 이재창 국회의원, 송달용 파주시장, 민태승 시의회의장을 비롯 출판유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개관된 인포메이션 센터는 5층높이의 상징전망대와 건평 240평 '규모의 2층 건물로 마련, 앞으로 들어설 단지내의 건축물 설계를 담당하게 된다.

또 사무국을 중심으로 각종, 전시, 회의, 이벤트행사 홀 등 지원으로 해외출판인 및 출판단체 방문행사와 유통, 교류등 파주출판단지 총괄 인포메이션 창구 기능을 갖게 된다.

을 갖게 된다.

특히 이날은 단지 입주의 시발점으로 약속했던 1999년 9월 9일 9시라는 6개의 9자를 1천년만에 단 한번 만나는 숫자로 조합속에서는 낱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단지내를 관통하는 갈대갯강 1Km의 자연 경관을 그대로 살려 환경친화적인 단지로 조성, 5천여명이 생활할수 있는 자족기능 미니도시로 육성키로 했다.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조성은 전국에 산재한 문화, 정보산업을 집대성하여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총 48만평 부지에 사업비 1천935억원을 들여 97년부터 2005년까지 8년에 걸쳐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된다.

변해진기자/bjunit@joongboo.com

김영택기자/kmyt@joongboo.com

파주 출판산업단지

'인포메이션 센터'

내일 오전 문열어



99년
9월 9일
9시(오
전9~오
후9시).
21세기
한국출

판산업을 이끌어갈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인포메이션센터'가 개관하는 날이다. 파주출판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李起雄·이기웅·사진)은 금세기를 장식하는 멋진 출판이벤트로 기념하기위해 센터주변에 미리부터 메밀을 심어 메밀꽃밭을 만들어 왔고 원로 사진작가 林應植(임응식·87)씨를 초청, 행사장면을 기록으로 남길 계획이다.

인포메이션센터는 토지공사가 한창 기반시설중인 출판단지의 현장지휘소 뿐만 아니라 전시·이벤트·회의·사무국 기능등도 맡게 된다. 20m높이의 전망대에서는 노을지는 김포산야도 감상할 수 있다. (株)

49 — 중앙일보, 신용호 기자, 1999년 9월 6일

50 — 대한매일, 1999년 9월 1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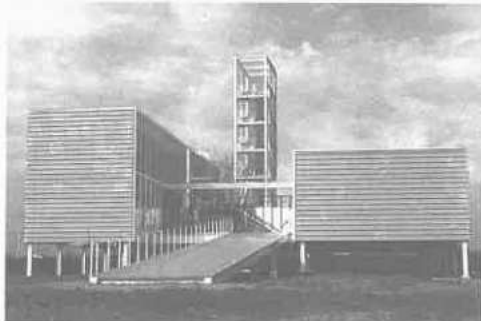
51 — 중부일보, 변해진/김영택 기자, 1999년 9월 10일

52 — 세계일보, 1999년 9월 8일

'999999

Opening Ceremony of PAJU BOOK CITY Information Cente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 센터 개관기념 행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지상건물의 설계와 건설 등 현장업무에 종사한 지휘할 인포메이션 센터가 준공되었습니다. 1999년 9월 9일 아침 9시는 우리가 애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단지 일주의 시일정으로 약속했던 날짜와 시간입니다. 그 오해된 약속을 지킵니다. 이번 개관 행사에는 단지 건축 기본설계의 성과물이 제시됩니다. 아울러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 사진계의 동료인 임종식 선생께서 기념사진을 손수 기록해 주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저번 여섯시 반이던 이 건물 준공식이 불과 한가량과 김포 신아를 들끓이며 벌어지는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102511-6500-5 서울 10140342-0019 사무국 091-954-0385 011-234-8255, 011-9307-7055

파주출판단지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연면적 242평에 서점·자료실·회의실·전시실 등 갖춰



파주출판단지 인포메이션센터 개관식이 지난 9월 파주출판단지에서 개최됐다.

파주출판단지(이사장 이기웅) 인포메이션센터 개관식이 지난 9월 오전 9시 파주 현장에서 김경수 문화부장관, 박승남 대한인쇄협회 회장, 장동 내인과 출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인포메이션센터는 출판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부지 중 일부에 단지 지상건물의 설계와 건설, 순회로 입주 등 현장업무를 효율적으로 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인형학교수의 설계로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8월 25일 준공된 인포메이션센터는 연면적 242평 규모의 출판구로 건물로, 서점과 휴게, 회의 등을 주제로, 10월 중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포메이션센터는 집합빌딩, 자료실, 사무실, 서점, 회의실, 전시실, 카페, 중점, 전망대, 주차장 등으로 구성됐다.

5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 센터 준공식을 갖고 정식 개관했다. 연면적 242평(본 건물 152평/중점 30평/전망대 60평)에 달하는 인포메이션 센터는 인형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설계하여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8월 25일 준공을 마쳤다. 이 센터는 앞으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개요전서와 건축관련 도서 등 전시기능과 작품이벤트기능, 회의기능, 사무공간 등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조합은 앞으로 단지 내에 이사가 출판문화정보센터(5,423평), 출판물 유통센터(21,875평) 등이 들어서 출판유통의 현대화·일원화를 목표로 '한국출판유통'이 입주해 연간 물량 2억부, 부가 부수 3천만 부를 소화할 예정이다.

한강 하류의 습지였던 단지 부지 위에 건설되는 도시는 20세기 마지막 신도시로서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다양복합의 3차원도시, 지족도시, 아름다운경관의 도시 변화에 적응하는 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와 따라 도로와 수로를 연계하여 건축물의 유형과 외형 재료 바탕 편의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일체화해 제한하여 난개발로 인한 도시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할 예정이다.

파주출판단지의 지시되는 유형의 선들은 하이웨이 그늘이려 녹지의 지평을 가진 공간과 선, 출판거리를 구성하는 출판사 건물들의 선, 중주 부에 자리잡고 있는 고밀도의 중점형 출판사 건물의 선, 도로의 풍속 제방에 위치한 출판사 건물의 끊어진 선 등으로 이들 모두 수로를 통하여 경사진 시계를 확보하게 된다.



심학산은 전체 파주 출판단지 내에서 많은 시민의 초점을 형성하고 있다. 남쪽에 도시의 삶 패턴처럼 나타나고, 북쪽에 '콘도 타워'의 아이디어로 나타내게 된다.

건물의 벽식유형, 벽의 일정한 질서를 따라 방향함으로써 생기는 공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습지에 거울과 같이 기둥에 의해 가볍게 걷는 듯 긴 다리를 가지고 갈대 숲의 습지에 놓인 거대한 안식과 같은 효과를 위해 축조된 건물들로 특색을 갖추게 된다.

이 도시가 완성되면 20세기 지리와 정보를 선택하는 도시로서 상업용, 출판단지, 종합문화, 100%에 이르는 거대한 문화벨트가 형성되어 다음세기 통일 한반도의 문화와 정보의 중심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30000, 60000000)

55

출판가소적

21세기 문화선도를 위한 열린공간

파주출판단지 인포메이션센터 준공·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9월 9일 오전 9시 서점지구 및 단지 전체의 건축 설계 매뉴얼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1일 착공한 인포메이션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연면적 242평(본 건물 152평, 중점 30평, 전망대 60평) 규모의 인포메이션센터는 입주사의 사육권 축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및 현장사무소 기능을 한다. 이기웅 이사장은 "이제 파주출판단지 건설을 위한 건축의 매뉴얼이 완공됐다. 인포메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21세기 문화 선도하는 도시,

자연친화적 생태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열린공간의 미를 추구한 인포메이션센터는 파주단지의 기호와 전통, 건축 및 환경 관련 전시, 건축 관련전시 전시기능을 갖췄으며, 사육설계 현장회의실, 비회출판인 및 출판단지 현장 방문행사, 문화행사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된다. 파주단지의 사무국 기능과 현장 연락 사무소 기능, 각종 프로그램의 기획 및 준비 기능을 갖췄고, 자료실과 서점 및 카페 공간도 마련했다. 설계자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인형학교수는 "앞으로 단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화적 공간의 의미를 보여주는 건물"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조합은 6월 30일 한국표지공사와 2차 개발지구 부지 6만여 평에 대한 계약을 체결, 1만



지난 9월 9일 준공한 인포메이션센터 전경과 내부의 열린공간.

개 실시계획 승인면적 268,810평(신원용지와 문화시설 용지 가치면적 121,500평 포함) 전체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따라서 인포메이션센터 준공과 함께 파주출판단지 건설에 막대한 역할을 했다. 건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1차지구 52개사, 2차지구 66개사가 입주한다.

—오원진 기자

- 53 — 출판저널, 1999년 9월 5일
- 54 — 인쇄신문, 1999년 9월 24일
- 55 — 독서신문, 1999년 9월 12일
- 56 — 출판저널, 오원진 기자, 1999년 9월 20일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 활기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건축정보 등 제공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일대에 들어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가용)에 따르면 단지 조성사업은 건축 기초설계지침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인포메이션센터가 개관,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무리 됐다.

연면적 240여평 규모의 인포메이션센터는 입주자들에게 사육신축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현장사무소의 기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전시 및 이벤트, 회의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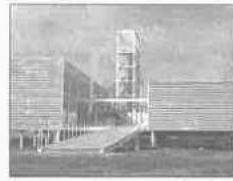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의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대 총용지 48만여평규모로 오는 2005년까지 12단계로 나눠 완공될 예정이다. 단지내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등도 설립, 21세기 지식문화산업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파주출판단지 사업조합은 우선 1단계 실시계획 승인면적 24만여평에 대한 배입을 완료하고, 출판 및 인쇄 자원,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등의 시범지구 입주사를 선정했다. 시범지구에는 부른출 등 4개 출판사와 보진출 등 7개의 인쇄 및 지원업체 그리고 한국출판유통이 입주하게 된다.

파주출판단지는 지난해 11월

가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성사업에 들어갔다.



이가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출판산업 업계가 그동안 힘들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해야 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한팔한뼘 예정된 그림에 따라 그 건설의 삼철을 개울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에 단지 지상건물의 설계와 건설, 순조로운 입주 등 현장업무를 통괄 지휘할 인포메이션센터가 개관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경하해 마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이번에 완성된 건물 안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대의 건축 및 도시문화를 제시하고 실행함에 따라 매우 창조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관 기념식에는 테이프 커팅 및 감사패 증정, 단지 기본 설계 구상 설명회, 원로 사진가 임용식씨와의 기념촬영, 갈대셋강 담사 및 음악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입주자들의 사육신축을 위한 정보·자료제공 및 현장 사무소 기능을 하게 될 연면적 24만42평의 인포메이션센터는 앞으로 △ 전시기능 △ 이벤트기능 △ 회의

기능 △ 사무국기능 △ 자료실, 서점, 카페 등의 지원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전시는 출판단지의 개요 및 현황과 건축 관련 전시, 환경 관련 전시, 건축 관련 도서전 등이 일리며 이벤트는 사육신축 현장 회의와 설명회, 해외 출판인 및 출판단체 현장 방문행사, 기타 문화 행사가 열린다.

회의기능으로는 출판단지 및 입주회사, 관계기관의 현장회의가 이뤄지며 각종 전시물의 제작과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 등 사무국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다.

한편 사업협동조합은 입주사 종사자들의 주거부지를 단지내 조성하기 위해 대상지를 선정, 현재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선 1차 시범지구 입주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이를 모든 단지로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0월 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 입주 초기의 교통불편을 대비하고 단지 특성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체계를 모색할 계획이다.

시범지구내 2만1천7백85평 부지에 조성되는 출판물종합유통센터에는 출판유통의 현대화·일원화를 목표로 출판사 및 서점 3백86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출판유통(주)이 입주한다.

파주출판단지에 들어선 인포메이션 센터 전경



57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단지조성 위한 전천후 지휘소 역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이 조성된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설계와 건설 순조로운 입주 등 현장업무 통괄 지휘를 위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연면적 24만42평) 준공식을 지난 9월 9일 파주출판단지 현장에서 거행했다.

이번에 일반인들에게 성 보인 인포메이션센터는 인형시(한글에 속출한)과 고구려의 설계로 지난 5월 1일 착공하여 8월 22일 준공된 것으로 본 건물(152평, 중정 100평, 전망대 100평) 등으로 이루어진 출판구조 건물로 매달과 유리·목 등 고급자재를 사용하여 심한열화 설이 사용된 것이다.

건립업트, 자료실, 사무국, 서점, 전시실, 카페 전면에 놓여 구상된 인포메이션센터는 향후 전시, 이벤트, 회의, 사무국 기능과 자료실, 서점 및 카페 등 주요기능을 담당 현장 지휘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지난 8월 30일 2차 개발지구 부지 6만여 평에 대한 배입이 완료됨에 따라 총 1백15개사(100~52, 200~60)의 입주가 예정된 산남리 출판단지는 이번이 마지막 인포메이션센터의 포함, 지난 4월 25일 다섯 단계로 구성된 건축기공과 지공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설계지침을 활용하여 완공됨에 따라 단지 전체의 건설이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된다.

원래 현장 80%의 지출이었던 부지



가 자유로 건설로 인해 차내지도 바뀌면서 생긴 제천부지라는 특이한 자연적 환경으로 세워진 건축계획을 요하는 파주출판단지가 완성되게 되면 서를 삼양동-출판단지-출판물산 그리고 1742를 한개의 축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문화축을 형성하게 되며, 다음 세기 출판 한반도의 문화와 정보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앞으로 단지 내의 주거시설 주변과 교통체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중 현 안보회의 해결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와 출판유통의 현대화·일원화를 목표로 한국출판유통(주)(대표:홍승)가 입주하게 될 출판물종합유통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윤상영 기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가 최근 준공됨에 따라 이에 지난 9월9일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기념 행사가 있었다. <사진>

58

57 — 인쇄문화, 1999년 10월호

58 — 서점신문, 윤상영 기자, 1999년 9월 30일

59 — 인쇄문화, 1999년 10월호

▶ **파주 출판정보사** 어디까지 계획인가 미 이도메이서서터

Paju Book City Project & InfoRoom

지난 9월 9일 제주 출판정보산업단지 입구

물이고 있는 강수의 파생물의 하나다 그러나

으로 상대적으로 도시로서의 특색하고 개성있는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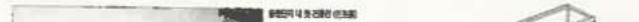
1. 1994. 臺灣電力公司電力年報



© 2004 Blackwell Publishing Ltd



20 plus years



특정계 전당파는 당적 내 선물이 가져다줄 리얼 기성 프로그램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했다.



12 000000

②0~②2 — 원가 플러스 1000년 10월호

Paju to Become Center of Korea's Publishing Culture in 21st Century

The following is the 10th and final installment in a series of articles highlighting the nation's industrial complexes which are acting as the backbone of manufacturing, distribution and trade. Presented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 Land Corp. (KOLAND), the information presented in this series is hoped to be helpful for foreign companies to locate in Korea. — ED

By Nho Joon-hun
Staff Reporter

With the onset of the information age, and its acceleration in the 21st century, Paju, located in one of the northernmost parts of South Korea, is bracing to become the nation's center for publishing culture.

The construction of the first phase of the Paju Publishing Culture Industrial Complex is set for completion in the year 2001 with the second phase following immediately thereafter.

KOLAND is investing a total of 209.5 billion won to set up the complex on a lot measuring 480,000 pyong (one pyong is about 3.3 square meters) along the Freedom Expressway.

Once the first phase is complete, it will be home to not only printing and other publishing facilities but various cultural facilities and banks, a police station and parking lots.

The most vital and central facility in this portion of the industrial park will be the Asian Publishing Culture Information Center which will begin operation in 2001 on a lot of 5,450 pyong.

"The center is designed to help promote the exchange of and access to

information concerning the latest developments in the publishing industry," one KOLAND official explai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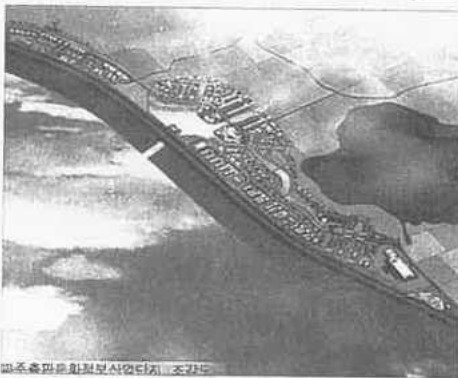
The center breaks down into three major sections — information, exhibition and education — and will be active also in conducting research on the publishing sectors, he added.

Among the facilities planned for the center are an event hall, a convention center, an information computerization center, a training institute and a translation center.

The remaining 230,000 pyong, which should come on board in the year 2005, will be dedicated to moviemaking, broadcasting and visual software with some 250 companies expected to locate there.

"There are many advantages of the location of the Paju Publishing Culture Industrial Complex, the first being its proximity to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which begins initial operation in the year 2001.

"It is situated right along the Han River and its beautiful surrounding, adding to its theme of being environment-friendly. Road transportation, with the Freedom Expressway, could not be better," the official said.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감도

The Paju Publishing Culture Industrial Complex, situated along the Han River and close to the border with North Korea, promises to play a vital role in promoting cultural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lso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s its location right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meaning that it can serve as the center for cultural exchange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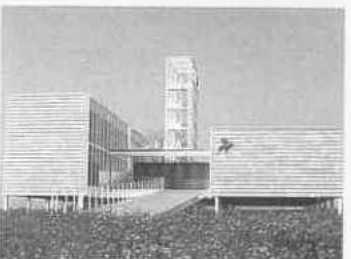
Publishing is no longer what it used to be. It is not all offsetting and printing. It is one of the most advanced forms of culture as the essence of the media converges with the latest computerized software.

The KOLAND official said, "The Paju Publishing Culture Industrial Complex is an essential part of efforts by the publishing industry to bring together all related elements to one place to create a strong synergy effect," the official said.

jakenho@koreatimes.co.kr

파주출판단지 사업 본격화

「환경친화적 생태도시」를 내걸고 단지 내로 새것을 끌어들이 미래의 환경건축단지를 제안하고 있는 파주출판단지 사업이 지난 9월 9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건설, 설계, 입주 등 현장업무를 관할하는 인포메이션 센터가 준공을 필두로 본격화되었다. 지난 10월 6일 2차 개발지구 입주사 70개사에 대한 필지배정이 마무리됨으로써 이미 확정된 54개 시범지구 입주사를 포함한 124개사의 부지 위치가 확정됐다. 생태적 개념으로 조성될 갈대새강을 중심으로 출판, 인쇄, 인쇄지원, 종합유통시설 등 출판관련 산업체가 고르게 들어서서 단지는 각 블록마다 특화된 중심구역으로 조성된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민



파주출판단지 인포메이션 센터 전경, 민현식 설계

현식 교수와 김종규 교수, 이로재건축의 승효상 소장과 김영준 소장, 플로리안 베이젤(북런던대 교수)씨가 건축 코디네이터로 활약하면서 건축설계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건축적 인식을 기본으로 짜여진 도시구조, 건물유형, 외장재료, 바닥 디자인, 수로계획 등 단지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원론적인 개념에 머물러 있던 환경건축의 전망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511-9566〉

출판세미나서 주제발표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23일 오후 2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개최되는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에서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란 주제로 발표한다.



◇이기웅(李基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은 23일 오후 2시 경기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교통 대책 세미나를 연다.

출판단지 입주 교통정책 토론

△이기웅(李起雄)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23일 오후 2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정책 수립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기웅 간사장(문화예술분과: 열화당 대표)은 현재 경기도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이사장을 맡고 있어 지난 11월 23일 오후 2시 출판단지 인포메이션센터 회의실에서 '파주출판단지내 교통대책 세미나'를 가졌다.(515-3141)

- 65 — 코리아타임스, 1999년 9월 4일
- 66 — 스페이스 트레, 1999년 11월호
- 67 — 국민일보, 1999년 11월 22일
- 68 — 동아일보, 1999년 11월 23일
- 69 — 세계일보, 1999년 11월 23일
- 70 — 강원도민일보, 1999년 12월 20일

일산선 단지연장·궤도승용시설 필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교통대책세미나 지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이 주관하고 파주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공사에 후원한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가 지난달 23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기웅이사장이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김형국 서울대교수, 음성직 종일일보 교통전문위원, 원제무 한양대교수, 이상용 교통개발연구원장, 송효상 건축가, 박상우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정렬 경기도 교통과장, 이창우 파주시 부시장, 박종현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박광석 한국산업단지청, 김안호 헤이리아트벨리이사장, 김형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발표 내용에 따르면 출판단지내 예상 총 인구는 20,830명으로 이중 상근 인구는 19,170명, 상주인구는 5,380명으



○파주출판단지 교통관련 세미나가 지난달 23일 열렸다.

로 추정되고 산업시설 중 서적출판업의 상근 인구는 약 4,585명(22.0%), 상업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은 2,515명(12.1%) 등이 구성될 전망이다. 현재의 교통환경으로는 파주시·고양시·서울을 잇는 국도1호선, 자유로, 경의선 철도 등의 남북교통축은 확립돼 있으나 동서 연결축 도로나 시가지 우회도로, 순환도로망, 교통망 등의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대중교통 대책으로 일산선 지하철이 출판단지까지 연장해야 하고 경의선 전철 복선화 조기완성, 직행버스 노선 신설·확충, 파주시 내버스 연계, 단지내 셔틀버스 운영, 자유로 문화벨트를 잇는 모노레일·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승용시설의 신설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파주출판단지 교통대책 세미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11월 23일(화) 오후 2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장단기 대중교통 대책수립을 위한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 교통정책은 있는가?」란 주제로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과 출판단지 교통현황 및 예상수요, 그리고 출판단지 입주자를 위한 중·장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제안 등 열띤 토론이 전개되었다.

이기웅 출판단지 이사장이 주제발표를 한 이날 세미나에는 김형국 서울대환경



대학원교수, 음성직 중앙일보 교통전문위원, 원제무 한양대교수, 이상용 교통개발연구원장, 송효상 이로재대표, 박상우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이정렬 경기도 교통과장, 이창우 파주시 부시장, 박종현 한국토지공사파주사업단장, 박광석 한국산업단지공단청장, 김안호 헤이리아트벨리이사장, 김형운 출판단지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21세기는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의 시기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사장



20세기가 저물고, 어느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면 21세기는 단연코 지식 지식정보화 인프라로 인해 보다 많은 세대와 계층들이 멀티미디어의 실상을 체험하게 됐고,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교류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은 전자출판의 개념을 확산시켜 기존의 출판개념을 무한대로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나 양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출판 컨텍스트에 얼마나 기민하게 적응하는가가 오늘날 출판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이출판물의 유일한 유통기지인 서점문화는 과거와 별 변화 없이 그대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대형서점을 중심으로 서점 쇼핑을 홈페이지를 만드는 정도가 고작인 것입니다.

서적의 데이터베이스화 역시 일부 대형서점을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아직까지 중소 서점들은 만화 대본소처럼 일일이 주인이 책을 찾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점 경영자의 서점운영 기법이나 경영방침에 있어서 서점전산화를 위시한 획기적이고도 과학적인 경영 혁신과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기법 도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의 물결을 서점이 앞선에서 막아내고 지켜내지 않으면, 1차 생산자라 할 수 있는 학자, 작가 등을 비롯한 출판인들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기를 맞아 지금까지 유지돼 왔던 출판의 패러다임도 하루 빨리 이에 걸 맞는 위상으로 재정립돼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기반 아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서점 경영인, 1차 출판 생산자인 작가들, 출판인들 모두 각별한 연대의식을 갖고 부단한 변화의 물결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한편, 서점신문과 같은 여운형성매체 역시 물론이고 통찰력 있는 서점 지킴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꿈과 예절이 흐르는
문화산업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상무이사 유도열

꿈과 예절이 흐르는
문화산업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 새해 아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 용
경제이사 유 도 열

71 — 인쇄신문, 1999년 12월 10일

72 — 서점신문, 1999년 12월 10일

73, 74 — 서점·인쇄신문, 2000년 1월 5일

75 — 출판저널 2000년 1월 5일

시스템 없는 관행은 가라!

가짜뉴스' 인터넷 편파적 가짜-유휴-비행장 구조 개편 등 편파적 보도

1998년 1월 27일

최근 10여 년 동안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최근 10여 년 동안에 걸쳐 우리 사회는 인터넷이 대중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정보의 질은 매우 낮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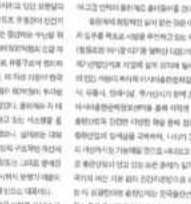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남한에 던진 미끼물. 사진은 1998년 1월 27일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파주출판도시 건설 눈앞에 펼쳐진다

올 연말까지 설계완료
2002년 상반기 입주 가능
대형 인쇄·제본사 대거 참여

10여년전에도 출판인들이 이성과 도시로만 여겨왔던 '출판단지'가 인포메이션센터 기능을 시작으로 한국 출판산업의 아를 요망으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89년 6월 출판단지추진위원회와 발간준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출판도시의 꿈은 현실화 단계를 밟기 시작했다. 물론 끝없는 시간속에서 많은 어려움의 고비를 마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의 추진과정에서 백이 가로놓일 때마다 모든 출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쓴 데 모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고 그 지리에 인포타운을 세우게 이르렀다.

지금은 9월 개관한 연면적 240만 규모의 인포타운 지리상 사후설 설계 회화상 전시설을 갖추고, 단지 지상빌딩과 건설, 순조로운 입주준비현황을 통해 지휘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곳에서 입주자들은 건축가와 도시설계가 조경전문가를 다양한 분야와 전문가들과 지혜를 결집하며, 2009년 모범적인 건축문화 도시의 완성을 위해 정성을 쏟고 있다.

또 지금은 부지내에 우리 전통 살림집을 아진(修繕)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이 작업은 오히려 세월을 거치면서 누려야 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중 최고 산악인 오공의 공동 소재 감동수 고기와 별채를 옮겨 복원하는 것으로 부처지고 비례적인 한옥에 새 생명을 부여함과 동시에 출판도시에 포화한 초석을 놓는 경관한 외식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출판단지는 한국토지공사와 2차 개발지구 부지 6만여평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1단계 실시계획 승인면적 248,810평(산입 용지와 문화시설 용지의 가계분면)의 121,500평 포환에 대한 매입은 지난해 6월 이미 완료한 상태다. 1차시범지구 52개사 선정에 이어 2차 개발지구 입주할 66개사도 정해졌다.

집행부는 올 연말까지 설계물 마치고, 오는 3월까지 건축가들 선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상의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출판인들은 이미 규약등자로 건축 기쁨을 다녀오는 등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출판도시 건설에 살뜰한 정성을 쏟고 있다.

도 구역 단위별 입주자 모임을 통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할 것이며, 표정있는 건축 재료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공동구매할 것인가를 큰일에서부터 사소한 일까지 이르기까지 눈치를 기울이며 지혜를 써내고 있다.

앞마당에는 출판단지 인포타운에서 입주자와 건축 조정전문가, 단지 기안시설공사 실무진들이 참가한 가운데 '갈매성경 보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 기안시설 포획공사 과정에서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는 갈매성경을 살리기 위한 열의 눈치를 받기도 했다.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출판계와 자연생태계를 보존시켜 더불어 공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이다.

출판인들의 아같은 하수면 정성과 비례해 파주출판문화단지가 아시아 출판문화의 메카로 우뚝설 그 날에 대항기에도 그만큼 부름을 있다.

(윤선자 기자)

이·기·웅 이사장

신문·잡지에 보도된 자료 177

'건축설계 완성의 해'로 지정

파주출판조합정충, 단지내 공동주택 건설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사업 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달 24일 오후 2시 파주 출판단지 인포룸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파주출판단지조합은 올해를 '건축설계 완성의 해'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듬고 같이 수립하여 총회에 상정,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공동설계 공동구매·공동시공·공동관리 방식으로 효율적인 단지 건설을 도모하

는 한편, 2002년 입주 예정인 사립지구 입주사 총사자회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단지내 주거시설 용지에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인시설 및 공공시설의 건축이 단지 조성위지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사전 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관여하여 단지조성 토목공사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갈매곶강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단지를 이뤄 내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1단계 지역의 산업용지가 소진되었는 바, 정밀한 수요분석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입주와 땅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등 총 10개 부문에 걸친 사업계획을 심의·통과했다. 이날 총회의 임원개선에서 이상규 문이담출판사 대표의 감사유임과 김해경 부른출 대표의 감사선임이 결정됐



▲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사업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효율적인 단지조성에 나서는 등 금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다. 파주출판단지조합은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과 공동으로 '파주출판단지 에너지대안을 찾아서'라는 세미나를 16일 오후 2시 파주출판

단지 인포룸에서 개최한다. 또한 오후 5시에는 '출판단지의 공공성'을 주제로 파주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및 1차건축가그룹 작품전시회도 열린다.

출판-환경의 두 돈키호테 '풍차의 꿈'

파주출판단지내 풍력발전 추진 이기웅 이사장 - 손충렬 회장

'모노레일이 오가고 풍차가 돌아가는 전원도시.'

외국에서나 볼 수 있는 풍력의 예가 아니다. 일산신도시를 지나 임진각으로 향하는 자유로 오른쪽의 갯벌을 때워 만든 벌판에 간신히 파주출판도시의 구체적인 미래모습이다. 이곳에서 민간과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재생가능 에너지인 풍력발전의 사용을 확대해보라는, 작지만 매우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출판도시를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30년간 외길을 걸어온 출판인과 환경운동가가 힘을 모쳤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이기웅(열화당 대표)이사장과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의 손충렬(인하대 교수)회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두 사람은 최근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주도하기도 했다.

"단지 안에 있는 갈매곶강을 사이에 두고 세워질 150동의 건물 하나하나마다 태양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한편 풍력발전 시스템을 적극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기웅 이사장의 말에 손충렬 회장은 "출판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대안운동을 펼치는 중요한 모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용하는 수준에서 이용가능한 석유와 석탄, 천연가



파주 출판도시내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시스템의 도입을 다짐하는 이기웅(왼쪽) 이사장과 손충렬 회장.

스. 우리나라의 매장량은 각각 40년, 170년, 65년, 50년 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이다.

손충렬 회장은 현재 출판도시의 풍력발전 시스템으로 "서구의 메가와트(MW)급 대규모 풍력발전기 보다는 소형 풍력발전기의 개발·보급이 합리적"이라고 보고있다. 이는 에너지의 대량소비체제를 극복하자는 의도에서 출발한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확대운동이 풍력발전 단지를 또다른 대규모·집중적인 전력생산 시설로 만들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기웅 이사장도 일단 단지안에 20킬로와트(KW)급의 실험용 풍력발전기를 만들 계획이다. 23일 상량식을 갖고 전북 정읍에서 이전·건립되는

'김두수 고가(古歌) 별채'가 완공되면 이 풍력발전기가 공급하는 전원을 사용하게 된다.

사실 풍차와 모노레일 등 이기웅 이사장이 구상하는 미래 출판도시의 모습은 한 '몽상가'의 백일몽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이상적이다.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이기웅 이사장의 욕심과 추진력이다. 건축가도, 도시계획가도 아니면서 단지 책만 만들어온 경험으로 건축가와 환경운동가들을 결집시켜 출판도시 건설을 지금과 같은 하나의 도시·건축문화 운동으로 격상시킨 데는 그의 공로가 컸다. 그의 돈키호테 같은 열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영창기자>

"파주에 풍차를..."

출판단지 에너지 포럼
풍력발전기 도입 주장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추진 중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풍력발전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과 환경연합은 16일 단지내 기획행정실인 인포룸에서 '에너지 대안 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손충렬(孫忠烈) 인하대 교수는 "파주는 한강 하구 탁 트인 곳에 자리해 질 좋은 풍력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李尙勳)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은 "독일, 덴마크 등 선진국들이 풍력발전전에 집중 투자하는 터에 우리 정부도 이 계획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기웅(李起雄) 출판단지조합 이사장은 "출판도시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사엔 에너지전문가, 건축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가했다. /李鍾赫기자 chlee@chosun.com

출판도시 만들기 세미나



△이기웅(李起雄)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16일 오후 3시 단지내 인포

룸에서 환경연합과 공동으로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세미나를 연다.



대체에너지 세미나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6일 오후 3시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현장 인포룸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세미나를 연다.

79 - 인책산업신문, 2000년 3월 13일

80 - 문화일보, 최영창 기자, 2000년 3월 22일

81 - 조선일보, 이종혁 기자, 2000년 3월 17일

82 - 세계일보, 2000년 3월 14일

83 - 한겨레신문, 2000년 3월 14일

“문화가 꽃피는 북유토피아 조성”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이기웅씨

있도록 시설과 자연환경을 꾸미자는 것.

이 이사장이 이 곳에 전통가옥을 옮기자는 발상을 하게 된 것은 강릉 선교장의 사람재인 일화당을 가보고 반했기 때문이다. 마침 인하대 김광연 교수로부터 지은지 200년이 된 강릉수 기옥의 문화적 가치를 알게 됐고, 현장 답사를 거쳐 이전을 결정했다.

로 꾸미려는 것"이라면서 "지식산업인 출판은 환경이 좋아야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단지의 건물과 도로 건설 등에도 세심히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단지 건축설계지침'을 작성해 단지 전체의 통일성과 환경보호 등을 꾀하고 있다. 건물 높이는 보통이고 사용재료가 지장했다. 예를 들면 갈대밭을 관

古家 이전 복원사업 첫 시발점 다양한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자유로 옆 48만여평의 대지에는 요즘 새봄을 맞아 '북(Book) 유토피아'를 짓기 위한 패이로더의 광음이 우렁차다. 모두 1조원을 들여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를 조성하는 대공사이다.

26일에는 이 곳 단지에 전통가옥을 이전하는 공사가 벌어졌다. 단지의 상징으로 삼기 위해 호남의 대표적 전통가옥인 전북 정읍 김동수씨의 사람재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날 상막식을 가진 것

이날 행사는 지난 89년부터 12년간 단지 조성에 힘을 쏟아온 이기웅 파주출판단지 이사장(일화당 대표·60)이 제1호 문화 인프라사업에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문화 인프라 사업이란 출판인들이 이곳 단지에서 각종 문화를 누릴 수

다행히 복제는 지방단체로 지정돼 있었지만 별채는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아 일어 쉽게 풀렸다.

이곳에 이전하는 별채는 원형을 최대한 되살리게 된다. 허물어진 부분은 깨끗이 손보고, 집에 맞는 고가구도 들여 놓는다. 또 보일러를 들여놓고 방문객이 있으면 숙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내용은 원옥 별채의 이전뿐 만이 아니다. 단지 안에 풍력발전소를 설치해 문치를 더하고 3.9km에 이르는 샛강을 길대기 어려운 휴식공간으로 가꾼다. 이 이사장은 "단지를 단순히 책을 찍는 곳이 아니라 각종 문화가 꽃피는 '문화 유토피아'

통하는 도로는 자갈한 길을 깔아 운치를 살리도록 했다. 또 샛강을 깨끗이 보전하기 위해 '환경 매뉴얼'을 준비 중이다.

단지를 조성하면서 아이디어면, 공상가, 해설사 등 새로운 별명을 얻은 이 이사장은 "문화 인프라 사업은 '공통의 선'을 제시하면서 들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 함께 출판단지를 '안간을 베어하는 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일화'는 조경 하나하나에서도 드러나 있다.

▶참기름기자 hong@daily.com



26일 파주출판단지 인 250여평의 부지에서 이전 상막식을 가진 전북 정읍 김동수 사람재 모습(사진 위). 지난 7월 정읍에 있던 당시의 사람재 모습(사진 아래).

59

의 정으로서 '파주출판단지-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해외에서 활발히 개발 보급중인 풍력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우리 사회에 에너지 대안을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필영(명동대 교수·공학사)씨가 <에너지하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손충원(인하대 교수·기계공학)씨가 <풍력발전의 원리와 이용가능성>을, 오대균(에너지관리공단, 공학박사)씨가 <태양광발전의 열리와 이용가능성>을, 이상훈(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씨가 <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사업 소개>를 각각 발표했다.

오는 4월 15일까지 파주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및 1차 건축가그룹의 '공동성'을 주제로 한 건축전시회도 열린다. 전시작가로는 김영실(건축문화 대표), 김영준(이로제 소장), 김원(광장 대표), 김인실(아르키움 대표), 민현식(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호현 대표), 송호상(이로제 대표), 이종호(서울건축학교 유력 스튜디 오 메타 대표), 이일환(경기대학교 겸임교수·후리건축 대표), 정기윤(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기호현 대표), 조성봉(서울건축학교 교장·조성봉도시건축 대표)가 참여한다.



대체에너지 관련 세미나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6일 오후 3시 출판단지에서 대체에너지 관련 세미나를 연다.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일화당 대표)=16일 오후 3시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인포룸에서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파주출판단지 에너지 대안포럼 개최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만들기'를 지난 3월 16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에서 가졌다.

이날 이기웅 이사장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문화산업도시로서 무엇보다 환경 생태 우선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는 하는 환경운동이나 생태건축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의 하나로 풍력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그 실질적 논의

- 84 — 대한매일, 정기홍 기자, 2000년 3월 27일
- 85 — 책과 인생, 2000년 4월호
- 86 — 조선일보, 2000년 3월 15일
- 87 — 문화일보, 2000년 3월 15일

'출판유통정보화센터' 추진 방안 논의

유통질서 정착 위해 정부 협조요청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는 3월 29일 오후 2시 동부 8층 소회의실에서 '출판유통정보화 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 및 토의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방안'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단체장들을 초청해 토론회를 갖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연 서원화장, 박종일 인쇄협회회장, 백종만 출판부회장, 최선호 출판협동조합이사장, 윤형광 출판연구소 이사장, 이두영 대창외서무역대표, 박운규 성공회대학교수, 신용언 출판신문과과장 등이 배석했으며, 임병수 문화산업국장이 전체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두영 대창외서무역대표는 출판유통현대화를 위한 '출판유통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출판산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며,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을 난립된 출판유통시스템이라고 보고하면서, 점차 어려워지는 출판산업계의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대화된 출판유통시스

템의 구축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03년까지의 준비과정을 통해 기본 골격을 갖춘 현대화된 출판유통정보센터의 건립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했으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에서 소요되는 자금 일체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신용언 출판신문과과장은 "모든 단계에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수·발주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해야 할 것이며, 추후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측에 건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창연회장은 "유통현대화라는 것은 곧 서점의 정보화에도 일치되는 만큼, 서점의 정보화도 정부가 나서 적극 협조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협의 및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전반적인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지었다.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파주출판단지 에너지대안 세미나 개최



파주출판단지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과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회장 손충렬)은 3월 16일(목) 오후 3시 파주출판단지인포룸에서 '풍력발전기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란 주제로 파주출판단지 에너지 대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상은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병렬 방송대 교수(에너지 위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손충렬 인허대 교수(풍력발전의 원리와 이용가능성), 오대균 박사(태양광발전의 원리와 이용가능성), 이상훈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환경과 재생가능에너지 시범사업 소개) 등이 에너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한편 세미나가 끝난 후에는 '공동성'을 주제로 한 파주출판단지 건축코이네이터 및 1차건축가그룹의 건축전시회 개막식도 함께 열렸다.

파주 출판문화단지

어제 건축설계 조인식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은 26일 오후 4시 경기 파주시 교하면 문발리 건설 현장 인포룸에



서 시범지구 건축설계 조인식을 가졌다. 조인식에는 한철희(韓喆熙·돌베개) 박맹호(朴孟浩·민음사) 임성규(林成圭·문이당)씨 등 55개 입주예정 출판사 대표와 승효상(承孝相·이로재 대표)씨 등 출판단지 건축가그룹 소속 건축가 18명이 참가했다.

풍차가 도는 출판도시 만들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과 환경연합 에너지대안포럼(회장 손충렬)은 2000년 3월 16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단지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에 추진 중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출판문화산업도시로, 무엇보다 환경·생태 우선의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목적의 일환으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풍력발전기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의가 있던 이날 세미나에는 손충렬 인하대 교수, 이상훈 환경연합 기후·에너지부장, 이필렬 방송대 교수, 오대균 에너지관리공단 공학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에너지전문가, 건축가, 관계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기웅(李起雄) 출판단지조합 이사장은 "출판도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풍력발전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출판단지조합 제10차 정기총회 성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2월 24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기웅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년은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의 설계를 완성하는 해인 만큼 3월 안으로 설계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내년 해동 후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짜다"면서 금년 한해가 건축가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설계안을 만드는 유익한 해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기웅 이사장은 "새 천년의 첫 총회를 맞아 조합원 모두가 좋은 결실을 맺고 한 뜻으로 힘을 모아 파주출판문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1999년도 결산 승인동의 △임여금 처분(안) 승인의 건 △200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2000년도 수지예산서(안) 승인의 건 △2000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등 모든 의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파주출판단지 설계 조인식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송효상(承孝相) 이로재 대표는 26일 파주 출판도시 건축 설계를 위한 계약 조인식을 갖고, 사업



◇이기웅씨

시작 10여년 만에 본격적인 도시건설의 첫 발을 내디뎠다.

koland 세계제일의 지랑스런 국토로 - 한국토지공사

토공 제 2000-21호

용역입찰공고

1. 용역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유수지정대본·복원 및 조정설계용역
2. 용역개요:
 - 가. 추정가액: 80,760,000원
 -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다. 과업내용: 유수지정대본·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공법·복지·가도수에 대한 조정설계
3. 입찰방법: 실적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4. 낙찰자결정방법: 본 용역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으로 계약여부능력심사하여 총합 점수가 85점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비적성사나점제, 용역자격심사기준은 인터넷홈페이지 www.koland.co.kr ⇒ NEWS ⇒ 입찰안내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조정분야 신고를 받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의거 조정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써 자연형하천조성, 호수 및 습지조성, 생태환경조성 설계실적이 있는업체
6. 과업내용서 열람장소: 본사 5층 시설설계지 조정부 (☎0342-738-7465)
7. 입찰등록:
 - 가. 등록마감일시 및 장소: 2000년 4월 20일 16:00
본사 5층 재무관리처 조달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지하철 분당선 미금역에서 E마트 병행으로 1.4KM위차
 - 나. 신청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② 인감증명서 ③ 엔지니어링활동주체수첩사본 ④ 용역실적증명서(발주기관의 장이 확인한 원본이어야 함) ⑤ 입찰보증금(1년이상 엔지니어링업 영위법인 면제가능) ⑥ 입찰참가대리인 재직증명서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용역입찰요의서에 의합니다.
9. 입찰일시 및 장소: 2000년 4월 21일 14:00 본사 2층 교육실
10. 기타:
 - 가. 적격심사 등록용역수행능력(실적)에 대한 평가서 실적의 주요부분이 상기 내용의 실적일 경우 전체를 인정하며, 일부만일 경우에는 계약서 및 내역서 원본을 확인하여 해당 부분금액만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 나. 본 용역의 성공금은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 다. 개찰결과 당합한 실종이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라. 입찰등록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괄로 1회 불참한 업체는 경고조치하고(본용역이 유찰되어 재공고입찰시 입찰참가불가) 2회 불참업체는 차회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 과업내용서 및 용역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시설설계지 조정부(☎0342-738-7465)에, 기타 계약 관련사항은 재무관리처 조달부(☎0342-738-7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 4. 11.

한국토지공사 사장

<http://www.koland.co.kr>

- 93 — 간행물 윤리, 2000년 4월호
- 94 — 내외경제신문, 2000년 4월 11일
- 95 — 인쇄계, 2000년 4월호
- 96 — 조선일보, 2000년 4월 27일

'위대한 계약서' 출간

시문·잔치에 보도된 자료 183

[illegible]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나타난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성장과 생활 수준 향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특히,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계층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대립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年12月31日 星期三 12:00:00



지하철 1호선 10호선역에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 특히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10호선역에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 특히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타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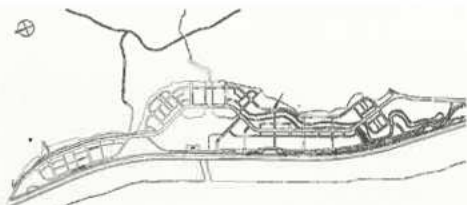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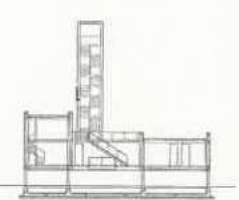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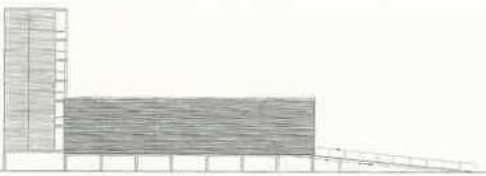


13. **ANSWER: 402** 44

한정재
HanSeo Jae



105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서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고 치료비용도 저렴하여 완치율이 높고, 그러나 늦게서야 진단되면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고, 치료도 비교적 간단하고 치료비용도 저렴하여 완치율이 높고, 그러나 늦게서야 진단되면 치료할 방법이 없고 치료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illegible][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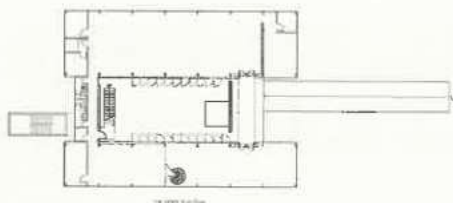
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4-1
 건축가: 김수근 (1915~1984)
 연도: 1984년 (1984년)
 면적: 1,100㎡ (1,100㎡)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단층
 재료: 콘크리트, 유리, 알루미늄
 설계: 김수근 (1915~1984)
 시공: 1984년
 사진: 김수근 (1915~1984)
 설명: 이 건물은 김수근의 대표작 중 하나로,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결합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건물은 넓은 유리창과 알루미늄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984년에 완공되었으며, 현재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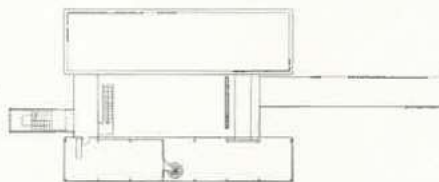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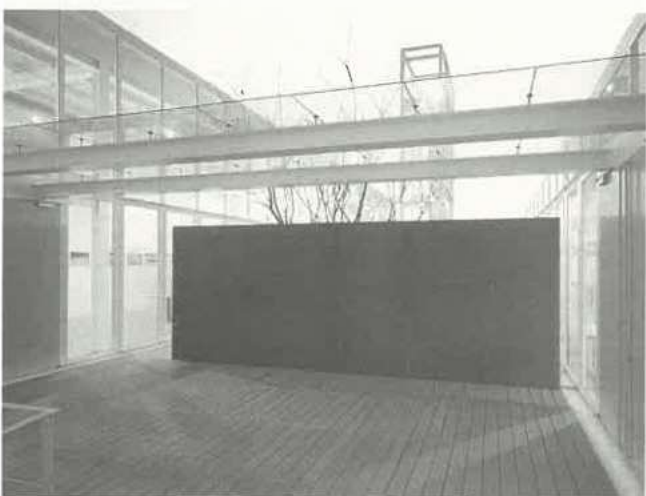
111



110 1st floor



111 2nd floor



112



113



파주 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Paju Book City



정부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1967년 12월 15일,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1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리고 1968년 1월 15일,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1968년 1월 15일,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했다. 그리고 1968년 1월 15일, 그는 '국립현대미술관'을 설립했다.

[illegible]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여자가 사탕을 파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뜻이 깊어 그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사탕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녀는 사탕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한다. 그녀는 사탕을 파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한다.

한국의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특히나 최근에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같은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무역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illegible][illegible]

<p>한국의 경제는 2012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어 온 가운데 2013년 1월 15일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2012년 4분기에는 1.1% 증가했다. 이는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증가한 것이다.</p>	<p>한국의 경제는 2012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기를 겪어 온 가운데 2013년 1월 15일 기준 국내총생산(GDP)이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로, 2012년 4분기에는 1.1% 증가했다. 이는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1% 이상 증가한 것이다.</p>
--	--

조각가인 이인환은, 특히 인물 조각에 능숙하다. 1925년~1930 년경에 프랑스에서 조각을 배웠던 그는 1930년경에 조선 미술가협회에 가입하여 1935 년경에 조각가협회에 가입 한 후 조각의 전진에 힘썼다. 이인환은 1935년 조각가협 회 창립회장에 선출되었는데 이후 1940년 조각가협회를 창립한 이래 1945년까지 창립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인환은 1945년 10월 10일 경에 일본군에 의해 죽었다.	조각가인 이인환은, 특히 인물 조각에 능숙하다. 1925년~1930 년경에 프랑스에서 조각을 배웠던 그는 1930년경에 조선 미술가협회에 가입하여 1935 년경에 조각가협회에 가입 한 후 조각의 전진에 힘썼다. 이인환은 1935년 조각가협 회 창립회장에 선출되었는데 이후 1940년 조각가협회를 창립한 이래 1945년까지 창립회장을 역임하였다. 이 인환은 1945년 10월 10일 경에 일본군에 의해 죽었다.
---	---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위대한 계약서

파주출판조합, 시범지구 설계 계약조인식 성대히 열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날 26일 오후 4시 출판단지 현장 인포룸에서 시범지구 공동 설계 계약 조인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조인식은 시범지구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인 대표인 이기웅 이사장과 건축가 대표인 승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앞장서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기업 대표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조인식은 "출판인축과 건축가축 쌍방이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이름하고 이 '위대한 계약서'를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으로 하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 유효하다"는 전제에 합의하여 이뤄졌다.

이번 조인식이 이뤄지기까지의 경위를 보면 입주 기업들이 98년 8월과 99년 6월 두차례에 걸쳐 출판단지 부지내 산업용지 11만 2천여평을 매입 완료하고 140여 필



▲ 파주출판조합은 지난날 26일 오후4시 현장 인포룸에서 시범지구 공동 설계 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지의 입주사별 위치와 면적을 확정함으로써 건축설계라는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98년 12월 승효상, 민현식, 김영준 세명의 건축가와 파주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계약을 맺어 그 첫번째 결과물로써 99월 시범지구를 중심으로한 '출판단지 건축을 위한 설계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1월초에는 김원, 조성룡, 정기용, 김현식 등 여덟명의 건축가로 구성된 '1차 건축가그룹'을 선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건축 설계의 과정에 접어들었다.

1월말 건축코디네이터 팀에서 '파주출판단지 2차지구 건축설계지침'을 완성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건축코디네이터와 함께 2월 18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입주사 대표와의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건축 설계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어 3월 중순에는 1차 건축가 그룹을 중심으로 섹터 아키텍트를 정하고 4월초 각 섹터별로 그룹 회의를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함께 하는 조인식을 갖기에 이르렀다.

HO LAND
 세계재일의 자랑스런 국토로 - 한국토지공사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공고

1. 용역개요
 가. 용역 명 : 파주출판단지 진입도로 및 복수구조물 조사설계용역
 나. 추정가격 : 233,8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과업기간 : 12개월
 라. 과업내용 : 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2.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자격심사"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자선정평가지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koland.co.kr 뉴스룸 일괄안내 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용역수행업체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토질및기초,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교통, 도시계획, 수자원개발 분야 신고를 필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또는 기술사업에의거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나. 축방법에 의한 축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업체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마감일시 및 장소 : 2000년 5월 24일 16시
 본사 재무관리처 조달부

5. 과업내용서 열람장소 :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개발부 ☎0348-940-3866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선금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신청후 입찰에 불참하였을 경우 중도탈락은 향후 3회동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과업내용서를 열람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사항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배부하는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배부처 : 본사 재무관리처 조달부 (☎0342-738-7181)

2000. 5. 10.

한국토지공사 사장
<http://www.koland.co.kr>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모집부문	인원	자 격
기획/홍보	0명	대졸, 경력, 국문·영문전공 영어능통자 및 문장능력 있는자
총무/관리	0명	대졸, 경력, 경영·행정전공 총무업무 유경험자 우대

- 사업내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
- 사업규모 : 국가산업단지 48만 1천평
- 조합원수 : 300사 • 종업원수 : 9명
- 주 소 :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 전화번호 : 511-9566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모집부문	인원	자 격
기획/홍보	0	대졸, 경력, 국문·영문전공 영어능통자 및 문장능력 있는자
총무/관리	0	대졸, 경력, 경영·행정전공 총무업무 유경험자 우대

- 사업내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
- 사업규모 : 국가산업단지 48만 1천평
- 급 여 연봉제
- 주 소 :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 전화번호 : 511-9566
- 제출서류 :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116 — 인쇄산업신문, 2000년 5월 15일

118 — 한겨레신문, 2000년 5월 10일

120 — 매일경제신문, 2000년 5월 20일

121 — 시티라이프, 2000년 6월 1일

제4차 해외 건축답사여행 다녀와

파주출판문화정보협동조합, 5일부터 16일까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제4차 해외 건축답사여행'을 지난달 5일부터 16일까지 10박 11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다. <사진>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 등 건축코디네이터와 입주기업대표 등 29명이 참가한 이번 답사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헬싱키, 스톡홀름, 오슬로, 코펜하겐, 말모, 취리히를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북구의 건축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답사여행은 출판단지 건축설계의 한 과정으로 기획된 출판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가 전원이 여행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등 실제의 건축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됐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건축의 공동성을 지향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건축코디네이터와 함께 모두 세차례의 해외 건축답사 여행을 실시한 바 있다.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은 10박11일간 유럽 건축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어떤 도시

이런 도시는 어떤까. 공기는 더없이 맑고 하늘은 푸르다. 드넓은 강이 바로 앞에 흐르고 뒤편엔 산자락이 나지막이 드리운 가운데 맑은 시냇물이 반짝인다. 그 속에 150여 채의 크고 작은 건물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 ○

집이 차지한 땅보다는 남겨진 땅이 더 많은데 이 땅들은 모두 같이 쓰도록 되어 있어 담장이 없다. 옆 집보다 서로 작은 집이 되려 하며 절제되어 있지만 오히려 당당하다. 한 재료로 지어져 있으나 결코 누추하지 않으며, 장식도 없이 담담한 벽만 있지만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은 아름답게 드러난다.

어지러운 간판들이 없어도 어디에 무슨 점포가 있는지 다 안다. 차들은 대단히 느린 속도

122

환경연합 '에너지 대체' 운동

강화도갯벌·파주출판단지등에 풍력발전소

연합회건물 태양열로 개조

환경운동연합은 강화군과 공동으로 강화도 갯벌지역에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오는 10월말까지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연합 건물도 태양열 주택(사진·조감도)으로 개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고유가 시대'를 맞아 풍력·태양광·바이오매스(생물자원)같은 환경친화적이고 고갈되지 않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10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대안에너지센터를 창립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오는 11월 완공할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풍력발전(10kW용량)시험사업에 이어 금강하구 습지지역과

지대가 높아 풍력 자원이 풍부한 난지도 쓰레기장 등에도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1차로 오는 10월말까지 대지면적 300여평 규모인 서울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건물 지붕에 15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솔라하우스로 재건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의 전력공급없이 에너지를 자체 충당하는 제로에너지하우스(Zero Energy House) 사업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이 솔라하우스 건물에 ▲1kW급 시범용 소형 풍력발전기 ▲빛물 재활용시스템 ▲메탄가스 발효형 정화조 등 자원 순환형 시스템도 갖추고 ▲작은 수목원과 연못을 만들어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시민 생태교육공간을 조성할 방



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와함께 강화군청과 공동으로 갯벌생태교육센터에 30kW 용량의 소형 풍력 발전기를 시범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도권 최대의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李尙勳)기후에너지부장은 "강화도의 경우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송전탑 건설의 대안으로 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제안했고 강화군청에서도 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적극적"이라며 "여기에 풍력발전소가 생기면 강화지역의 역사·문화·갯벌생태계와 함께 훌륭한 생태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진수기자>



로 갈 수밖에 없고 자전거가 주된 교통수단이며, 어쩌면 낭만적인 전차가 다니고 그 전기를 얻기 위해 하얀 풍차가 높이 솟아 빙글 돈다. 겉으로 보아는 이 도시의 정경은 대단히 느리지만 인터넷이나 초고속 통신은 이 마을 사람들의 손쉬운 도구인 지라 서로의 정보교환은 지극히 빠르다.

○ ○

상부적인 가로수 대신에 갈대과 억새가 무성하며 들꽃과 들풀이 여기저기 만발하고, 갈대 사이로 흐르는 냇강에는 물방개를 비롯한 앙증맞은 생물들이 즐비하다. 저녁에는 참으로 황홀한 석양을 어느 집에서 건 볼 수 있어 붉은 빛이 마을 깊숙이 감돌면 모두들 감사하며 하루를 접는다.

이 꿈 같은 도시가 바로 지금 파주의 한강변에 있고 있는 출판도시이다. 내가 아는 한 이제껏 우리가 지은 상부적인 도시와는 전혀 다른 특별한 도시가 2년 안에 이 땅에 생겨나는 것이다. 생각만 해도 즐겁다.

/송효상·건축가

123

문화선구자 자긍심을



이 기 웅<출판단지조합이사장>

오늘 날
우리사회는
정 보 화 의
물 질 속 에
기존의 사회근간을 이뤄왔던
산업들이 퇴보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출판·인쇄산업도 예
외일 수 없습니다. 특히 인터
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쇄되
지 않고서도 책을 읽을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출판
과 인쇄는 바늘과 실의 관계라

는 정통적인 사고가 위협을 받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때일수록 우리는
단순히 출판·인쇄업에 종사한
다는 생각을 담고 일어서 이
시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이끌
어 나간다는 결연한 의지로 날
카로운 예봉을 다시 세워야할
때입니다.

역사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기록되어지는 것은 오로지 인
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행사 개최

심포지엄 및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시상식 가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0월 10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및 부지내에서 '파주출
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
를 관계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먼저 오후 2시부
터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
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에



파주출판도시 심포지엄 모습

관한 주제아래 한철희 출판단
지이사(둘베게 대표)의 사회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어 문화산업단지로서 위상
을 확고히 다질 '아시아 출판문
화 정보센터' 현상설계경기 시
상식 및 전시회로 총 18개 응모
작 중 우수작 3점과 가작 5점을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

이날 마지막 행사로는 전수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작
'지혜의 빛' 점등식을 가졌다.

'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0일
출판단지 인포룸 및 공사현장에서 각
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출판환경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
명'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을 비롯, 아
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시
상식 및 전시회 개막, 출판단지 상징
조형물 '지혜의 빛' 점등식 등이 열
렸다.

특히 심포지엄은 출판단지가 지난
10여 년의 긴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
적인 여건변화는 물론 전자출판의 활
성화 등 출판환경 변화에 따른 출판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계 전
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으로 재조명해
보는 뜻깊은 자리로 전개돼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날 점등행사를 가진 출판
도시 상징조형물 '지혜의 빛'은 한
국예술종합학교 전수천 교수의 작
품으로 21세기의 가능성과 변화의
예감,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쏟아 낸 지혜를 상징하여 구상, 제작
된 초대형 석조 조형물로 통일의 길
목에 자리한 지혜의 도시, 파주출판
도시의 성공과 영원한 발전을 기원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조합은 입주사들의 사옥 건축을 위
한 설계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내년부
터는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행, 오는
2002년 5월이면 시범지구 입주를 완
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출판단지가
명실공히 문화도시로서 국내는 물론
월드컵 경기 관광객 등 해외에까지 국
제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입주추진
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출판단지 화려한 점등식

출판단지조합
현지서 기념행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
업협동조합(이사장 이기웅)은 지
난 10일 출판단지 인포룸 및 공
사현장에서 각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판도시 입주를
향한 10월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출판환경변화에 따른
출판단지의 도시적 성격 재조명
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비롯,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
계 시상식 및 전시회개막, 출판
단지 상징 조형물인 지혜의 빛
점등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
됐다.

특히 심포지엄은 출판단지가
지난 10여년의 긴 준비기간 동안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는 물론 전
자출판의 활성화 등 출판환경 변
화에 따른 출판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다
각적으로 조명하는 기회를 마련
했다.

이날 점등 행사를 갖은 출판도
시 상징 조형물인 지혜의 빛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수천교수의
작품으로 21세기의 가능성과 변
화의 예감, 그리고 남북의 민족
이 하나되어 쏟아낸 지혜를 상징
하여 구상, 제작된 초대형 석조
조형물로 파주출판도시의 성공
과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

한편 파주출판단지조합은 내
년부터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
행, 오는 2002년 5월에 시범지구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129, 130 — 인쇄신문, 2000년 10월 27일

130 — 인쇄문화, 2000년 11월호

131 — 서점신문, 2000년 10월 17일

파주출판단지 성공적 조성 위한 관계관회의 개최

도로, 교량, 전기, 가로등, 개발계획 등 전반적인 안건 거론

2002년5월 출판단지시범지구 입주를 앞두고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송달용 시장을 비롯 토공파주시업단 박종철 단장, 출판단지 이기운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파주출판단지 인포룸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판도시 내 교량, 도로 구조물 디자인에 관한 협의, 전기 가로등 디자인 요청에 관한 사항,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축허가, 산남공원 개발계획, 송전선로 건설, 자유로변 광고탑 설치, 심학산 난개발 관련의 건, 기타 파주출판도시 건축협의회(가칭) 구성 등의 안건이 거론되었다.

또한 출판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과 건축협의회에 관한 사업 등의 논의를 위해 입주자인 출판단지조합,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향후 공공시설인수, 생태수로 관리 및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파주시 등 사이의 다양한 의견들을 사전조율하고 조정하는 예방적 협의체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파주출판단지는 97년3월31일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에 따라 98년1월8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98년11월20일 공사를 착공(시공사 현대산업개발(주)), 2000년6월26일 실시계획 변경승인(주거시설부지 추가)을 거쳐 현재 성토공사는 80%, 우수·오수관 47%, 교량설치는 파일설치 완료하여 전체 54%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안중근 선생 동상 제막식

이기웅(李起雄) 파주출판단지 이사장은 16일 오후 1시30분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안중근 선생 동상 제막식을 갖는다.

경기도 지역별로 산업특화

안산~평택 자동차업체 육성 파주~포천 출판·염색단지로

경기도가 출판, 자동차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집적화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15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안산~평택축을 자동차·정밀화학벨트로, 이천~여주축을 도자기벨트로, 파주~포천축을 출판·염색벨트로 각각 집적화하기로 하고 기반시설을 조성중이라고 밝혔다.

또 파천~성남~용인축을 벤처벨트

로 개발하는 등 권역별로 지식기반산업을 집적화하고 있다.

도는 안산~평택축의 경우 자동차 관련 필수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이미 평택 평택단지(12만9772평)와 평택 칠괴단지(17만9685평)내에 64개 관련업체가 입주한 상태다.

또 화성 금의단지(18만평)내 자동차 관련, 조립·금속업종 입주를 위해 현재 화성군과 토지공사가 사업착수에 따른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특히 정밀화학 업종집적화를 위해

지난 11월 착공한 화성 마도단지(28만4350평)를 오는 2002년 완공하고 발안단지(58만2312평)는 토지공사가 실시계획중이다.

세계적인 도자기 본산지인 이천~여주축에 도자기 관련 업체 집적화를 위해 여주 장안단지(1만7847평)를 올해까지 마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파주~포천축을 출판·염색 등 지역산업으로 집단화하기로 하고 파주 출판문화단지(48만1277평)를 오는 2004년까지 완공기로 했으며, 파주 오산단지(6만7760평)도 내년까지 완공시킬 계획이다.

<수원=김형운기자>

147 — 파주연합신문, 2000년 12월 20일

148 — 조선일보, 2000년 12월 16일

149 — 문화일보, 김형운 기자, 12월 15일



파주출판문화타운 건설 '차곡차곡' '북토피아' 꿈 여문다

출판단지 디자인 사령탑 열화당 이기웅 사장

글 조운찬·사진 이상준기자

30년 동안 미술전문 출판사 열화당을 이끌며 700여종의 책을 만들어온 이기웅 사장(60)은 요즘 출판지가 바뀌었다. 열화당 출판사가 있는 서울 강남 신사동은 집에서 지쳐있지만, 그는 30km 이상 떨어진 경기도 파주로 향한다.

파주시 고현면 문발리에 들어서게 될 파주출판문화원보산단지(일명 파주출판단지), 내년 3월 입주할 사옥 건축공사를 앞두고 자질조사, 교량건설 등 기반시설 특목출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이기웅 사장은 지난 10년간 쌓아온 '출판도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출판은 양적으로는 세계 10대 출판국이 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기획, 편집, 유통, 판권 등은 전근대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수하인 동안 쌓아온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대 도전이 바로 파주출판단지 건설입니다. 단지가 완성되면 출판사 및 유통, 판권의 과학화와 전문인력의 양성, 우리 책문화와 국제화 등 출판문화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이기웅 사장은 파주출판단지의 이사장으로서 도시 설계와 건설, 입주 등 모든 업무를 총괄 지휘한다. 그는 매일 현장 지휘부인 인도봉에 올라 현황을 보고받는다. 하면 건축 설계사와 정기적으로 설계 세미나를 갖고 있다.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는 한글을 틀어 가문과 바람, 인근의 교향향을 헤아리며 출판도시의 비전상을 그려본다. 작업복 차림으로



미래의 파주 출판단지 모습(그림 박영주 홍익대학교수)

넓은 평판을 휘젓고 다니는 그의 모습은 출판인이 아닌 속편된 건설현장 사무소장을 연상케 한다.

파주출판단지는 출판인들의 일터인 '북 유토피아', 총면적 48만㎡에 달하는 1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1단계로 25만㎡에 개발되어 이르면 2002년 6월경 시범지구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입주한 신원출판사는 140여개 업체, 단지는 이를 입주사와 함께 유통센터, 인쇄소,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영상문화센터, 문화산업박람회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 대규모 출판문화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이사장이 거대한 출판문화타운 건설보다 더욱 중시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살맛을 만드는 것. 출판도시를 뛰어넘는 출판인 공동체와 그의 꿈이다. 출판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책길과 주변의 갈대밭 보존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6월에는 쓰러져가는 정음 김동수 고가의 별채를 단지로 옮겨오는 여건(부채) 공사를 갖기도 했다.

"도시를 디자인하는 일은 책을 만드는 일과 비슷합니다. 요점은

출판단지를 조성한다기보다는 도시를 편집한다는 생각에 들어요. 이 일을 하면서 미술책, 책에 건축책을 만들었던 경험이란 도움이 됩니다"

"좋은 공간에서 좋은 책이 만들어진다"는 이사장의 출판행학은 출판사 이름인 '열화당(열화당)'에서 잘 드러나 있다. 도인병의 '귀거래사' 사구절에서 유래한 열화당은 그가 어떤 시절을 보내 감동 깊고 아름다운 사람재이기도 하다.

"제가 어떤 시절을 보낸 것만 열화당은 단순한 시냇가에 아닌 책보림 책이나 문장을 만드는 출판사이자 세고있습니니다. 사치심, 욕심, 우수가 들 수 많은 고서재 속에서 자라며 책과 가까워졌고 평생 출판인생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사장은 출판단지가 자연과 인간, 책의 향기가 어우러지는 출판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올해로 화갑을 맞은 그는 출판단지가 젊은 출판인들의 출판꿈을 지킬기를 기대한다. 그제가 되면 도인병이 '귀거래사'를 부르면 정음으로 돌아갔듯 전국의 출판인들이 '귀거래사'를 부르면 파주출판단지가 모여들지도 모른다.

"천지봉의 경계로 아이들을 옮겨놓고 책을 읽는 근심적 정열 솟아내리노라"(倪瓚之詩 吳夢祥) (이하 생략)

30년 외길 출판인생 '노고의 결실' 책 3권

열화당 대표로, 출판단지 사령탑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이기웅 사장이 최근 두권의 책을 동시에 펴냈다. 수상작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논설)'과 사진집 '세계의 어린이들(열화당)'. 지난 1월 펴낸 '만경고 정경' 끝나지 않았다(열화당)를 출판한 열화당 3권의 책을 출판한 것이다. 올해 화갑을 맞아 추억에서 공간을 부추긴 정도 없지 않으나 평소 꾸준히 생각하고 연구하는 이기웅의 노력이 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출판도시를...'은 출판인 이기웅의 책과 문화에 대한 생각을 담았다. 출판계 입문 이후 써왔던 글들을 출판한 출판도시의 서화본, 출판이론, 출판이론, 내 인생의 책 등 주제별로 묶었다. 한국 출판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구상 및 추진과정을 담은 글 등 30년 출판인생의 궤적을 살펴 수 있다.

'세계의 어린이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외를 여행하면서 만난 작곡가와 어린이들을 카메라 렌즈에 담은 230여점의 사진이 실려 있다. 광주, 진주, 강릉 등지에서 만난 이들과 어린이는 물론 제물, 스웨덴, 헝가리, 호주 등 세계 어린이의 순간무구한 모습이 보는 이와 마음을 정복시켜 준다. 여행의 동반자였던 사진작가 김문규, 소설가 조세희 씨가 편집하고 서문을 썼다.

만경고의 역사와 문헌기록을 편역한 '만경고 정경...'은 안 의사의 나라 사랑을 육신으로 전하는 글 모음집. 평소 안 의사의 나라 사랑을 육신으로 전하는 글 모음집. 평소 안 의사의 나라 사랑을 육신으로 전하는 글 모음집.

경기 의사를 정신적 스승으로 삼았던 이 사람이 오랜 좌와 함께 내놓은 안의사의 무명기록이다. 책 출간 이후 국방부에서 군인 기록으로 채택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에는 출판단지에서 안의사 동상 제막식이 열리기도 했다.



“출판은 시대적인 소명 정신에 자양분 주는 젖줄”

산문·사진집 펴낸
열화당 대표 이기웅씨

“출판자는 글을 쓸 줄 모른다. 아니 글을 쓰지 않는다. 그들은 글 쓰는 이들의 삶으로부터 꿈을 빌려 온다.” 출판사 열화당의 이기웅(60·사진) 대표가 사진집 ‘세상의 어린이들’(열화당)과 함께 펴낸 산문집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눈빛)에서 들려주는 글은 역설적이다. ‘꿈을 빌려 오는’ 대신 이번에는 자신이 꿈을 빌려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책 두권은 그의 갑년(甲年)을 기념하기 위한 작은 징표다. 보통 단행본들보다 작은 판형을 선택한데서 이기웅의 예절(책에서 그가 즐겨쓰는 어휘가 ‘예절’이다)을 읽어낼 수 있다. 이 중 산문집의 경우 자신의 대학출간 시절 제자인 이규상(눈빛 대표)이 나서서 원고를 모으고 봉정(奉呈)하는 과정을 거치는, 보기 좋은 모양새를 취했다.

정신적 책 제작으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한 이기웅의 책 두권은 미담, 그 이상이다. 그는 꿈이란 ‘모반의 꿈’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식문화의 연출자’인 출판계이로서의 일관된 꿈을 고집스레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이다. 그는 책에서 출판행위에 대한 모더니즘



적 신념을 거듭 보여준다.

“출판은 학교나 법원이나 종교단체와 함께 ‘진리의 기구’라 일컬어질 정신영역의 존재입니다. 무슨 도덕 감의 같은 소리나 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는 왜 책을 만들까? 출판은 한 시대의 소명입니다. 사람의 정신을 다루고 정신에 자양을 공급하는 젖줄과 같은 것이지요.”(6~7쪽)

부박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의 물상가적 신념은 파주 출판단지에 대한 오랜 구상과 현재진행형의 실천으로 표현되고 있다. 산문집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위한 출판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인문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에 읽을거리로도 추천할 만하다. 오랜 지기(知己)인 사진작가 강운구가 편지를 거들여온 사진집은 세계의 어린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다. 역시 그의 지기인 소설가 조세희가 서문을 썼다.

조우석 기자

<wowow@joongang.co.kr>

● 출판도시 건설 12년 매진 이기웅 이사장

책·사람·생태 어우러진 공동체 꿈꿔

생태와 도시, 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파주 출판도시’ 건설은 그가 12년째 매달려온 일이지만 “30여년 출판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다. 물론 술한 난관이 출몰했고 비관의 목소리도 적잖았다. 그 꿈이 이제 하나씩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기반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 4·5월께엔 마침내 50만평 중 25만평 시범단지의 입주 건물 착공이 시작된다.

서울 강남의 출판사와 경기 파주사를 오가느라 더욱 바빠진 이기웅(60·열화당 대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은 “지식을 기획·생산·유통하는 출판도시의 ‘공동성’이 우리 출판을 발전시키는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실험을 감추지 못한다. 최근 그는 30여년 출판 의지를 걸으며 출판도시 건설에 쏟은 꿈과 열정, 그리고 자신의 출판철학·시론 등 1980년대 이래 써온 글을 모은 문집 <출판도시를 향한 책의 여정>(눈빛



퍼냄)을 냈다. 글을 쓴 10,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바뀌지 않은 출판 현실에서 그는 ‘생각하는 출판’을 제1의 원칙으로 강조한다.

“책의 불황이라고도 하고, 독자는 죽었다고 말하는 아도 있죠. 하지만 무작정 끝까지 지키기 위해 책을

만드는 경박한 상업주의 출판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책성이라야 산다’고 했는데, 그 말씀처럼 ‘생각하는 출판이라야 산다’는 믿음이 살면 살수록 굳어가는군요.”

그는 책에서 출판도시 추진과정을 담은 당시 글을 통해 80년대 출판공동체운동을 구상하던 단계부터 차츰 환경친화적 도시문화운동으로 나아가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향약’ ‘공동성’ ‘생태도시’ 등 독특한 문화를 출판도시에서 구현할 계획도 계속 구체화하고 있다.

“조선시대 향약처럼 공동체 자원으로 정한 약속들에 따라 도시생활이 운영될 겁니다. 또 퇴살된 갈대 새강과 조화하는 환경친화적 도시 사람을 대접하는 도시건축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60살에 이르러 오히려 더욱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오철우 기자 cheolwoo@hani.co.kr

공문과 서류로 작성된 자료

.....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각종 계약서

◎

파주출판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정부 기관을 비롯,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 공문 및 문서가 대량으로 양산되었다.
특히 제작 배포했던
각종 설명자료 등은 분기별, 사안에 따라 출판도시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 되어
기록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자료집에는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알 수 있는 공공기관 및 대외기관간 수발된 주요 공문
및 자료 위주로 엄선하여 순차적으로 게재했다.

1998년도



1998년도 하반기는 지난 10년동안 계획했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그 첫 삽을 뜬 역사적인 시기였다.

이 기공식은 문화관광부 및 건설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공사에 주관하는 정부행사로 개최되어 출판단지가 명실상부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됨을 만천하에 알리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또한 파주출판단지 자료집 5권이 발간되어

기반시설공사 기공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일들을 영원한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출판도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해이기도 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986-8 팩시밀리 511-0989 PAJUBOOKCITY@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98-11호

1998. 11. 1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지
참 조 : 판매관리부장
제 목 : 부지 매입과 관련한 질의 사항

안녕하십니까.

본 조합에서는 귀 사업단과 지난 8월 31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서민 지구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험지구 입주 예정사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 의해와 귀 사업단의 답변을 요청하오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현재 조합과 토지공사간에 체결된 일괄 계약을 토지공사와 개별 입주사간에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예정일은 언제인지.
2. 토지공사와 개별입주자가 본 계약 체결 시 환매특약 조건으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3. 토지 분양대금(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한 결算是 은행 대중에 대한 후회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절연선정을 승낙해 줄 수 있는지의 여부

* 참고로 질의한 회사는 유통지구 22,000평을 신청한 회사이고, 정부 긴급지원자금에 대출 받을 예정으로 이에 대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질의 사항입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986-8 팩시밀리 511-0989 PAJUBOOKCITY@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98-11호

1998. 11. 12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 건립에 관한 건

1. 출판단지조합 제98-90호(1998년 7월 31일자) 공문 관련입니다.

2.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은 21세기 국 제화시대의 주체적 문화대중 능력을 제고시킬 우리 문화산업의 전진기지로써, 정부에서는 그 공공성과 중요도를 인정하여 국고로써 전립하기로 하여 이미 설계를 위한 국가예산이 배정된 공공시설입니다.

3.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는 입주예정자들은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 파주출판문 화정보산업단지 본인의 조성목적을 이루겠다는 의지 하나만으로 귀 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 해온 결과, 어떠한 여건이건만 문화시설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결심을 내비계된 것입니다. 그러 나 지극히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무릅쓰고 산업지구 입주를 결정한 것만도 박한 입주예정자를 표시는 기 고시된 문화시설부지 공급가와 납부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경향을 귀 부 에서도 찾아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4. 따라서 국가가 부담하여 건설하는 공공시설인 출판단지내 문화시설 부지에 일을 떠맡겨진 입주예정자들의 어려운 입장을 감안하신다면, 다만 납부 방법에 있어서라도 별 도의 급비 부담 없이 최대한 장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귀 부에서 긍정적으로 조치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 부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충정을 헤아리시어 모쪼록 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손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선제적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홍



- ①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출판단지 부지매입과 관련한 질의 공문
- ② — 문화관광부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문화시설 건립부지 토지대 금 납부조건 완화 조치 요구

출판단지조합 : 제98-112호

1998. 11. 13.

수 신 : 조합원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행사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
반시설공사 기공식 행사 일정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기공식 행사는 문화관광부와 건
설교통부가 주최하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주관하는 정부 행사로 치러집니다.

지난 10여년간 우리가 그려왔던 이상들이 하나 둘 현실을 맺어 재회되는 이 뜻깊
은 행사의 주인공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우리의 의지와 결집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는 이 역사적인 행사에 맞추어 그 동안의 추진과정을 수록
한 '자료집 제5집'을 발간했습니다. 이에 기공식 행사를 마치고 조합원 여러분과 더불어 기공식
행사와 자료집 발간을 자축하는 자리를 따로 마련하오니, 기공식 가족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여러분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참석여부와
인원수를 알려주시는 문장으로 회사를 배정합니다. 예약을 하시지 않으면 좌석이 없을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날씨가 쌀쌀하니 든든한 복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공식 행사 참석 안내 -

· 일 시 : 1998년 11월 20일(금)

· 기공식 행사 오전 10:00 ~ 10:30

· 조합원 자축연 오전 10:30 ~ 11:30

·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분말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

· 교통편 : 대형버스가 세종로 경복궁(충정위각물문) 주차장에서 오전 8시 40분에 출발합니다.

· 문 의 : 조합 사무국(☎511-956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출판단지조합 : 제98-117호

1998. 12. 4.

수 신 : 조합원사 대표

제 목 : 사업추진 경과 보고 및 관계자료 송부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거행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이후 단지 조성을 위한 제
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지난 11월 24일에는 한국토지공사와 우리 조합간에 단지내
문화시설부지 5,423평에 대한 폐입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이 12월 1일에는 이의 전입과 운송을 맡을 주체로서 출범하는 「(가칭)사단법
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창립총회를 거행하였습니다.

첨부의 보내 드리는 11월 26일자 「한겨레」 14면에는 이러한 우리의 사업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특집으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후시나 이를 보지 못하신 조합원이
제실 것 같이 원본을 우송해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출판계 소식을 전달하는 겨우간 인터넷 웹진(Webzine) 「부
구(BookKoo)」 <http://www.bookkoo.co.kr> 12월 11일자에도 출판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특집기사가
게재된 바있으나 관심 있으신 조합원들께서는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한겨레 기사 원본(98년 11월 26일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출판단지조합 : 제98-120호

1998. 12. 23.

수 신 : 건설교통부 장관

참 조 : 국토계획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저적·정보산업용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1997-0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입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령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바 있습니다.

3. 이에, 입주자로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
한 청원을 드립니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고 하여 참여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전기·가스·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관리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도로(C)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위 부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직접하게 시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도 법률에서 정한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한 적절한 시기에 적
당함으로써 전체 건설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청원 드립니다.

5. 이러한 조치야말로 자금과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무릅쓰고 열심한 중산기업
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주자를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를 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
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생성시공 생활지도 공사본문 나리본은

건 설 교 통 부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0-4105-6 / FAX 503-7309

인지계획과 과장 조영동 담당사무관 이충재 담당 김진실

문서번호 입지 58307 - 649

시행일자 1998. 12. 23. ()

반송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9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 .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제 목 민원회신

1. 귀하가 제출한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
성사업과 관련하여 단지조성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여기에 기반시설비 국고
지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서,

2.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우선 지원하여야 하나 정부계정상 진입도로,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사업비의 일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규모 등은 정부계정, 산업입지정
책, 산업단지 조성현황, 개발규모, 주변기반시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건 설 교 통 부 장



- ③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 행사 개최 안내
- ④ — 단지 내 문화시설 건립과 관련 사업추진 보고 및 관계자료 송부
- ⑤ — 건설교통부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청원
- ⑥ — ⑤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회신



출판단지조합 : 제98-121호

1998. 12. 23.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산업단지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감리업무 관련 의견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장님
아래 귀 공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1월 20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
성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향후 공사 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귀 공사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 추진되겠지만, 입주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시행착오 없는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 아래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 입주 중소기업들도 가능한 효율적이고도 경제적인 조성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귀 공사가 그 어느 때보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경황에 기초하여 입주자 입장에서 귀 공사에 우선 요청드릴 사항은,
공사 감리업무에 있어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외부 감리용역 발치보다는 귀 공사 자
체의 공사 감독체제를 적극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외부용역이 필요 없는 조성공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운용은 현 경제체제하에서 국가적으로도 적극 권장
하고, 도입해야 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거둬야지의 편협이나 공정 제제상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요청의 근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재설 것이라 믿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긍정
적인 조치 있으시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 기 울



1999년도



1999년은 파주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설계
지침이 마련되고 국내외 건축답사를 통해 사옥설계 및 건축방향 등이
모색되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된 해였다.
또한 2차지구 산업용지 60,157평에 대해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개별필지 면적 및 위치를 확정지음으로써
출판도시 전체 세부 조판을 완성한 해이기도 했다.
아울러 출판도시 핵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공동주택 등의 건립계획이
수립됐고 교통, 환경 등 출판도시 내적인 발전방향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는 해였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9 서울 진보로 신세빌 508 2층(출판문화정보)
전화 511-9506~8 팩시밀리 511-9509 PAJUCO@HOTTEL.CO.KR

출판도시조감 : 제99 - 1호

1999. 1. 5

수 신 : 조항원

제 목 : 서법지구 건축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안내

안녕하십니까.

확장된 세대를 맞이하여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본격적인 출판도시 건설이 시작되는 '99년을 맞아 조합 사무국에서는 '초월적 기업 정신'으로 조합을 이끌었다는 자네로써 올 한해 사업의 주요 목표를 '이상적인 출판도시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 아래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권역 출판단지 건설의 본보기가 될 시법지구의 바람직한 건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함으로써 출판단지 건축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는 한편, 서법지구 입주사의 공통적인 관심과 과제에 대한 이해와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선 전반적인 출판단지 개발계획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도시, 건축의 미학을 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토론을 통하여 향후 건축의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하오니 조합원께서는 꼭 참석하시어 전문가들의 소중한 조언을 얻는 한편, 입주자로서 진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1999년 1월 1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강남출판문화센터 지하2층 이랜드홀
(강남구 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06)
- 참여대상 : 전 조합원 및 관련 인사
- 일 정 : 별첨 자료 참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도시·건축 심포지엄(1차) 계획안

1. 의 의, 목적

- 출판단지 도시, 건축의 구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알리고,
- 시법지구 참여사의 공통적인 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 도시, 건축의 유사한 사례와 논의를 점검하고,
-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

2. 개 요

- 일 시 : 1999년 1월 14일 (목) 오후 2시~6시
- 참여대상 : 시법지구 참여사 대표, 권역사, 장대 참여사 등 100여명
- 형 식 : 주제발표(2인) + 토론자(초청) + 질의응답
- 장 소 :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랜드홀

3. 주 제

1) 제1주제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도시와 건축
- 기 작강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계획을 점검하고, 도시·건축의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논의
- 주제발표 : 황기원 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단지 설계자)

2) 제2주제

- 계획도시의 건축 일반론
- 도시·건축의 정단과 바람직한 도시·건축의 미학을 논의
- 주제발표 : 조성훈(서울건축대학교 교장·조성훈 도시건축연구소 대표)

3) 토 론(발표된 주제들에 대한 토론)

- 주 최 : 송효상(건축사사무소 應應 代表)
- 인현식(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 토론자 : 강광현(서울대 건축과 교수)
- 강준성(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 김진배(서울포럼 대표)
- 김인호(한경사 대표)
- 성만수(삼일 대표)

- ① — 이상적인 출판도시 건설을 위한 시법지구 건축 심포지엄 개최 안내
- ② — ①의 불임, 도시·건축 심포지엄(1차) 계획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135-137 서울 강남구 신사동 335-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80-8 팩시밀리 311-9580

출판단지조감: 제99-7 호

1999. 1. 7.

수 신: 산업자원부 장관

참 조: 산업정책국장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입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령을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이에, 입주자로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 한 청원을 드립니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전기·가스·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 에 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모로록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망하며, 입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1.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사본 1부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서울지방법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77호) 사본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본 1부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135-137 서울 강남구 신사동 335-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80-8 팩시밀리 311-9580

출판단지조감: 제99-4 호

1999. 1. 7.

수 신: 경제수석비서관

참 조: 산업·정보·통신·과학비서관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입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령을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이에, 본 단지의 입주자로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반시 설과 관련한 청원을 드립니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전기·가스·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 에 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모로록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망하며, 입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1.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사본 1부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서울지방법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77호) 사본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본 1부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135-137 서울 강남구 신사동 335-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80-8 팩시밀리 311-9580

출판단지조감: 제99-5 호

1999. 1. 7.

수 신: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참 조: 교육·문화비서관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입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령을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이에, 본 단지의 입주자로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반시 설과 관련한 청원을 드립니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전기·가스·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 에 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모로록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망하며, 입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1.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사본 1부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서울지방법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77호) 사본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본 1부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FAJU BOOK CITY

135-137 서울 강남구 신사동 335-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311-9580-8 팩시밀리 311-9580

출판단지조감: 제99-6 호

1999. 1. 7.

수 신: 예산청장

참 조: 건설교통예산담당관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입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령을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지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이에, 본 단지의 입주자로서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 한 청원을 드립니다.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 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 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전기·가스·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 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 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 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도로)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주어 국가경쟁력 제고 에 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5. 모로록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망하며, 입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첨부: 1.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사본 1부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서울지방법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77호) 사본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본 1부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 ③ — 산업자원부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 ④ —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 ⑤ — 청와대 사회복지수석비서관실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 ⑥ — 예산청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5500-8 팩시밀리 511-5509

출판단지조합: 제99-8호

1999. 1. 7.

수 신: 중소기업청
참 조: 중소기업정책국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1997년 12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차 시범지구 일주자를 확정 하고, 지난 1998년 11월 20일 국무총리실 로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 조상공사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현행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법령에서는 국가가 중소기업들의 산업활동을 지원해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형성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 발전에 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할 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조합으로서 위 형에 아래와 같은 국가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관련 중소기업 법령들의 시행을 청원하오니 조치를 바랍니다.

4.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나 공업단지및공업성립에관한법률 등이 있지만, 중소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서도 국가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5. 로복록 이하한 지원사항들이 평으로 그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위 형에 조처해 주시기를 요청하며, 입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1. 국가산업단지 지정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1997-95호) 사본 1부
2.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7-277호) 사본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사본 1부 -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실업문제 해결하여 IMF체제 극복」

중 소 기 업 청

우302-701 대전시 서구 문산동 920번지 / 전화 (042)481-4426 / 전송(042) 472-9282
입지지원과 과장 이 문 범 사무관 신 용 식

문서번호 입지 55477 - 20

시행일자 1999. 01. 23

수 신 여기용

참 조

선	지
정	지
수	지
처	지
당	지

제 목 파주출판 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관련 청원청신

1. 출판단지 조합 제99-8호('99. 1. 7) 관련입니다.
2. 우리청에서는 IMF 체제 이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단지 입주전망의 불투명으로 대규모의 단지조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귀단지가 문화관광부 또는 건설교통부의 지원으로 단지조성이 완료된 후 통단지에 출판·인쇄업 등 관련 중소기업이 활동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중 소 기 업 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5500-8 팩시밀리 511-5509 PAJUPCC@NATEL.CO.KR

출판단지조합: 제99-12호

1998. 1. 12.

수 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문화산업국장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요청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편라전차로서 단지 조성에 남다른 열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래님 이하 문화관광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1월 20일 가행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공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것과 편인,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한 청원을 드립니다.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안의 공동구(관거·개소·통신설비 등) 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와 편려하여서는 유동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동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〇〇)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형성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주어 국가경제력 제고에 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연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예산청 등 관계 부처와 한국토지공사에 이따한 사람들이 편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단지 편라전차로서 위 부의 능동적이고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단지 조성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3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5500-8 팩시밀리 511-5509 PAJUPCC@NATEL.CO.KR

출판단지조합: 제99-8호

1999. 1. 23

수 신: 주거시설위원회
제 목: 주거시설위원회의 개최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거시설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1999년 1월 28일 (목) 오전 7시
- 장 소: 코퍼아나호텔 5층 530호 (5호실)
- 안 건: 1) 입주자 주거시설 수요 조사의 전
2) 파주 교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전
3) 기타

○ 주거시설 위원 명단

위원장: 유재동(교문사)
위원: 김영문(경재원), 김신혁(서광사), 심민수(살림)
이진복(동네), 홍원식(도봉금강)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주거시설위원회 위원장 유 재 동

- ⑦ — 중소기업청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 ⑧ — ⑦에 대한 중소기업청의 회신
- ⑨ — 문화관광부에 파주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 ⑩ — 파주출판단지 주거시설위원회 회의의 개최 안내

출판단지조감 : 제99-122
수 신 : 재정분양위원회
제 목 : 재정분양위원회 회의 개최

1999. 1. 27

안녕하십니까
본 조합 재정분양위원회에서는 향후 재정관리 및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여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0. 일 시 : 1999년 2월 3일 (수) 12시
0. 장 소 : 오양 아파트
0. 안 건 : 1). 조합 자금관리에 관한 건
2). 2차 부지매입에 관한 건
3). 기타

*참석자 : 위원장 : 배효선
위 원 : 김진혁(서광사) 김정선(보진제) 김현제(파생제책사)
이진복(동북) 안종만(약형사)
이 사 : 조상호 (나눔출판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재정분양위원회 위원장 배효선

출판단지조감 : 제99-21호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시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자본회의 참석 요청

1999. 2. 4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효율적이고도 이합치한 출판단지 조성 및 입주사 사속 진흥을 위하여 건축코디네이터를 선정,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조합에서는 이들과 함께 시범지구 건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 답사 및 주제별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본격적인 출판단지 조성 기반시설공사 시작을 앞두고 단지의 모습을 좌우할 수로(간대상장)변의 조경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2월 회의를 현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귀 봉사처 실무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인 협의를 갖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현장에서 제자 회의를 개최코자 하오니, 단장님과 실무책임자 그리고 조성공사 실시책임자나 수로개발계획 및 주변 조경공사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실무자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안 건 : 출판단지내 수로개발(조경 포함)계획과 공사 시행
*일 시 : 1999. 2. 5(수) 오전 9:30-11:30
*장 소 : 현대산업개발(주) 출판단지 현장 사무실
*참석자 : 한국토지공사 - 파주시업단장 - 부장 - 실시책임자 또는 실무자
시공사 -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조 합 : 이사장, 문화정책위원장, 갈대갯길보존위원장, 상무이사
코디네이터 - 한국종합예술학교 디자인교수, 이르게 김명근 소장
보참고사항 : 현장에서 수로변을 직접 답사할 예정이오니 간편복장을 착용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중



출판단지조감 : 제99-24호
수 신 :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도시/건축을 위한 답사여행 안내

1999. 2. 2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4일 개최된 '출판단지 시범지구 도시/건축을 위한 심포지엄'에 이어 두 번째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시범지구 도시/건축을 위한 답사여행' 참가를 환영합니다.
그 동안 사무국에서는 보다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을 위해 건축코디네이터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하여 최종 답사 일정을 확정하는 한편,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답사여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여행사와 협의한 결과, 2월 1일 (주)여행문화개발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 कार्यक्रम을 송보해 드리니, 참가자에서는 면밀하게 숙지하시어 전체 일정 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답사기간 : 1999년 2월 13일(수)~2월 21일(일)까지 8일9일
- *답사일정 : 월부 일정표 참조
- *답사경비 : 1인당 1,950,000원(여행경비 1,850,000원+공공경비 100,000원)
- *실 명 회 : 1999년 2월 10일(수) 오후 1시 출판문화재단 강당(종로구 사간동 출생전동)
 - 참가일정 본인 여권을 반드시 소지하 주십시오
 - 현장에서 답사여행을 위한 GUIDE BOOK과 소액 여행가방을 배포합니다.
 - 답사여행시 소지품과 가방은 반드시 최소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남부하선 계약금(1인당 200,000원)을 제외한 여행경비 1,750,000원(1인당)을 2월 6일(수)까지 다음 계좌로 입금 바랍니다.

- 계좌은행 : 301-01-876387 - 예금주 : 출판단지조감

- *첨 부 : 1. 일정표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출판단지조감 김정훈 차장(011-9566) 앞으로 문의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중



일 정 표

2월13일(수) 서울	11:30 김포국제공항 제2청사 2층 조종은방 원전소알 집결 13:45 출판수속 후 출발
목일	17:10 독일 프랑크푸르트 임머인 국제공항 도착 22:00 로텐부르크(주세도시) 도착 호텔 숙박
2월14일(목) 독일	오전 로텐부르크 답사 → 슈투트가르트(152Km2시간30분 소요) 15:30 슈투트가르트 도착 근교마을 바이엔호프 및 국제정원박물관 답사 19:00 슈투트가르트 호텔 숙박
2월15일(금) 독일	오전 슈투트가르트 출발 → 뉘른베르크 이동(독일항공편 1시간10분 소요) 13:00 뉘른베르크(BA-Hannover) 시가지 및 건축물 답사 19:00 뉘른베르크 호텔 숙박
2월16일(토) 독일	전일 뉘른베르크(Pondamer Platz, Spohr, Kanon Nord 전학) 18:00 뉘른베르크 호텔 숙박
2월17일(토) 독일	09:45 뉘른베르크 출발 → 뉘른베르크 도착(독일항공편 1시간 소요) 15:00 상제도시 Unterbach, Hombach 및 뉘른베르크 답사 19:00 뉘른베르크 호텔 숙박
2월18일(토) 네덜란드	09:00 뉘른베르크 출발 → 네덜란드 제이카운 브레다로 이동(1시간10분 소요) 11:00 네덜란드 제이카운 브레다로 답사 15:00 브레다로 출발 → 벨기에 앤트워프 이동(213Km3시간 소요) 18:00 앤트워프 호텔 숙박
2월19일(토) 프랑스	09:00 앤트워프 출발 → 프랑스 파리로 이동(340Km4시간 소요) 15:00 파리(리베르티 공원 및 리베르티 전학) 18:30 파리 호텔 숙박
2월20일(토) 프랑스	09:00 파리(마르세유ERVY, 리베르티) 답사 19:00 식사 후 공항으로 이동 21:30 출국수속 후 파리 출발 서울행(대한항공)
2월21일(토) 서울	16:10 서울 도착후 귀가

- ① — 파주출판단지 재정분양위원회 회의 개최 안내
② — 토지공사 파주시업단에 수로개발 계획과 공사시행에 대한 자본회의의 참석 요청
③ — 시범지구 도시 건축을 위한 해외 답사여행 안내
④ — 불임, 답사여행 일정표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415-849 경기도 파주시 남면역 서울로 637 / 전화 (0348) 940-3545 / 팩스 (0348) 944-8049 / 담당 김승희

문서번호 파주(개)6611-210

시행일자 1999.02.13

정유

수신 파주출판조합 이사장

참조

성명		지시	
직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공방	
처리과			
담당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입주업체 건축계획 통보 요청

1998.10.21 착공하여 공사시행중에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부지 조성공사」의 도장제리수업에 반영되자 하오니 '98. 8.30 귀 조합과 분양계약체결한 부지에 대한 건축계획중, 아래 사항을 '99. 2.28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건폐율 및 용적률
2. 지하층 설치 여부, 설치시 설치면적 및 심도
3. 건축 예정시기
4. 기초 처리계획(Pile 란타 등) 등.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중 소 기 업 청

(우) 302-701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xx (042) 481-4400/Fxx (042) 481-4505
정보화지원과 과장 정임태 담당자 이준희

문서번호 정보 12410-b4

시행일자 1999. 2. 26, (년)

발송 받는 곳 참조

참조 Y2k 대책위장

성명		지시	
직수	일자 시간	결재	
번호		공방	
처리과			
담당자			

제목 Y2k 실태조사표 및 확인서 첨부 의무화 계획 통보

1. 우리 청에서는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Y2k에 대한 문제인식 제고가 절실하다는 판단하에 본청과 같이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Y2k 문제와의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Y2k 문제해결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99. 3월부터는 중소기업 각종 지원사업 신청시 Y2k 실태조사표 첨부('99. 7월부터는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 회원사(협회 중소기업)에 널리 홍보하시어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소기업의 Y2k 문제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99년. 3월부터 순회진단단을 구성하여 10,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확인서 발급과 함께 문제내제 기업은 SI 전문업체를 통해 문제해결 컨설팅 또는 저리정책자금지원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귀 기관 회원사(협회 중소기업)가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에 순회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Y2k 실태조사표 및 확인서 첨부 의무화 계획 1부.

중 소 기 업 청

전결 경영지원국장 허범도

발송 받는 곳 700대 대기업, 66개 공기업, 72개 조합, 46개 업종단체, 기관, 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중진공,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우편번호 150-010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 307호)

담당 조사지 경제정책부 황영만 (02) 785-0010 (교번 320) 전 수 782-8319

기업(경제) : 제 32호

1999. 3. 6

수 신 : 각 회원 및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참 조 :

제 목 :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 홍보

1. 귀 조합(연합회,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소기업지원육화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매년 수립·공표하는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이 발전과 같이 확정되었기에 이를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 1부, 2부.

자료 : 중소기업청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

1999.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박 상

- 15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서 파주출판단지 입주업체 건축계획 통보 요청
- 16 - 중소기업청에서 Y2K 실태조사표 및 확인서 첨부 의무화 계획 통보
- 1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 통보
- 18 - 19 붙임, 99년도 소기업지원계획 표지



출판단지조합 : 제99차호

1999. 3. 2.

수 신 : 시범지구 입주자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입주자 대상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지난 1998년 11월 20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식 이후 본격적인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조합에서는 입주와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적으로 시범지구에 입주하게 될 분들의 사육 건축과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건축코디네이터를 선정, 비주거지역인 안전을 주제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인 사육 건축 기초설계에 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펼친 결과, 개별 입주자들의 현황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시범지구 건축 기초설계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건축 코디네이터의 자문을 받아 시범지구 입주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건축 기초설계·주거시설) 주제의 설문을 작성하였으니, 시범지구 입주자 대표께서는 바쁘신 시범지구 건축을 위해 다음 설문지 상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건축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건축 설계자에게 제시할 설계 요구조건을 마련하는 기초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 설문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실 경우 조합 사무국이나 건축 코디네이터(연락처: 02-744-7366)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자세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 설문 작성요령 : 입주자 대표가 직접 작성, 동기도 발송
- 접수 기 한 : 1999년 3월 10일까지 조합에 도착
- 설문 결과보고 : 1999년 4월 중 '출판도시뉴스' 또는 개별 회신

※ 첨 부 : 1. 사육 건축을 위한 기초설계 설문지

2. 주거시설 건축을 위한 설문지

이상 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자 설문지

- 이 설문은 건축기초설계를 위해 쓰입니다.
- 조사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출판문화단지의 건축계획에 이용될 것이며, 향후 건축설계자에게 제시할 설계 요구조건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설문지는 건축설계와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작성해 주신 설문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 전문적인 내용은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담당자 () 연락처 ()

1. 다음사항은 귀사의 일반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귀사가 출판단지에 입주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선택가능)
- ☐ 확장도시로서의 매력 ☐ 관련산업이 모여 있어서 ☐ 상호업무지원의 기대
- ☐ 시설수준이 훌륭해서 ☐ 고급인력 확보 차원에서
- ☐ 문화의 공동 향유 목적으로 ☐ 부자의 목적으로 ☐ 문화의 공동향유
- ☐ 기타 ()
- 2) 무엇이 서로를 묶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가능)
- ☐ 융통성 ☐ 아시아 정보문화센터 ☐ 동표(공동입출금 창사자)
- ☐ 建築 ☐ 환경 (인문, 자연, 경제) ☐ 주차
- ☐ 고급인력 ☐ 상호업무지원 ☐ 관련산업
- ☐ 시설수준 ☐ 확장도시의 매력 ☐ 문화의 공동향유
- ☐ 기타 ()

2. 귀사의 개요, 역사,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회사소개 (회사안내책자로 대체 가능)
- ()
- 2) 주업종 ☐ 출판 ☐ 인쇄 ☐ 저본 ☐ 유통 ☐ 기타 ()

1/4

3) 조직구성

- 전체직원수 : () 명
- 상근인구 : () 명
- 상무인구 : () 명
- 예상발행량 : () 명/월
- 숙직여부 : ☐ 예 ☐ 아니오
- * 회사의 조직도를 첨부해 주십시오.

4) 근무제

- 근무시간 :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까지)
- 야간작업의 빈도 (월일) : ()

5) 보유자동차

- 승용차 : 대 / 승합차 : 대 / 트럭 : 대 / 기타 :

6) 보유설비, 기계

- ()

7) 전산화수준

- 사용기계
- 건축적 요구사항 : ☐ access floor ☐ 별도의 전선실 ☐ 기타 ()

8) CIP관련사항

- 귀사 CIP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파주단지에도 이전선과 함께 새로운 CIP를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9) 별도의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간단한 개요를 작성하십시오.

- ()

1. 귀사가 계획하시는 대지의 조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 1) 대지위치 ()
- 2) 대지면적 (m² / 평)
- 3) 대지조건
- 도시계획사항 : () 지역, () 지구
 - 인접도로 : ☐ 동쪽 () 도로에 () 접함
 - ☐ 서쪽 () 도로에 () 접함
 - ☐ 남쪽 () 도로에 () 접함
 - ☐ 북쪽 () 도로에 () 접함
- 4) 소유권 ☐ 단독 ☐ 공동 ☐ 기타 ()

2/4

5) 인접입주자

- 대지동쪽 ()
- 대지서쪽 ()
- 대지남쪽 ()
- 대지북쪽 ()

4. 귀사가 건축하실 전문의 건축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 1) 건축물의 주용도 ()
- 2) 기능별 면적 (별도서식1 참조)
- 3) 총 수 지하 ()층, 지상 ()층
- 4) 심별 Detail Sheet (별도서식2 참조)
- 5) 소용형식 ☐ 자가소유 ☐ 임대 ☐ 공동임주 ☐ 자가소유+임대 ☐ 기타 ()
- 6) 설비방식 ☐ FCU 냉난방 ☐ 공조냉난방 ☐ FCU+공조 ☐ 중기냉난방 ☐ 기타 ()
- 7) 타의사와 공유하고 싶은 시설
- ☐ 식당 ☐ 기숙사 ☐ 편의실 ☐ 교관실 ☐ 화장실 ☐ 담배실
- ☐ 매점 ☐ 샤워실 ☐ 기계실 ☐ 기타 ()
- 8) 임대 또는 직영하고 싶은 시설
- ☐ 식당 ☐ 기숙사 ☐ 카페 ☐ 서점 ☐ 전서관 ☐ 매점
- ☐ 극장 ☐ 윤리점 ☐ 복합시설 ☐ 기타 ()
- 9) 부업종 이외에 시설부자시설
- ☐ 식당 ☐ 기숙사 ☐ 카페 ☐ 서점 ☐ 전서관 ☐ 매점
- ☐ 극장 ☐ 윤리점 ☐ 복합시설 ☐ 기타 ()
- 10) 인접요양시설 ()
- 11) 인접기피시설 ()
- 12) 한진동에 타회사와 같이 입주할 용의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13) 지하층의 최상층수 및 용도는? 지하 ()층, 용도 ()
- * 현장의 지반상황에 비추어 가능한 지하층 설치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에 꼭 설치할 시설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
- 14) 소음, 진동에 대한 요구사항
- 15) 반입 및 반출 물품
- 반출입량 ()
 - 반출입방법 ☐ 카트출입 ☐ 승용차 ☐ 드럭 ☐ 기타 ()
- 16) 쓰레기, 폐수, 오염원
- 용량 ()
 - 처리방법 ()

3/4

- 1999년도 211

철거이행 약서

목적토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 232-82(천)
면적 : 1,320㎡
사용목적 : 파주출판단지 Information Center 건립
사용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위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추후 계약이행이 불가하여 계약해제의 사유가 있을지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위 시설물을 철거하며,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의 본 조항에서 납부한 1차증도금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기에 이 약서를 제출합니다.

1999.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6 팩스 511-9569 전자우편 paju@net1000

출판단지조합 : 제99-41호

1999. 3. 16

수신 : 시범지구 입주사 대표

제목 : 시범지구 건축을 위한 국내 답사(건축·도시 기행)의 건

인상하십니까

조합 실행이사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시범지구 건설을 앞두고 건축과 도시에 관한 분야를 보다 심화해가겠다는 의미로 아래와 같이 국내 건축·도시 답사를 계획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건축코디네이터(송효상 이로제 대표·민원식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가 동행하여 "사색을 어떻게 저울질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시범지구 입주사 대표께서는 할 분도 빠짐없이 참가하시어 실질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정 : 1999년 3월 27일(수)~28일(목)까지 1박2일
- 장소 : 1. 전남순천, 조천산 선암사 - 우리 전통사찰 중 가장 도시적인 사찰
2. 호남사 - 최근 '조지' 평면의 대응전 중창으로 전통 재충의 시도를 논쟁을 불러 일으킨 현장
3. 남도산 마을 - 민속마을로 지정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낸 곳으로 일상생활이 없는 도시가 얼마나 허무한 것이냐를 보여주는 곳
- 초청강사 : 김용철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 참가비 : 참가자 부담 50,000원 / 조합 지원 20,000원
- 접수마감 : 3월 16일(화)까지 전화 접수(숙박비 예약한계도 여기에 포함)
- 문의 : 조합 사무국 김경은 과장(511-9566)
- 일정 : 답사자의 주요 정보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 출간할 예정입니다.

3월 27일(수)	3월 28일(목)
07:40 정경환·인원명정	07:00 아침식사
08:00 남구정 현대미술관 주차장 출발	08:00 순창사 답사
13:00 점심	10:00 낙안읍성 답사
15:00 선암사 도착·답사	12:00 점심
17:00 자유시간	13:00 출발
19:00 저녁식사	19:00 서울 도착·행사
20:00 회의 및 토론	

■ 귀장시 경부선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므로 예정보다 빨리 도착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6 팩스 511-9569 전자우편 paju@net1000

출판단지조합 : 제99-45호

1999. 3. 19.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확보정기 점검요청 편지의 건

1. 파주(파)6451-290(1999. 3. 4) 편지입니다.

2. 귀 공사와 우리 조합은 이미 1998. 8.31. 계약 체결한 바 있는 시범지구 공공 계약시 특약사항을 통하여 조성비가 상속에 따른 부담 주체 및 기반시설비의 국고부담을 위한 상호 상환 협조·노력을 약정해 주었습니다.

3. 귀 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확보정기 점검요청 편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조합에 통보된 주선 내용에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나, 조차히 건설교통부와 협의함으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 아 래 -

- 건설교통부에서는 1999. 1.14부터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확보정기 점검요청 편지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조합에 통보된 주선 내용에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나, 조차히 건설교통부와 협의함으로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 나아가 1998년 1월 8일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승인시 사업목적에 명시된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의 중심으로서 문화산업을 집적화 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부응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이러한 기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교통부의 발령이 결정돼야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귀 공사에서는 추후 등 조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첨부 : 건설교통부 원본복사본 1부 1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6 팩스 511-9569 전자우편 paju@net1000

출판단지조합 : 제99-46호

1999. 3. 22.

수신 : 현대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참조 : 토목담당 임무현 상무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INFORMATION CENTER 신축에 따른 협조 요청

1.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를 확보해 21세기 국제 도시대의 주체 문화대를 능률화하는 한편,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헌·전시기 능력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 명소'를 목표로 개발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 단지의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 일직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설명이 있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현장에 신축하는 INFORMATION CENTER는 전체 단지개발의 촉진제 역할을 하면서 단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방문할 VIP의 열광 및 감명장으로, 또한 한국 토지공사와 입주사, 나아가 귀사의 현장회의실 및 각종 행사장·전시장 등 공동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3. 입주예정자분들은 이러한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도의 건물에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신축을 강행하는 한편, 귀사에서도 문화산업단지를 함께 건설하는 동반자로서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향후 전개될 지식/건축에 있어 귀사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계기로 연석회의시, 귀사의 의견을 미리 실행한다는 의미를 담아 INFORMATION CENTER 건물에 있어서 최대한 실행, 지원하고 존중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
이사장 이기용



- 27 — 철거이행약서
- 28 — 시범지구 건축을 위한 국내 답사 안내
- 29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건설교통부와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 지원 협의 요청
- 30 — 현대산업개발(주)에 출판단지 인포록 신축 협조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룸 기공잔치 초청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진래 온 지 십년만에 기반시설공
사 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입주할 눈앞에 올 우리들은 출
판단지 개발의 중심기지로써 기능하게 될 공간으로 '파주출판단지 인포룸(Paju Book City
Infrooom- 인포메이션 센터)'을 현장에 신축하려 합니다.

이 인포룸은 단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VIP의 열렬 및 강연장으로,
나아가 입주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회실 및 사료실, 각종 행사장·전시장 등 다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5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한국예술종합학교 민선식 교수·이로제 숭호상 소장
이 실재를 맡아 신축하게 되는 인포룸의 기공잔치 및 이틀 기념하기 위해 세계적인 세
학이자 건축가인 복원연 대학의 플로리안 고수를 초청, 4월 7일 오후 자유로변의 인포룸
신축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날씨가 편익스러운 제정인 만큼 든든한 복
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참가 여부 4월 6일 이전까지 사무국(☎ 511-9566)으로 전화 연락 바랍니다.

- 아 래 -

· INFROOM 기공잔치 행사 개요

- 일시 : 1999년 4월 7일(수) 오후 5시부터
- 장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팔발의 행정(약도 참조)
- 기공식장 : 이사장 및 주요인사 20명 내외
- 기공 교육(출판) : 한빛의 국악원장

주요인사들이 잔등 액자를 일고 교육에 참여

- 축문 낭독 / 축원가
- 특별초청 강연 : 복원연대학 플로리안 교수
- 식후행사 : 커피 파티 및 대화의 시간

1999년 3월 31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합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9566 ~ 8 팩시밀리 511-9568 FAX PAJUBOOKCITY.CO.KR

출판단지조함 : 제99-4호

1999. 3. 29.

수 신 : 시범지구 입주자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단지 부지내 갈대셋강 환경보전운동 협조 의뢰의 건

안녕하십니까.

출판단지 개발의 중심기지로써 신축되는 INFROOM(인포메이션 센터)의 착공식과
기념강의가 오는 4월 7일 개최됩니다. 이러한 행사를 앞두고 우리 조합 사무국에서는 현재 부분별
한 요령·환경행위로 인하여 황폐화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내 갈대셋강의 자연환경보
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갈대셋강 주변정화작업을 제의하였습니다. 출판단지는 단순한 기능지 공업
단지가 아닌 차임새 있는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출판관련산업인을 위한 아니라 그곳은 찾는 모
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강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합원 어
하분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터전을 우리 손으로 직접 보존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식
목월 행사로 생각하시어 이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석하신 인원이 확정되시면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행사 일시 : 1999년 4월 5일(월) 10:00 ~ 14:00
 2. 행사 장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내 갈대셋강 주변
 3. 협조 사항 : 갈대셋강 주변 정화작업
 4. 행사관련 문의 : 출판단지조함 사무국 (☎ 511-9566)
- ※ 쓰레기 봉투 등 청소기구는 조합에서 준비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9566 ~ 8 팩시밀리 511-9568 FAX PAJUBOOKCITY.CO.KR

출판단지조함 : 제99-54호

1999. 4. 16.

수 신 : 조합원사 대표

제 목 : 2차 개발지구 사업설명회 및 부지신청의 건

귀사의 사업 더욱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
범지구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수립,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출판도시
뉴스 등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7일에는 출판단지 전체개발의 중심기지가 될 출판지
역할을 하게 될 INFROOM(인포메이션 센터)착공식 행사를 지미 2개월 후에는 완공될 예정입
니다. 이와 함께 시범지구 입주자들은 구체적인 사육 건축설계를 위해 국대의 건축합사를 통하
여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들을 수집하는 한편, 입지현황을 위한 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과 건립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오는 5월에 2차
개발지구의 부지공급공고 계획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2차지구내 인주향살 조
합원들의 신청을 받아 토지공사와 개발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번 2차개발지구의 토지대금으로는 우선 평당 671,000원을 납부하신 후 토지가
가 확정되면 추후 정산하게 되며, 인적신청은 최소 200평에서 2,000평까지입니다. 그리고 부지
대금 계약금은 총액의 10%이며, 5년 분할(6개월마다)로 납부하게 됩니다. 2차분양에서 공급면
적이 소진될 경우에는 3차분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시범지구 입주 신청 조차시 2·3차 개발지구내 참여하시겠다고 약속서를 제출하신 조합원께서
도 이번의 약속서를 다시 작성, 제출하시어 하오니 이를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4월 22일 오후2시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에서 2차지구 배
임계약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약정서를 작성 제출한 후 5월 25일까지
계약금을 납입 받아 5월 28일 토지공사와 부지계약금을 제정할 예정이오니 이를 참고하시
시 일정에 착각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 일시 : 1999년 4월 22일(목요일) 오후 2시
- 장소 : 강남출판문화센터 이벤트홀(강남구 신사동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합
이사장 이 기 용



* 건설한 공사, 깨끗한 행정의 으뜸파주 *

교 하 면

주 413-630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88 / 전화 0348-941-3000 / 전용 941-5090
교하면장 이 한 권, 담당원 이 현 기

문서번호 교하 58551 - 334

시행일자 1999. 3. 26 . (년)

(경 유)

반 응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참 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 기 용

제 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 통보

1. 귀하가 제출한 교하면 산남리 232-82 필지상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에 대
하여는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 하오며,

2. 지방세법 제161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세율 우리면 재무계에서 담부하시기 바라
며, 축조 완료후 사용감사를 독하시기 바랍니다. 끝.



교 하 면 장



① — 출판단지 인포룸 기공잔치 초청장

② — 출판단지 갈대셋강 환경보전운동 참여 협조 요청

③ — 2차지구 사업설명회 개최 안내 및 부지신청 요청

④ — 교하면에서 출판단지 인포룸 신축 신고 수리 통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0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0000-4 팩스 02-511-0000-5 E-mail : PAJUCOOP@PAJ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73호

1999. 5. 31.

수 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요청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권자로서 단지 조성에 남다른 열성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한님 이하 문화관광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활한 단지 조성을 위하여 입주자로서 이해와 같이 기반시설과 관련한 청원을 드립니다.

3. '산업단지및개발제한법'을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도로·상하수도 시설을 비롯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동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동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도 산업단지 전입(조)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배정함으로써 열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지원해주시 국가경제에 세대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건설교통부 등 관계 부서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 국고보조 지원(200억원·첨부 내역 참조)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낸 바 있습니다. 이에 단지 관리권자로서 귀 부의 능동적이고도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 단지 조성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소요 현황표 1부 -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0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0000-4 팩스 02-511-0000-5 E-mail : PAJUCOOP@PAJ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74호

1999. 5. 31.

수 신 : 건설교통부 장관

참 조 : 국토계획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정치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9년 4월 국가산업단지(건설교통부 고시 1999-107호)로 변경 지정되었습니다.

2. 이 사업은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지식기반 산업 단지 출판문화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관련 업종들간의 협동과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월드컵을 앞두고 상업용 월드컵 축구경기장·텔루산성·일성신도시 권역 선린터·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동일동산·해미의 아르헨티나·임진각을 연결하는 '자랑의 문화벨트'의 중심 축으로서 관광산업 진흥에도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에, 단지 입주자들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결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내 기반시설 조성은 입주자들의 자력으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고보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국고보조 지원액은 200억원(첨부 내역 참조)입니다.

4. 참고로, '산업단지및개발제한법'을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도로·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동단지개발촉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동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의 법령들에서도 산업단지 전입(조)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배정함으로써 열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은 지원해주시 국가경제에 세대에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0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0-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0000-4 팩스 02-511-0000-5 E-mail : PAJUCOOP@PAJ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77호

1999. 5. 3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파주사업담당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요청의 건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시행자로서 본격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진행 하고 계신 귀 공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 산업단지및개발제한법 물이나 공급배치및공장설립이관한법률 등이 있으며, 중소기업진흥법 등 중소기업 관련 법률에서도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할 중소기업들을 대표 하는 조합으로서 청와대를 비롯, 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등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따라서 귀 공사에서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모쪼록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적기에 이루어짐으로써 단지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귀 공사에서 협조 주시기를 요청하며, 임주자들 역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더욱 부응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1. 청와대·건설교통부·문화관광부 발송 공문 사본 1부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소요 현황표 1부 -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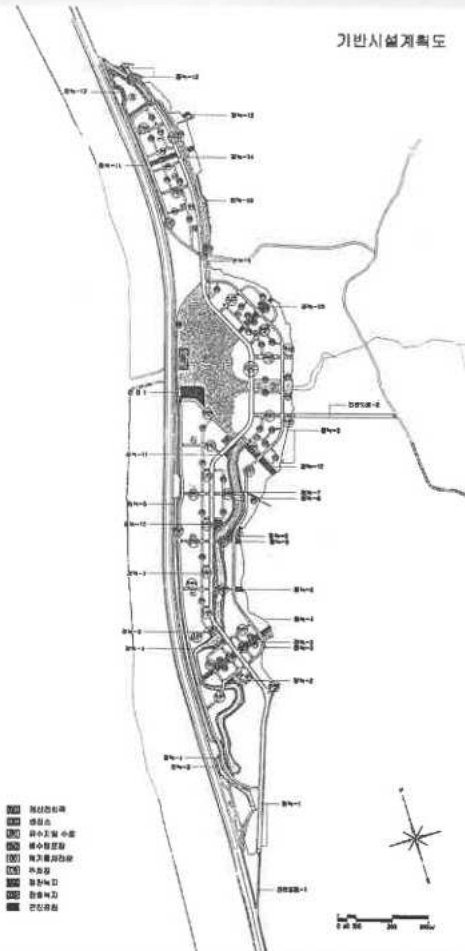


- ① — 출판단지 관리권자인 문화관광부에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 보조가 적기에 지원되도록 협조 요청
- ② ~ ④ — 건설교통부에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 보조 청원
- ⑤ —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 보조 요청 사항 통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소요 현황

단위 : 억원

종 류	규 모	소요액
1. 진입도로		37
남측 연결도로	폭 = 10m 길이 = 720m	12
동측 연결도로	폭 = 18.5m 길이 = 590m	25
2. 하수시설		41
하수처리장	용량 = 2,900㎥일	31
차집관로	길이 = 4.2km	10
3. 상수시설		122
취정수장	용량 = 3,813㎥일	73
송수관로	길이 = 14km	49
총 계		200억원



경기도 중소기업청

주) 441-34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문동 111-7 / ☎(031)291-9260 / Fax 297-1424
 조서관리과 과장 김명식 사무관 나광도 담당자 임민철

문서번호 조관 55470 - 671
 시행일자 1999. 5. 31.(년)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선	지
결	시
결	결
일자	제
시간	
수	공
번호	단
처리과	당
담당자	자

제목 중소기업의 정책건의사항 발굴 및 토론회 추진

1.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년 9월중 협회대에서 「전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전국대회 준비를 위한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대회」가 9. 7. 14 (수)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열리고, 여기에서 중소기업 정책토론회와 협상인원실이 운영됩니다.
3. 당일 「정책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인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안건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받고 있으나 많은 의견을 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토론회에 참여할 전문가(토론자)를 추천 의뢰하오니 적극적인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론(정책건의)주제 : ·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등 전반적인 현안 및 문제점(공통과제)
 - 중소기업의 지식화 지원방안(지역과제)
 - 토론회 추진대상(각1명) : · 중소기업체 대표(중소기업전용)
 - 대학, 연구소 등 교수()
 - 서면건의서 제출기일 : '99. 6. 10까지(1차)
 - 제출처 : 조서관리과 (TEL: 031-291-9260, FAX: 297-1424)



소기업청장 건의서(서식) 1부
 의안건 처리필자 1부, 갈.

경기도 중소기업청



받는곳 : 경기도15개 상공회의소, 조합, 협회등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35-125 서울 강북구 신사동 555 강북문화재단
 전화 311-6508~8 팩스 311-5255 FAX: PCWC@INTEL.CO.KR

출판단지조합 : 299-960

1999. 7. 5.

수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자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인포를 각실 명칭 공모의 건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매년 태 윤지 십년만에 기반시설공사 기공식을 가진데 이어 현재 본격적인 기반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 일에는 한국도지공사로부터 1차개발 승인지구 전체 부지 대입을 완료함으로써 또 하나의 커다란 대업을 지었습니다. 이에 입주할 눈앞에 둔 우리들은 출판단지 건설의 현황 지휘소로서 기능하게 될 공간으로 「파주출판단지 인포를(Information Center)」을 현장에 신축합니다.

2. 주지하고 제시는 것처럼 인포를은 단지 조성에 관심을 갖고 방문할 VIP의 알릴 및 강연장으로, 나아가 입주자 및 관계기관의 현장회의실 및 자료실·각종 행사장 및 전시장 등 다용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7월 말 완공을 목표로 이미 콘크리트 등 기초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인포를은 청부 평면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회의실 ▲전시실 ▲자료실 ▲강정 ▲관람대 ▲서점 ▲카페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3. 집행부에서는 출판단지의 첫 건물이자 상징적인 장소가 될 인포를 각 실마다 고유의 명칭을 제정하고자 입주하실 여러분과 기초신계에 참여하고 있는 건축설계단, 사무국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공모를 실시키로 했사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파주출판단지 인포를 각 실 명칭 공모전 요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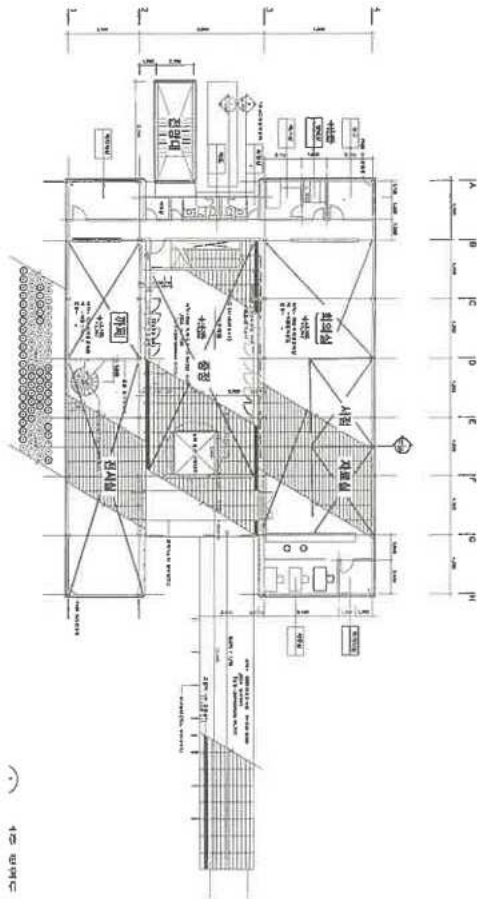
1. 명칭 공모대상 : 회의실 / 전시실 / 자료실 / 강정 / 관람대 / 서점 / 카페
2. 공모기간 : '99. 7. 5~7. 19.
3. 응모요령 : 우편 또는 FAX로 각 명칭의 의미와 제정 이유를 기술
4. 당선작 선정 : 실행이사회에서 결정, 당선작에는 소정의 사은품 증정

※첨부 : 파주출판단지 인포를 평면도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① — ②~③ 불일,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지원 소요 현황표
- ④ — ④~⑤ 기반시설계획도
- ⑥ — 경기도지방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정책건의 사항 발굴 및 토론회 추진 요령
- ⑦ — 출판단지 인포를 각실 명칭 공모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 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8 2층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0880-8 팩스 511-0889 PAJUBOOK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29-98호

1999. 7. 5.

수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차 개발지구 입주사 대표

제 목 : 부지 매입계약에 따른 서면보고

귀사의 하시는 사업 더욱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4월 22일 2차 개발지구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부지신청 약정서를 제출 받았으며, 그 이후 5월 25일까지 상당수 입주사들의 신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면적조정을 거쳐 부지 신청사로부터 계약금을 납입 받아 6월 30일 한국토지공사와 6만여 평의 부지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1단계 실시계획 승인면적 248,810평(상업용지와 문화시설 용지의 가치분 면적 121,500평) 전체를 사실상 매입완료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입주회사 조합원들은 전반적인 건축계획을 협의 조사서 압식에 따라 오는 7월 24일까지 집행부에 제출하시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정적인 필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확정된 부지 단가는 당초 한국토지공사에 수주를 받은 가격면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공사비·낙찰차액·간선시설비 국고지원 규모가 확정되면 최종 정산하게되므로 다소의 증감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판단지 현장에서는 부지조성공사가 공경대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 초에는 출판단지 건설의 현장지휘소가 될 인포랜드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출판단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대내 외에 알리는 한편 인포랜드의 개관을 기념하는 9월 9일 행사를 내선외게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영간 인포랜드 완공되면 현장에서 입주하신 여러분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출판단지의 건설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지매입에 따른 계약서의 주요 내용들을 별첨과 같이 서면보고 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 부 : 1. 건축기초설계를 위한 조사서 1부
2. 부지매입 계약서 주요내용 1부
3. 2차 개발지구 입주사 현황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기 용

1. 부지매입계약서 주요 내용

· 계약면적

준공지구 : 40,694평

인쇄지구 : 19,463평

총 계 : 60,157평

총 매입대금 : 금 삼백칠십억원천육백칠십만원천칠백십원정(W37,016,077,870)			
구 분	납부일	할부원금	비 고
계약금	1999. 6.30	3,701,607,770	
1회차	1999.12.30	3,331,869,900	
2회차	2000. 6.30	3,331,400,000	
3회차	2000.12.30	3,331,400,000	
4회차	2001. 6.30	3,331,400,000	
5회차	2001.12.30	3,331,400,000	
6회차	2002. 6.30	3,331,400,000	
7회차	2002.12.30	3,331,400,000	
8회차	2003. 6.30	3,331,400,000	
9회차	2003.12.30	3,331,400,000	
10회차	2004. 6.30	3,331,400,000	

■ 한국토지공사의 계약사항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상기 금액은 추후 변경계약시 공사비·낙찰차액·간선시설비 국고지원 규모 등의 변동에 따라 '일정된 조율원가'로 정산하게 되 있는데, 이 결과 다소 증감이 예상되며, 정산금액은 확정된 후 통보드릴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중대의 목을 최대한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대금납부 방법

- 대금납부는 상기 표와 같이 5년분할 납부하며 계약금은 총액의 10%이고 6개월 간격으로 10회 분할한다

2) 지연손해금

- 매입대금을 납부일경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18%

의 이율을 적용납부(단,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에는 연제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다)

3) 저당금의 사용의무

- 매입대금의 9%이상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납부하거나 10%이상의 금액을 절치이명 보증금으로 납부한 경우 사용가능

4) 통금금액의 정산

- 선수금을 수납한 경우 선수금 납부일로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

5) 소유권 이전

- 같은 물이 매입대금을 완납한 후에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 같은 물이 매입대금을 완납한 지 1년이 경과 소유권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물이 이납금대금에 같이 정하는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한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 부정한 방법으로 의하여 목적용지를 매수하였을 때
- 저당기일 내내 사용목적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본 단지는 산업용지이므로 과다한 토지소유는 불가함)
- 목적용지를 저당금도 사용전에 토공의 등의 일이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 전력정산 결과 면적이 10%이상 증감하는 때
- 목적용지의 명도 및 소유권의 이전이 상당기간 지연됨으로써 계약목적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정산하는 금액이 통금금액보다 15%이상 증액된 경우

■ 목적사항

1. 출은 실시계획 승인 후 30일 이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개발업무협약체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각각의 개발업무협약에는 '변경된 조율원가'로 한국토지공사와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결과 물은 간선시설비의 국고부담을 위해 상호 상설의 노력한다

㉘ — ㉙ 불임, 인포를 평면도

㉚ — 출판단지 2차지구 6만여평 매입계약 체결 내용 서면 보고

㉛ ~ ㉜ — 불임, 부지매입계약서 주요 내용

◆ 2차 개발지구 입주사 현황

● 출판지구								
	회사명	대표자	종 수	비 고	회사명	대표자	종 수	비 고
1	경원사	유정희	200명		26	이태출판사	고 시	500명
2	불문자	박정희	300명		27	현대고서사	이명희	200명
3	그 학 사	남철우	1,300명		28	진달출판사	고주근	300명
4	그로프고	박관현	2,000명		29	주매출판사	이 신	500명
5	교육출판사	김종국	300명		30	21세기 북스	김영준	300명
6	정명출판사	김정훈	400명		31	지구출판사	주영호	500명
7	나남출판사	조상호	500명		32	태학사	기현구	300명
8	나남출판사	김주연	200명		33	정문당	임정환	300명
9	다락원	정호성	300명		34	광학출판사	고세현	500명
10	다산출판사	김태진	300명		35	정명출판사	고영수	300명
11	단암사	임영준	200명		36	프리랜서	김정성	500명
12	대명출판사	이정구	200명		37	다산출판사	김정숙	500명
13	대원	정 국	1,000명		38	학문사	김지영	1,000명
14	도서출판 계백	박관현	200명		39	학문출판사	송영식	500명
15	은광사	임태훈	700명		40	현대음악출판사	성상배	300명
16	문학수첩	장동화	300명		41	홍익미디어	송대기	300명
17	보림	조근숙	500명		42	신명출판사	안재환	300명
18	삼보출판사	김정희	500명		43	서울출판사	김현식	400명
19	시공출판사	남정현	300명		44	홍익출판사	김진용	200명
20	알라딘	신현환	300명		45	한 울	김종수	300명
21	성지문화사	최정규	500명		46	민음사	박영호	1,000명
22	경원사	김정희	500명		47	지식당	정명숙	2,000명
23	신광출판사	김정희	300명		48	서울출판사	이희환	2,000명
24	우리교육	박정국	500명		49	기문당	정명숙	500명
25	은파출판사	이종수	500명		50	국민서관	이우숙	300명
					51	연도출	이기용	500명
소계 27,000명								
● 인쇄지구								
1	과성출판사	김정희	1,000명		9	진달출판사	조대환	1,500명
2	대한출판문화정보	신도현	1,500명		10	조영출판사	김희현	3,000명
3	단암출판사	안정훈	500명		11	대명출판사	이정현	500명
4	삼보출판사	박정희	500명		12	삼일출판	홍순녀	500명
5	성지사	김정희	500명		13	남원출판	함영진	400명
6	새한출판사	윤문수	500명		14	진달출판사	김종국	500명
7	이노비	조현식	400명		15	이화출판사	박정희	500명
8	대원출판사	이성철	1,000명		16	삼동출판사	장동환	500명
소계 13,400명								
총 계 (87필지 · 67사 · 40,500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 기초설계를 위한 조사서

※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회신을 필요로 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옥 건축 기초설계 조사서

- 이 조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사 사옥 건축 기초설계를 위한 것입니다.
 - 본 산업단지의 건축물은 70% 이하이며, 용적률은 최고 350% 이하 ~ 최소 45% 이상입니다.
 - 도시 미관상 고도는 15m로 제한하며, 사무실의 완결로 속직시설도 가능합니다.
 - 귀사의 도합사실과 계획적인 건축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된 자료는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여 출판단지의 건축계획에 이용될 것이며, 향후 건축설계까지 제시할 설계 요구조건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 본 조사서는 건축설계 외의 다른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을 것이며, 작성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약속 드립니다.
- 본 조사서 관련하여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문의는 사무국(051-6566)으로 해 주시면 성실하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회사명 : _____ 대표자 : _____ 실무담당자 : _____
주 소 : _____ 연 락 처 : _____

2. 귀사의 개요, 역사, 현황에 관한 조사입니다.

1) 회사소개(회사 안내책자로 대체 가능)

2) 주업종 ☐ 출판 ☐ 인쇄 ☐ 제본 ☐ 기타 _____

3) 조직 구성

- 전체 직원수 : _____ 명 - 상 간 인 구 : _____ 명

- 상 주 인 구 : _____ 명 - 예상 방문객 : _____ 명

- 속 직 여 부 : ☐ 예 ☐ 아니오

※ 회사의 조직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4) 근무 패턴

- 근무시간 : 오전 _____ 시 _____ 분부터 오후 _____ 시 _____ 분까지

- 야간과일의 빈도 : 전일 _____ 철야 _____

5) 보유 자동차

- 승용차 : _____ 대 / 승합차 : _____ 대 / 트럭 : _____ 대 / 기타 : _____

6) 보유 설비, 기계

7) 전선과 수준

- 주사용 기어 :

- 건축적 요구사항 : ☐ 개량형 ☐ 별도의 전선설 ☐ 기타 _____

8) CI(Corporate Identity : 회사 상징) 관련사항

- 귀사의 CI가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 출판단지로 이전 건축과 함께 새로운 CI를 만드실 계획은? : ☐ 예 ☐ 아니오

9) 별도의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면 간략히 적어 주십시오.

3. 귀사가 제작하시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 단독 ☐ 공동 ☐ 기타 _____

4. 귀사가 건축하실 건물의 건축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단, 본 산업용지에는 출판·인쇄 관련 건축물과 이에 수반되는 관련시설을 지을 수 있음)

1) 건축물의 주용도 :

2) 가능별 면적 :

3) 총 수 : 지하 _____ 층, 지상 _____ 층

4) 설비 :

5) 소유 형식 : ☐ 자가소유 ☐ 임차 ☐ 공동임주 ☐ 자가소유+임대 ☐ 기타 _____

6) 설비 방식 : ☐ FCU(Fan Coil Unit) 냉난방 ☐ 공조 냉난방 ☐ FCU+공조 ☐ 공기냉방

☐ 기타 _____

7) 인접 기피시설 :

8) 한 건물에 타회사와 같이 입주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 ☐ 예 ☐ 아니오

9) 지하층의 회랑 층수 및 용도는? : 지하 _____ 층, 용도 _____

※ 현장의 지반 상황에 비추어 가능한 지하층 설치를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에 꼭 설치할 시설이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_____

10) 소음, 진동에 대한 요구사항 :

11) 하루 발생 예상되는 쓰레기, 폐수, 오염원에 관한 조사입니다.

- 용 량 : _____

- 처리방법 : _____

12) 건축물의 재료, 형태, 색채, 디자인 등에 관한 취향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재료 : _____
 형태 : _____
 색채 : _____
 디자인 : _____
 기타 : _____

13) 단지 전체의 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규칙 같은 것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 있는 것이 좋다 ☐ 있는 것이 좋다 ☐ 엄격한 통제 ☐ 최소한의 통제

5. 귀사의 건축에 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단세별 계획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단세별 계획이 있다면 몇단계를 고려하십니까?

☐ 1단계 ☐ 2단계 ☐ 3단계 ☐ 기타 _____

3) 추진일정(건축 가능한 시기는 2001년 중순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설계일정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 시공일정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

- 회계 입주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4) 설계자 관련사항

- 설계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추천하는 건축가 중에서 선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일정한 회사와 공동으로 설계할 의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일정한 회사와 공동으로 시공할 의향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건물의 디자인에 공동의 규약이 강제된다면 이에 따른 용의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6.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건축재료의 공동구매 의사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2) 좋아하는 건축물 및 건축가가 있습니까?

국내 건축가 _____ / 국내 건축물 _____

국외 건축가 _____ / 국외 건축물 _____

수고하셨습니다.

4/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지동 511-120 신사동 5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6566-8 팩스 511-6566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99-97호

1999. 7. 14.

수 신 : 조합원사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내 서점 개설에 따른 도서목록 접수의 건

안녕하십니까.

이미 알고 계실는 것처럼 우리 조합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현장에 인포룸을 건축, 오는 9월 9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포룸은 전시실, 자료실, 카페, 서점, 전망대, 회의실 등으로 구성해 있습니다.

이들 중 서점의 규모는 5.5평에 도서 1,000여권을 진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선 사육 건축에 직접적인 자료가 될 건축 관련 도서를 진열함으로써 특정 있는 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선 입주 예정자들이 발간한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도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진열·판매코자 하오니 우선 이에 해당되는 귀사의 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우리 조합으로 보내주시면 적절히 선정할 후에 서점에 전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511-9566)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도서 종류 : 건축 및 도시환경, 인테리어에 관한 도서 전반
- 접수 기간 : 1999년 7월 20일 ~ 24일까지(도서목록에 한함)
- 접수 장소 : 본 조합 사무국 (135-120 강남구 신사동 5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 목록 접수 : 우송 또는 팩스(511-9566)
- 도서 판매시 참고사항
- 제출 부수 : 1종당 2부이며, 종수는 제한 없음
- 결제 조건 : 위탁판매로서 판매된 도서에 한하여 매월 말에 현금으로 지급
- 할인 요율 : 인포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저 할인율로 배부하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조합과 조합원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 도서접수에 따른 사정(기간 및 종류)은 추후 개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지동 511-120 신사동 5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6566-8 팩스 511-6566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99-107호

1999. 8. 17.

수 신 : 교통개발연구원

참 조 : 연구조정실장

제 목 : 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조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나라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의 확립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 노력하시는 귀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에서 추진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 11월 20일에는 국무총리를 모신 가운데 문화관광부와 건설교통부의 주관으로 부처조정 공사 가공식을 갖고,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위치는 파주시 교하면 문벌리·산남리·시래리·신촌리의 일원이며, 전체 면적은 48만 1천평으로 1, 2단계로 나누어 조성되고 있습니다. 단지의 입주시기는 2002년부터이며, 원전 입주해제되면 상주 연구 이외에 창대원전·국내외 방문 관람객만도 입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교통망 구축에 대한 대책은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교통개발연구 전문가인 귀연구원과 함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초기 교통체계 준비에 따르는 대비책 및 행정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이에 따르는 협의 및 현명한 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세미나의 개최시기는 10월 초로 예정하고 있으며, 주제 및 발표자 선정 등은 귀연구원의 조언과 추천을 기초로 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지동 511-120 신사동 508 2층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6566-8 팩스 511-6566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99-109호

1999. 8. 19.

수 신 : 금촌 전화국장

제 목 : 통신신로가설 협조의 건

1. 지역통신망전에 기여하시는 귀 전화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지난 1997년 3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본격적인 부처조정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대 국정지표의 하나인 지식기반 확충을 위해 첨단·지식기반 산업인 출판문화정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관련 업종간의 협동과 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3. 본 조합에서는 지난 8월 4일 파주출판단지 현장에 신축중인 인포메이션센터의 전화가설과 관련하여 고양전화국에 국선4회선을 신청하여 전화번호(0348-942-0016-9)는 부여받았으나, 금촌전화국 가설에서는 신청지역이 사설구역으로 선반공원에서 인포메이션센터까지 약1.2km 구간은 본 조합에서 통신신로를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 그러나 파주출판단지 현장에 신축중인 인포메이션센터는 전체 단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범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귀 전화국에서 본 국가산업단지내에 최종단의 종래이불을 설치하게 될 것이므로 우선 인포메이션센터까지의 구간에 대하여는 전체 단지개발을 위한 예비적인 개념에서 통신신로가설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⑧ — 출판단지 인포룸 내 서점에 비치할 도서목록 접수 안내
- ⑨ — 교통개발연구원에 출판단지 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조 요청
- ⑩ — 금촌전화국에 인포룸 통신신로 무상 가설 협조 요청

교 하 면

우 413-830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교하리 388 / 전화 0348-941-5089 / 전, 11-5090
교하면사무소 이한원 담당원 이현기

문서번호 교하 58561 - 1104
시행일자 1999. 9. 8. (목)
(경 유)
발 음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참 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약

제 목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 처리 통보

1. 귀하가 제출한 교하면 산남리 232-82 필지상의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신청서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처리 하오니, 사용연장 승인기간이 만료와 동시에 자진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세법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면 제우개에 취득세 신고철자를 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승인기간 : 2005년 12월 31일 까지. 끝.



교 하 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37 / 전화(0348)940-3805 / 전송(0348)944-8049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김성태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김승환

문서번호 파주(개)6114-1299

시행일자 1999. 09. 10

경유

수신 파주출판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조

선	전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지	시	지

제목 주거시설용지 확보요청 회신

1. 출판단지조약 제99-113('99. 8.31)호와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조약사업에 대한 개발계획변경이 '99. 4. 승인됨에 따라 현재 1단계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준비중으로 당초대로 주거용지가 포함되지 않은 826,737㎡에 대하여 승인신청할 계획이었으나,
3. 귀 조합의 요구에 따라 현재 산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1단계 지역내 북동쪽 2개 필지를 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종전 1단계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폐한 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재변경을 요하는 사항으로 인허가기간의 장기화로 사업의 지연이 우려되며, 용도변경요청에 따라 기분양권 등 필지에 대한 배락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귀 조합 및 우리공사와 원만한 사업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수용이 지난한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귀 조합원들의 주거용지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현재 2단계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주거용지 일부를 1단계 지역에 포함하여(별첨도면 참조)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되나, 종 말안 역시 국방부 등 관제기관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승인권자와 승인을 득하여 하며, 추가로 관할 군부대와 건축물 고도제한에 관한 협의결과 등을 거쳐야 하므로 부득이 1단계 사업시 주거용지확보가 불가할 수도 있음을 통보하오니 귀 조합의 의견을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1부.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135-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9068-8 팩스 511-9069 PajuPUBCULTURE.CO.KR

출판단지조약 : 제99-113호

1999. 9.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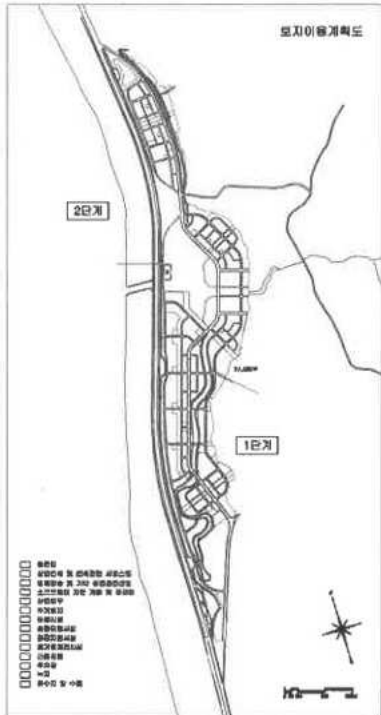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자 주거시설 용지 확보 요청

1. 파주(개)6114-1299('99. 9.10)호와 관련입니다.
2.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수도권 외곽에 조성되는 직주위의 산업단지로서, 입주자들은 이를 전제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 입주자들에게는 2002년 상반기 입주율을 앞두고 무엇보다 주거시설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입주 종사자로 구성하는 주택조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귀공사의 장기 판매공간 3필 및 4필에 명칭된 바 있는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107호('99. 4.17)로 고시된 개발계획상의 주거시설용지 일부를 1단계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에 포함하는 한편, 이의 대안으로서 1단계지역내 동쪽 산업용지가 부지의 위치 및 산업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한 지형이라 입주자들의 기피현상이 있는만큼 이를 주거시설용지로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한편 현재 출판단지는 출판지구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쇄지구는 일반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쇄서는 과거 종가계념과 달리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인쇄계념을 탈피한 '프리 프레스'계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본 단지에 입주한 인쇄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 단지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는 만큼 종래 계념의 틀 안에서는 특정한 바를 이루기 어려울뿐더러, 동일 산업단지를 두 종류의 공업지역으로 나누기보다는 전체 산업단지를 하나의 준공업지역으로 통합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63 — 교하면의 출판단지 인포를 사용 승인 통보
- 64 — 우리조합의 주거시설용지 확보 요청에 대한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의 대안 회신
- 65 — 첨부, 관련도면
- 66 — 토지공사 주거시설 용지 관련 대안에 대한 우리조합 의견 통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9 코엑스출판문화센터
전화 511-6566-8 팩시밀리 511-4569 PAJUCO@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16호

1999. 9. 13.

수 신 : 9사단 강안대대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군부대 오수배출에 따른 조치 요청의 건

1. 국토방위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대대장님 이하 9사단 장병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출판단지 조성에 남다른 관심과 도움을 베풀어주고 계신 귀대대의 후의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2. 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자연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져 자연친화적 산업단지로서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천혜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를 가로지르는 수로와 유수지는 단지 개발의 중심축이자, 수많은 식생군락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따라서 출판단지의 성공 여부는 수로와 유수자를 건강하게 보존하는 가운데 개발이냐가 본전이고, 입주자를 역시 이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는 한편,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서라도 자연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난 8월 조합 임원회의 현장 답사시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철부편 사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산남리 자유로변에 위치한 군부대 역사에서 방류되고 있는 오세수로 인해 인근 수로의 갈대군이 죽어 있었고, 물에서는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4. 이에, 단지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단지 개발에도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뿐 아니라, 훗날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원상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정황을 대대리에서 본 전에 대해 시의적절하고도 합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첨부 : 오세수 방류 현황사진 2매 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9 코엑스출판문화센터
전화 511-6566-8 팩시밀리 511-4569 PAJUCO@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17호

1999. 9. 14.

수 신 : 임주사 대표

제 목 : 건축설계지침 확정에 따른 설명회 개최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9월 9일 인포메이션센터 개관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참석하신 분은 보셨겠지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대한 건축설계지침(안)이 마련된 전시설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건축설계지침은 설명회이사회와 이사회에서 선정한 검토를 거쳤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현재 입주자에게 아래와 같이 아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한편 이해와 동의를 얻은 후 이를 확정하여 실제 건축설계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날 설명회는 이 건축설계지침을 받았던 건축가 민현식·송효승씨가 직접 설명하게 됩니다.

이번 설명회는 이 건축지침을 확정하는 자리인만큼 입주사 대표께서는 본인이 꼭 참석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사 대표가 부득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안의 결정권자가 참석하시도록), 불참할 경우에는 이 건축지침에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건축지침이 속히 확정되지 않으면 각 입주사의 설계가 자동적으로 늦어지게 되므로 여러분의 발 빠른 협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0. 일 시 : 1999년 9월 21일(화) 오후 2시

0.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현장 인포메이션센터 대회의실

0. 일 정 : 1. 입주민(이)사장

2. 건축설계지침 설명(건축가)

3. 질의응답(참가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9 코엑스출판문화센터
전화 511-6566-8 팩시밀리 511-4569 PAJUCO@UNI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30호

1999. 9. 30.

수 신 : 2차 개발지구 입주사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차 개발지구 개별필지 추첨 및 면적 확정일의 건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한구토지공사와 우리 조합에서는 2차 개발지구 입주사들이 요청한 부지면적을 정형별로 필지분할하는 작업을 완료했으며, 아래와 같이 토지배정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지배정 추진일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2차 개발지구 입주사 대표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필지배정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필지배정은 평형별로, 필지 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확정 후에는 다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조합원 대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필지의 위임장과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간부급 임원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분이라도 불참하시게 되면 전체 입주자들이 추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전체 일정을 위해 집행부가 대신 추첨을 해 드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참하신 조합원 대표께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필지배정 일시 : 1999년 10월 6일(수) 오후 2시

●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

● 토지배정원칙 : 1) 지구별 배정(출판지구, 인쇄지구, 지만지구, 유통지구)

2) 필지 단위별 배정(설계 정형별 개별필지 배정)

3) 동일정형(일차적으로 상호 협의, 협의 불가할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

※참가자는 필지별 현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필지구역을 불가리하게 동일정형을 내에서도 실행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관계로 최종 필지배정에는 실행수가 외가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토지배정일과 부당해 다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동일정형 참가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조합원 1개에서 1필지 배정

첨 부 : 1. 위임장 1부(필지 대표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요)

2. 2차 개발지구 부지배정 필지별 현황 1부 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출판단지 입주사 임직원 대상 인포룸 방문행사 안내

- 행사 목적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는 단지 자정전환의 설계와 건설, 순조로운 입주 등 현장업무의 원활하기 위해 저이전 입주사 여러분의 건을입니다.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회사의 이전은 대표자만 아니라 회사 전체 임직원 모두에게 일상 생활 여건 등 모든 부분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원 모두에게 회사 이전에 따른 사전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의 상황과 입지·근무여건, 교통체계, 환경여건 등을 사전에 체득하는 것이 입주사의 입주프로그램 수립에 필수적인 선행조건인 것입니다.

또한 최고책임자에게는 단지 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인지가 필수적이며, 건축설계지침의 상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집행부와 긴밀한 교류를 통하여 건축에 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방문하시는 입주사 대표와 이러한 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에서는 각 입주사 임직원들이 인포메이션센터를 방문하여 집행부의 자세한 안내와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기획했습니다.

- 다 음 -

- 참가 방법 : 입주사별로 배정 일시와 인원 2-3일 전에 사무국으로 통보해 주시면 협의 후 일정을 확정하여 시행
- 참가 범위 : 입주사 대표를 비롯한 전체 임직원(가족 동반도 관계없음)
- 행사 일정 :
 - 입주사가 편한 일시 지정(주말 및 일과후도 무방)
 - 인포룸 지정 후 집행부의 브리핑
 - 입주사 부지확인 및 전체 단지 안내

- — 9사단 강안대대에 출판단지유입되는 군부대 오수 처리 대책 요청
- — 출판단지 건축설계지침 확정을 위한 설명회 개최 안내
- — 출판단지 2차지구 개별필지 추첨 및 면적 확정일자 통보
- — 완공된 출판단지 인포룸 방문행사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8 2F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8506-8 팩스 02-511-8508 E-mail : PAUBOOKCITY@PA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33호

1999. 10. 20.

수 신 : 대표이사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잔여필지 마지막 입주 안내

안녕하십니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가 일정대로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9월 9일에는 인포메이션센터 준공기념행사를 갖고, 10월 6일에는 시험지구에 이어 2차개발지구 일주사에 대한 필지배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부 면적을 제외한 분양업무는 사실상 마치고, 사옥건축을 위한 설계와 관련한 업무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그 동안 참여를 미루어오셨던 조합원들에게 마지막 동향의 기회를 드리고자 다음 내용들을 알려드리오니, 검토하신 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입주하시려면 우선 부지를 신청하시고(영당 토지 대금 : 671,000원),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내신 후 5년 동안 6개월마다 10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시기 됩니다. 부지 확정하는 조식공사가 완료된 뒤 추후 정산하게 되며, 잔여면적은 아의 제형으로서 출판지구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착순으로 분양하므로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입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신청하실 수 있는 잔여 필지와 평형

200평형 : 2-2(219평), 2-4(219평)

300평형 : 3-4(300평), 3-5(310평), 3-10(310평), 3-13(310평), 3-14(310평)

800평형 : 8-1(822평)

1000평형 : 10-1(1218평), 10-5(951평)

* 상세한 위치는 사무국을 방문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8 2F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8506-8 팩스 02-511-8508 E-mail : PAUBOOKCITY@PA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33호

1999. 10. 29.

수 신 : 대표이사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연합직장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이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지구에서 이어 2차 개발지구에 대한 필지 배정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옥건축을 위한 업무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의 일환으로 집행부에서는 2002년도 사옥 입주시기와 맞추어 임직원들의 직장주거의 근거지 확보를 위해 주거지원 제도를 검토 중이며, 여러 차례 논의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실행이사회에서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연합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1차로 출판단지내 8,000여평의 주거시설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동주택은 분양가가 매우 저렴하고 아름답고 견고하며, 쾌적한 환경 속에 조성됨으로써 출판단지의 활용성을 보다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연계되는 주거시설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직장주택조합 설립에 따르는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앞으로 진행되는 관련업무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추진일정 : 11월 15일 : 조합원 확정

11월 20일 : 조합 정밀승회 개최

12월 1일 : 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진행

● 조합원 가입

· 자 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예정자의 임직원으로서 두주택자

· 명단제출 : 각 사별로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제출

(회사명, 성명, 직위, 근무연한, 주소, 생년월일 기재)

· 제출기간 : 11월 10일까지

● 공동주택 규모, 건축세대수, 분량, 사업추진 부담금 및 분양시설 분담금 등의 사항은 조합원이 확정된 후 상세히 통보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0-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308 2F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2-511-8506-8 팩스 02-511-8508 E-mail : PAUBOOKCITY@PAU.CO.KR

출판단지조합 : 제99-144호

1999. 10. 29.

수 신 : 건설교통부의 5곳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관련 협조 요청

1. 귀 부(시·공사·공단·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조성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2002년 입주율 목표 70%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순조롭게 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이 펼쳐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불임 계획안과 같이 11월 하순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4. 이를 위해 주판은 우리 조합에서 하되, 본건의 당해기관인 귀부(시·공사·공단·연구원)의 후원을 얻어 불임과 같이 토론자의 참가를 요청하오니 진심한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불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안)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 일 시 : 1999년 11월 23일(목) 14:00

·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인포메이션센터 회의실(파주시 교하면 선남리 소재)

· 주 관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후 원 : 건설교통부, 경기도,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토지공사

·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자 :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 출판단지 입주에 따른 대중교통정책에 있는가?

· 토 론 자 :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한재무(한양대학교 교수)

이상화(교통개발연구원 원장)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도시교통과장)

경기도 교통과장

고양시 건설국장

파주시 건설국장

한국토지공사 부장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장

김현준(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

· 참 가 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 및 지역주민

① — 출판단지 잔여필지 분양신청 안내

② — 출판단지 연합직장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가입신청 안내

③ — 건설교통부, 파주시 등 관계기관에 출판단지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 개최 협조 요청

④ — ③ 불임, 대중교통 대책 수립을 위한 세미나(안)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우)150-740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3층)
담당 경리송관범 윤 위 상 전화 02) 785-0010(코란 321) 전송 782-8319
팩스 02) 785-0010(코란 321) 전송 782-8319
기협(정칙) : 제 6 호 1999. 10. 25
수 신 : 각 조합
참 조 :
제 목 :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송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며, 본회 홈페이지(www.kfsb.or.kr)에도 게재되어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임 :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1부, 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박 상



2000年度 中小企業 育成施策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1999. 10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출판단지조합 : 제99-141호

1999. 11. 1

수 신 : 문화관광부장관
참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촉구와 건

1.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조성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의顺利진행으로 이의 상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귀부에 감사 드립니다.

2. 우리 입주자들도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출판단지 1단계 구역(약25만평)내 산업용지와 문화시설용지에 대한 매입을 지난 6월 30일 완료한 이후 현재 제2 단계 입주자의 위치를 확정하여 2002년 입주준 위한 건축설계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정부의 규모나 중요도로 볼 때 단지 개발의 실패를 좌우할 핵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 추진이 미진한데 대해 입주자들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거 예정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자, 귀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차질이 없도록 하여 전체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셨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건축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1999년도 예산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용역을 집행하기에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정부와 같이 사단법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도 건립을 촉구한 바 있는만큼, 모로써 귀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하여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지연으로 전체 단지의 개발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제출 공문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용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서울도시가스주식회사
전화 : 02-3400-1000 FAX : 02-3400-1001
홈페이지 : www.seoulgas.co.kr

S30-영원-10-194 호

1999. 10. 26

수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 본양담당(이광주 부장)
제 목 : 도시가스배관부설 계획수립을 위한 자료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사업추진하고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지하매설물공사 관련 협의 및 적기 가스공급요청이 있어 당사에서 통단지에 도시가스배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3. 각 물자별 사용량과 배 설비용량을 파악하여 도시가스배관계획(공급능력, 중압관, 배관연장 등)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필히 입주업체 현황(업체명, 연면적, 입주시기, 구조적특성, 시설용량 등) 및 관련도면을 요청하여, 도시가스배관수립에 자질이 발생할 경우 가스공급에 어려움이 초래 될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자료를 회신함에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한국토지공사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1 "공"



대표이사 사장 배 경

"안전하고 확실하고 너도나도 가스안전"

- ② - 중소기업 중앙회의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송부
- ③ - ② 붙임,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표지
- ④ - 문화관광부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촉구
- ⑤ - 서울도시가스(주)의 출판단지 도시가스 배관 부설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 요청

한국통신

우441-390 부천시 소사읍 2동 70-16/☎(022)342-5420 FAX 342-5425/사업조사2과

문서번호 경마2113-000408

시행일자 1999. 11. 12

발문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모기

제목 통신설비 투자계획을 위한 기초자료 협조요청

1.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통신사업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함을 드립니다.
2. 저희 한국통신에서는 통신시설을 적기에 공급하여 공급하여 원만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기·인천지역의 강대 통신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3. 따라서 귀기관 관내의 기초자료를 아래와 같이 요청 하오니 업무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요청자료
○ 기관명: 33면 11월
○ 내 용: 사업지구, 인구사별 통신요요량 파악
4. 아울러 협조하여 주신 자료는 통신시설투자에 대한 기초자료의역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것을 약속드립니다.

덧붙임: 조사양식 1부. 붙.



한국통신 경기본부



국 세 청

우110-140/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전화 (02)397-1200/전송 (02)733-0471
부가가치세과 과장 김 호 기 사무관 강 병 주 담당자 송 의 중

문서번호 부가46015 459
시행일자 1999. 11.

반 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참 조

제 목 부가가치세면세 해당여부

1. '99. 7.26일자로 우리청에 접수한 귀 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귀 절의에서 언급한 교수가 이에 해당하나는 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다만, 사업자인 교수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고가옥 이전과 관련하여 현황조사 및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끝.

과세되는 것



국 세 청 장

전결 부가가치세과장 김 호 기

건 설 교 통 부

위 급

우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1, 과천종합청사내 / ☎(02)504-9133 / 전송504-6128

인터넷 <http://www.mct.go.kr> 주택정책과 과장 이길권 시기관 김홍배 담당자 김을환

문서번호 58500~4001

시행일자 99. 11. 23. ()

발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기용 이사장귀하

제 목 집의에 대한 회신

귀하의 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절의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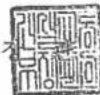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하는 20인이하의 출판관련 중소기업 입주자들을 하나의 직장인을 묶어 직장주택조합이 가능한지, 또는 지역조합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로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요건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조합주택의 입주가 동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로서 당해 시·군내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각급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근무하는자로 되어 있으므로 절의의 출판업관련 입주자들을 하나로 묶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건 설 교 통 부



나. 주택건설촉진법제3조제9호와 동법시행령제4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거주지역 또는 주택건설예정지역에서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당해 주택조합설립인가지역과 동일 또는 인접한 시·군내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교통, 통신, 지역여건 등의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들이 파주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지역조합원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㉞ — 한국통신의 출판단지 통신설비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협조 요청
- ㉞ — 우리조합의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절의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 ㉞ — 우리조합의 연합직장주택조합 설립 절의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회신

헤드라인 뉴스 THE KOREA MASS-MEDIA CLUB

110-0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동 144-2 원문빌딩 2F / 전화 02-734-2116 / 팩스 02-725-2177

문서번호 한신양 제 11775 호
시행일자 1999. 11. 23

수 신 이 기 종 이사장님
창 조

선 전		지 시	
정 수	일자	월 일	년 월
처리과		결 재	
담당자			

계 목 HeadLine News 게재 홍보자료 협조회권

1. 貴下의 건승하심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韓國의 言論環境은 전국지나 지방지, 잡지, CATV의 등장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는 言論, 言論의 자유를 누릴 책임은 다하는 언론, 民主化 시대에서도 국가의 사회공공체의 진정한 매거진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言論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것입니다. 韓國新聞放送인물들은 신문, 방송사에 對, 現狀으로 從事하는 言論人의 모임으로써 매스컴 분야에 관한 學術研究를 통하여 한국사회의 발전과 言論의 發展에 努力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言論大賞을 제정하여 언론정당에 기부가 큰 언론인들에게 수상하고 있으며 國際化, 國際化, 國際化時代를 맞이하여 國際環境에 맞도록 文化環境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3. 韓國新聞放送인물들은 보도기능의 발전으로 종합시사지 HeadLine News를 최첨단언론사와 특약으로 대립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政治, 文化, 社會, 言論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신속적이고 분석적으로 깊이있게 다뤄 독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HeadLine News는 독자여러분의 참여 만드는 종합시사지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창구를 만들어 기사에 대한 情報, 批評, 그림은 물론 사진부고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여러분이 제보한 기사는 지면을 적극 할애할 방침이오니 독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또한 IMF시대를 맞아 중소기업계를 정형화하는 독자분에게는 회사의 發展資料를 무료로 製作하여 드리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HeadLine News가 정확하고 바른 언론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 부 서 / 조사지표실
· 직 책 / 실장
· 성 명 / 장병철

한국신문방송인클럽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동구 신일동 525 동대문문화센터
전화 02-734-2116 팩스 02-725-2177 E-mail: PAJUBOOKCITY@NATE.COM

20 00

출판단지조합 : 제99-177호

1999. 12. 10.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창 조 : 한국토지공사 부사장

제 목 : 피주출판단지내 상업시설용지 공급에 따른 업무협조 요청

1.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공사에 감사 드립니다.

2. 이미 출판단지조합 제99-158호(1999. 11. 15)를 통해 취재를 생략드린 바 있듯이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우리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조성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단지는 달리 사전에 협의하고도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근거, 합리적인 단지 재개발이 이루어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현재 1단계 개발사업 부지에 상업시설용지 뿐 아니라 문화시설부지, 유류시설부지 전체를 매입 완료하고, 각각의 용도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내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용지 역시 단지 성격에 걸맞게 부합하게끔 개발되도록 함으로써 전체 단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전력을 쓰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임구가형제형의기구인 우리 조합에게 상업시설용지 전체를 저렴한 가격에 일괄 분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는, 전체 단지 조성계획상 상업시설용지가 개발되므로 분담이 이루어질 경우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전체 단지 조성프로그램이 흔들릴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입주자들의 숙고 끝에 합의된 결정입니다.

5. 귀공사가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주시면 우리는 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와 면밀한 스케이스프로그래밍을 마련하여 단지내 상업시설 역시 문화산업단지에 걸맞은 체계적 명소가 되도록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단지가 조성될 때 비로소 본 단지의 조성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업시행자로서 귀공사의 소명도 완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종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동구 신일동 525 동대문문화센터
전화 02-734-2116 팩스 02-725-2177 E-mail: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99-184호

1999. 12. 15.

수 신 : 문화관광부장관

창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에 관한 의견

1. 출신 86600-800(99. 12. 7)의 편입니다.

2. 지난 99. 9. 2. 귀부 문화산업국장에서의 회의는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일원 이사 중 출판계 일원과의 회의로 알고 있으며, 우리 조합에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계획과 관련하여 귀부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바가 없습니다.

3. 귀부에서 우리 조합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계획 등을 문의하신다면, 귀부가 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해 설립한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초월하여 우리 조합에서 어떠한 일을 어떤 절차로 하라는 것인지 그 방안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종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동구 신일동 525 동대문문화센터
전화 02-734-2116 팩스 02-725-2177 E-mail: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99-190호

1999. 12. 30.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창 조 : 시설설계지 조경부장

제 목 : 피주출판단지 조경설계를 위한 실무협의 요청

1. 피주출판단지 조경을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조합에서는 지난 12월 28일 단지조성 토목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피주출판단지 갈대갯강(수로) 보철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3. 이 자리에서는 귀공사 관계자가 참가한 가운데 단지 기반시설공사에 따른 갈대갯강(수로) 보철방안 및 향후 시행될 단지 조경설계 등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워크샵에서 참가자들은 입주자의 사업시행자인 귀공사인에 사전 단지내 조경설계에 관한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귀공사의 공사원정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단지의 조경설계를 위한 협의가 시급함을 요하는 만큼 다음과 같이 실무 협의를 요청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 다 음 -

- 협의일정 : 피주출판단지 조경설계에 관한 실무협의
- 일 시 : 2000년 1월 6일(목)
- 장 소 : 피주출판단지 현장 컨트례
- 참가인원 : 한국토지공사 - 조경 부장 및 관계자

출판단지조합 - 김병우 및 건축코디네이터, 건축설계단

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종



- —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발행하는 헤드라인 뉴스지 게재 홍보자료 요청
- — 출판단지 상업시설용지 전체를 우리조합에 저가 일괄 분양해 줄 것을 토지공사에 요청
-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 수립방법 질의
- —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조경설계에 관한 실무협의 요청

문화관광부

주 110-703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02)3704-9524 / FAX(02)3704-9529
문화산업국 출판신문과 과장 김현숙 사무관 박태영 담당자 최남주

문서번호 출신 88800-595

시행일자 1999. 11. 6

수 신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선 발		지 시	
권 수	일차 시진 번호	결 재	
처 리 과		공 람	
담당자		심사인	

제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촉구에 대한 회신

1. 출판단지조항 제99-141(‘99. 11. 1)의 관련입니다.
2. 정소 출판문화 관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조합에 감사드리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촉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는 과주단지 내에 복합적 정보·문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그 동안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그러나 당 사업 자원을 위하여 전성권 우리부의 99예산(20억원)은 건립계획에 대하여 예산당국과 협의 후 집행할 수 있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자인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 적절한 건립규모, 추진일정, 계획확보 방안, 건립 후 운영방안, 부지소유권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하는 건립계획서(제출서)를 제출토록 2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예산 배정·집행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앞으로도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오니, 귀 조합에서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



2000년도



2000년도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아
그동안 계획하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하나들 열매를
맺는 역사적인 해로 기록될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입주사 사옥건축을 위한 설계진행을 비롯,
단지 내 상업시설 매입 및 개발계획 수립,
주차장 부지 매입, 공동주택 건립 추진,
출판단지 내 문화 핵심시설인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안 선정,
한옥 이건 완료 등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 해였다.
물론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우리의 노력들은
여기 수록한 공문과 문서 이외에
지면의 한계로 전부 실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6 418 217 0145 FAX 010-8222-7193
TEL 011-9558-8 410915 011-9558 1146 Paju@COCAM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 제2000-3호

2000. 1. 4.

수 신 : 일산구청장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출판단지 안내 표시 간판 제작 신청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출판 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조성과 유동구조를 현대화하고, 첨단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인 "지식사 정보물 창출하는 중심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97. 3. 31.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 현재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방문객과 입주자들에게 공사진행 상황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현장감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에 인터에이션 센터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단지 방문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없어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전입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있으며, 아울러 교통혼잡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설치돼 있는 산남공원 도로 안내 표지판을 이용하여 출판단지 현장을 현대화하고자 관한 관청인 귀청에 설립과 같은 형태로 표지판을 요청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단지 안내 표지판 도면 및 현황사진 1부.

2. 출판단지 사업계획서 (개요) 1부 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가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126 418 217 0145 FAX 010-8222-7193
TEL 011-9558-8 410915 011-9558 1146 Paju@COCAM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00-05호

2000. 1. 08.

수 신 : (주)이로게 대표이사

제 목 :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의견 조희

1. 문화관광부 출선 85600-24(2000. 1. 6)의 문면입니다.

2. 문화관광부로부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건축 코디네이터인 귀사에 의견 조희하오니, 실시계획에 대한 주요 전반사항 세밀히 검토하시어 2000. 1. 10일까지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 임 :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 1부 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가용



- ① — 고양시 일산구청에 출판단지 안내 교통표지판 제작 신청
- ② — 출판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건축코디네이터의 의견 요청

알 림

수 신 : 협동조합실무자
발 송 : 경기지회 고인식
제 목 : 1999. 4/4분기 조합원변동보고서 제출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조합은 매분기 첫 달 15일 까지 전분기의 조합원변동보고서를 지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아직 보내지지 않은 조합 제위에서는 별첨의 1999. 4/4분기 조합원 변동현황 보고양식을 기재하시어 1월 15일(토)까지 팩스(0331-221-4452)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청 : 조합원변동보고서 양식 1부, 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

문서번호 : 제2000-6호 TEL : 511-9886 2000. 1. 12
수 신 : 경기지회장
제 목 : 조합원(회원)변동보고서 제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9. 4/4)분기 조합원 변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분기별 조합원 변동현황

(단위 : 원원)

구분	조합원 수			출자자 수			출자금 대			증입원 수		
	전분기	당분기	증감	전분기	당분기	증감	전분기	당분기	증감	전분기	당분기	증감
현황	211	219	8	1,004	1,014	10	1,004,000	1,014,000	10,000	1,004	1,014	10

나. 지역별 조합원 분포상황

(단위 : 원원)

구분	조합원 수	출자자 수	출자금 대	증입원 수	비 고
시 울	205	6,996	6,996,000	10,250	
인 원	1	3	3,000	5	
경 기	9	226	226,000	90	
기 타	4	39	39,000	64	
계	219	7,264	7,264,000	10,30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 제출기한 : 매분기 첫 달 15일 까지.
※ 조합원 가입 및 탈퇴현황을 첨부바람.



출판단지조합 : 2000. 10호 2000. 1. 18.
수 신 : 문화관광부출판
참 조 : 문화산업국합
제 목 : 1단계 실시 계획 변경 승인신청에 대한 의견 회신

1. 출신 86600-24(2000. 1. 6)의 원원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실시 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귀부의 협의 의견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의 정정에 관한 사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인 문화산업의 중심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단지 내에는 출판시설·인쇄시설·유통시설·문화시설·주거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복합문화산업용 통합 산업 캠퍼스를 이루는 한편, 현대적인 유통시설을 통하여 문화산업의 일련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목적으로 조성되는 하나의 산업단지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단지 내의 출판시설·인쇄시설·유통시설·문화시설 등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 개발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지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두 개 지역으로 구분된 것을 하나의 준공업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적입니다.

나. 저울 배치를 계획에 관한 사항
새로운 도시의 거리를 조성함에 있어 기능적인 반과 도시의 미관을 고려할 때 모든 시설물은 지평화되어야 합니다. 저울배치에 따른 초기 주차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사후 시설 유지관리 및 편의성을 고려할 때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도로저하배치를 표준으로 하는 상수·오수·우수·전기·통신·가스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면계획도는 상수·오수·우수만 첨부되어 있는 바, 향후 공사 추진시에는 전기·통신(광케이블·케이블TV 포함)·가스 등의 시설이 저하배치될 수 있도록 지평화 계획이 요구됩니다.

다. 단지내 수로(갈대밭길) 모퉁이에 관한 사항
출판단지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갈대밭길은 순수한 수로 기능과 홍수시의 유수지 기능을 겸하는 시설로 출판단지의 심장과 혈관 기능을 겸하는 주요 시설입니다. 자연을 훼손 후 복구하는 것은 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자연 환경 보전 차원에서 현존 수로를 최대한 보전하여 훼손이 없는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도를 조기 완성하여 도면

에 의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 주거시설 수용에 관한 사항
출판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는 직무근점이 이루어져 업무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이간에는 단지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지내 주거시설은 최대한 수용율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일일주 세대를 최대한 수용 가능한 수 있도록 평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상의 용적률 80%를 상향조정하여 120%선이 되도록 검토 요구됩니다.

마. 기반시설비 국고지원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및개발제한법」 제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도로·상하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통단지개발추진법 제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통단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밖에 법령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IC)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열외한 중소기업들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 국가경제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단지내 기반시설 조성은 입주자들의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법령에서 장려하고 있는 최선의 국고보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중



- ④ — 중소기업 경기지회에서 1999년도 4/4분기 조합원 변동보고서 제출 요청
- ④ — ③에 대한 우리조합 변동보고서 제출
- ⑤ ~ ⑥ — 문화관광부에 출판단지 1단계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0568 팩스 511-0569 인터넷: www.pajubookcity.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0-9호

2000. 1. 18.

수 신 : 대한출판문화협회장

제 목 :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여 건축가와의 인터뷰에 따른 협조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에서는 단체 건축설계를 위해 정부 평판과 같은 건축가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건축가단이 아래 일정과 같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 바르셀로나 올림픽 개최에 참여했던 현지 건축가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면담교차 하오니, 대한출판문화협회 차원에서 바르셀로나 지역출판회를 통하여 면담에 따른 협조를 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개요

-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PAJU BOOK CITY)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1997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출판·인쇄·출판유통 등 출판관련산업에 200여사가 ▲출판관련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기능성을 제고하고, ▲출판문화를 체계로 하는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를 확보해 21세기 국제화시대의 주역의 문화대국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 현재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문반리 자유로 변 약 48만 1천평(1단계 : 23만 9천평 2단계 : 24만 2천평)의 부지에 약 1조원을 투입해 2002년 상반기 1단계 완성을 목표로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중임.
- 3) 이 사업의 관리권자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및 건축가 10인

· 바르셀로나 방문 일정

- 2000년 2월 8일(화)부터 2월 10일(목)까지 2박 3일간
- 면담 요청 일시 : 면담의 상황에 따라 일정을 맞출 수 있음
- 면담 장소 : 방문한 숙소인 테나솔라호텔 또는 한하는 장소
- 면담 인원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및 건축가 10인

· 주요 면담 내용

-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현지 건축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상호 교류의 단서를 마련하고자 함.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CIP 및 환경 조성, SIGNAGE 등에 관한 요청사항 제의를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고자 함.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과 관련하여 현지 건축가들의 참여 가능성을 상호 모색하고자 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 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0568 팩스 511-0569 인터넷: www.pajubookcity.com

문 시 번 호 : 출판단지 2000-11호

2000. 1. 2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시설설계지 조정부상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조경설계 관련의 건

1.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귀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파주출판단지는 건설초기부터 갈대셋강의 생태적 정관적 보존의 필요성이 본 단지의 환경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적극 인식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조합에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그 실행 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토목공사로 인해 갈대 셋강의 상류부에서 손실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기존의 단지조성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이 경우 갈대의 생물계면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셋강의 생태적 정관적 보존을 상실할 것이 명약관화 합니다. 후속적으로 사생복원사업이 진행되고 하더라도 복원작업에는 적어도 2-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판단이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 단계에서 갈대셋강이 관통한 구간을 최대한 보존하고 모사에 배운된 구간에 대해서는 생태적 복구방안을 작성하고 이를 시공과정에서 반영하여 본래의 단지조성의 목표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협의 및 건의하오니, 원 토목공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시급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갈대 셋강의 보존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찾기까지 갈대 셋강에 접한 지역에 대해 시는 관행적 시공을 중단해 줄 것을 바랍니다.

둘째, 본 단지의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설계가 시급히 진행되어 기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복원 및 처방 방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성설계에는 다음과 같은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가. 기 완성된 토목 기본 및 시설설계의 검토 및 조정
- 1) 갈대수도 종합단
- 2) 수도 법면
- 3) 제척용수위

토지사용승낙서

파주(용)5518 - 102

토지의 표시	소 개 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용지	
	지	목	대	면 적
				17,928.0㎡ 중 300.0㎡
사용목적	인. 허가 신청용			
사용승락원인	지정용도 부속건축물 신축		사용승락기간	'00.01.26-'04.11.24
대대(분양)금액	급사설이역상환금회차상환금		회수	원 금 ₩1,058,540,000
	(₩4,230,540,000)		내역	담보금 -
사 용 자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성 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 기 용	주민등록번호	115940-0000012

□ 토지사용승낙 조건

- 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문화시설용지 지정용도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음.
- 나. 본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 기반시설물에 대한 훼손 및 파괴행위를 일체 금함.
- 다. 토지사용시 전입도로 중 시설물 및 구조물에 대하여 사업구역 주변을 정경하게 유지해야 하며 토지사용 완료시에는 주변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함.
- 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함.
- 라. 본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토지소재 현장사무소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마. 이상 각 항에 위배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은 물론 공사중지 명령 등의 여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없이 감수해야 함.

위와 같은 이행조건으로 토지사용을 승낙함

2000. 01. 26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파주사업단장



- 4) 성도 토양의 조성 토질 토심 배수 등
- 5) 교량, 경계지, 포장 등 토목구조물

나. 조정기본설계의 제 조정

- 1) 조정의 기본개념
 - 2) 적용공법의 타당성
 - 3) 수생식물의 활착 생장 가능성
 - 4) 습지식상에 대한 연구
- 다. 전술한제정함에 적시된 조정개념의 전개
라. 자연적 토목 제조정

셋째,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단지 전체가 저습지적 환경과 유수지 기능으로서의 갈대 셋강에 대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리수문에 대한 제정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는 홍수위험에 대한 계산이나 물수위 및 저반역학적 검토도 아울러 요청합니다.

넷째, 특히 지표수의 처리가 본토대설되 되어 있어 갈대 셋강의 환경요령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되므로 지표수 처리 방안도 제정토해주시 것을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 용



- 7 —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바르셀로나 올림픽 참여 건축가와의 면담 협조 요청
- 8 — 출판단지 문화시설용지 토지사용 승낙서
- 9 ~ 10 — 토지공사에 조경설계시 갈대셋강 보존 및 훼손 방지 대책 마련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9-129 파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31-4521-8 031-4521-8 F: 031-4521-8

출판단지조합 : 제2000-12호

2000. 1. 26.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환경과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내 갈대갯강 보전 사업비 국고 지원의 건

제원년을 맞이하여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판단지에서는 국가산업단지로 개발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의 갈대갯강을 생태적으로 보전·복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자연환경보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사업은 수로가 지난 환경기능을 동시에 토목시설의 시공시 기능을 재생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파주시가 본래 보전해야 할 수로의 복원 사업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환경개선 목적에 의한 국고 지원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갈대갯강 보전 사업 계획

-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내
- ~ 면 적 : 112,200㎡(34,000평)
- ~ 조성기간 : 2000년 1월 ~ 2002년 12월
- ~ 조성 목적 : 기존습지형수로의 선형화 호안 및 기존 갈대군락 등 자연생태계를 보전, 복원시켜 특목하고 가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 조성주체 : 한국토지공사
- ~ 주요 사업계획 내용
 - ▶ 습지형 수로의 선형화 호안 ▶ 수로변 식생의 확대 호안 및 복원 ▶ 수로와 유수지 복합 기능화
 - ▶ 기대효과
 - 자연경관 보전 및 생물과 서식공간 제공
 - 시민들에게 휴식처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 시민들에게 살아 있는 생태교육장 마련
 - 산업단지내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인간과 생활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 ~ 국고 보조 신청 금액 : 30억원

● 보전, 복원지역의 특수성

1. 생태계 특성
 - ~ 이지역은 과거의 재두루미 서식지였으나 자유로 건설에 따라 생물서식 환경이 교란되어 생태계 보전 및 복원의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2. 공간 구조의 특성
 - ~ 갈대갯강을 관류하는 수로의 물은 한강물의 지하 복류수로서 매질을 지양하고 수로 전체를 보전한다
 - ~ 수로변의 갈대 및 수중식물 등 식생을 최대한 보존한다
 - ~ 수로와 유수지를 활용한 생태적 경관적 특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하여 명승화 한다.
3. 수계 보존의 특성
 - ~ 수로 하도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기존의 유수지를 생태습지형으로 정비하여 선형 수로를 조성한다.
 - ~ 수로의 기능을 복합화하여 본래의 기능인 치수와 유수는 물론, 다양한 수경관을 제공 하고 수상 및 수변활동을 촉발하는 매체가 되도록 한다.
4. 개발 계획의 특성
 - ~ 유수지 및 수로는 기존의 선형과 생태적 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단순한 치수기능 뿐만 아니라 경관기능을 함께 부여함으로써 갈대갯강을 비롯한 고유의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 개발한다.
 - ~ 수로 주변의 갈대를 보존하여 생태관람 보전지역으로 개발한다.
5. 환경적 기능의 특성
 - ~ 수로변에 분포한 습생식물과 수생식물은 폐기된 물질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높은 생태적 생산력을 갖게 되는 수로이다.
 - ~ 갈대갯강변의 자발적 식생환경은 수종의 무치수 저서곤충류를 발생시키고 담수어류나 조류의 서식처, 은신처, 산란처를 제공해 주어 서식조건을 충족시켜주는 생태계 보전 환경이다.
 - ~ 갈대군락으로 형성된 호안은 근경부가 치밀하게 얽혀져 있어 호안의 침식과 새굴을 방지하고 제방을 안정시켜 주므로 수변환경에 조화된 녹지경관을 유지하는 생태관람 지역이다.

별첨 : 갈대갯강 전경 사진 -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9-129 파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031-4521-8 031-4521-8 F: 031-4521-8

출판단지조합 : 제2000-14호

2000. 2. 2.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과장

제 목 : 「출판단지」 도로표지판 문안 삽입 요청의 건

1. 새천년을 맞이하여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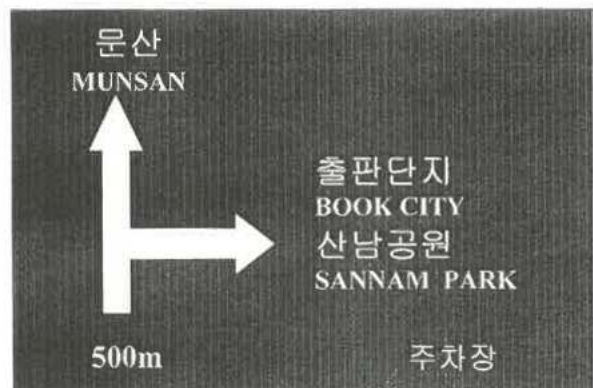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출판 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조성과 유통구조를 현대화 하고, 첨단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발전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거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1997. 3. 31. 건설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현재 본격적인 토목공사가 진행중입니다.

3. 이에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방목과 입주자들에게 공사진행 상황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현장감 있게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건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단지 월 경관 방목에 수는 500여명에 달하는데도 안내 표지판이 없어 진입작으로 인한 교통 사고 유발과 교통혼잡을 초래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 설치된 있는 산남공원 도로 안내 표지판을 이용하여 출판단지 현황을 안내 하고자 한화 부청인 귀파주시에 별첨의 사진과 같이 도로표지판에 문안 삽입을 요청 의뢰하오니 해당 일산구청과 상호 협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일산구청 건설과에서는 관할권 장인 파주시에서 협조를 의뢰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구두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출판단지 안내 표지판 도면 및 현황사진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출판단지」 표시를 추가한 안내 표지판

- 11 ~ 12 — 파주시에 갈대갯강 보전 사업비 국고 지원 요청
- 13 — 파주시에 출판단지 도로표지판 문안 삽입 요청
- 14 — 붙임, 안내 표지판 제작안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8506-4141~4142 팩스 011-8506-4143 E-MAIL: PAJBOOK@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0-18호

2000. 2. 10.

수 신 : 조합원
제 목 : 제10차 정기총회 개최의 건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정관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지난 1월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고, 올해는 건축설계 완성의 메인 만큼 「건축설계지침」을 확정하여 이를 토대로 각 설계별 설계를 완성하는 등의 주요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 대표께서는 직접 참석하시어 출판단지 건설을 위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부급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토록 해주시고, 이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성원을 위해 총회 개최 전까지 조합 사무국으로 반드시 위원장을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0년 2월 24일(목) 오후 2시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03048-942-0016-6)
- 의 안 : 1) 1999년도 결산 승인 의 건
2) 임명권 회복(안) 승인의 건
3) 200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4)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5) 2000년도 조합비 책정의 건
6) 추가 경영예산 편성권 이사회 위임의 건
7) 2000년도 기획 한도액 결정의 건
8)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9) 임원 선출의 건
10) 기타

※ 결 부 : 위임장 1부(총회서류는 별도 송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8506-4141~4142 팩스 011-8506-4143 E-MAIL: PAJBOOK@NATE.COM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22호

2000. 2. 18.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시설설계지침 조정부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조정설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1.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월 6일 조정설계와 건축전문가 등이 단지조성 도록공사 진행 현장을 답사하고, 수로 보전과 조정설계에 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3. 앞으로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인 도록공사가 진행될 것이 예상됨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설계 업무 추진을 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오니, 필히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회의인건 파주출판단지 조정설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 일 시 : 2000년 2월 22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현장 인포룸 회의실
- 참가인원 한국토지공사 - 조정부장, 사업단 공사부장, 개발사업소장
출판단지조합 - 건축코디네이터 및 조정전문가, 집행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8506-4141~4142 팩스 011-8506-4143 E-MAIL: PAJBOOK@NATE.COM

출판단지조합 : 2000 - 19호

2000. 3. 3.

수 신 : 대표이사
제 목 : 출판단지 사육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관한 회의 개최의 건

1.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시범지구 건축 설계 완료율 목표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단지 전체에 대한 건축설계지침 작성을 완료하는 한편, 1차 건축가그룹을 구성하여 시범지구 입주사의 사육 설계에 따른 사전 준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2. 이러한 일정에 따라 3월 중에는 사육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입주사 대표와 이사장 그리고 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3자간 회합 후 건축계획을 시연에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3. 국가산업단지, 특히 출판도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입주사 여러분의 협력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반드시 입주사 대표가 직접 참석하시어 합니다. 때문에 회의 일정도 일자에 지장을 드리지 않기 위해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하였으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 대표께서는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정해진 일시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정 : 3월 6일(월) 아침 7시30분~9시30분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회의실
- 참석자 : 이기용 이사장, 입주사 대표, 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송효상

※ 일정 조정을 필요로 하시는 입주사 대표께서는 사전에 사무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8506-4141~4142 팩스 011-8506-4143 E-MAIL: PAJBOOK@NATE.COM

출판단지조합 : 2000 - 28호

2000. 3. 4.

수 신 : 파주소방서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소방·안전·긴급구조 교육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1. 파주시의 재난 방재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국가 안전의 핵심인 자치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점거점으로 개발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건교부고시 제1997-93호)입니다. 현재 단지기반시설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됨에 따라, 2001년 초에는 입주업체들이 사육 건축을 시작하여 2002년 상반기에 1단지 개발지구(약 21만평)에 500여 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출판단지 현장에는 단지개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230여명 규모의 인포룸이 준공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입주사 및 관계기관, 일반인을 위한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 행사 그리고 회의가 거의 연일 개최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출판단지 임직원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화재 및 안전사고 등 재난의 위험에 대한 사전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단지 건설 과정에서 인포롬이 소방·안전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서장님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0년 3월 11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인포메이션센터 회의실
- 협조 요청사항
· 서장님의 소방·안전교육 및 출판단지 임직원과의 건담회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15 —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통보
- 16 —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조정설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 참석 요청
- 17 — 시범지구 입주사 대상 사육 건축설계 용역계약에 관한 회의 개최 통보
- 18 — 파주소방서에 출판단지 소방·안전·긴급구조 교육실시 협조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주) KLD 서울 중랑구 신원로 62-1 / 전화 (02) 3704-9824 / 팩스 (02) 3704-9829
상주 915-8286-1 / 팩스 (011) 9829-8289 E-mail : PAJUBOOKCITY@KLD.CO.KR

출판단지조합 : 2000 - 24호

2000. 3. 3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 조 : 조정부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정설계에 관한 요청

1. 출판단지 조합 2000-11호(2000. 1. 21)의 관련입니다.

2. 단지 조성공사에 따른 단지내 수로(갈대셋강) 보전을 논의하기 위해 계획된 '99. 12. 28일자 워크숍을 통하여 도출된 방안으로 조정 기본설계를 다수급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데 이어, 2000년 2월 22일에는 본안에 대해 귀공사와 출판단지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들이 출판단지 현장에서 협의를 갖고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일반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조정설계 업무와 달리 출판단지 조정설계는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데 모두가 의견을 모으고 이를 조속히 추진키로 협의한 바 있지만, 행정절차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우선 시급한 사항들을 이해와 같이 제기 하오니, 검토하시고 빠른 조치를 요청합니다.

· 아 래 ·

가. 토지공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정설계 내용과 일정의 열람
나. 갈대식생군의 훼손 방지를 위해 수로변 차진거도로 조성 제점포
다. 수로를 평면하는 박스형 교량의 폭원을 35m 이상으로 확장 시공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현황대로 공급할 경우에도 문화시설부지와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공급되며 동 부지내 수로에 대한 조정 및 단면유지 등에 대하여는 귀 조합에서 처리가 요청됨. 함.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장



성원시장 생활문화 공사문화 나라공원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94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637 / 전 0303-940-3866 / 전송 0303-944-8049
인터넷주소 www.kland.co.kr / 부장 임규형 / 과장 김태근 / 담당자 이광로

문서번호 파주(개)6111-404

시행일자 2000.03.27

정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참조

선	결	지
정	일	시
수	번	계
처	리	공
담	당	람

제목 파주출판단지 조정설계 요청에 따른 세부자료 요청

1. 출판단지조합 2000-24호(2000. 3. 3)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로 귀 조합에서 요청한 파주출판단지 조정설계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요청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미제시로 인하여 반영 가능여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불가한 실정인 바, 아래와 같이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 및 처리대책 등 귀 조합의 의견을 조속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갈대식생군 훼손방지를 위해 수로변 차진거도로 조성 제점포 요청

- 차진거도로 조성 제점포와 관련하여 기존 수로구간의 자연수로형상 유지에 따른 유수지 지수용량 감소에 대한 처리대책
- 수로와 인접 공장유지 단차부(단차 1.0 - 4.5m) 처리대책

나. 수로평단 박스형교량 폭원을 35m 이상으로 확장시공

- 폭원 확장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신설교량 3개소 포함)

문화시설부지 내 수로 현황보전(구두요청 사항)

- 수로를 현황대로 보전할 경우 확정측량시 저류부여(留地 등) 및 공공용지인 수로와의 지적분할을 위하여는 경계를 나타낼 수 있는 별도 시설설치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귀 조합의 의견(설치방법 및 설치주체, 비용부담 등)



*문화의 세기, 문화가 미래를 열다

문 화 관 광 부

우 110-708 서울시 중랑구 세종로 62-1 / 전화 (02) 3704-9824 / 전송 (02) 3704-9829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 이사장 이기웅

문서번호 출신 88800-416

시행일자 2000. 3. 20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참조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에 관한 협신

1. 출판단지 조합 2000-31호(2000. 3. 8)의 관련입니다.

2. 출판문화진흥법 제정 추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귀 조합에 깊은 감사함을 드리며,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신합니다.

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정보·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출판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꼭 필요하고 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이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나. 그 동안 동 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건립추진위원회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설립·인가하여 추진토록 노력하였으나 범인의 인력 및 운영비의 대확보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있는 점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 유관부에서는 건립추진 위원회 (사)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추진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출판계의 출판권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 등을 출판문화진흥법 제정 예정에 앞당길 예정입니다. 함.



문 화 관 광 부



①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조정설계와 관련 문제 제기

② ~ ④ - ①에 대한 토지공사 회신

⑤ - 우리조합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촉구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회신

(주) 풀합건축사사무소 이 로 재

제 00-22 호

2000. 03. 29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제 목 토목공사 외관 조형에 대한 복선

1. 귀 조합에 일의 범위를 기원합니다.
2. 지난 3.13 일자 공문과 그후 몇차례 회의를 따른 의견을 다음과 같이 복선합니다.

가. 지수방 검토 (정부지건설 필요)

수로의 인편 범람에 의한 수방지반은 정확한 자료와 시설을 가지고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의 여건으로 검토한다면 교통부분의 단면확장, 신설 수로 부분의 필요, 아시아필드에서 부분의 수로유지 등을 통해 큰 설계변경 없이 기존의 지수방 계산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나. 수로단면의 공사방안

조경계획에 의한 정확한 수로단면의 설계감로까지 철저한 인편의 자연경사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인편의 수심을 방지하기 위해 초류유지(세드스트레이)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속한 단면확장(조경설계)을 필요로 합니다.

다. 교량에 영향

교량은 수로의 폭을 최대한 유지하는 선에서 길이를 연장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행 5개(25m)의 박스로 계획된 교량 3,4,5는 각각 7,8,8개의 박스로 연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필드간 수로의 폭을 계산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부 : 수로 보존방안 검토서



대 표 이 사 (파주출판단지 코디네이터)

Iroje Architects & Planners 40-11, Samsil 154g, 1-115 Tongsong-dong, Chunggu-gu, Seoul 150-510, Korea Phone : (02)793-2010 Fax : (02)745-3006

- 여류고 : 0.6m
- 부지계획고 (복지) : 5.0m
- (2) 지류유량 부족에 대한 대책시행
 - 기존 하천천치로 (하천단면계획법) 인하여 발생하는 지류유량 부족은 신설되는 하천의 고수부지를 저수로 계획고까지 절취하여 용량 확장
 - 천치에 따른 지류유량 변화 (도착량 기준)
 - 용량증가 : 16,000m³ (상부부분)
 - 용량감소 : 20,000m³ (하부부분)
 - 부족량 : 5,000m³ (대책시설 확장유량)
 - 결도위치 (배수로 폭)
 - NO 40+00 ~ NO 84+00 (800m)
 - NO 95+11 ~ NO 121+00 (1500m)

(3) 확장단면계획



- 가. 자연거도로 배지 및 이설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변경
 - 사업주지 협의 처리
- 나. 구조물 및 교량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 일대 수로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물의 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함
 - 자연거도로 배지시 공사비 감액 발생

■ 수로 보존방안 검토

1. 현 황

- 파주출판단지내 배수로에 근접하고 있는 양호한 일대 수로가,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100년 빈도 홍수유입량을 일부 저류시키기 위한 유수저 개념의 하천으로 계획되어 있음.
- 기존 하천으로 지천거 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 BOX 교량 (제3교, 제4교, 제5교)이 장구형식으로 오목하게 설치되어 있음.
- 이상과 같은 설계계획으로 양호한 일대 수로 훼손되고 있는 실정임.

2. 일대 수로 보존방안

- 기존 하천내 설치계획된 자연거도로를 폐지하거나 하천변 살단 부지축으로 성형변경.
- 부지성토로 인하여 훼손되는 하천변의 성토부분을 자연적 생가 또는 천문경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일대 수로를 보호.
- 하천 단면계획으로 인한 하천바닥정리 불가.
- 박스 교량이 장구형으로 축소되어 생기는 훼손부위를 양측으로 확장하여 기존 하천 폭을 최대한 보존.
- 토지 이용계획상 하천의 선형이 바뀌어 기존하천의 일대수 훼손이 불가피한 부분은 이설 검토.

3. 기존 일대 수로 존치시 문제점

- 기존 하천의 존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계획하천의 단면 축소 및 지류유량 부족에 대한 수리, 수문학적 재검토 필요 (지류유량 부족, 홍수위 상승, 대피시설).
- 자연거도로 폐지 및 이설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기존 하천 존치를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 및 교량 확장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4. 문제점 검토(안)

1) 지류유량 부족에 대한 대책 시설 검토

(1) 기존계획

- 100년 빈도 홍수 유입량 (만수위기25)을 감안하여 펌프 배제량을 제외한 나머지 유입량을 유수저 및 배수로에 저류시킬 수 있도록 하천 단면이 계획되어 있음.
- 홍수유입량 (100년 빈도) : 1,302,441m³
- 저류용량 (실시설계보고서)
 - 유수저 : 597,085m³
 - 배수로 : 273,366m³
 - 합계배제 : 432,000m³
- 홍수위 (내수위) : 5.0m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50-510 서울 중구 남대문로154길 11-115 통영동, Chunggu-gu, Seoul 150-510, Korea Phone : (02)793-2010 Fax : (02)745-3006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41호

2000. 3. 30

수 신 : 임주사 대표

제 목 : 사업지구 사육 건축설계 제약을 위한 제타원 간담회 개최의 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23회에 걸쳐 출판단지 임주사 대표와 이기웅 이사장,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사육 건축설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 임주사 대표가 계획하는 시설의 규모나 시설 종류를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부는 건설계획 발인에 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코디네이터와 집행부에서는 우선 시범지구를 대상으로 제타(구)별 건축가를 확정하고, 제타별로 건축가와 임주사 대표에서 전거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향후 설계 방향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자 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일 시 : 2000년 4월 3일(월) 12시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회의실
- 참석자 :
 - 임주사 : 국재원선고구(장주원), 상용지원(장용환), 서울지류유량(홍성민)
 - 송효상 건축코디네이터(정은수), 한울교육(변재홍)
 - 이사장, 건축코디네이터, 제타건축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 기 웅



- — 우리조합의 토목공사 의견 조화에 대한 건축코디네이터의 검토 의견 회신
- — 불임
- — 시범지구 섹터별 간담회 개최 통보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637 / 전 0349-940-3885 / 관송 0349-944-6019
 인터넷주소 www.klsc.co.kr / 부장 / 파장 / 담당자 이광호

문서번호 파주(개)6111-405

시행일자 2000.03.27

경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조항 이사장

참조

신	결	지
결	일자	시
수	번호	결
처	리	제
담	당	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입주 세부일정계획 통보 요청

1. 출판단지조항 2000-38호(2000. 3. 20)의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개 조항에서 통보한 입주계획에 대하여 권요한 진화

가. 시범지구로 제외한 잔여구간에 대한 입주계획이 없이 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공사 추진계획과 연계검토가 어려운 실정인 바, 1단계 전지역에 대한 구간별 세부일정계획(설치, 건축허가, 건축·설비공사, 공장기공 등)을 파악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공사 조기화수시 각종 차량은행에 따른 교통혼잡, 안전사고 발생 및 기설치된 기반시설 파손, 부지조성공사 착공지연으로 적기 공사 같은공지연 우려 등 공사시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귀 조항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 3. 23. 「출판단지 전력공급에 대한 실무회의」시 제기된 시범단지 조기입주에 따른 임시전력공급방안 검토를 위한 전력수요량 파악이 시급한 실정인 바, 한전에서 요청한 구체적인 입주계획 및 건축계획(입종, 건축면적, 설비계획 등) 및 추정가능한 전력수요(특히 상업인쇄용지에 대한 기존 전력수요량 및 시설용량, 시설용량 증설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조속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029-428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422 4423 4424 4425 4426 4427 4428 4429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4436 4437 4438 4439 4440 4441 4442 4443 4444 4445 4446 4447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4458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 4465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4541 4542 4543 4544 4545 4546 4547 4548 4549 4550 4551 4552 4553 4554 4555 4556 4557 4558 4559 4560 4561 4562 4563 4564 4565 4566 4567 4568 4569 4570 4571 4572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4581 4582 4583 4584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599 4600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4635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4689 4690 4691 4692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720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4743 4744 4745 4746 4747 4748 4749 4750 4751 4752 4753 4754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출판단지조항 : 제2000-43호

2000. 3. 3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장 조 : 개발부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입주 계획 통보

1. 출판단지 조항 2000-38(2000. 3. 20), 파주(개) 6111-405(2000. 3. 27)의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에서 상기 호로 요청한 내용과 같이 부지조성공사 추진 현황을 본 때 입주자의 입주계획에 맞추어 공사 진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나, 2000. 5 이전에 시범지구 입주를 완료하여 국제적인 행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명제 하에 수립된 입주자의 건축 계획 관련 사항은 불합 내용과 같이 통보하오니, 귀 공사에서 도 이러한 계획이 가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들의 생활행동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야 함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반시설을 포함한 모든 공사가 입주자들의 건축공사 진행과 상호 마찰이 최소로 될 수 있도록 가능한 조 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점원합니다.

붙임 : 1. 파주출판단지 건축공사 추진계획 1부
 2. 시범지구 입주사 명단 1부
 3. 출판단지 입주사 현황도 1부 등.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2-029-428 4297 4298 4299 4300 4301 4302 4303 4304 4305 4306 4307 4308 4309 4310 4311 4312 4313 4314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4325 4326 4327 4328 4329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4356 4357 4358 4359 4360 4361 4362 4363 4364 4365 4366 4367 4368 4369 4370 4371 4372 4373 4374 4375 4376 4377 4378 4379 4380 4381 4382 4383 4384 4385 4386 4387 4388 4389 4390 4391 4392 4393 4394 4395 4396 4397 4398 4399 4400 4401 4402 4403 4404 4405 4406 4407 4408 4409 4410 4411 4412 4413 4414 4415 4416 4417 4418 4419 4420 4421 4422 4423 4424 4425 4426 4427 4428 4429 4430 4431 4432 4433 4434 4435 4436 4437 4438 4439 4440 4441 4442 4443 4444 4445 4446 4447 4448 4449 4450 4451 4452 4453 4454 4455 4456 4457 4458 4459 4460 4461 4462 4463 4464 4465 4466 4467 4468 4469 4470 4471 4472 4473 4474 4475 4476 4477 4478 4479 4480 4481 4482 4483 4484 4485 4486 4487 4488 4489 4490 4491 4492 4493 4494 4495 4496 4497 4498 4499 4500 4501 4502 4503 4504 4505 4506 4507 4508 4509 4510 4511 4512 4513 4514 4515 4516 4517 4518 4519 4520 4521 4522 4523 4524 4525 4526 4527 4528 4529 4530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4541 4542 4543 4544 4545 4546 4547 4548 4549 4550 4551 4552 4553 4554 4555 4556 4557 4558 4559 4560 4561 4562 4563 4564 4565 4566 4567 4568 4569 4570 4571 4572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4581 4582 4583 4584 4585 4586 4587 4588 4589 4590 4591 4592 4593 4594 4595 4596 4597 4598 4599 4600 4601 4602 4603 4604 4605 4606 4607 4608 4609 4610 4611 4612 4613 4614 4615 4616 4617 4618 4619 4620 4621 4622 4623 4624 4625 4626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4635 4636 4637 4638 4639 4640 4641 4642 4643 4644 4645 4646 4647 4648 4649 4650 4651 4652 4653 4654 4655 4656 4657 4658 4659 4660 4661 4662 4663 4664 4665 4666 4667 4668 4669 4670 4671 4672 4673 4674 4675 4676 4677 4678 4679 4680 4681 4682 4683 4684 4685 4686 4687 4688 4689 4690 4691 4692 4693 4694 4695 4696 4697 4698 4699 4700 4701 4702 4703 4704 4705 4706 4707 4708 4709 4710 4711 4712 4713 4714 4715 4716 4717 4718 4719 4720 4721 4722 4723 4724 4725 4726 4727 4728 4729 4730 4731 4732 4733 4734 4735 4736 4737 4738 4739 4740 4741 4742 4743 4744 4745 4746 4747 4748 4749 4750 4751 4752 4753 4754 4755 4756 4757 4758 4759 4760 4761 4762 4763 4764 4765 4766 4767 4768 4769 4770 4771 4772 4773 4774 4775 4776 4777 4778 4779 4780 4781 4782 4783 4784 4785 4786 4787 4788 4789 4790 4791 4792 4793 4794 4795 4796 4797 4798 4799 4800 4801 4802 4803 4804 4805 4806 4807 4808 4809 4810 4811 4812 4813 4814 4815 4816 4817 4818 4819 4820 4821 4822 4823 4824 4825 4826 4827 4828 4829 4830 4831 4832 4833 4834 4835 4836 4837 4838 4839 4840 4841 4842 4843 4844 4845 4846 4847 4848 4849 4850 4851 4852 4853 4854 4855 4856 4857 4858 4859 4860 4861 4862 4863 4864 4865 4866 4867 4868 4869 4870 4871 4872 4873 4874 4875 4876 4877 4878 4879 4880 4881 4882 4883 4884 4885 4886 4887 4888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4904 4905 4906 4907 4908 4909 4910 4911 4912 4913 4914 4915 4916 4917 4918 4919 4920 4921 4922 4923 4924 4925 4926 4927 4928 4929 4930 4931 4932 4933 4934 4935 4936 4937 4938 4939 4940 4941 4942 4943 4944 4945 4946 4947 4948 4949 4950 4951 4952 4953 4954 4955 4956 4957 4958 4959 4960 4961 4962 4963 4964 4965 4966 4967 4968 4969 4970 4971 4972 4973 4974 4975 4976 4977 4978 4979 4980 4981 4982 4983 4984 4985 4986 4987 4988 4989 4990 4991 4992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출판단지조항 : 2000-39호

2000. 3. 20.

수 신 : 문화관광부장관
 장 조 : 문화산업국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용지 개발에 따른 협조요청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에 애쓰시는 귀부에 감사드립니다.

2. 출판단지 부지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입주자들은 2002년 3월 입주를 목표로 이달 중 건축설계 용역계약 체결하여 구체적인 설계작업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입주자들은 단지 전체에 대한 「기본설계지침」을 마련, 단지 조성목표에 부응하는 기본 프로그램 등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입주자들은 개별 사옥이나 전체 단지의 설계 및 조성에 있어 개별적인 욕구나 취향을 알리고, 공동으로 마련한 「기본설계지침」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여 「단지차」의 효율을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파출소, 소방서, 우체국, 전화국 등 공공시설에 대한 건축설계 업무 또한 각 관계기관과 건축전문가집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이 되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 이에, 단지내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의 개발에 있어에도 일반적인 관행에 의거하여 무계획적이고, 무분별한 분할 및 조성이 이루어질 경우 입주자들이 예기 만들고 준수하기로 한 공동약속의 취지는 위태되고 말 것이라는 경황에 근거하여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용지의 분할 및 개발이 입주자들의 계획에 의해 추진될 수 있도록 권리권자인 귀부에서 본사업의 사업시행자임, 한국토지공사에 제안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이러한 요청은 오직 출판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입주자들의 일관된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화의 새기, 문화가 미래를 열는다"

문화관광부

우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620-9 / 관송 (02)3704-9629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항 신 용 인 시 기관 최 변 진 담당자 최 리 주

문서번호	출신 88900-091	신	결	지
시행일자	2000.03.28 (1)년	결	일자	시
공개여부	공개	수	번호	결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처	리	제
참 조		담	당	자
		심	사	일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관련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출판단지조항 2000-39(2000. 3. 20)의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용지 개발에 따른 협조요청 사항에 대하여 불응과 같이 한국토지공사에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협조요청 공문 사본 1부. 끝.



문화관광부장



- 27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으로부터 출판단지 입주 세부일정 통보 요청
- 28 — 27 에 대한 우리조합 회신
- 29 — 문화관광부에 출판단지 내 주거시설 및 상업시설용지 개발을 우리조합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30 — 29 에 대한 문화관광부 회신

문화관광부

우 110-703 서울시 중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9820-9 / 전승(02)3704-9829	
출판인문화사	
문서번호	출신 88800-691
시행일자	2000.03.28 (1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한국지공사 사장
참조	서울지공사파주사업장
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부지 개발에 따른 협조요청

1. 출판단지조항 제2000-39(2000. 3. 20)의 관련항목입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은 환경 친화적인 단지조성을 위하여 「건축설계지침」을 마련 모든 입주자들이 준수하기로 합의하고 주거시설 및 상업 업무시설에도 설계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 및 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어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설계지침 1부. 끝.

문화관광부장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파주사업단

우 413-81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837번지 / 전화 (0348)940-3842 / 전승 (0348)944-8349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위양선 / 과장 배남진 / 담당자 박진수

문서번호	파주(용)5511-449	선		지	
시행일자	2000.04.06	점	일자	시	
경유		수	번호	결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처	리	과	
참조		담	당	자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지연손해금 납부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니 출판단지조항 제2000-42(2000.03.31)호와 관련된 회신이나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조합에서 매입한 동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의 매매대금은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파주(용)5511-281(2000.03.06)호로 기록보한 바와 같이 3회차 할부원금(₩21,648,960)이 미납중에 있어 2000.2.29부터 연18%의 지연손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우리공사와 대수인이 유효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이 특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인화와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또한 귀 조합이 동 용지를 매입하기 이전인 1998년 4월에 우리공사는 지연손해금 감면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IMF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경영판단의 문제였습니다. 향후 우리공사는 언제나와 같은 채권의 일의표기는 없사오니 해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귀 조합에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제책을 가지고 있는 상업업무 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급기초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하고 2000.4.17일경부터 판공통보하여 2000.5.2일경 판공통고예정이니 귀 조합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파주사업단



건설교통부

우 427-78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전화 (02)620-4105-6/FAX 034-7309/인터넷http://www.mct.go.kr
입지계획과 과장 정완태 담당사무관 서민석 담당 김진섭

문서번호	입지 58307 - 425
시행일자	2000. 4. 11. (5년)
경유	
수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 기용 귀하

제목 편회회신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사업비 국고지원 요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우리부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지역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의 지방이전 등 수도권집중완화정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균형발전 및 제한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입주수요가 많은 수도권지역보다 입지여건이 열악한 지방의 산업단지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입지58307-425(99.8.11)호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설교통부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출판단지조항 제2000-47호

수신 : 건설교통부 장관
참조 : 국토정책과장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국고보조 관련 청원

2000. 4. 6.

1. 출판단지조항 제99-89(1999. 6.24)·출판단지조항 제99-104(1999. 8. 4) 및 위 부 입지 58307-33(99. 6.29) 관련항목입니다.
2. 이미 여러 차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기반시설비 국고보조와 관련해서 청원을 드렸고, 귀부에서도 수차례 걸쳐 현장 상황을 점검하는 등 출판단지내 기반시설비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이나 취지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3. 현재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의 건설시설 공사가 중단을 넘어 시공, 입주자들 역시 2001년 초 시공을 목표로 공동체에게 착수하는 등 단지 조성을 위한 제반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이에 그동안 우리가 귀부에 요청해온 기반시설비 국고보조가 적기에 집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단계에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히 재검토 드립니다.
5. 우리는 출판단지를 조성하면서 '21세기 한국에 최초로 조성되는 문화산업 선도지, 문화 관광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조속히 진척시키는데 이념 건축권 문가 그룹을 운용하는 한편, 건설분부를 설치하여 일관성 있고도 효율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간 입주자들 스스로 정부 자료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단지 입주에 따르는 제반 상황들을 점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6. 이제 출판도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여건은 입주자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부 당국에서 제반 법률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제정하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비 국고지원으로 힘을 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 첨부 :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요청 내역서 1부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권문가 명단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행사 내역서 1부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 계획 상세표 1부
5.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31 - 30 불일, 토지공사에 협조 요청한 공문 사본
- 30 - 우리조합의 산업용지 토지대금 지연손해금 적용 철회 요구에 대한 토지공사의 회신
- 30 - 건교부에 출판단지 기반시설비 국고 보조 청원
- 30 - 30 에 대한 건교부 회신



2000. 4. 19.

제 목 : 파주물론문화정보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동사무소) 건축 관련 협조 요청

1. 대면행정 일선에서 애쓰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3. 이러한 일정에 따라 본단자의 문화시설부지에는 단지 관리관자인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를 전입 추진 중이며, 단지내 상업시설용지의 개발도 입주자와 한국토지공사간에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 이의 결정하여 2002년 입주시 경찰서로 토지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사투소의 공익과 신변의 안전으로 판단한바 토지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관할권을 가진 부서에 설치 될공공의 입주와 관련한 다른 혐의를 요청하고, 해당 공익사업이 국가에 입주하여 공공업무에 적절히 없게끔 필요한 예산조치와 건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는 한편, 전제 단지 조성계획과 열매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알려 주시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참부 : 과주술관문화정보산업단지 입주사 배치 현황도면 1부 끝.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환 경 부

부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 전화 (02)507 - 2456 / 전송 (02)507 - 2450			
하수도과 과장 박희정 사무관 정경진 담당자 안연실 E-Mail : ayunsub@se.go.kr			
문서번호	하수 67712-3445	연	지
시행일자	2000.05.02 (1)년	월	시
공개여부	공개	일	시
수신	발신국 참조	시간	개
점		번호	시
		처리과	공
		담당자	관
		심사자	장
			심사일

주요 연구 내용: 1.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변화와 특징 2.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문제점 3. 2000년대 이후의 한국 사회의 발전 방향

- 출판권지조항 2000-65호(2000. 4. 10)을 관권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파주출판단지(2000년)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하수류 처리하기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율을 50%를 국·지자체가 있는 바, '96년부터 급변하고 총출입비 8,212억 원의 50%인 4,106억 원만을 하수처리 계획이며, 나머지 차액에서는 2002년까지 년차적으로 지출할 예산을 잡지 되었습니다.
- 아울러 파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은 사업시행자인 파주시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신곳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환경부장



⑨ — 행정자치부를 비롯, 출판단지에 설치될 공공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공공 시설물의 적기 건축 협조 요청

⑩ — ⑨에 대한 행정자치부 회신

⑪ — ⑩에 대한 환경부 회신

⑫ — ⑪에 대한 경기도 회신

*기변을 바로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110-780 서울시 동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3703 - 5477 / 전송(02)3703-5542
지 처 제 도 과 과장 송 기 근 사무관 최 승 식 담당자 홍 병 국

문서번호 자료 13120-331

시행일자 2000.05.01 (1)

공개여부 공개

수 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경남출판문화센터 이기봉 이사장 귀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참 조

체 육 만원회신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귀 조형에서 우리부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진흥특별법안」에 대해서도 동의와 함께 환영합니다.

2. 통사무소의 소관자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며, 신규설치에 관한 제반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으로서, 회주사장이 직접 검토후 귀 조청에 상문드리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의내용을 회주사에 통보하여 귀 조청에 회신토록 하였으나 더 이상 하기가 바랍다. 감사내용을 밝힌다.



행정자치부장관



경 기

경 기 도

우 480-020 의정부시 의정부2동 489-1번지 / 전화 0361)870-2151, 전송 870-2146
기업지원과 과장 이 중 군 사무관 신 남 현 담당자 이 정 국

문서번호 행정(2)기업58350-169

시행일자 2000. 5. 12

발행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선			지	
람			시	
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처	리	과	공	
당	당	자	람	
실	사	자	실	사
			일	

제 목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공시설물 건축협조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부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판주읍관공청장보산업단지내 공공시설물(하수종말처리장, 동사무소)설치는 판주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판주시의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판주시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지





생각속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경기도지방경찰청

우)440-701 수원 장안구 연무동 산11-2 / 0331)246-0629 / FAX3145(일반241-0083)
경 무 과 총경 노 관 석 경관 김 진 국 (경위 장 복 석)

문서번호 경무 63100-1944

시행일자 2000. 5. 2.

수 신 이사장 이 기 용

참 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
단지 사업협동조합

신 발 원	안 자 시 간	지 시
수 번호		결 재
처 리 과		공 문
담당 자		담 당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공공시설물(파출소) 건축관련 협조요청 회신

1. 귀 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조항 2000-55(2000. 4. 19)호와 관련 협의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공공시설물(파출소) 건축협회는 중단지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관련업체가 입주하여 직안여전상 파출소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경기도지방경찰청

전경 경무과장 노관석



파주우체국

우413-010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56 / 전화(0348)941-2800 / 전속(0348)941-2115

관리관 과장 조진환 담당자 신현출

sinpost@choilhan.net

문서번호 파관12112-837

시행일자 2000. 05. 25

공개여부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항

신 발 원	안 자 시 간	지 시
수 번호		결 재
처 리 과		공 문
담당 자		담 당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우체국 신설 관련 회신

1. 정보통신 사업에 협조해 주시는 귀조합에 감사드립니다.
2. 귀 조합에서 협조 요청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우체국 신설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교차면 지역에는 현 교차우체국과 동 단지조성 인근 교차 택지개발지구내에 이미 우체국 신설계획이 있으며, 또한 금촌도에는 인근 용매리지역에 우편취급소가 설치 예정입니다.
3. 따라서 현재로서는 동 단지내에 추가로 우체국 신설계획이 없으며 향후 단지조성 및 입주시 우편이용등에 불편이 없도록 우편취급소 신설등을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파주우체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858-1007 FAX 130-858-1008
130-858-1009 FAX 130-858-1010 E-mail :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항 제2000-56호

2000. 4. 22.

수 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파주출판단지 조경 설계 자료

1. 귀(가)6111-40(2000. 3. 27), 출판단지조항2000-24호(2000. 3. 3) 관련입니다.

2. 귀 사업단에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첨부 내용과 같이 도면 및 설명서를 작성하여 대안을 제시하니 내용을 검토하시고 사업시행자로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조경설계에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연기도로 관선사당은 당초 설계측량 즉점별 횡단면도에 표시한 바와 같이 자연기도로를 폐지하고 평면을 설계하여 절·성토량을 검토한 바, 저수용량(첨부도면6)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단차부 처리 대책과 관련에 토목공사에서는 토사에 의한 침전치미를 우선하여 조정 공사시 만일 조치도록 할 계획이며,

나) 수로평탄 막스형 교량 폭은 현관수로의 폭원을 최대한 원형 보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첨부된 도면과 같이 약 40m~45m로 확장할 것을 요청합니다.(첨부도면6)

다) 문화시설 부지내 저수지 현상보전과 관련하여, 현상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기초로 현상설계공모를 통해 건축할 계획이며, 저수지 주변 일부를 조정할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조치도록 하고, 경계표시 방법은 경계구분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 처리할 것을 제시합니다. (첨부도면7)

- 첨 부 : 1. 즉점별 횡단면도 및 토양산출시 1부
2. 막스형 교량 확장 도면 1부
3. 문화시설 부지내 저수지 현황 도면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858-1007 FAX 130-858-1008
130-858-1009 FAX 130-858-1010 E-mail : PAJUBOOKCITY@NATE.COM

출판단지조항 제2000 - 59호

2000. 4. 29.

수 신 : 파주전파국 국장

참 조 : 신호기술과장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통신시설 관계관 회의

1. 출판단지 2000-55호(2000.4.19)호 협의 요청도면 바 있습니다. 조속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신시설에 관한 관계기관 협의의 이해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현장에서 개회하오니 꼭 참석하시어 사업추진방안을 조속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협의안건 : 2002년 5월 출판단지 시범지구 일주에 따른 통신시설 대책
- 일 시 : 2000. 5. 9 (화) 14:30
- 장 소 :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 참석기관 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
② 한국전기통신공사 네트워크본부
③ 한국전기통신공사 경기본부 야계영제복부
④ 한국전기통신공사 고양전화국 영업3팀
⑤ 한국전기통신공사 파주전화국 신호기술과
⑥ 파주출판단지
- 준비사항 ① 통신시설 설치계획 관련사항(한국전기통신공사)
② 통신수요 및 공사추진현황 자료(한국토지공사)
③ 일주계획 관련사항(파주출판단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③ — ③에 대한 경기도지방경찰청 회신
- ④ — ③에 대한 파주우체국 회신
- ⑤ —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조경설계 대안 제시
- ⑥ — 파주전화국을 비롯 관계기관에 출판단지 통신시설 관계관 회의 개최 통보

문화관광부

우110-703 서울시 중구 서문로 82-1 / 전화 (02)3704-9820-8 전송(02)3704-9829
출판인명: 최정신 출판사: 최정신 출판사: 최정신

문서번호: 출18600-968

시행일자: 2000.04.25 (1)

공개여부: 공개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참조:

제 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관련 회신

1. 출판단지조항 제2000-31(2000. 3. 8)의 관련입니다.
2. 출판문화 발전에 매쓰는 귀 조합에 같은 감사를 드리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과 관련 우리부의 방침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통 정보센터의 건립규모는 주변여건과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대략 축소
○ 사업추진 주체가 대부분 민간 등 자체자금 중심으로 추진.
○ 2001년 예산확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
○ 앞으로 정부는 건립규모의 축소 조정 등에 따라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계획함.



문화관광부장관

* 국가결정된 문화신임으로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중구 서문로 82-1 / 전화 02-3704-9820-8 / 팩스 02-3704-9829

출판단지조항: 2000 - 62호

2000. 5. 6.

수신: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사실관계지 조정부장
제 목: 파주출판단지 조정설계용역 관련 협의 요청

1. 출판단지조항 제2000-11(2000. 1. 21)의 관련입니다.

2. 지난 4월 21일 귀공사에서 실시한 바 있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 유수지생태보전·복원 및 조경설계용역' 입찰에 대한 낙찰자 선정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출판단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귀공사와 상의 용역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3. 이에, 귀공사의 상의를 거쳐 향후 선정된 낙찰자에 의해 상의 설계용역이 착수되기 이전에 귀공사·낙찰자·입주자측 집행부 및 건축코디네이터 3자 합의로 출판단지 내 유수지 생태보전·복원을 위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중구 서문로 82-1 / 전화 02-3704-9820-8 / 팩스 02-3704-9829

출판단지조항: 2000 - 63호

2000. 5. 13.

수신: 대표이사
제 목: 파주출판단지 파트너 건축가 전시회 개최 안내

1. 지난 4월 26일 개최된 '위대한 개막식' 조인식이 여러분의 성원 속에 성료된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출판단지 건축에 참여하는 건축가들은 본격적인 설계작업에 착수했으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설계와 관련하여 이미 지난 3월16일부터 현장 인포룸에서는 1차건축가그룹의 '공동성'을 주제로한 건축전시회가 여러분의 관심 속에 진행 중입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우리는 출판도시의 공동성과 각자의 다짐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시범지구 각 세터별로 확정된 '파트너 건축가'들의 작업도 본래대로 정어들이 이미 몇 개월째 각자의 책상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들 '파트너 건축가' 그룹에서는 아래와 같이 건축전시회를 개최, 입주를 앞둔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여러분을 초대하오니, 이미 건축자에서 나뉘는 영역을 확보한 이들의 작품을 직접 오셔서 보시고, 함께 대화하면서 서로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파트너 건축가 전시회 개최일시: 2000년 5월 13일 오후 2시
- 장 소: 파주출판단지 인포룸
- 참여 건축가: 서해림(힐마건축) 김용규(아무건축) 김방민(창건축)
- 최 옥(KPC) 김광수(담민건축) 김민(에다건축)
- 양남철(MA건축) 이원배(거민건축) 이호준(명승건축)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중구 서문로 82-1 / 전화 02-3704-9820-8 / 팩스 02-3704-9829

출판단지조항: 2000 - 64호

2000. 5. 15.

수신: 대표이사
제 목: 파주출판단지내 통신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통신수요 조사

1. 출판단지 건축 설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입주를 위해 단지내 공공시설의 일정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조경설계 및 대차에니 지원 개발 등 제반 사항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9일 현장 인포룸에서는 한국토지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통신시설 전문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출판단지 통신시설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신시설 설치계획 관련사항 ▲통신수요 및 공사추진 관련사항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3.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통신 기반시설 시공·운영 주체인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단지에 입주하는 개별 기업체들의 개략적인 통신수요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 입주업체에서는 정부원 '통신수요 조사서'를 가능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이월 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이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작성요령: 통신수요 조사서 항목에 적정 표기
- 회신기한: 5월 19일(금)까지 FAX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문의처: 파주출판단지 사무국(TEL. 02-311-0566 / FAX. 02-311-0569)

첨부: 1) 통신수요 조사서 1부
2) 용이 정리 자료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 47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의견 회신
- 48 - 토지공사에 조경설계 용역 착수전 출판단지 유수지 생태보전, 복원을 위한 현장조사 협조 요청
- 49 - 시범지구 참여 건축가 작품 전시회 개최 안내
- 50 - 입주사를 대상으로 통신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통신수요 조사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8 (2층) 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11-2696-8 팩스 011-2696-91 PAJUCOOP@PAJU.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73호

2000. 5. 26.

수 신 : 조합원사 대표

제 목 : 상업용지 공급에 대한 투자자의 타진 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 내 상업용지(약 136평) 공급(분양)과 관련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또한 금년초 완성된 출판단지 설계자정에 따라 계획된 도시를 만드는 데 착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 공급(분양)할 계획으로 진행되는 상업용지에 관하여, 5월 25일 개최한 긴급설명이사회에서는 특별시비가 없도록 조합원 여러분에게 참여 기회를 드리어, 개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결의하였기에 협의와 같이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1. 상업용지 분양에 관한 알림 1부

2. 상업용지 도면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문화의 새기, 문화가 미래를 연다.

문 화 관 광 부

우 110-703 서울시 중구 세종로 82-1 / 전화 (02)3704 - 9520 / 전송 (02) 3704-9529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사 대표

문서번호	출신 86600-1285	지	
시행일자	2000.05.30 (3)번	시	
원계여부	공개	결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수	
제 목	2001년도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제	

1.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2. 2001년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문 화 관 광 부 장



"우리는 에너지 한가득"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우 335-943 대전 유성구 황룡 71-2 / 국영부동산 303호 / 전화 042-860-0412 / 전송 042-860-0738 / 담당: 김흥배

문서번호 : 제2000 - 5314

시행일자 : 2000. 5. 26 ()

(영) : ()

수 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사 대표

제 목 : 상업용지(약 136평)

선		지	
합	일자	결	
수	시간	제	
변	번호	공	
조	처리과	합	
당	담당자	심사일	

제 목 :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1. 우리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에너지) 기술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3. 이이 우리 조합의 사업장과 파주 자유로 인근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4. 아울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 O -

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나.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다.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로.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발행 : 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지원 예산 집행자료 제출 협조. 건축부문의 민자투입 등 1999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 제출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도약하는 중소기업 희망찬 미래에"

경기지방중소기업청

(http://www.helpdesk.go.kr)

우 441-340 경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전화 (0331)290-6915/Fax 290-6919
지원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합원사 대표

문서번호 : 지출 55470-614

시행일자 : 2000. 6. 19.

공개여부 : 공개

수신 받는 곳 참조

참조

선		지	
합	일자	결	
수	시간	제	
변	번호	공	
조	처리과	합	
당	담당자	심사일	

제목 : 「경기지역중소기업인대회」 행사 협조요청

1. 우리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동평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인들에게 지식·정보와 시대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경기지역중소기업인대회」를 불임1과 같이 개최할 계획입니다.
3. 본 대회의 주요 행사로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세대학교, 자금, 보증, 수출분야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 애로상담실을 불임2과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에 관심이 많거나 자금, 보증, 수출분야 등에 애로가 있으신 귀 기관 관련 중소기업 임직원 분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경기지역중소기업인대회」 개최 안내문 1부.

2. 중소기업애로상담실 운영계획 1부. 끝.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받는 곳 : 세무서, 대학(산학협력담당부서), 청년회의소, 일종별 조합

- ① — 출판단지 내 상업시설용지 투자 의사 타진
- ②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부터 출판단지 내 풍력자원 측정장비 설치 운영 협조 의뢰
- ③ —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 예산 지원 설명자료 제출 요청
- ④ — 경기지역 중소기업인대회 참석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28 파주출판문화단지
전화 511-9006-8 팩스 511-9008 PAUBOOKCITY.CO.KR

출판단지조합 : 2000 - 78호

2000. 6. 1.

수 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장 조 : 서울지사장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상업용지 공급과 관련한 의견제시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가 현장인 가운데 귀공사에서 단지내 수로 조정문제 등 조성에 따르는 제반 사항을 우리와 진지하고도 진밀한 협의 속에 풀어가고 있는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단지는 일반 국가산업단지와는 달리 산업지구뿐 아니라 문화시설지구·주거시설지구 및 상업시설지구 등이 하나의 프로그램 아래 일련되게 연결돼 있는 첨단 계획도시의 개념 아래 추진하고 있는 이상한 사업입니다.

3. 그러나 금방 귀공사에서 공급할 예정으로 있는 상업용지와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현주지를 수용하면서 현재 영농인물과의 보상시 현지 주민들에게 본단지내 상업시설용지 일부를 배정해 주겠다는 일방적인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대해, 경호관 프로그램은 가지고 실제로 입주하여 단지 조성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당사자들로서는 이러한 귀공사의 무원칙한 약속이 단지의 개발에 어떠한 악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그 문제란, ▲첫째로 우리 입주자들은 단지 조성의 목표를 알초부터 서로간에 다른 생각과 가치들을 조화롭게 아울러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자 '공동성'에 두었던 관념으로 볼 때 지금 다수의 임의적인 개발에의 사업은 전체 단지 개발에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둘째로 토지수용을 하는데 있어 현지 주민에 대한 보상은 보상 자체로 종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운용 프로그램에 아무런 관계도 책임도 없는 귀공사 일의대로 단지

내 특정지구에 대한 개발을 담보로 협상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셋째로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향후 단지의 도시적 목표가 심각한 지장을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올 것이며, 이에 따르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난 성장기 시대 우리 사회가 뼈아프게 후회했던 무분별한 「난개발」의 전형적인 재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기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는 중차대한 사안이므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일관되게 어찌구무없는 처방이라는 의견을 일러했습니다.

5. 따라서 우리는 단지내 상업용지에 대해 우리가 우려하는 사안들이 실현되지 않는데 귀공사의 방형대로 강행될 경우 단지의 개발에 있어 사후 야기될 제반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공사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이 방침을 현명하게 재고하실 것을 분명하게 건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공사가 이를 고수하겠다는 우리는 부득이 단지 조성과 관련된 모든 관계기관에 이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분석할 것임을 통고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용



생생시공 생활주택 공사본문 나라본문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1-28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89-1 / 전 034-904-2538 / 전후 034-902-2302
인라넷주소 www.kloland.co.kr / 부장 홍재준 / 과장 배남진 / 담당자 배남진

문서번호 일산(용2)5511-721

시행일자 2000.06.12

장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사업협동조합

참조

선	지
결	시
일	결
자	제
시간	공
수	합
번호	
처	
리	
과	
달	
당	
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상업용지 공급 관련 의견제시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귀조합의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조합에서는 출판단지 상업용지 공급과 관련하여 특정다수의 임의적인 개발 사업은 단지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현지주민에 대한 보상은 보상자체로 종결되어야 하고 상업용지를 배정하는 것은 일방적인 약정이라는 의견을 일러 주셨습니다.

3. 생활대책용지는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처럼 피수용자의 생활근거지 상실에 따른 본래생활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공사는 토지보상금 지급적인 재산권 보상은 별도로 보상대상을 확대하여 택지나 산업단지 개발시 상업이나 농업을 영위하던 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여 왔습니다. 출판단지 또한 타 사업지구와 같이 농업을 영위하였던 자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수의계약 공급키로 방침결정을 하였고 종 결정사항은 대상자에게 이미 통지된 사안입니다.

4. 생활대책용지(332명)는 상업용지 전체(6,200명)의 4%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열세한 상권지역인 단지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단지확충을 중심으로 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생활대책용지 대수예정자 또한 출판문화단지의 개발방향과 위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전체 24필지 중 1필지에 불과하므로 상호간에 충분한 사전협의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금번 귀조합의 제시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어 유감스러우나 우리공사는 귀조합의 출판단지 조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의지와 열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귀조합의 경제적인 출판단지 개발방향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더욱 더 귀조합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55~56 — 토지공사에 상업용지 현지 주민에 대한 일방적인 분양배정 약정 철회 요구

57~58 — 55~56에 대한 토지공사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6566-8 팩스 511-6569 PAJUCO@KUP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84호

수 신 : 건설교통부장관

문 주 : 민원실장

제 목 : 심학산 주변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민원 제기 및 건

2000. 6. 7.

1. 국가발전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신 장관님 이하 여러분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자연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 국가의 산업단지로서 세계적으로 그 참예를 찾을 수 있는 천혜의 부지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학산과 한강, 그리고 출판단지내의 수로와 유수지는 단지 개발의 중심축이자 수많은 동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따라서 출판단지 입주자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서라도 자연환경보전을 우선하는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지난해부터 심학산 주변에는 대기업과 군부대에서 수목은 자르고 산을 파헤쳐 무질서한 주택과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생태계가 파괴되는 물론 장마철에는 산사태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우리 출판단지 개발은 물론 이지역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향후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외부에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에 우리 입주자들은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오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훼손된 심학산 전경 사진 1부 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하급 우편

우427-760 경기도 파주시 중앙동 1/전화 02830-4105-6/FAX 503-7303/인터넷http://www.moct.go.kr
입지계획과 과장 정관태 담당사무관 서만석 담당 김진성

문서번호 입지 58307 - 210

시행일자 2000. 6. 12. (5년)

공개여부 (공개)

수신 파주시장

참조

제목 민원이송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으로부터 심학산 주변의 수목번데 및 무질서한 주택, 시설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장마철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건의하는 민원이 있어, 관련 사업의 인 · 허가 관청인 귀 시에 이송하니 민원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라며, 민원인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민원서류 1부

2. 민원인 앞 공문사본 1부, 올.

건설교통부장

전결 입지계획과장 정관태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

우427-760 경기도 파주시 중앙동 1/전화 02830-4105-6/FAX 503-7303/인터넷http://www.moct.go.kr
입지계획과 과장 정관태 담당사무관 서만석 담당 김진성

문서번호 입지 58307 - 210

시행일자 2000. 6. 12. (5년)

경유

수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귀하

제목 민원회신

귀하가 우리 부에 제출한 민원은 심학산 주변의 수목번데 및 무질서한 주택, 시설물 설치에 따른 생태계 파괴, 장마철 산사태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건의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사항은 관련 사업의 인 · 허가 관청에서 검토 · 조치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파주시로 이송 ·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파주시 앞 공문사본 1부, 올.



건설교통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6566-8 팩스 511-6569 PAJUCO@KUP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2000 - 78호

수 신 : 입주시 대표(조합원 대표)

제 목 : 사업 추진 일정 설명회 개최 통보

2000. 6. 28.

1. 귀 시의 무관한 일정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출판단지는 지난 98년 10월 착공이후 현재 우수물 및 오수관 매설공사와 한강 정방공사 등 일부 심도공사도 병행 진행되는 등 기반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방부에서는 지난 6월 26일 토지공사와 상업용지 배임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상업시설을 준비할 경영회사를 설립, 개발계획 · 투자계획 수립은 물론 입점 업종 선정 및 입점 유치 계획 수립 등의 제반 업무추진에 한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의 현상설계도 건축회사들의 조미의 관심속에 현재 63명의 건축가가 참여하여 열린 설계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오는 9월 5일 오후 2시경 두 작품경사를 거쳐 예정대로 10월을 당선작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아울러 우리 집행부에서는 오는 2002년 5월 입주를 앞두고 우리의 입주계획과 공사 진도가 일정도대로 조성공사 완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우리가 목표하는 바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출판도시 건설을 위해 설계에서부터 공동성을 갖고 업무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설계능력에 있어 공동성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개발원칙도 인한 주민과의 부조화, 충분한 설계기간의 미 확보, 공사비용의 과다지출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 이에 금번 집행부에서는 시별지구 입주사 대표들을 모시고 공동성 실현을 위한 건축설계 능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입주 일정 및 기반시설에 관한 제반업무 등을 설명교사 아래로 같이 사업추진 일정 설명회를 개최기로 하였습니다. 필히 참석하시어 우리의 숙원인 출판도시가 계획대로 완공되어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입주사 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00. 7. 3(월) 오후 2시

나. 장 소 : 출판단지 인포룸 (문화·조합사무국 511-5566-8)

다. 주요내용 : 1) 건축설계능력 숙련

2) 상업시설 개발 계획

3) 토목공사 진행 사항

4) 조합아파트 건립 계획 및 추진 현황

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 설계 진행 사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⑨ -- 건설교통부에 심학산 주변 자연훼손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⑩ -- ⑨에 대한 건교부 회신

⑪ -- ⑩ 불임, 파주시에 민원 이송 공문 사본

⑫ -- 출판단지 사업추진 일정 설명회 개최 통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대표이사장 이기용) (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2000 - 90호

2000. 6. 26.

수신 : 국방부 장관

참조 : 정보문화부

제목 : 비무장지대 현장 답사 협조 요청의 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그동안 본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 출판단지는 지난 1989년부터 지역정보를 생산하는 출판물 중심으로서 문화산업의 전진기로서 건설이 추진되어 1994년에 국가의 주요 문화산업 전략의 하나로 개발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 현재 기밀시설공사가 진행중이며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대단위 문화 도시입니다.

3.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새롭게 태어나는 본 출판도시를 세계적 명소 만들기 위해 국내외의 세계적인 석학들을 초빙하여 자문을 받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또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위대한 생태도시 건설을 위해 입주자와 건축가 등 관계자들이 세계의 유산지역을 답사하여 왔습니다. 궁년에는 특히 전문의 세부설계와 도시 내의 조경설계를 앞두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집행부는 본 출판도시가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환경에 있어 지형학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출판단지 이사장을 비롯, 이석, 건축가들 중심으로 답사단을 구성, 비무장지대내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관찰, 조성될 출판도시의 생태·보전과 연계하는 프로젝트론 계획에 있습니다.

5. 이에 귀 부에 불일치 같은 내용으로 현장답사를 시험교차 협조를 요청하오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선의와 함께 해 주실 때에 적극적인 협조 조치를 위해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50여년간 유래없는 생태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비무장지대의 환경은 세계 최초로 생태문화도시로 건설될 출판도시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어 부디 긍정적인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군단 관계자에게도 발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답사화장지역 및 답사일정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남북한 정상회담, 부흥되는 민족경제"

육 군 본 부

우 320-919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501-5호 전화 (980)3325 전송
보안과 과장 대령 김 세 곤 담당과 중령 서기석

문서번호 정보 37234 - 449

시행일자 '00. 7. 24. ('01. 6. 30)

발 유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

단지 사업협동조합장

참 조

제 목 비무장지대 현장답사 요청의 건에 대한 조치/검토 결과(통보)

1. 관련근거

가. 합정인 33723-888('00. 7. 10) 민원서류 처리 지시
나. 국방부훈령 제633호('99. 8. 23) 제96조 내국인 출입통제
다. 육군규정 201('00. 1. 1) 제31조 기사 하계요원 출입통제
라. 정전협정('53. 7. 27)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마. 유엔사 규정 551-5('86. 4. 25) 정전사수, 정전협정 준수
바. 통일원훈령 제299호('92. 9. 14) 판문점 출입통제 규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불일치 같이 비무장지대 현장 답사 협조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하니 참고 바랍니다.

붙임 : 비무장지대 현장답사 요청의 건에 대한 조치/검토 결과 1부, 문.



육 군 참 모 총

전결 정보처장 준장 오 방 관



붙임

비무장지대 현장답사 요청의 건에 대한 조치/검토결과

1. 개요

파주출판문화 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요청한 비무장지대 및 군 관할지역 출입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임.

2. 요청사항(요약)

가. 출입목적

파주군 교하면 문벌리에 48만평 규모의 출판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는 군 관할지역을 방문 사업단지 조성에 연계하기 위함.

나. 출입인원 : 출판단지 임원 및 건축가 등 30여명

다. 출입기간 : '00. 8. 28-30일(조정 가능)

라. 출입지역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성리 마을, 도라 OP, 백마고지, 구월원 노동당사, 월정OP, 금강산철교, 계룡산OP, 대성산OP

3. 현재까지 조치사항

'00. 7. 22(토) 출판단지 『상무 유도일』과 전화를 검토결과 설명/서면으로 통보토록 협조 완료

4. 검토 결과

가. 지역별 출입승인결과

(1)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대성리마을 : 유엔군사령관(비서처장)

① 신청절차 : 정전협정('53. 7. 27), 유엔사규정 551-4('86. 4. 25).

통일원훈령 제299호('92. 9. 14) 판문점 출입절차 규정에 의거

민간인은 국정원 경기도지부 대공상담소에 신청하여 방문 가능

(2) 기타 지역

지 역	승인/허가	연 락 처	비 고
도라 OP	육군 1570부대	031-940-6203 보안업무담당관	개 방
	파주군 제향군인회	031-854-0303	
백마고지, 구월원 노동당사, 월정OP	육군 7369부대	031-531-0660(교환)6203 보안업무담당관	개 방
	철원군 전적판 관리사무소	033-455-3219	
금강산 철교	육군 1988부대	033-458-1803(교환)6203 보안업무담당관	개 방
계룡산OP(중대OP)	-	-	미개방
대성산 OP	육군 제6885부대	033-440-6203 보안업무담당관	미개방

(가) 도라 OP, 백마고지, 구월원 노동당사, 월정 OP, 금강산철교 지역의 일반적 출입은 안보관찰지로서 당일 해지역 제향군인회, 전적판관리소에 신청후 관할이 가능하나 현장 촬영/답사 등은 군사시설 노출/누설방지등 군사보안을 위해 사전 해지역 부대와 협조후 가능함으로 최소 1주전 전화 확인 바랍니다.

(나) 계룡산 OP/대성산 OP는 현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시설로서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공무수행에 한하여 해당 부대 장 승인하 시행하고 있으므로 귀 조합의 경우 해당 정부기관을 경우하여 협조요청시 부분적출입/협조가 가능하겠습니다.

5. 결 론

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대성리마을 현장답사, 유엔군사령관 승인사항으로 도단위 국정원지부 대공상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지역은 출입목적, 출입인원 인적사항 등 덧붙임 양식에 의해 해당 부대로 전화 확인후 서면(덧붙임 양식)으로 요청 협조하여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63 — 국방부를 비롯, 예하 부대에 비무장 지대 현장답사 협조 요청

64 — 63에 대한 국방부 회신

65 ~ 66 — 63 불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537 / 전 0348-940-9855 / 전송 0348-944-8049
인택빌딩 502 www.koland.co.kr / 부장 임규원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이장호

문서번호 파주(경)0611-974
시행일자 2000.07.01
장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참조

선	결	지
결	일지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담	당	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입주계획통보 및 계획변경 검토요청에 따른 회신

1. 평소 우리공사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출판단지조합 제2000-38호(2000. 3.20) 및 제2000-56호(2000. 4.22)와 관련입니다.

3. 귀 조합에서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시행과 관련한 입주계획통보 및 계획변경 요청사항에 대하여 참입과 같이 우리공사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추후 시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며 검토결과 교량확장 전역 대하여는 반영이 불가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파주출판단지 입주계획통보 및 계획변경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1부.

2. 관련문서사본 각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파주출판단지 입주계획통보 및 계획변경 검토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 입주계획관련

· 공장건축

· 파주시기

시범지구 입주업체(62개소) 건축을 2001. 3. 조기 착수할 경우 일부 여성토 지하 공간에 대한 제하기간 부족으로 인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며, 부지조성 공사와 공사중복에 따라 지하시설을 설치공사와 상호간섭이 발생되어 품질 확보 및 공정·안전관리 등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여성토 공간에 대하여는 제하기간 완료 이후 건축확수가 요망되며, 입주와 여건에 따라 제하기간완료 이전 불가피하게 선확수하는 경우 추가 침하발생에 따른 건축확수에 대하여는 귀조합 및 입주업체 확인하여 처리하고, 건축공사시행에 따른 시설파손시 즉시 원상회복, 부지조성공사 시공업체와 입주업체, 건축공사 시공업체와의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귀조합에서 건축확수전 별도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여 분쟁 해결요망

· 단지내 필지배분

귀조합에서 배분한 필지선이 인허가승인된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계획선과 일부 상이한 구역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조정요망

△ 계획변경관련

· 자연거도도 삭제

귀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로변 자연거도도를 삭제하고 단지내 자연거도보행자점용도로를 자연거도도로로 변경설치 계획

· 수로확대교량 연장확장

기설교량 교량은 당초 수로 전폭에 PC SLAB교량으로 계획되었으나 조성원가 인하를 위하여 연장을 축소한 것으로 연장축소로 인한 수로내 유수소통 및 풍수단면에 지장이 없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우) 152-053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8-5 / 전화 (02) 8003-754 / FAX (02) 8903-756
기업지원처 입주지원팀 / 팀장 박계환 / 담당자 : 김용준

문서번호 입주(경)32010-4/2

시행일자 2000. 7. /~

(정 유)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조 사무국장

선	결	지
결	일지	시
수	번호	결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파주출판단지 입주예정업체 대표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협조

1. 평소 파주출판단지 입주 유치 및 단지 활성화에 애쓰시는 귀 협동조합에 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출판단지 실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원산(용5511-912(00. 7. 6)호도 작 개별 입주사에 대한 입주계획 체결을 요청해오며, 향후 산업단지 입주계획 체결등 제반업무에 대한 입주예정업체 대표자 설명회를 7월 20일경 개최코자 하오니

3. 귀 협동조합에서는 입주계약업무가 원활하게 기일내에 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일시 및 장소를 경하시어 '00년 7월 15일(토)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공문사본 1부, 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⑥ — 우리조합의 출판단지 입주계획 통보 및 계획변경에 대한 토지공사의 의견 회신

⑥ ~ ⑧ — 붙임

⑨ —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주 예정업체 대표자 설명회 개최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22구 254동 300 2층출판문화단지
전화 511-9566~8 팩스 511-9569 PAJUCO@NATE.COM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2000 - 100호

2000. 6. 28.

수신 :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 파주사업단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부지조성 토목·조경 설계자료 제출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개) 6111-404(2000.3.27), 출판단지조합 제2000-24호(2000.3.3), 제2000-56호(2000.4.22)의 관련 공문입니다.
3. 귀 공사에서 시행중인 파주출판단지 부지 조성공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출판단지 중심에 위치해 있는 수로 및 유수지는 단지 부지공사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생태보존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있기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로의 형태와 생태보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부지 조성공사에 있어 각별하고 심중한 시공으로 조경설계 및 집행시 문제가 없도록 조치 요청.
- 나. 하천 종단면 도면에 각 축결면도 표시된 지역의 절대 군락은 훼손이 되지 않도록 성토 범위에서 제외한 계획고로 성토 요청. (NO.40-49, NO.56-67)
- 다. 하천 횡단면도에 표시된 절대 군락(경계선으로부터의 표시된 거리표)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성토작업을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O.40-49, NO.56-67)
- 라. 하천경계는 성토지역에 있어 성토높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 성토로 인한 법면선의 하단부분으로 계획 요청.
- 마. 산책구간의 하천은 계획도면에 따라 시행하되 수로변 일주 지점거 도로 폐지로 인한 부분의 절토는 하천 횡단면에 따른 것. (NO.0-37, NO.83-94)
- 바. 하천횡단면도의 바닥 준설 부분은 기존 절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NO.68-82)
- 사. 교량설계 부분의 수로 형태는 기존 형태가 유지되도록 조치 요청.

- 붙임 1) 하천종단면도 (4면) 1부
2) 하천횡단면도 (28면)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22구 254동 300 2층출판문화단지
전화 511-9566~8 팩스 511-9569 PAJUCO@NATE.COM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2000 - 114호

2000. 7. 7.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계획변경 검토 요청

1. 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고 애쓰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리며 파주(개)6611-474(2000. 7. 1) 회신 관련입니다.
2. 귀 공사의 수로방간교량 확장 불가 확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필히 교량확장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교량확장의 근본문제는 현존수로와 수로주변에 식생하는 어류 및 식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인 개발을 위하여 현존상태의 훼손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요청임.
- 나. 귀 사업단에서 설명하는 유수소용이나 통수단면상의 문제는 교량확장 요청과 관계없는 사항임.
- 다. 「갈대식생 구간 훼손면적이 약 100평 정도」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경작한 현장사실을 파악한 후 재검토하여야 될 사항임.
- 라. 공사추진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할 것이며 공사부족에 대한 조치는 귀 공사에서 초기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주 413-88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로 337 / 전 031-940-3885 / 전송 031-944-8049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임규영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이광호

문서번호 파주(개)6631-1112

시행일자 2000.07.27

경유

수신 파주출판조합 이사장

참조

선		지
점	일자	시
수	시간	전
지	번호	제
리	지	공
당	당	합
자		

제목 파주출판단지 수로 및 교량 설치계획 통보

1. 출판단지조합 2000-100호('00.6.28), 2000-114호('00.7.7) 및 파주(개)6611-974호('00.7.1)와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단지내 수로 및 교량설치와 관련하여 불합과 같이 우리공사의 시행 방안을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교량확장 요청권에 대하여는 현재계획상 유수소용에 지장이 없으며 교량확장으로 인한 가계분리 감소 및 교량 건설에 공사비 추가 소요 등으로 인하여 기 통보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반영이 불가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교량확장에 따른 민원감소 및 절대훼손현황 1부
2. 수로 및 교량설치 관련도면 1여,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우편번호 449-87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사암리 900 (중소기업개발원)
담 당 과장운영부 과장 김홍기 031-320-0154 전송 031-320-0713
팩스 031-320-0713
기합(파문) : 제 62 호
수 신 : 각 회원(지방조합 및 사업조합 포함)
제 목 : 「협동조합관리자능력개발과정」 참가안내
2000. 7. 29

1. 귀 조합(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개발원에서는 새천년을 맞아 협동조합의 역할을 제고하고, 소속 관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동조합관리자능력개발과정」을 개최하오니 귀 조합(연합회) 부·과장급 관리자가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목 적
○ 협동조합관리자의 인식확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표준적 조직관리와 직원 리더십 강화
○ 기업중 협동조합 관리자간의 정보교류
2. 기 간 : 2000.6.31~ 9.2. 2박3일(일정표 별첨)
3. 참가대상 : 전국조합(연합회), 지방조합 부·과장급 관리자 80명만
4. 장 소 : 제주도 서귀포 통일관도
5. 참가비용 : 194,000원/1인
6. 입금계좌 : 국민은행 218-25-0006-636(예금주: 중소기업개발원)
7. 신청기한 : 2000.8.24(목)까지 참가신청서를 개발원 FAX로 발송바람.
8. 특기사항 : ○ 교육입소는 8.31(목) 15:00까지 반드시 개발도착이므로 항공편에

- 참가비용은 주최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주공항에서 통일관도까지 전세버스 운행예정입니다.
 - 숙박시간 13:30, 14:30 대기장소 7번주차장
 - 기 타 : 참가자 자유복장, 세면도구 지참
 - 의 치 : 중소기업개발원 과장운영부 과장 김홍기
TEL) 031-320-0154, FAX) 031-320-0713



- 부 : 1. 교육일정표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 장 박 상



- 71 -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토목 및 조경 설계 자료 제출
- 72 - 토지공사의 72에 대한 우리조합의 교량확장 조치 요구
- 73 - 72에 대한 토지공사의 교량확장 불가 회신
- 74 - 중소기업 중앙회의 협동조합관리자 능력개발과정 참여 안내

한국산업단지공단

주) 152-053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89-5 / 전화 (02) 8603-754 / FAX (02) 8603-756
기밀지원자 입주지원팀 / 팀장: 박재형 / 담당자: 김종운

문서번호 입주(경)33005-465

시행일자 2000. 8. 3

(경 유)

수 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참 조 사무국장

선 결		지	
원 인	입 자	시	
수 번	호	결	
처 리	과	공	
담 당	자	람	

제 목 파주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검토 협조

1. 평소 파주출판단지 입주 유치 및 단지 활성화에 애쓰시는 귀 협동조합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출판단지 실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서울지방자치법 제33조 제2000-150호)과 관련하여, 우리공단에서는 공업단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3조에 의거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00. 8. 11(금)까지 당 공단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부.
2.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검토 의견 양식 1부. 끝.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출판문화354)
전화 511-9505-8 팩스전화 511-9505 PAJUCO@KUMTE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2000 - 117호

2000. 7. 10

수 신: 파주시장

참 조: 도시과장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착공 요청

1. 출판단지 조합에 보내주신 귀 시의 협조에 감사하며 드림(515350-1087 (2000. 5. 31) 회신) 받았습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우수관, 우수관 배설과 일부 성토 공사를 병행하여 작업하는 중 단계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사무건축 공사를 착공, 늦어도 2002년 5월에는 임무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귀 시가 동보한 공공시설을 건축에 대한 파장은 현실적으로 남쪽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과 선진 지역개발을 구상하려는 귀 시의 의지와 의욕에 따른다는 사정입니다. 우리 조합에서는 늦어도 2002년 5월까지의 시범지구 임무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에도 귀 시가 단계내 공공시설물인 하수정화처리장을 비롯, 동사무소 등을 단지 조성계획추진과는 무관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임지에 맞춰 기반시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조처를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4. 특히 출판단지가 2002년 원도식 이전에 완공되어야 한다는 점 전설교를 비롯, 출판단지 부동 정부 방침이라는 사실과 지난 7월 1일 사장님 면담시 "하수정화처리시설, 2002년 5월 이전 완공되도록 하겠다."는 시정년의 약속을 상기시켜 드림에 귀 시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출판문화354)
전화 511-9505-8 팩스전화 511-9505 PAJUCO@KUMTEL.CO.KR

출판단지조합: 제2000-128호

2000. 8. 1.

수 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 공정표 요청의 건

1. 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시범지구 입주자들은 지난 7월에 건축설계 용역제약을 체결하여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0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01년 3월부터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3월에는 업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3. 이에 입주자들이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공사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공사 공정표를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의 사후 이전 계획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며, 더욱이 인쇄시설의 이전은 시설 설치 후 시험 가동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전체 공정에 오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 전체적인 공정표를 요청하오니,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기반시설인 전기, 가스, 물, 상하수도, 진입로 등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문의하오니 상세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출판문화354)
전화 511-9505-8 팩스전화 511-9505 PAJUCO@KUMTEL.CO.KR

출판단지조합: 제2000-129호

2000. 8. 1.

수 신: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 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주거시설 용적률 및 산업용지 지역 변경 요청의 건

1. 귀 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수도권 외곽에 조성되는 거주형 산업단지로서 입주자들은 이를 전제로 사업장을 이전한다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범지구 입주자들에게는 2002년 상반기 임무를 앞두고 무엇보다 용적률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단지 내 주거시설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계용적제약을 체결하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입주회사 종사자를 중심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3. 이에 주거시설의 실시계획을 검토한 결과 고도 8미터와 용적률 80%로는 필요충분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최소한의 용적률은 120%가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고도 확보를 위하여 귀사업단이 관세청과 충분히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반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울러 관세청과 고도제한 해제 협의 시 당 조합에서도 최선을 다해 적극 협조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또한, 출판단지조합 제1999-125호 요구사항과 같이 출판거주는 준공업지역으로, 인쇄거주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방분되어 있어 사업 시점에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단지에 2개의 공업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오늘날 인쇄사는 과거 경쟁기업과는 달리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기존의 인쇄기업을 탈피한 '프리 프레스'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욱이 본 단지에 입주할 인쇄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선진적으로 수용하여 이 단지에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건축을 하려는 만큼 전체 산업단지를 하나의 준공업지역으로 통합하여 사업 시점에 차이가 없도록 적절한 조처를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 76 —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출판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검토 의견제출 통보
- 76 — 파주시에 하수정화처리시설을 비롯, 공공시설 적기 건설 요청
- 77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출판단지 기반시설공사 공정표 제출 요청
- 78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산업용지 지역 변경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강북구 산하동 508 전산출판문화산업단지
전화 511-6266~8 팩시밀리 511-6569 PAJUBOOKCITY.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2000-123호

2000. 7. 21.

수신: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출판진흥과장

제목: 출판진흥법(가칭) 제정관련 의견 통보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귀 부가 요청한 86510-1603(2000. 7. 5.시행)과 관련한 우리 조합의 의견입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귀 부가 의견 요청한 출판진흥법(가칭)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 제정의 근본취지나 목적, 업계의 입장,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포괄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문입과 같은 내용으로 우리조합 의견을 통보하오니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붙임: 출판진흥법안 제정에 대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입장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출판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입장

우리 조합은 귀 부의 출판진흥법 제정이 출판의 자유를 신장하고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출판문화산업을 지식 산업의 중심체로 진흥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가 마련한 법안을 살펴보면 법의 근본 취지나 목적과는 여초부티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출판업계의 의견 반영은 커녕 오히려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규제의 절대, 완화시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항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조합에서는 본 법안 제정이 출판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출판의 자유를 신장, 명실공히 출판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귀 부의 법안이 우리 출판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 의견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1. 출판과 인쇄는 분리되어야 한다.

출판과 인쇄는 그 산업적 성격을 볼 때 약 70%가 산업인쇄, 나머지 30% 정도가 출판인쇄에 해당하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출판과 인쇄를 단일업제로 묶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다. 이에 우리는 마땅히 출판과 인쇄는 분리되어야 하고 각기 별개의 법률체제로 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안은 비현실적이다.

본 법안은 포괄적으로 독립된 법률안이아기보다는 일관된 제정 방향이나 원칙 자체가 없는, 성격이 다른 법률안들을 무분별하게 절충, 짜깁기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각자에 따른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안의 제정은 심사숙고할 거쳐 하나의 단일법안으로 다시 입안되어야 한다.

3. 규제적 성격의 내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법안의 제2조 11항 및 제6조 3항은 「유해간행물」에 대한 재판적 판단의

성실시공 생활화로 공사본문 나리본은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657 / 전 031-940-3855 / 전송 031-944-8019
인터넷주소 www.koiland.co.kr / 부장 임규원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이종로

문서번호 파주(계)9631-1224

시행일자 2000.08.23

경유

수신 파주출판조합 이사장

참조

선			지	
결			시	
결	일자		결	
수	시간		제	
번호			·	
처리과			공	
담당자			함	

제목 파주출판단지 1단계지역 입주계획 자료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조합 제2000-43호('00.3.31)와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1단계 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초기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계획을 파주시 및 한국전력과 수차례 협의결과 경기도 56호선변에 기중과 시공을 원칙으로 협의됨에 따라 한국전력 서울전력관리지로부터 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어 1단계 전체 입주업체의 건축계획 및 입주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79 — 문화관광부에 출판진흥법 제정관련 의견 제출

90~91 — 붙임

92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서 출판단지 1단계 지역 입주계획 통보 요청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9-120 서울 강북구 강북로 596 5층 509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9555-5 팩스 511-9555-5 E-MAIL PAU@COMTE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31호 2000. 8. 4.
수신: 기획예산처 장관
참조: 사회예산심의관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 지원 반영 요청의 건

1. 현립 지속되는 특별 속에서도 국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이라 기획예산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출판정보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 형성의 핵심적 매체로서 국민들의 국가 운명 마인드와 이에 수반되는 총체적 상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그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21세기형 국가 전략 산업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는 1994년 7월 1일 대통령 지시 사업[코드번호 06-25-18]으로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 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신선했던 의지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이루어지는, 우리 문화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고도 발전의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더욱이, 이 출판단지의 상장에 위치하여 국가 산업 단지의 핵심 중추를 떠맡게 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이하 '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을 비단 우리 문화·예술 및 관련 산업 단체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아성에 한 프로젝트로서 새 헌법 우리 문화 산업의 미래를 밝게 조망해 주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5. 그러나 현재 출판단지 조성은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은 국고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일정 차질이 예상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핵심시설인 출판문화정보센터가 빠진 채 출판단지가 조성되는 기형적 개발의 부끄러운 실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붙임'건의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출판·문화 예술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출판문화정보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갈망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열려도 깊은 것을 머뭇거리지 않아서 일입니다. 그리하여, 출판문화정보센터의 부지를 1998년부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일부 기업체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마련하고(붙임'제약서' 참조) 건축비는 국고로 지원을 받아 건축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수월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6. 2002년 5월 일리게 되는 국제 월드컵 대회 일정에 맞추어 출판단지 완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범지구에는 2002년 5월에 입주할 하는 일경으로 건축 설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판문화정보센터 건축 계획이 편재하는 시기적으로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되어 우선적으로

로 지난 5월 1일 현상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참가자들이 전지하게 진행하고는 있으나 국고 예산 지원이 없이는 출판문화정보센터의 건립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단지 부지에서는 이 같은 인식 하에 98년 5월 2천만원, 99년 20여만원의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바 있었으나 문화관광부 담당자들과 갖은 자리 옮김과 중무 처리 미숙으로 예산이 2년간이나 불용 처리되는 공무 집행의 난맥을 바라보는 저희들로서는 아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7. 국내 산업계에 전례가 없는 프로젝트로서 출판문화정보 관련 사들이 정부의 전향적 정책에 호응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하는 국내 최초의 분야 부흥 운동이라 일컬을 만한 대역사가 이렇듯 필요, 충분한 밑거름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훌륭한 발전이 주춤해진다면 이 어찌 후손들에게 우리가 일류 문화국가 건설에 앞장섰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8. 열악한 이 나라 출판업계 환경을 결코 탓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명제 아래 특유의 일생을 바치며 우리 문화산업의 중추를 떠맡은 출판업계의 숙원 사업에 정부의 능동적이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훌륭한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되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을 남겨 뜻깊은 출판문화원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소박한 출판인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합니다. 제자 장관님이라 기획예산처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요청 1부
문화·예술 및 관련 산업 단체장 건의서 사본 1부
토지매입 계약서 사본 1부 끝

<참고 자료>

1.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사업계획서 1부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축설계제청 1부
3.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필지매입 확정 현황도 1부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 현황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U BOOK CITY

139-120 서울 강북구 강북로 596 5층 509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511-9555-5 팩스 511-9555-5 E-MAIL PAU@COMTEL.CO.KR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32호 2000. 8. 5.
수신: 건설교통부 장관
참조: 국토정책국장
제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 시설비 국고 지원 요청의 건

1. 현립 지속되는 특별 속에서도 국정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장관님이라 건설교통부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출판정보산업은 한 나라의 문화 형성의 핵심적 매체로서 국민들의 국가 운명 마인드와 이에 수반되는 총체적 상상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창의적 사회간접자본으로서 그 역할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21세기형 국가 전략 산업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이하 '출판단지')는 1994년 7월 1일 대통령 지시 사업[코드번호 06-25-18]으로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을 집적화 하여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신선했던 의지에 따라 관련 산업계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이루어지는, 우리 문화사에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고도 발전의 대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출판·문화 예술계가 혼연일체가 되어 출판단지의 성공적 건립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만큼 그에 따른 열려도 깊은 것을 머뭇거리지 않아서 일입니다. 이에 입주기업체들은 이러한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주를 견뎌내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단지 내 기반 시설 조성은 입주기업체들의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일평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국고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를 당부하여 누차에 걸쳐 청원을 드린 바 있습니다.

5. 현재 출판단지 조성을 위한 한국토지공사와 토목공사가 종반을 넘어서고 입주기업체를 역시 2001년 초 건축공사 시공을 목표로 공동설계에 착수하는 등 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선행하여 할 기반 시설비인 진입도로공사비 75억원, 하수시설공사비 81억원 중 41억원(나머지는 '98년 환경부의 사업비 국고보조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을 지원 요청하는 바입니다.(붙임자료 참조)

참고로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완공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및 당해 시설을 관공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여 도로·상수도 시설 및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

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인 출판물종합유통센터와 관련하여서는 유동단지 개발추진법 제 21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는 유동단지의 완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령들에서는 산업단지 진입로(IC) 등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해놓음으로써 일정한 특수기업들의 국고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것을 지원해 주어 국가 경제에 제고에 힘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상기 법령들의 취지가 국가차원에서 산업의 규제가 아닌 전후에 있어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러한 지원 사항들이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단지 건설 일정에 조급도 차질이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7. 국내 산업계에 전례가 없는 프로젝트로서 출판문화정보 관련 사들이 정부의 전향적 정책에 호응을 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하는 국내 최초의 진정한 분야 부흥 운동이라 일컬을 만한 대역사가 이렇듯 필요, 충분한 밑거름과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훌륭한 발전이 주춤해진다면 이 어찌 후손들에게 우리가 일류 문화국가 건설에 앞장섰노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8. 열악한 이 나라 출판업계 환경을 결코 탓하지 않고 오직 국가의 문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대명제 아래 특유의 일생을 바치며 우리 문화산업의 중추를 떠맡은 출판업계의 숙원 사업에 정부의 능동적이라도 적극적인 참여와 아낌없는 지원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훌륭한 사업이 성공리에 완수되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자산을 남겨 뜻깊은 출판문화원으로 기억되고자 하는 소박한 출판인들의 뜨거운 열망을 전합니다. 제자 장관님이라 건설교통부 직원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기반시설비 요청 내역서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필지 매입 확정 현황도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 추진 현황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250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6 2층 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9-8 팩스 511-9569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41호
수신 : 파주시장
참조 : 건설국장
제목 : 자유로변 광고탑 홍보문안 송부 및 설치 요청의 건

2000. 8. 22

1. 앞서는 선진 저지형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우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시의 상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지난 2000년 7월 1일, 우리 조합 이사장의 시장님 면담시 자유로변 출판단지 거점 내 기존 대형 광고탑을 아용, 출판단지와 귀 시의 시장을 함께 홍보하기로 하고 디자인은 우리조합이, 설치는 귀 시에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우리 조합에서는 광고 디자인 전문업체인 안그라픽스에 디자인 용역을 의뢰하여 출판단지와 귀 시의 시장을 동시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문안을 디자인하여 송부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홍보문안 2점.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6 2층 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9-8 팩스 511-9569 PAJUPCC@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50호
수신 : 상업용지 투자자
제목 : 상업용지 투자자 전체회의 및 개발계획안 설명회 개최 문보

2000. 9. 2

1. 귀하의 안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주사 사옥 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 일주사와 건축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또한 단지내 상업용지 개발 및 투자계획안 수립은 물론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경기 응모작품도 5일 접수를 마감하고 일정한 심사를 통해 예정대로 10월 초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3. 특히 집행부에서는 상업용지 개발이 출판단지 전체 발전과 활성화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건설본부를 주축으로 계획에서부터 일괄 업무 선정 및 임직 유치계획안 등을 연구하여 왔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건설인(주)케이이엔디 장성규 대표이사를 초빙하여 아래와 같이 상업용지 개발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명회에 이어 투자자 전체회의를 통해 개발방향을 및 투자이익 극대화 방안 등에 협의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① 일시 : 2000년 9월 15일(금) 14:00

② 장소 : 출판단지 인포룸

③ 주요 내용

가. 상업용지 개발 계획안 설명

나. 투자자 전체회의

다. 기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06 2층 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9-8 팩스 511-9569 PAJUPCC@NA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137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수로 바닥 절취의 건

2000. 8. 12

1. 귀사업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가) 6631-112호(2000. 7. 27), 출판단지조합 2000-130호(2000. 8. 4)의 관한입니다.

3. 파주출판단지 수로 및 교량 설치 계획 문보에 첨부된 하천행단면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향후 공사 진행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수로변의 갈대와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 환경 친화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현존 수로의 형태를 훼손 없이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구됨.

나. 하천 행단면도 축척 NO.75~NO.82의 바닥 절취는 수로내 물의 유동에 필요한 것이 (75:1.50)로 절취폭이 8.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수로폭은 최소로 줄이도록 1.5-2.0M로 조정이 요구됨.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상선공사 생활회로 공사준공 나라본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840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637 / 전 031-940-3855 / 전송 031-944-8040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양규형 / 과장 김세근 / 담당자 이광호

문서번호 파주(가)6631-1438

시행일자 2000.09.28

정유

수신 파주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참조

선		지
결	일과 시간	시
수	번호	절
처	리	재
답	달	공
자		람

제목 파주출판단지 수로바닥 절취요구권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여, 출판단지조합 제2000-137호('00.8.22)와 관련입니다.

2.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귀 조합으로부터 단지내 수로 일부 구간(축척 NO.75 ~ NO.82)의 저수로 폭원축소 요청(당초 8m→변경 1.5 ~ 2.0m)이 있어 검토결과, 공사시행시 장비와인 불가로 사공이 지남하고, 우기시 풍수단면과로 불가로 원할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며, 범람유실 및 토사퇴적 등에 따라 수로가 매립되어 단지침수 우려가 있어 당초계획대로 8m 폭으로 절취가 불가피함을 통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 91 - 파주시에 자유로변 광고탑 홍보문안 송부 및 설치 요청
- 92 - 상업용지 투자자 전체 회의 및 개발계획안 설명회 개최 안내
- 93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수로바닥 절취에 대한 의견 제시
- 94 - 93에 대한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의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9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2층(주최자사무소)
전화 511-6066-8 팩스 511-6559 PAJUPCO@NATEL.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42호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교량 난간부분 설계 도면 제출

2000. 8. 25.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에 애쓰시는 귀 사업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금년도 토지공사와 출판단지조합 관계자가 공사 추진에 관한 업무협의와 교량설계디자인을 출판단지조합에서 작성 제시하도록 협의된 바 있어, 그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량 디자인안을 계획하였습니다.
3. 출판단지 조성구역 내 수로를 횡단하는 SLAB 교량 1개소와 BOX 교량 4개소에 대한 난간부분 설계를 건축코디네이터와 전문가들이 붙임 도면과 같이 작성하여 귀 사업단에 제출하나, 내용을 검토하시고 사공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교량난간 설계도(5개소)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출



한국토지공사

우 403-01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자동 217 / 전화 (031)738-7890 / 전송 (031)738-0963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박효준 / 과장 정관용 / 담당자 김주형

문서번호 : 산업(용)5533-743
시행일자 : 2000. 8. 28

경유

수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출

참조

선	결	지
결	일 자 시 간	지 시
수	번 호	결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 자연손해금 이자 적용에 대한 시정요청에 대한 회신

1. 우리공사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산업시설용지 대금 자연손해금 이자 적용에 대한 시정요청 [출판단지조합2000-143(2000. 8. 26)] 과 관련하여,
2. 본 건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매매대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으로, 계약 목적용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자연손해금 납부에 대하여는 귀 조합과 우리공사간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할 것이며,
3. 보다 구체적인 것은 소관지사인 서울지사로 하여금 검토하여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한국토지공사



성실사공 생활화로 공사본론 나라본론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우 413-06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상동리 637 / 전 (031-940-3805 / 전송 (031-944-8049)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임규형 / 과장 김재근 / 담당자 이상보

문서번호 : 파주(개)6631-1585
시행일자 : 2000. 10. 24
경유 : 파주출판단지조합 이사장
참조

선	결	지
결	일 자 시 간	지 시
수	번 호	결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 파주출판조합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조합 제2000-142호('00.8.25) 및 조합 제2000-164호('00.10.4)와 관련하여,
2.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시행과 관련 단지내 교량난간 및 가로등주, 보도포장 차변경 등 귀조합에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불합과 같이 귀조합에서 요청하신 사항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자재가 아닌 특수한 재질과 형태를 가진 것으로 설치후 보수 및 교체 등 유지관리가 곤란하여 시설을 관리권자인 지자체에 시설물 인수양계 지남, 공사비증가에 따른 조성비가 상승, 2단계 사업시행과의 연계성, 지체의 등 수성에 따른 수급 및 설치에 따른 문제점 등이 예상되어 변경이 지남함을 통보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합요구사항 검토의견서 1부, 1. 끝.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 파주사업단



성실사공 생활화로 공사본론 나라본론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

우 411-330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708-1 / 전화 (031)909-2559 / 전송 (031)909-2102
인터넷주소 www.koland.co.kr / 부장 홍재준 / 과장 배재민 / 담당자 박연수

문서번호 : 일산(용)5511-1207
시행일자 : 2000. 08. 29

경유

수신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협동조합

참조

선	결	지
결	일 자 시 간	지 시
수	번 호	결 재
처	리 과	공 람
담	당 자	

제목 : 산업시설용지 자연손해금 이자적용에 대한 회신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출판단지조합 2000-143(2000. 08. 26)호와 관련된 자연손해금 이자적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조합에서 매입하신 산업시설용지의 매매대금 및 자연손해금 납부는 귀 조합과 우리공사간에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목적용지의 매매대금 현재충당 순치는 납부예정일이 먼저 도래하는 할부금에서부터 원금, 약제이자, 자연손해금 순에 의해서 충당합니다. 따라서 파주(용)5511-449(2000. 04. 06)호로 기록된 한 바와 같이 3회차 할부원금(₩21,648,960)이 미납중에 있어 3회차 납부예정일 익일부터 연18%의 자연손해금이 부리되고 있음을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우리공사의 자연손해금 규정은 계약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분할정전 계약사항이 아니며 자연손해금율은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결정된 이자율이지 우리공사 임의로 결정한 이자율이 아니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우리공사는 자연손해금 감면 등 제정의 임의조치는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주시기 바라며,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미납부금인 3회차 할부원금과 자연손해금(2000. 08. 31 기준, ₩1,975,060)을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토지공사서울지사



- 95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교량난간 부분 설계도면 제출
- 96 - 95에 대한 토지공사 파주사업단 회신
- 97 ~ 98 - 자연손해금 적용 철회 요청에 대한 토지공사와 토지공사 서울지사의 회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중구 남대문로 506 5층 (파주출판문화단지)
(02-61-5566-8 팩스 02-6283-2583 E-MAIL: PAJUC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51호

2000. 9. 7.

수신: 한국토지공사 사장

참조: 시설설계지 조정부상

제목: 파주출판단지 부지 내 생태계 조사에 대한 의견 제시

1.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귀 공사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출판단지조합은 초기 구상 때부터 출판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 환경 친화적인 단지로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것을 한 설계자집으로 삼고, 지금까지 생태계보존운동, 풍력발전제나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주목해왔습니다.

3. 2000. 9. 4. 조성위원회 업무회의시 「파주출판문화단지 용수지 생태보전·복원 설계」 보고 내용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석류나무 조류에 대한 생태계 조사는 이미 이뤄졌거나 이뤄질 것이지만, 수중에 있는 수초류, 어류 등에 대한 생태계조사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물속의 수초류나 어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계속 한다면 불완전한 생태계 보전·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생태계 조사를 지금이라도 완벽하게 타자는 것은 더 이상의 개발논리에 의한 환경파괴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인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출판단지를 건설한 이후라도 단지내 생태적 자연 환경을 온전히 보전·복원할 수 있도록 수중 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적인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우편번호: 442-070 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9번지 (삼성생명 13층)

담당: 고인석 전화: (031) 222-4521/5 전 송: (031) 221-4452

기밀(경기): 제353호 2000. 9. 6

수신: 협동조합이사장

참조:

제목: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정보화 구축 안내

1. 귀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한지교소소프트, 인디고, 하우리 등 국내벤처기업 6개사는 최근 국내 최초로 웹 어플리케이션 통합패키지(웹포)를 상품화하여 본회 산하 협동조합 및 7만여 회원업체에게 웹 어플리케이션 통합패키지의 가격을 정가보다 5% 할인한 가격에 제공하겠다고 본회에 제안을 하여 왔으며, 아울러 이들 업체는 서울(9. 20. 14:00 종강), 인천(9. 18. 14:00 인천지방중기청) 등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정보화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정보화 구축에 관심이 있는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의 많은 이용 및 홍보를 바랍니다.

※ 웹 어플리케이션 통합패키지: 웹 구축을 미뤄왔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웹서버에서부터 웹메인, 메인지, 웹메일, 백신프로그래밍 및 전자계시판 등 각종 웹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패키지로서 묶어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

□ 문의: 웹포 전화 02-566-4087 (fax 02-6283-2583) 김경언
▷ www.webpple.com. 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지 회 장 이 용 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중구 남대문로 506 5층 (파주출판문화단지)
(02-61-5566-8 팩스 02-6283-2583 E-MAIL: PAJUC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53호

2000. 9. 18.

수신: 파주시장

참조: 상임과장

제목: 파주출판단지 경관녹지내 조형물 및 풍력발전기 시험기타 설치의 건

1. 선전단지 행정 구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파주출판단지 조성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시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는 전국 최초의 문화산업단지로서 현재 기반시설공사가 5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입주사들의 사속 건축을 위한 설계 등 전체적인 조형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조합에서는 출판단지가 발달함에 문화산업단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한옥 이전,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문화상징조형물 설치, 풍력발전기 시험기타 설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이의 일환으로 우리 조합에서는 조성중인 파주출판단지 경관녹지(위지도 면 참조)에 현재 토지공사에서 탐주하여 설계중인 조형물과 연계하여 청바사전과 같은 석조 조형물(영정지대의 빛과 닮게)이나 개발 차원의 풍력발전기 시험기타를 단지 조형공사와 앞서 설치코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시에 사설설치 승인을 요청하오니 현장 환경개선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1. 위치도 1부
2. 조형물 사진 1매
3. 풍력발전기 사진 1매
4. 풍력발전기 편면 세마나 자료 1부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5-120 서울 중구 남대문로 506 5층 (파주출판문화단지)
(02-61-5566-8 팩스 02-6283-2583 E-MAIL: PAJUCO@NATE.COM)

문서 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54호

2000. 9. 20.

수신: 출판단지 입주사 대표

제목: 사속 건축설계를 모두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돌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험지구 입주사들의 사속건축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2차지구도 예정대로 설계계약 준비를 위해 이미 세미를 분할했으며 석터빌 건축가들 글 신청하여 공모에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진행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사속 건축도 공동설계, 공동구매, 공동시공 등을 통해 건축비 절감은 물론 단지 전체의 공동성을 실현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토질조사와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는 전지역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일 뿐 아니라 당연한 소치입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는 일정시기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토지를 환수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계획이 있으면 토지매입이 불가하여 등기이전에도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사속 건축의 지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주사들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가 계획했던 출판도시의 공동성 실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동설계, 공동시공의 당위성 등 도시적 목표를 제삼 판단에 알려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에 동참하지 못하여 소음, 진동, 공사비 증가 등 차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미리 알려드리오니 좌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체 토질조사 위치를 표시한 도면을 발행, 상부부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전체적으로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도면에 표시된바와 같이 전월지 모두 토질조사와 파일공사를 일괄적으로 해야 합니다.
2. 토질조사와 파일공사는 도로의 아스팔트공사를 하기전에 시공해야하고 소음, 진동, 먼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전입주시기 동시에 시행해야 민원발생 등 주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개별공사가 불가할 뿐 아니라, 만약 개별적으로 시공하게 되면 그 비용이 두 배 이상 됩니다.
4. 파일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별첨: 토질조사 시행계획도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① 토지공사에 출판단지 생태계 조사 실시 요청

② 파주시에 출판단지 풍력발전기 시험설치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③ 중소기업 경기지회로부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 정보화 구축 안내

④ 전체 입주사를 대상으로 설계 용역계약 촉구 및 공동 기반조사 실시의 당위성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70 서울 강남구 강남동 346 (강남문화정보단지)
전화 511-9599-8 팩스 511-9599 PAJUCOOP@NATEL.CO.KR

문 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55호

2000. 9. 20.

수

신 : 입주사 대표

제

목 : 2차지구 사옥 건축설계를 위한 선택별 편성 현황 통보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23회에 걸쳐 출판단지 입주사 대표와 이기을 이사장, 송보상 건축코디네이터가 사옥 건축설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입주사 대표가 지적하는 시설의 규모나 도면상의 종용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범지구 입주사를 대상으로 선택별 건축가공 확정하고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진지한 협의를 거쳐 사옥 설계제약을 제정하여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입주사들을 대상으로 설계준비를 사전에 알려드렸고 여러 입주사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많은 준비가 되었으리라 믿고, 예정대로 시범지구에 이어 2차지구도 설계를 시작해야 함을 통보 드립니다. 또한 사옥 건축도 공동설계, 공동구내, 공동시공 등을 통해 건축비 절감은 물론 단지 전체의 공동성을 실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지점조사와 파일공사와 등 기초공사는 전지역을 동시에 함으로써 그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까지의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설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별첨과 같이 2차지구 입주사의 건축 설계를 위한 선택별 미리 정하여 도면과 함께 통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택별 건축가는 이의결에 확정하여, 설계제약을 위한 설명의 및 협의 일정은 추후 통보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 1. 2차지구 입주사 선택별 현황 1부

2. 선택별 현황도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적인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우편번호 : 442-07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2-9번지 (상성생원 13층)
담당 : 고인석 전 화 : (031) 222-4621/5 전 신 : (031) 221-4452

기립(감기) : 제358호

2000. 9. 15

수

신 : 협동조합이사장

함

조 :

제

목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 신청안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자금의 사용 및 관리규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금을 배경로 하오니 중개금을 필요로 하는 조합은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를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준한도 신청서류

1) 기존 활용조합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 신청서 1부

2) 신규 신청조합 : 추가제출서류

- '99년도 결산 대차대조표 1부

- 공동사업자금 활용계획서 1부

- 조합등기부등본 원본 1부(최근 1개월 내 발급)

- 조합원명부 1부

나. 제출기한 : 9. 23(목)

유 형 :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 신청서 1부. 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지 회 장 이 용 표

- — 2차지구 선택별 편성 현황 통보
- — 토지공사의 불합리한 산업용지 공급에 대해 우리조합의 강력한 항의 및 철회 요청
- — 중소기업 경기지회로부터 공동사업자금 기준한도 신청 안내
- — 출판단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수요조사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70 서울 강남구 강남동 346 (강남문화정보단지)
전화 511-9599-8 팩스 511-9599 PAJUCOOP@NATEL.CO.KR

문 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56호

2000. 9. 21.

수

신 : 토지공사 파주사업담당

제

목 : 파주출판단지 산업용지 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항의 및 철회 요청

1. 귀 사업단의 무공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단지 조성을 위해 우리조합에서 지난 10년동안 기울인 노력들은 참으로 피눈물 나는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군부대 동위원제를 비롯, 국가산업단지 지정, 문화관광부, 파주시, 유관기관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합원들이 땀을 흘려 이뤄낸 커다란 성과인 것입니다.

3. 더욱이 파주출판단지는 주문과 개발방식으로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서 입주사들이 단지 전체 개발에 있어 공동성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프로그램에 따라 조화롭게 추진되고 있는 출판도시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위치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입주사만이 토지를 분양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조류조문 단지 개발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입주사간 불협화음 및 불평에 이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 사업단에서 출판단지 전용도로 월구 상업단지까지 3,093명 중 2,000명에 대해 우리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의 업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우리조합을 무시한, 있을 수 없는 부당한 처사로 특정 업체를 우대함과 사기는 것으로 이를 심각히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5. 만약 우리 조합의 의견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단지 조성에서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 사업단에 있음을 밝히면서 드러내 버린 화살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70 서울 강남구 강남동 346 (강남문화정보단지)
전화 511-9599-8 팩스 511-9599 PAJUCOOP@NATEL.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157호

2000. 9. 25.

수

신 : 입주사 대표

제

목 : 파주출판단지내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위한 수요 조사의 건

안녕하십니까.

입주사 대표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토목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단지내 기반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서울도시가스(주)와 출판단지내 도시가스설치 설계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입주사의 건축규모와 사용 용도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요구되어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때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고, 시공회사 측의 효율적인 두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기에 정부의 '가스수요 조사서'를 보내드리니, 각 입주업체 대표께서는 현재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더라도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작성요령 : 가스수요 조사서 항목에 적절 표기
- 최신기한 : 2000년 10월 5일(목)까지 불가우연 또는 FAX 접수
- 회신처 : 파주출판단지 사무국(팩스 : 02-511-9599)
- 문의처 : 서울도시가스(주) 영업팀 과장 이진우(전화 : 02)3660-4232
- 파주출판단지 사무국(전화 : 02)511-9566-8

첨 부 : 가스수요 조사서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을



문서번호: 출판단지조합 제2000-162호

2000. 10. 2.

수 신 : (주)한메건축사사무소 대표

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공모작품 심사 결과 통보

1. 귀국출판단지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설계경기에 출품한 작품을 제출하여
주신 응모자 이리분께 먼저 감사의 드립니다.

2. 지난 9월 5일까지 접수된 응모작품은 총 18개 작품이었습니다. 이 작품들에 대해 전문위원회에서 기술적 평가를 거친바 있으며 이어 계획된 심사의원회의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통하게 되었습니다.

3. 이 결과는 중요요강에서 밝힌 사항들중에는 다소 상이한 결과로 심사위원에게서는 이를 보정하기 위해 우측으로 하여금 저명형식의 2번째 경기를 다시 시달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합에서는 심사위원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선작을 가리기 위한 저명형식 경기를 다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더욱 나은 전력을 이룩해 세우기 위함으로 널리 이해될 주시기 바랍니다.

4. 우추츄 및 가자에 대한 지상식상 전지회는 2000년 10월 10일(화) 오후 5시 솔 칸단지 인포룸에서 개최합니다. 특히 이튿날 출원된지 일주일 실행 결과(모두 우추츄와 솔 칸단지 상향조출원인 "지미의 빛" 출원번호 641)도 이를 예정합니다. 부디 모두 참석하시어 지미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세우시는 우리의 출원도사로 앞으로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민 실제경기에 응모의 주수선 대해 심정한 감사드립니다.

5. 아울러 우수작 및 가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실제경기 도록집 발간을 위해 출품 작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이나 CD를 10월 7일(토)까지 조합 사무국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

· 우수작 /

- (주)지열발전건축사사무소(한희상) : (주)이씨오건축사사무소(상대형) 공동
 - 건축사사무소 아이건축(유승균)
 - (주)원예건축사사무소(이종기)
- 가. 작. 1
- (주)부본건축사사무소(박만식)
 - (주)복합건축사사무소 설립(임광태)
 - 시공간 건축사사무소(김승익)
 - 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 원한(류우)
 - 건축사사무소원림(정순진) : CHIO SLADE(주)원림(정순진) 공동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이 기 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55-29 HX CV7 345 000 5M4524391

출판관리번호 : 제2000-168호

2000 10 13

수 : 송소기연중악()

제 목 : 조합원(회원) 변동보고서 제출

2. 귀 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3/4)분기 조합원 변동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분기별 조함원 변동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조합원수			출자자수			출자금액			총원천수		
	전기분	금기분	결산	전기분	금기분	결산	전기분	금기분	결산	전기분	금기분	결산
현황	205	206	1	6,805	6,835	30	6,825,000	6,835,000	30,000	10,238	10,304	66

나. 지역별 조합원 분포상황

(단위 : 천원)

구분	조합원수	장자과수	출자금액	부영원수	비고
사출	193	6,597	6,597,000	10,157	
인원	1	3	3,000	5	
경기	9	226	226,000	90	
기타	3	9	9,000	32	
계	206	6,835	6,835,000	10,30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이사장 이기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남구 삼성동 508 삼성생명빌딩(주)

[illegible]

문서번호: 출판연서조합 제2000-167호
출판처: 일출사 대표

[illegible]

1. 파주출판단지 조성사업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함

2. 파주출판단지 내 주차장 부지 6개소 2,800여평을 아주 저렴한 가격인 월 36만원대로 입주사 여러분이 분할 받으셔서 운영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주차장 부처 분양을 희망하시는 입주사는 아래 분양면적을 참고하시어 사용계획과 희망면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우리 사무국으로 서면 통보하여 주시면 귀사의 주차장 운영계획서와 함께 신청 접수순을 고려하여 심의, 결정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자 번	면 적(m)	면 적(평)	비고
60	1,514.4	459.1	
61	1,382.6	418.2	
62	1,241.9	373.7	
63	1,221.0	369.4	
64	2,165.7	655.1	
65	1,722.9	521.2	

불 입 : 주차장 부지 현황도면 1부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 기 록



- ⑨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심사 결과 통보 및 시상식 안내
- ⑩ — 2000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안내 및 실시 촉구
- ⑪ — 중소기업 경기지회에 2000년 3/4분기 조합원 변동보고서 제출
- ⑫ — 출판단지 주차장 부지 분할 희망면적 조사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북구 신원동 508 (파주출판단지) (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TEL 511-5566 ~ 511-5569 FAX 511-5569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19호 2000. 10. 17.
수 신 : 9사단장
참 조 : 수신지 참조
제 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 오폐수 무단 방류에 따른 조치 협조 요청

1. 연일 국토 방위에 어둠이 없으신 사단장님 이하 애하 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귀 사단의 작전지역 안에 조성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국가문화산업단지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자연과 문화, 산업이 어우러지는 자연 친화적인 산업단지로 개발을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식생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단지 내 갈대밭의 보전을 출판단지 상공의 생태를 파수하는 종리 사안으로 생각하고 자연보전을 최우선하는 개발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 사단의 애하 강안대대에서 출판단지내 오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어 천래의 갈대밭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지난 3월 7일과 공문(출판단지조합 제2000-30호)과 수차례에 걸쳐 구두로 강안대대에 오수배출에 따른 시정 조치를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照常출판단지 공시장으로 오폐수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상급부대인 귀 사단에 애하 강안대대의 오폐수 무단방류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오폐수 무단방류 시정조치 요구 공문을 강안대대에도 발송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오폐수 방류 현장사진 1매 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20 서울 강북구 신원동 508 (파주출판단지) (주)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TEL 511-5566 ~ 511-5569 FAX 511-5569

문서번호 : 출판단지 제2000-179호 2000. 10. 28.
수 신 : 파주시장
참 조 : 건설국장
제 목 : 산남공원 개발계획추진 권원의 건

안녕하십니까?

출판단지의 도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업임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파주시장 이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주출판단지 남단 자유로변에 위치해 있는 산남공원 개발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리적으로 산남공원은 출판단지와 연결해 있을 뿐 아니라 출판단지로의 접근으로의 기능적 요소를 분명히 지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개발성격을 출판단지의 첨단복합문화단지 조성이라는 명분과 떼어서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남공원 개발 초기 단계에서부터 출판단지 조합측과의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한 연계개발이라는 방식으로 그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출판단지와 파주시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후 파주시의 산남공원 개발 계획은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조합측의 의견이 전향적으로 반영되어 파주시의 건설적 편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용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150-740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3층)
담당 경제총괄팀 홍 정 호 전화 02) 785-0010(교관 322) 전송 782-8319
FAX 782-8319
기밀(정제) : 제 86 호 2000. 10. 14
수 신 : 각 조합 이사장
참 조 :
제 목 :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송부

중소기업기본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육성시책」을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본회 홈페이지(www.kfab.or.kr)에도 게재해 있으나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직무대행 전 준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청)

2000. 10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 시정되지 않고 있는 군부대 오폐수 무단 방류에 대해 9사단장과 강안대대에 강력 시정 촉구
- — 파주시에 출판단지와 산남공원 연계개발 제안
- — 2001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 송부
- — ① 첨부, 육성시책 표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39 서울 중구 동대문로 222 2층 222호
02-311-0200~02-311-0205 FAX 02-311-0206 E-mail :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 - 184호

2000. 11. 2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파주출판단지 조성공사 설계 변경 요청의 건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파주(가) 6631-1585호(2000.10.24) 및 출판단지 제2000-142호(2000.8.23), 제2000-164(2000.10.4)의 권인입니다.

2. 출판단지 전설은 21세기형 벤처산업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여 기존 도시개발에 적용되는 대로, 공법보다는 전문가의 디자인을 살리고 새로운 신규개발 제도를 활용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하는 것으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시설 인수자인 파주시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3. 출판단지에서 요청한 교량간선, 가로등주, 보도포장 재료변경 등에 관한 귀 공사의 의견에 대하여 출판단지 코디네이터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보내드려나 제검토하여 결의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주출판단지 코디네이터 의견서 1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사업단 검토의견서에 대한 의견

1. 교량 간선

- 보도형은 공기압과 같은 요철에서 상산하는 재료라는 것을 주지하여야 하며 무너나와 모든 철강이 거의 육질 재료로 생산 판매 되고 있음. 무엇보다도 재료가 육질 생산이라는 이유로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설계도면이 불합리한 부분은 요구 즉시 명확하게 할 것이며 기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협회에 따라 적절히 대처 할 것임

2. 가로등주

- 제시한 가로등주의 A 형식은 표준형이며 2mm 형식도 1mm 형식으로 변형이 가능한 것임을 주지하기 바람.

- B 형식은 주로 조광등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외 배치는 일반 가로등주의 배열과 같은 것임으로 이용주자나 본부심의 주리가 있음

3. 조명

- 온 단지 내의 건축물 사공은 동시에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일시에 완공할 예정이므로 수시 공사로 인한 도로 파괴의 우려가 거의 없음.

- 자전기 용량과의 관련은 적절한 유도선인 및 스프링클러 펌프의 설치로 충분히 조정 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정합

- 21 세기라는 문화의 시대에 건설되는 파주출판문화도시의 기존 도시 건설과는 차원이 다른 생태도시이며 문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의 도시 건축계에서 타당한 관심을 갖는 도시라는 사실을 주지 하여야 합니다. 국내외 학회와 수 많은 지도적 건축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건물에 실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바탕이 되는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이 전시대적이고 미숙한 형태를 답습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되어 자발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관행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의 새로운 환경을 만든다는 소임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코디네이터 송 효 상

송효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39 서울 중구 동대문로 222 2층 222호
02-311-0200~02-311-0205 FAX 02-311-0206 E-mail : PAJUCOOP@PAJU.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 제2000 - 186호

2000. 10. 31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장

제목 : 출판단지내 수로바닥 정비의 건

1. 출판단지 조성을 위하여 예쓰고 개선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파주(가)6631-1438(2000. 9.28), 출판단지조항 제2000-137호(2000. 8.22)의 권인입니다.

2. 출판단지내 수로 일부 구간(속길 No.75~No.82)의 바닥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골짜기라고 하는 귀 공사의 시공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는 면이 없지는 않으나, 학생군복들의 보금자리물 가격적 보존하려는 조항과의 의지는 물론 자연 친화적인 단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 귀 공사의 시공 방법에도 어긋나는 일로서 현은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수로가 소용이 될 수 있도록 최소 폭으로 시공해 주실 것을 제삼 요청하오니 당초 요청대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30-139 서울 중구 동대문로 222 2층 222호
02-311-0200~02-311-0205 FAX 02-311-0206 E-mail : PAJUCOOP@PAJU.CO.KR

출판단지조항 : 제2000-189호

2000. 11. 9.

수신 : 2차 지구 입주시 대표

제목 : 2차 지구 토지 분할 대금 선납할인제도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지난 '99년 6월 30일 계약 체결한 2차 지구 토지대금 중 미납 잔대금에 대하여 10%의 선납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지구 입주시 대표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법상 예금부분보장한도액(1인당 5천만원)의 적용을 받게 되며, 현재 시중금융기관의 1년단기 정기예금금리가 7%(세금20%포함) 수준이기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금 선납할인 제도를 활용하시면 경제의 이득을 보실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려나 선납 가능한 시기와 금액을 정확히 가능하시어 11월 18일까지 통보해주시면 토지공사와 협의하여 납부액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선납 예정 일 : 1차(12월 1일), 2차(12월 11일), 3차(12월 30일)

■ 선납대상금액 : 귀사의 확정계수 X 평당단가(671,000원)를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10%공제한 금액을 10%로 나눈 후 미납 6회분을 미한 금액에) 200평 X 671,000원 = 134,200,000원에서 계약금 10%공제 후 120,780,000원 ÷ 10회 = 12,078,000원 12,078,000원 X 8회 = 96,624,000원(선납 대상 금액)

■ 선납 할인은 : 약 9%(0.2%는 업무집행수수료, 0.8%는 토지대금경선세비금 - 선납할인율에서 제외)

■ 선납할인액 예시(2000년 12월 1일 ~ 2001년 6월 30까지) - 10%기준

구분	토지대금	선납할인액	선납시 납부총액	잔금 후 납부이자액
300평	209,489,876	14,980,028	138,143,848	(8,189,876)
500평	350,671,950	24,907,950	229,824,000	(15,171,950)
1,000평	698,249,952	50,722,083	459,647,869	(27,249,852)

■ 토지대금은 가산시선문중(2002년 2월)후 납부할 미납금액(3회)에 대한 10%의 할인이자가 포함된 금액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①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교량간선, 가로등, 보도포장 등의 설계 변경 요청
- ② 첨부, 건축코디네이터 의견서
- ③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수로바닥을 최소폭으로 정리해 줄 것을 거듭 요청
- ④ 토지대금 선납 할인제 안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6-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1 파주출판문화재단
전화 511-0500~511-0505 팩스 511-0506 E-mail : PAJUCO@PAJUCO.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 - 193호 2000. 11. 15.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의 건

1. 21세기 초일류 문화강국으로 도약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단지조항 제2000-173호(2000. 10. 30일 시행) 관련입니다.

2. 먼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실재를 현상설계 공모하여 지난 11월 11일 최종심사한 결과, (주)서평문화건축사사무소 안희삼과 김병운 교수팀 공동작업을 당선작에 선정, 이를 기본 설계(안)으로 확정하였기에 통보 드립니다.

3. 향후 사업추진은 언저별 투자계획에 의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2001년 봄부터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전체 배차 계획 중 순수 민간투자부분인 호 발부분을 제외한 전체 주요 시설물들을 단계별로 건축하고자 하오니 필요한 정부예산이 적기에, 그리고 원만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기본 설계(안)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6-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1 파주출판문화재단
전화 511-0500~511-0505 팩스 511-0506 E-mail : PAJUCO@PAJUCO.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 - 195호 2000. 11. 18.
수신 : 조광출판인쇄 대표 김희원 귀하
제목 : 사육 설계 건축가 선정 통보

1. 안녕하십니까.
2. 이미 이시는 것처럼 지난 10월에는 조광출판사 대표와 이사장 그리고 건축포디네이터 3자간에 사육건축 설계에 대한 협의를 마쳤으며, 11월 8일에는 선정된 섹터 아키텍트들의 건축복색에 대한 시연회를 갖고 복색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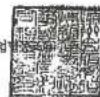
3. 이러한 진행과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2차지구 섹터 건축가와 함께 국내는 물론 외국 건축가들을 대상으로 입주사들의 사육설계를 전달할 개별 건축가를 일일이 선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사육설계를 진행할 건축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여 통보 드립니다. 선정된 건축가는 우리 건축계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귀사의 사육 설계에 커다란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선정된 건축가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전화로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오는 12월 2일에는 2차지구 사육설계를 담당하는 건축가와 입주사 대표가 함께 하는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문으로 통보해 드릴 예정이며 그동안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입주사 대표들께서 다함께 협력하여 설계제약을 적극 추진해 주셔야 공동성 실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현대한 계약서』와 『여구를 판단지 설계위탁서』 그리고 『연계별 설계 감리비표』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건축가 : 최현영
· 프토필 : 연세대 졸업
(주)일건서연건축사사무소 대표
국립경성대학교(교양관, 공학관, 기숙사, 마스터플랜) 외 다수

붙임 : 『현대한 계약서』
『파주출판단지 설계위탁서』
『연계별 설계 감리비표』 각 1부.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6-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1 파주출판문화재단
전화 511-0500~511-0505 팩스 511-0506 E-mail : PAJUCO@PAJUCO.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 - 197호 2000. 11. 20.
수신 : 2차지구 입주사 대표
제목 :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및 2차지구 건축가 작품전시회 개최 통보

1. 바쁘신 가운데도 출판단지 조성에 협조를 이어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2차지구 각 입주사별 사육설계 진행 건축가가 선정되어 건축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집행부에서는 2차지구 입주사 대표와 설계자를 담당할 전체 건축가가 함께 공동으로 서명하는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을 오는 12월 2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이날 입주사 대표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하시어 공동성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오는 11월 25일(토) 오후 2시에 2차지구 건축가 참여하는 건축가들의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여 입주사 대표와 건축가가 사육 설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단담의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작 발표와 시상식, 그리고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오니 입주사 대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행사명 :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행사
· 일 시 : 2000년 12월 2일(토) 14:00시
· 장 소 : 출판단지 인포룸
· 참 석 : 2차지구 입주사 대표 및 2차지구 전체 참여 건축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홍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6-125 서울 강남구 신사동 555-1 파주출판문화재단
전화 511-0500~511-0505 팩스 511-0506 E-mail : PAJUCO@PAJUCO.CO.KR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 - 200호 2000. 11. 30.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파주출판단지 개발사업소장
제목 : 녹지 수로 (2) 시공에 관한 의견 제출

1. 출판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귀 공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2000년 6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추가제역인 주거시설지역 사선에 위치한 녹지수로 (2) 시공에 관하여 출판단지 건축포디네이터(건축가 송호성)와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오니 시공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가. 전체적으로 녹지수로 중앙부분을 깊게 굴착하는 시공은 피하고 녹지수로 전체 폭이 잔잔한 경사를 이루면서 중앙부분을 낮게 하여 흡수시 물이 자연스리게 흐를 수 있도록 시공 요망.

나. 도로명과 부본은 폭면(2~1200mm X 3mm) 시공보다는 대형 U형 육구로 시 설하고 상부는 그레이팅 뚜껑을 덮어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시공 요망.

다. 녹지수로의 횡단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고 침하상 등속 팽창 넓은 지역의 흡수시 최대강수량을 수용할 수 있는 단면이 되도록 수리계산이 되어야 할 것 임.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
이사장 이기홍



- ① — 문화관광부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 당선작 결정 통보
- ② — 2차지구 입주사 대상, 개별 사육설계 건축가 선정 통보
- ③ — 2차지구 공동설계 계약 조인식 및 2차지구 건축가 작품 전시회 개최 안내
- ④ — 토지공사 파주사업단에 녹지수로(2) 시공에 대한 우리조합 의견 제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02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1 5층 P-PAJUCO@NATE.COM
02-557-0266 ~ 4 FAX 02-557-01000 E-MAIL P-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 제2000-205호

2000. 11. 30.

수신 : 행정자치부 장관

참조 : 지역경제진흥관

제목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지반조사 실시계획 통보 및 참여 촉구 의견

1. 안녕하십니까?

2. 국가산업단지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현재 2001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설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단지 위치가 연안지반인 관계로 기초부분의 조성과 건축물 기초 설계 및 시공을 위한 단지 전체의 지반조사를 철부(공고번호 2000-1)와 같이 일괄공고를 통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3. 따라서, 단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공공시설물(파출소/소방서/주요대형도서관/정화장 등)의 건축을 위한 지반조사도 함께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당 후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철부 시공을 연일의 검토를 거쳐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공동 지반조사를 통하여 경제성을 추구하고, 출판단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초 도시적 기능을 고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급변 저질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절차이므로 꼭 함께 참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지반조사 용역 (인)양행철 공고 1부. - 끝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026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1 5층 P-PAJUCO@NATE.COM
02-557-0266 ~ 4 FAX 02-557-01000 E-MAIL P-PAJUCO@NATE.COM

문서번호 : 출판단지조항 제2000-214호

2000. 12. 11.

수신 : 한국토지공사 파주사업단장

참조 : 개발부상

제목 : 파주출판단지 산업단지 지반조사 시행 통보 및 공사현장 협조 요청

1. 출판단지 조성사업에 애쓰시는 귀 사업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우리 조합에서는 2001년 개발사측 건축공사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건축설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조합에서는 1단계 지역의 산업시설용지 및 문화시설, 상업시설용지 등 전체 용지의 지반조사를 실시, 건축기초에 반영하기 위해 2000년 12월 13일부터 각 필지별 지반조사를 일괄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3. 이미 귀 사업단에서 당초 보육공사 설계시 도로와 주요구조물, 그리고 일부 지역에 대해 지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급변 우리조합에서 실시하는 지반조사와 한층 입부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귀 사업단의 보육공사가 서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현장에서의 협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UNIVERSITY OF
NORTH LONDON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기용 이사장 귀하

파주 출판단지 사업 계획이 진전되고 있고 각 출판사들이 계획된 초기 지반안에 한하여 건축 계획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주 출판도시 설계 팀의 한 일원으로서 또한 객관적인 입장의 외부자로서 저는 파주에 다시 한번 방문하여 파주 도시 랜드마크인 인프라스트럭처의 본 설계 개념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보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현재 파주 사업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별 설계가들을 만나 그들의 기존 단지 설계의 주요 개념에 대해 더 나은 이해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용 이사장님의 회포에 감사드립니다.

Florian Beigel 28-11-00

독일대학 건축 연구소 대표 건축가
Florian Beigel

Mr. Ki Ung Yi
Chairman,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506, Shinsa-dong, Kangnam-gu
Seoul, Korea

London, 28. November 2000

Dear Mr. Yi

I'm pleased to hear the Paju project is making progress and that the publishers are beginning to plan their buildings within the master plan that we originally developed for the cooperative.

I'd like to propose to revisit the project and to personally see on site what I can do to strengthen the original design concept of urban landscape infrastructure at Paju.
It is perhaps useful for myself, as an objective outsider and a member of the original Paju design team, to speak with the architect and sector architect participants in the current Paju projects. This could give the various architect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main concepts of the original design.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Yours sincerely,

Florian Beigel

Prof. Florian Beigel, Architect
Director, Architecture Research Unit.

cc. Kim Jong Kyu, Architect

Architecture Research Unit
Faculty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tudies

166 - 226 Holloway Road London N7 8DB Telephone 071 753 5036 Fax 071 753 7834

University of North London is a Charity and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Registered in England No. 400514. Registered Office No. 128 Holloway Road London N7 8DB

Architecture Research Unit
Faculty of Environmental and Social Studies

⑩ — 행정자치부를 비롯, 출판단지 공공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공동지질조사 참여 촉구

⑪ — 토공파국사업단에 파주출판단지 공동지반조사 시행에 따른 공사현장 협조요청

⑫ — 건축가 플로리안 베이겔씨로부터 파주 방문 회상 서한

⑬ — 번역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021 서울 강남구 강남동 225-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2-950-1100~1102 FAX 02-950-1103 E-MAIL Pajubookcity.co.kr

문서 번호 : 출판단지조합 제2000 - 215호
수신 : 문화관광부 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추진계획 홍보 요청의 건

2000. 12. 11.

1. 파주출판단지 조성에 관심과 원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귀 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출판단지조합 제2000-173호(2000. 10. 30.)와 출판단지조합 제2000-193호(2000. 11. 15.) 편입입니다.

2. 먼저 출판도시 건설에 있어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귀 부에서도 주요사업으로 책정, 추진할 만큼 중요한 사안임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조합에서는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을 위해 수정기본계획(안)을 수립, 작성하고 편입설계 공모를 통해 기본설계(안)를 확정하여 귀 부에 통보 드린바 있습니다.

3. 먼저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현상설계(안)에 대해 우리 조합에서는 공모된 당선자인 (주)시명종합건축사사무소+김영문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을 체결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그러나 우리 조합에서 통보한 사항에 대해 귀 부로부터 아무런 조치도 없이 업무추진 방법 설정에 혼란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공사착공을 앞두고 향후 국고 지원 등 건립계획 추진에 있어도 지극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한 세부 방침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DEC. 13. 2000 9:54PM TEL: HANJU 3704-9629

'문화의 세기, 문화가 미래를 연다'

문화관광부

우 110-708 / 서울 송파구 송파동 68-1 / 전화 02)3704-9623 / 전승 02)3704-9629
출판산업과 과장 신승인 시가관 최관진 담당자 최규주(cj0000@kci.go.kr)

문서번호 편입86000-8134

시행일자 2000. 12. 11 (1년)

수신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참조

제목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 최종예 대안 회신

1. 출판단지 178(2000. 10. 30.) 및 193(2000. 11. 16.)의 관련입니다.

2.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 수정 기본계획 제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내에 건립 계획이었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는 예산당국에서 건립규모의 축소, 민간자본의 50%이상 투자, 건립후 운영대학 마천 등등 요구하였으나, 그에 부합한 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98, '99년도에 걸쳐 2천 1백 만원의 예산이 불용조치 된 바 있으며, 2000-2001년에는 예산당국에 요구하는 건립계획이 마련되지 못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나. 귀 조합에서 위 관련으로 제출한 수정기본계획을 검토한 결과 예산당국이 요구하는 사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는 바, 예산당국은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건립계획으로는 예산지원 문제를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이점 모두 반영한 건립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예산당국에 지원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문화관광부장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021 서울 강남구 강남동 225-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2-950-1100~1102 FAX 02-950-1103 E-MAIL Pajubookcity.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221호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참조 : 문화산업국장
제목 :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에 관한 문의

2000. 12. 19.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부의 송신 제86000-3134호(2000.12.11) 및 출판단지 제2000-173호(2000.10.30), 제2000-193호(2000.11.15), 제2000-215호(2000.12.11) 편입입니다.

3. 우리 조합에서 제출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수정 건립계획서에 대하여 예산당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해진 내용을 아래의 같이 문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립규모의 축소에 관한 사항

'97년도 7월 기본계획 구상시 문화전시장의 장 4,680평, 문화정보의 장 1,760평, 문화교육의 장 2,120평의 합계 8,560평에 대한 일부 기본설계가 '98년도 예산으로 확보되었으나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업무 협의시 문화관광부에서 축소할 것을 요청하여 3,540평(주차장 453평 포함)으로 축소하고 주차계획을 조정하였으나 건립규모가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바, 예산당국의 규모 상정기준과 적정 규모를 제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함.

나. 민간 자본의 50%이상 투자에 관한 사항

수정 제출한 주차계획서에 공매부담으로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이행할 것을 제시 할바 있음.

다. 건립 후 운영대학에 관한 사항

건립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출판단지가 완성된 후 각종평사 유치와 사무실임대 등양하는 방안은 추후 작성 2000. 2. 15까지 제출할 계획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COOPERATIVE OF PAJU BOOK CITY

125-021 서울 강남구 강남동 225-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전화 02-950-1100~1102 FAX 02-950-1103 E-MAIL Pajubookcity.co.kr

출판단지조합 : 제2000 - 220호
수신 : 경기도지사
참조 : 광업지연과장
제목 : 공장 총 이용량의 설정에 관한 요청

2000. 12. 19.

1. 귀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는 1997. 3. 31. 전교부 고시 제 1997-95호로 지정 노선된 "21세기 고도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 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집적화하여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업협동조합에서는 1998년 8월 한국토지공사와 산업용지 공급 분량 계약을 체결하여 2002년 5월 시범지구 업무용 목표용지 입주사 건물의 설계작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3. 따라서 2001년 1월 건축허가 협의문 앞두고 수도권 제지법에 의한 공장 총 허용량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공장 건축면적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만일 미반영시 2001년 귀도의 공장 총량 계획에 포함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립추진현황 1부 (2매 등)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용



- ① — 문화관광부에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추진 계획 홍보 요청
- ② — ②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회신
- ③ — ②에 대한 우리조합의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건립계획 문의
- ④ — 경기도에 파주출판단지 입주업체 공장 총 허용량 설정 요청

적인생략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우편번호 : 442 - 070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842-9번지 (삼성생명 13층)
 담당 : 고인석 전 화 : (031) 222 - 4621/5 전 송 : (031) 221 - 4452

기합(검기) : 제488호 2000. 12. 18

수 신 : 협동조합이사장

참 조 :

제 목 : 제28회 상공의 날 포상대상자 추천의뢰

제28회 상공의 날 기념행사에서 모범 상공인 및 모범관리자 등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귀 조합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
 - 모범상공인(기업체 부사장직급 이상으로 5년이상 동종업종 사업경력자)
 - 모범관리자 및 사원(기업체내 전무이사 직급 이하로 3년이상 근무중인자)
2. 선정방법 : 정부의 포상추천안내 6의 제출서류를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양식은 본회 인터넷홈페이지(www.kfsb.or.kr)의 「행사/공지」란에서 다운받거나 우리 지회로 연락바람.

3. 선정기간 : 12. 28(목)한



유 청 : 제28회 상공의 날 유공자 포상요령 1부, 붙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경기지회
 지 회 장 안 재 환

각종 계약서

①

출판단지가 본격 조성되면서 진행되었던 각종 계약서를

순차적으로 게재하였다.

앞에서 부터

출판 단지 인프라를 신축계약서

시범지구 건축설계지침 용역 계약서

출판단지 조성업무 관련 조정역 위탁계약서

김동수 가족 별채 이건 공사 도급계약서

위대한 계약서

民間建設工事 標準都給契約書

坡洲出版團地 인프라를 新築


工事都給契約書


1. 工事名: 坡洲出版團地 인프라를 新築工事
2. 工事場所: 京畿道 坡州市 交河面 山南里 出版團地敷地內
3. 工事期間
 發工: 1999 年 5 月 1 日
 竣工: 1999 年 7 月 31 日
4. 都給金額: 一金 四億 圓整
 共給價額: 一金 參億六千參百六拾參萬八千參百六拾參 圓整
 附加價額稅額: 一金 參千六百參拾八圓參千八百參拾七 圓整
5. 先給: 一金 八千圓 圓整
6. 完成部分의 時期 및 方法: 2回 現金
7. 瑕疵擔保 責任期間: 5 年
8. 瑕疵擔保 保證金率: 契約金額의 3/100(3%)
9. 延滞罰金率: 契約金額의 1/1,000(0.1%)




鄭給人及 受給人은 이 契約書 및 工事都給契約條件과 別添 設計圖 및 示方書에 의하여 工事都給契約를 締結하고 그 증거로 이 契約書 및 圖章文書 2冊 作成하여 각 1冊씩 保管한다.

1999 年 4 月 29 日

鄭給人 住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동 506
 파주출판문화경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姓名: 이 사 장 이 기 용 증 

受給人 住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84-17
 삼원종합건설 주식회사
 姓名: 대표이사 김 현 

受給保證人 住所:
 姓名: 

坡洲出版文化情報産業團地 事業協同組合

第1條(總 則) 都給人(以下“甲”이라 한다)과 受給人(以下“乙”이라 한다)은 대등한 立場에서 서로 協力하여 信義에 따라 誠實히 契約를 履行한다.

第2條(保證人) 이 契約에 關하여 保證人을 세우는 경우에 그 保證人은 當事者의 契約不履行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 當事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3條(工事監督員) ① 甲은 자신을 代理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掌하는 者(以下“工事監督員”이라 한다)을 選任할 수 있다.

1. 施工一般에 대하여 監督하고 立會하는 일
2. 工事의 材料와 施工에 대한 検査 또는 試驗에 立會하는 일
3. 工事의 既成部分 検査, 竣工検査 또는 工事目的物의 引渡에 立會하는 일
4. 其他 工事監督에 關하여 甲이 委任하는 일

② 甲은 제1項의 規程에 의하여 工事監督員을 選任한 때에는 그 事實을 즉시 乙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乙은 工事監督員의 監督 또는 指示事項이 工事進行에 阻害이 不爲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甲에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第4條(現場代理人) ① 乙은 若工價에 現場代理人를 任命하여 이를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現場代理人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야 하며, 施工에 關한 一切의 事項에 대하여 乙을 代理한다.

第5條(工事決定工程表의 工事價格 內譯書) 乙은 契約締結後 若工申書提出時까지 設計圖面(圖面, 示方書, 工事內譯書, 現場說明書 등을 包含한다. 이하 같다)를 基礎로 작성한 工事決定 工程表와 工事價格 內譯書를 甲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6條(先 金) ① 甲이 先金을 支給한 경우 乙은 이를 契約目的外에 使用할 수 없으며, 勞賃支給 및 資材確保에 우선 使用하여야 한다.

② 先金은 既成部分의 代價를 支給할 때에다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精算한다.

$$\text{先金精算額} = \text{先金額} \times \frac{\text{既成部分의 代價}}{\text{契約金額}}$$

第7條(材料의 検査 등) ① 工事に 使用할 材料中에서 甲이 品目을 指定하여 検査를 要하는 경우에는 乙은 使用前에 甲의 検査를 받아야 하며, 設計圖面과 相異하거나 品質이 劣低히 低下되어 不適合된 材料는 甲과 協議하여 다시 検査를 받아야 한다.

② 乙은 材料의 検査에 所要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며, 検査 또는 再検査 등을 理由로 契約期間의 延長을 要求할 수 있다.

③ 工事に 使用하는 材料中 組立 또는 試驗을 要하는 것은 甲의 立會下에 그 組立 또는 試驗을 하여야 한다.

④ 水中 또는 地下에서 行하여지는 工事나 竣工後 外部에서 確認할 수 없는 工事は 甲의 參與없이 施工할 수 있다.

第8條(支給材料와 資材品) ① 契約에 의하여 甲이 支給하는 材料와 資材品은 工事決定工程表에 示한 工事日程에 支障이 없도록 速期에 引渡되어야 하며, 그 引渡場所는 若方書 등에 明한 바가 없으면 工事現場으로 한다.

② 乙은 支給材料 및 資材品의 品質 또는 規格이 施工에 適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즉시 甲에게 이를 通知하고 그 代價를 要求할 수 있다.

③ 材料支給의 遅延으로 工事が 延滞된 場合가 있을 때에는 乙은 甲의 書面承諾을 얻어 自가가 保有한 材料를 代替 使用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現品 또는 使用當時의 價格을 連帶없이 乙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④ 乙은 甲이 支給한 材料와 機械·器具 등 資材品을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 管理하여야 하며, 契約의 目的을 履行하는 期間中 使用하여야 한다.

⑤ 乙은 工事內容의 變更으로 인하여 必要하게 된 支給材料 또는 使用完了된 資材品을 連帶없이 甲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第9條(安全管理 및 災害豫備) ① 乙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安全施設의 設置 및 保險의 加入 등 적당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때 甲은 契約金額에 安全管理費 및 保險料 上金額을 計上하여야 한다.

② 工事現場에서 發生한 産業災害에 대한 責任은 乙에게 있다.

다만, 設計上의 瑕疵 또는 甲의 要求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災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0條(應急措置) ① 乙은 災害防止를 위하여 特別緊急하다고 認定된 때에는 미리 緊急措置를 취하고 즉시 이를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甲은 災害防止 其他 工事의 施工上 緊急 不爲이라고 認定할 때에는 乙에게 應急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應急措置에 所要된 經費는 實費를 基準으로 甲과 乙이 協議하여 負擔한다.

第11條(工事期間의 延長) ① 甲의 責任있는 事由 또는 天災地變, 不可抗力의 事變 등 乙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工事進行이 延滞되는 경우 乙의 工事期間의 延長을 甲에게 要求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依據 工事期間이 延長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現場管理費 등 追加經費는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여 調整한다.

第12條(不適合한 工事) ① 甲은 乙이 施工한 工事중 設計圖面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이 있을 때에는 이의 是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乙은 連帶없이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 設計圖面에 適合하지 아니한 工事が 甲의 要求 또는 指示에 의하거나 其他 乙의 責任으로 生할 수 없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乙은 그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13條(不可抗力에 의한 損害) ① 乙은 検査를 마친 既成部分 또는 資材品에 대하여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즉시 그 事實을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甲은 第1項의 通知를 받은 경우 즉시 그 事實을 調査, 確認하고 그 損害의 보전에 關하여 乙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에 協議가 成立되지 않은 때에는 建設廳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廳紛爭調停委員會의 조정에 따른다.

第14條(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조정) ① 設計圖의 內容이 工事現場의 狀態와 一致하지 않거나, 不分明, 漏落, 誤謬가 있을 때에는 設計를 變更한다.

② 第1項의 設計變更으로 인하여 工事量의 増減이 發生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基準에 의하여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1. 増減된 工事의 單價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價格 內譯書上의 單價를 基準으로 한다.
2. 工事價格 內譯書에 包含되어 있지 아니한 新設費目의 單價는 設計變更 當時를 基準으로 算定한 單價를 한다.
3. 増減된 工事に 대한 一般管理費 및 利潤은 契約締結 當時의 比率에 의한다.

第15條(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調整) ① 契約締結後 120일 이상 經過한 경우에 材料 工事に 대하여 工事價格 內譯書에 包含되어 있는 品目 또는 費目의 價格 등의 變動으로 인한 동작적이 殘餘工事に 해당하는 契約金額의 100분의 5 이상인 때에는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金額의 調整은 物價變動後에 導入되었거나 提供된 材料 및 役務의 代價에 適用하지, 物價變動이 있는 날 以前에 이미 契約이행이 完了되었어야 할 部分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甲의 責任이 있는 事由 또는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延滞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6條(其他 契約內容의 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調整) 第14條 및 第15條에 의한 경우 외에 契約內容의 變更으로 契約金額을 調整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그 變更된 內容에 대한 實費를 基準으로 當事者間の 合意에 의하여 調整한다.

第17條(既成部分給) ① 契約書에 既成部分給에 關하여 明示한 때에는 乙은 이에 따라 既成部分에 대한 検査를 要請할 수 있으며, 이때 甲은 連帶없이 検査를 하여야 한다.

② 乙은 第1項의 檢査 結果와 第5條의 工事價額 內譯書의 單價에 의하여 算出한 既成金額을 請求할 수 있으며, 甲은 契約書에 明示된 日에 따라 支給하여야 한다.

③ 甲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既成金額의 支給을 遲延하는 경우에는 第19條 第3項의 規定에 準用한다.

第18條(雜 工) ① 乙은 工事を 完成한 때에는 甲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甲은 通知를 받은 후 應辦일이 乙의 立會下에 檢査를 하여야 한다.

② 乙은 第1項의 檢査에 合格하지 못한 때에는 應辦일이 이를 補修 또는 改造하여 다시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은 檢査의 結果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再檢査를 請求할 수 있으며, 甲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第19條(代金支給) ① 乙은 甲의 竣工檢査에 合格한 후 즉시 剩餘資材, 材料, 工具 등을 撤去, 반출하는 등 工事現場을 整理하고 工事代金의 支給을 甲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 甲은 特別이 있는 한 契約의 目的物을 引渡함과 동시에 工事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甲은 工事代金을 支給期限內에 支給하지 못하는 경우 그 未支給金額에 대하여 支給期限의 다음날부터 支給하는 날까지의 日數에 市申 銀行의 一般貸出時 適用되는 延滞利子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利子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20條(履行遲滯) ① 乙은 竣工期限內에 工事を 完成하지 아니한 때에는 每 應辦日 數마다 延滞償金率을 契約金額에 곱하여 算出한 金額(이하 '延滞償金'이라 한다)을 甲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戰爭, 罷勞, 停業, 防疫를 위한 出入制限, 其他 乙의 責任으로 生じ 得는 事由로 遲滯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경우 性質上 分解할 수 있는 工事의 完成部分으로서 甲이 檢査를 거쳐 引 渡한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은 契約金額에서 扣除한다.

③ 甲은 乙에게 支給하여야 할 工事代金에서 延滞償金を 扣除할 수 있다.

-7-

④ 乙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事項을 遵守하여야 한다.

1. 當該工事を 應辦일이 中止하고 모든 工事機具를 工事場으로부터 撤去한다.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材料의 殘餘分과 貨品은 應辦일이 甲에게 返還한다.

第23條(乙의 契約解除 등) ① 乙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 또는 禁止할 수 있다.

1. 工事內容을 變更함으로써 契約金額이 100%의 40이상 減少된 때
2. 甲의 責任있는 事由에 의한 工事의 中止期間이 90일을 超過하거나 契約書上의 工事 期間이 100%의 50을 초과할 때
3. 甲이 正當한 理由없이 契約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工事의 適正履行이 不可能하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解除 또는 禁止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乙에게 通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第24條(損害賠償 등) ①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이 解除된 때에는 甲과 乙은 應辦일이 既成部分의 工事金額을 精算하여야 한다.

②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契約의 解除 또는 禁止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相對方에게 그에 對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權利義務의 讓渡) 이 契約에 의하여 發生하는 權利 또는 義務는 第3자에게 讓渡하거나 委任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書面承諾과 保證人의 同意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6條(法令의 遵守) 甲과 乙은 이 工事의 施工 및 契約의 履行에 있어서 建設業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을 遵守한다.

第27條(紛爭의 解決) ① 契約에 對한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契約에서 발생하는 問題에 對한 紛爭은 契約當事者가 雙方의 合意에 의하여 解決한다.

② 第1項의 合意가 成立되지 못한 때에는 當事者는 建設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建設業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의 調停을 申請하고 同 委員會의 調停에 따른다.

第28條(特別事項) 其他 이 契約에서 정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合意하여 附屬의 特別을 訂할 수 있다.

-9-

第21條(瑕疵擔保) ① 乙은 契約書에 정한 瑕疵補修 保證金額을 契約金額에 곱하여 算出한 金額(이하 '瑕疵補修保證金')을 竣工檢査後 그 工事의 代價를 支給할 때까지 現金 또는 各號의 證券로서 甲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1. 建設業組合의 保證書

2. 保證保險의 證券

② 乙은 竣工檢査를 마친날로부터 契約書에 정한 瑕疵擔保 責任期間中 當該工事に 發生하는 一切의 瑕疵를 補修하여야 한다.

다만, 工事目的物의 引渡後에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이나 乙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瑕疵補修의 請求를 받고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乙의 負擔으로 瑕疵補修를 行할 수 있다.

이때 發生하는 費用은 瑕疵補修 保證金으로 우선 充當하고, 不足額이 있는 경우에는 乙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瑕疵補修 保證金은 瑕疵擔保 責任期間이 終了한 후 乙의 請求에 의하여 返還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甲이 直接 履行한 瑕疵補修 費用은 扣除한다.

第22條(甲의 契約解除 등) ① 甲은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 또는 禁止할 수 있다.

1. 乙이 正當한 理由없이 約定한 竣工日을 超過하고도 工事に 着手하지 아니한 경우
2. 乙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여 竣工日內에 工事を 完成할 可能性이 없음이 明白한 경우
3. 其他 乙의 契約條件 違反으로 인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
4. 第1項의 規定에 위한 契約의 解除 또는 禁止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乙에게 通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특약사항

1. 제약시 제시되는 도면과 사양서는 설계단장을 경계로 한다. (철부내역 참조)
2. 공사진행 하연시 현장에서 공사감독원이 도면과 사양서에는 수정 보완한다.
3. 공사일률

- 1) 건축공사 : 건축 목가사방식의 공사개요
- 2) 전기공사 :
 - 전기사방식과 도면
 - 외선인입 공사(한전부담금 포함)
- 3) 설비공사 :
 - 설비사방식과 설계도면
 - 지하수개발 1개소

4) 건축물주변 도로공사와 하수도시설의 대외벽과의 연결 공사는 별도

파주출판단지 INFORMATION CENTER 신축공사 변경사항장리

공 품	단	변
1. 기초공사	300메트*500*1000급기초	300메트*500*500*1000 급등 부분만
2. 철구조	기둥 250*250*3*14 보 300*200*10*14	200*200*8*12 (전체부재 변경) 400*200*8*12 (5000이상 제외)
3. 외벽철근공사	2T 철근	1.2T 철근 (신도원지 관내)-철합부 제외
내부상방판	3T	일반철판 1.6T
1층 바닥천장	내부상방판 3T	삭제, 압연철합 50T 마감 (우체단 단열)
4. 천정공사	익스텐디트 매달	삭제, 페인트 마감
5. 바닥공사	복도철판 15*30T	15*15T
	전시실합판 30T	18T
	마감아루 40T	30T
6. 유리공사	12T 합판유리	일반 8T
7. 스틸방호	가공비	리자이프
8. 전기공사	수입물거주	국산물거주
	알티레일	삭제
9. 설비공사	설계단 대로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축설계지침 작성에 관한 용역 계약서

1999. 4.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6. "갑"과 "갑"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① "갑"과 "갑"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본분을 유지하고, "을"은 용역실시과정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여 자문한다.

제5조(계약의 범위) : "을"은 "갑"이 제시하는 과업지침서(첨부 제2)의 과업 내용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본 계약 제1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6조(용역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 : ① "갑"은 다음의 경우에 "을"에게 진행중인 용역의 중지 및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을"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특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2. "을"이 고의적으로 용역업무를 지연시키거나 계약 기간내에 업무를 완료시킬 수 없다고 판단
되었을 때
3. "을" 또는 그 사용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자리에 불출하거나, 업무의 진행을 방해 또는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4. "을"이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용역의 수행을 포기한 때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②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진행중인 용역의 중지 및 해지를 할 수 있다.
①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보수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었을 때
2. "갑"이 계약 당시 제시한 설계 요구 조건을 현저하게 변경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지체적으로
불가능한 때
3. "갑"이 "을"의 손해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때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여 "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때

제7조(용역의 중지 및 계약 해지의 보수) : 상기 제6조 제①항 5호와 제②항 5호에 의하여 용역제
약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시 "을"이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설
비 점산하도록 하며, 제6조 제①항 제1·2·3·4호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시
"을"이, 제6조 제②항 제1·2·3·4호의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중지 및 계약의 해지시 "갑"이 모든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8조(권리양도 및 하도급 금지)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
로 할 수 없으며,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설계 하도급 시킬 수 없고, 또한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완책임) : 최종 용역실시결과를 인도하기 전 견본작품이 누락, 기타 본 계약에 위반사항이 있
다고 판단될 때 "갑"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구에 응하
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변경) : "갑"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해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을"과 협
의하여 용역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갑"은 용역 내용 변경에 따른 비용을 "을"과 협의하여

용역 계약서

- 용역 명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 건축설계지침 작성에 관한 용역
- 계약금액 : 금 구천만원정(W90,000,000) : 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일 : 1999. 4. 15.
- 착수일 : 1999. 4. 20.
- 납품완료일 : 1999. 8. 20.

상기 용역에 대하여 발주자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용역수행자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도희 대표이사 송효상(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다 · 을 ·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시범지구의 건축물 배치안, 공공 공간 및 공공
시설물에 대한 기본 작성, 인접 건축물간의 공간계획에 대한 지침, 개별 건축의 공공에 미치는 부
분에 대한 최소 규격 설정, 수로변을 중심으로 하는 조경지침 등에 관하여 향후 시행될 건축설계
에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단지 입주자의 자율적 규제장치로 활용하는 지침서를 제작하
는 것임.

제2조(과업 수행방법) : "을"은 "갑"이 제시하는 과업지침서(첨부 제2)에 의거, 과업추진계획서를 제출
한 후, "갑"과 협의하여 과업을 진행하며, "갑"과 "을"은 수시로 추진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비의 지불 방법) : "갑"은 용역업무를 보수를 다음과 같이 "을"에게 지불한다.

- 1) 계약 체결시 선금으로 보수액의 30%(W27,000,000 부가세 별도)
- 2) 중간보고 완료시 보수액의 30%(W27,000,000 부가세 별도)
- 3) 용역 완료에 따른 결과를 제출시 보수액의 40%(W36,000,000 부가세 별도)

제4조(자재의 제공 및 성실 의무) : ① "갑"은 "을"이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1. 소요시설 및 이에 관련된 요망사항
2. 설계진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도시계획확인원 등)
3. 대지 측량도(단지 경계 명시 측량도, 현황 측량도 등)
4. 도록 관련 사항(지침조서시 등)
5. 교통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등

- 2 -

지불한다.

제11조(성과물) : 성과물의 종류와 제출 수량은 용역성과물 내용 일람표(첨부 제1)와 같다.

② "갑"의 귀책사유 또는 요청

제12조(지체책임) : "을"이 계약기간까지 성과물의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는 제1항에 대하여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갑"은 이를 용역비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용역이 지연될 때 "을"의 요청에 의하여 용역기간을 "갑"
으로부터 인가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계약이행 보증) : ① "을"은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인 금액을 용역비의 10%에 해
당하는 금액으로 "갑"을 피보통자로 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또는 "갑"이 인정하는 저급보증
서를 계약 체결 후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계약조건대로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갑"은 제1항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저급보증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갑"의 손해배상 청구권 기타 이 계약에 의한 제3자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을"은 선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관할 법원) :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와 상호 합의 결과에 따른다.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999. 4. 19.

갑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06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 사 장 이 기 록

을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15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도희
대 표 이 사 송 효 상

용역상과물 내용 일람표

상과물 내용은 보고서, 도면, 투시도, 모델로 구분된다.

	성 과 물	수 량	비 고
1. 보고서	- 중간보고서	30부	A4 50면 마스터 인쇄
	- 최종보고서	100부	A4 200면 이상 마스터 인쇄
2. 도 면	- 배치도	1매	축척 1/400
	- 가로지척도	1매	축척 1/400
	- 조경계획도	1매	축척 1/400
	- 부분상세도	1매	축척 1/200
3. 기 타	- 투시도	1매	채색, 액자
	- 모델	1개	축척 1/400
	- 보고 설명용 자료	3부	B4 규격 10면 이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업무 관련
조정역 위탁계약서

1999. 1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5 -

제 1 조 (총 칙)

이 계약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되는 제반업무의 조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 2 조 (위탁자와 수탁자)

① 이 계약은 위탁자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춘(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탁자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토제 데포르사 송효상(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후 "을"은 상임과 비상임 조직으로 구성된 사명제회사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3 조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수행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25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 4 조 (위탁업무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출간단지 조성업무 진행 및 부대사업의 협의자문
2. 건축지침의 변경 보완 협의
3. 개별 건축가 그룹의 협의제 운영
4. 개별 건축 설계 및 시공 조정
5. 컨실턴트 그룹 협의제 조정
6. 단지 조성공사 설계시 검토 및 의견제시
7. 전시, 세미나, 기행 등의 진행
8.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정보 통보

제 5 조 (보수의 지불방법)

① "갑"은 위탁업무의 보수를 매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상해안원(₩1,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불한다.

② 사명 제회사의 비상임 조직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자료의 제공 및 비밀의무)

제 1 조 (총 칙)

이 계약은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의 조성에 수반되는 제반업무의 조정역할 수행에 필요한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다.

제 2 조 (위탁자와 수탁자)

① 이 계약은 위탁자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춘(이하 "갑"이라 칭함)과 수탁자인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이토제 데포르사 송효상(이하 "을"이라 칭함)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계약후 "을"은 상임과 비상임 조직으로 구성된 사명제회사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 3 조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수행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2000년 11월 25일까지 12개월로 한다.

제 4 조 (위탁업무범위)

"을"이 "갑"에게 제공할 위탁업무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출간단지 조성업무 진행 및 부대사업의 협의자문
2. 건축지침의 변경 보완 협의
3. 개별 건축가 그룹의 협의제 운영
4. 개별 건축 설계 및 시공 조정
5. 컨실턴트 그룹 협의제 조정
6. 단지 조성공사 설계시 검토 및 의견제시
7. 전시, 세미나, 기행 등의 진행
8. 정기적인 의견 수렴 및 정보 통보

제 5 조 (보수의 지불방법)

① "갑"은 위탁업무의 보수를 매월 말일까지 현금으로 상해안원(₩1,000,000-부가가치세 별도)을 "을"에게 지불한다.

② 사명 제회사의 비상임 조직에 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 6 조 (자료의 제공 및 비밀의무)

- ① "갑"은 "을"이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제공하고, "을"은 계약기간 종료 후 "갑"이 제공한 중요 자료는 즉시 반납한다.
- ② "갑"이 필요한 자료물 "을"에게 요구할 때에는 통상적인 업무 외의 자료수집, 용역, 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 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 ③ "갑"과 "을"은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신뢰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을"은 정기 보고서에서 의도한 바를 "갑"에게 설명하여 자문한다.
- ④ "을"은 정기적인 협의 일정을 정하여 제4조 자료의 업무추진 상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의 명도 및 변경 등)

-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 이 계약상의 권의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제직인정, 관리업무의 개폐, 한계지인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위탁업무의 수행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8 조 (이행지체)

"을"은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탁업무를 약정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위탁기간의 연장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갑", "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 9 조 (계약해제, 회지)

- ① 천재지변, 사설의 취소, 연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 회지할 수 있다.
- ② 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지한다.
- ③ 계약을 해제 회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뜻을 미리 14일전까지 통지한다.

제 10 조 (위탁업무 중단시의 보수지급)

- 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는 협의에 의하여 산정한다.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 환불한다.

제 11 조 (비밀보장)

"갑"과 "을"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보고서 제출)

"을"은 제4조의 각호에 대한 추진상황과 결과를 서면보고서로 작성하여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10일 이내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 13 조 (통지방법)

- 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통지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송달한 것으로 한다.

제 14 조 (회칙)

이 계약문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 하여 결정한다.

위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999년 11월 26일

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당동 454-2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을 :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정동 1-115
주식회사 중앙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송호

정읍 김동수 가옥 별채 이건 공사도급 계약서

1999. 11.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民間建設工事 標準都給契約書

- 공 사 명 : 정읍 김동수 가옥 별채 이건 공사
 - 공 사 장 소 : 경기도 파주시 교하면 상남리 문화시설부지내
 - 공 사 기 간 : 착공 1999년 11월 26일 (준공시기: 120일간)
준공 2000년 04월 25일
 - 도 급 금 액 : 일급 구원호백만원정(W995,000,000)
공 급 가 액 : 일급 칠천육백삼십육만원삼천육백삼십육원정(W996,363,636)
부 가 지 세 : 일급 팔백육십삼만원삼천삼백삼십원정(W8,636,364)
 - 기성부분의 파수 및 방법 : 2회 현금
 - 하자담보 책임기간 : 5년
 - 하자보수 보증금 : 계약금액의 3/100(3%)
기성금 : 계약금액의 1/1,000(0.1%) / 1회
하자보수금 : 계약금액의 10/100(10%)
- 도급인과 수급인은 이 계약서 및 공사도급계약조건과 별첨 설계도 및 사양서에 의하여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1999년 11월 25일

갑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당동 454-25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기웅

을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41-9
시강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장인식

民間建設工事 標準都給契約書 一般條件

第1條(總則) 都給人(以下“甲”이라 한다)과 受給人(以下“乙”이라 한다)은 대등한立場에서 서로協力하여 債權에 따라 誠實의 契約를 履行한다.

第2條(保證人) 이 契約에 關하여 保證人을 세우는 경우에 그 保證人은 當事者의 契約의 履行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 當事者와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第3條(工事監督員) ① 甲은 자신을 代理하여 다음 各條의 事項을 執行하는 者(以下“工事監督員”이라 한다)을 選任할 수 있다.

1. 施工一般에 대하여 監督하고 指示하는 일
2. 工事의 材料와 施工에 대한 検査 또는 試驗에 參加하는 일
3. 工事의 既成部分 検査, 竣工検査 또는 工事目的物의 引渡에 參加하는 일
4. 其他 工事監督에 관하여 甲이 委任하는 일

② 甲은 제1항의 規程에 의하여 工事監督員을 選任한 때에는 그 事實을 즉시 乙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③ 乙은 工事監督員의 監督 또는 指示事項이 工事進行에 斷續히 不適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甲에게 그 事由를 明示하여 必要한 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第4條(現場代理人) ① 乙은 現場에 現場代理人를 任命하여 이를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現場代理人은 工事現場에 常駐하여야 하며, 施工에 관한 一切의 事項에 대하여 乙을 代理한다.

第5條(工事豫定工程圖와 工事價額內譯書) 乙은 契約締結後 甲의 申出書提出時까지 設計圖面(圖面, 示方書, 工事內譯書, 現場說明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基礎로 작성한 工事豫定 工程圖와 工事價額內譯書를 甲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第6條(先金) ① 甲이 先金을 支給한 경우 乙은 이를 契約目的外에 使用할 수 없으며, 勞賃支給 및 資材確保에 우선 使用하여야 한다.

-3-

第9條(安全管理 및 災害報告) ① 乙은 産業災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安全施設의 設置 및 保護의 加入 등 必要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이때 甲은 契約金額에 安全管理費 및 保險料 上當額을 計上하여야 한다.

② 工事現場에서 發生한 産業災害에 대한 責任은 乙에게 있다.

다만, 設計上の 瑕疵 또는 甲의 要求에 의한 작업으로 인한 災害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0條(緊急措置) ① 乙은 災害防止를 위하여 特別緊急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미리 緊急措置를 취하고 즉시 이를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甲은 災害防止 其他 工事의 施工上 緊急 不得이라고 認定할 때에는 乙에게 緊急措置를 要求할 수 있다.

③ 第1항 및 第2항의 緊急措置에 所屬한 經費는 實費를 基準으로 甲과 乙이 協議하여 負擔한다.

第11條(工事期間의 延長) ① 甲의 責任있는 事由 天災地變, 不可抗力의 事實 등 乙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工事進行이 延誤되는 경우 乙의 工事期間의 延長을 甲에게 要求할 수 있다.

② 第1항의 規定에 依據 工事期間이 延長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現場管理費 등 追加經費는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하여 調整한다.

第12條(不適合한 工事) ① 甲은 乙이 施工한 工事중 設計圖面에 適合하지 아니한 部分이 있을 때에는 이의 修正을 要求할 수 있으며, 乙은 遵從함이 이에 應하여야 한다.

② 第1항의 경우 設計圖面에 適合하지 아니한 工事가 甲의 要求 또는 指示에 依하여 其他 乙의 責任으로 물릴 수 있는 事由로 인한 때에는 乙은 그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13條(不可抗力에 의한 損害) ① 乙은 豫定된 既成部分 또는 貨品에 대하여 天災地變 기타 不可抗力에 의한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즉시 그 事實을 甲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② 甲은 第1항의 通知를 받은 경우 즉시 그 事實을 調査, 豫定하고 그 損害의 補正에 관하여 乙과 協議하여야 한다.

-5-

-4-

③ 先金은 既成部分의 代價를 支給할 때와 다른 方法으로 計算한다.

$$\text{先金計算額} = \text{先金額} \times \frac{\text{既成部分의 代價}}{\text{契約金額}}$$

第7條(材料의 検査 등) ① 工事に 使用할 材料中에서 甲이 品目을 指定하여 検査를 要求하는 경우에는 乙은 使用前에 甲의 検査를 받아야 하며, 設計圖面과 相稱하거나 品質이 同一인 以下의 不適合한 材料는 甲과 協議하여 다시 検査를 받아야 한다.

② 乙은 材料의 検査에 所屬하는 費用을 負擔하여야 하며, 検査 또는 再検査 등을 理由로 契約期間의 延長을 要求할 수 있다.

③ 工事に 使用하는 材料中 雜物 또는 試驗을 要하는 것은 甲의 入會下에 그 雜物 또는 試驗을 除去하여야 한다.

④ 水가 또는 地下에서 湧어지는 工事나 竣工後 升部에서 豫定할 수 없는 工事는 甲의 參與없이 施工할 수 있다.

第8條(支給材料의 貨品) ① 契約에 依하여 甲이 支給하는 材料와 貨品은 工事豫定工程圖에 의한 工事日程에 支障이 없도록 適期에 引渡되어야 하며, 그 引渡場所는 示方書 등에 明記된 場所가 없으면 工事現場으로 한다.

② 乙은 支給材料 및 貨品의 品質 또는 數目이 施工에 相當하지 아니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즉시 甲에게 이를 通知하고 그 代價를 要求할 수 있다.

③ 材料支給의 遲延으로 工事が 延誤될 虞가 있을 때에는 乙은 甲의 書面承諾을 얻어 자기가 豫定한 材料를 代替 使用할 수 있다.

이 경우 甲은 現品 또는 使用當時의 價格을 豫定없이 乙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④ 乙은 甲이 支給한 材料와 雜物, 器具 등 貨品을 適當한 管理方法의 주의로 管理하여야 하며, 契約의 目的을 履行하는 데에만 使用하여야 한다.

⑤ 乙은 工事內容의 變更으로 인하여 必要한 追加 支給材料 또는 使用完了된 貨品을 豫定없이 甲에게 返還하여야 한다.

-6-

⑥ 第2항에 協議가 成立되지 않은 때에는 建設費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費紛爭調停委員회의 조정에 따른다.

第14條(設計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調整) ① 設計書의 內容이 工事現場의 狀態와 一致하지 않거나, 不分明, 矛盾, 誤謬가 있을 때에는 設計를 變更한다.

② 第1항의 設計變更으로 인하여 工事費의 増減이 發生한 때에는 다음 各條의 基準에 의하여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1. 増減된 工事의 單價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工事價額內譯書上의 單價를 基準으로 한다.

2. 工事價額內譯書에 包含되어 있지 아니한 新價目의 單價는 設計變更當時를 基準으로 算定한 單價를 한다.

③ 增減된 工事에 대한 一般管理費 및 利潤은 契約締結 當時의 比率에 依한다.

第15條(物價變動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調整) ① 契約締結後 120일 以上 超過한 경우에 廢除 工事에 대하여 工事價額內譯書에 包含되어 있는 品目 또는 貨品의 價格 變動으로 인한 增減액이 殘餘工事に 對應하는 契約金額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契約金額을 調整한다.

② 第1항의 規定에 의한 契約金額의 調整은 物價變動係數에 導入되었거나 提供된 材料 및 勞務의 代價에 適用하지, 物價變動이 있는 날 以前에 이미 契約이행이 完了되었어야 할 部分에 대하여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다만, 甲의 責任이 있는 事由 또는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廢止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16條(其他 契約內容의 變更으로 인한 契約金額의 調整) 第14條 및 第15條에 의한 경우 외에 契約內容의 變更으로 契約金額을 調整하여야 할 必要가 있는 경우에는 그 變更된 內容에 대한 實費를 基準으로 當事者間の 合意에 의하여 調整한다.

第17條(既成部分給) ① 契約書에 既成部分給에 관하여 明示한 때에는 乙은 이에 따라 既成部分에 대한 検査를 實施할 수 있으며, 이에 甲은 遵從함이 檢査를 하여야 한다.

② 乙은 第1項의 検査 結果와 第3條의 工事 價額 內 酬勞의 率에 의하여 算出한 應收金額을 請求할 수 있으며, 甲은 契約書에 明記된 日에 次로 支給하여야 한다.

③ 甲이 第2項의 規定에 違反 應收金額의 支給을 遲延하는 경우에는 第19條 第3項의 規定에 準用한다.

第18條(竣工) ① 乙은 工事を 完成한 때에는 甲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甲은 通知를 받은 후 遅延없이 乙의 入浴下에 検査를 하여야 한다.

② 乙은 第1項의 検査에 合格하지 못한 때에는 再検査를 이룰 補修 또는 改修하여 다시 検査를 받아야 한다.

③ 乙은 検査의 結果에 瑕疵가 있을 때에는 再検査를 要求할 수 있으며, 甲은 이에 應答하여야 한다.

第19條(代金支給) ① 乙은 甲의 竣工検査에 合格한 후 즉시 酬勞資材, 材料, 工事費 등을 提出, 申渡하는 등 工事現場을 整理하고 工事代金의 支給을 甲에게 請求할 수 있다.

② 甲은 特別이 없는 한 契約의 目的物을 引渡한 후 동시 工事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③ 甲은 工事代金을 支給期限內에 支給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未支給金額에 대하여 支給期限의 다음날부터 支給하는 날까지의 日數에 市 銀行의 一般貸出 適用되는 延滞 利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利率을 支給하여야 한다.

第20條(履行遲延) ① 乙은 竣工期限內에 工事を 完成하지 아니한 때에는 毎 遅滞日 數마다 遲滞賃金率을 契約金額에 곱하여 算出한 金額(이하 '遲滞賃金'이라 한다)을 甲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罷工, 罷業, 罷勤, 罷勤, 罷勤, 罷勤을 爲한 出入制限, 其他 乙의 責任으로 生じ 得る 事由로 遲滞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性質上 分析할 수 있는 工事의 完成部分으로서 甲이 検査를 거쳐 된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은 契約金額에서 扣除한다.

③ 甲은 乙에게 支給하여야 할 工事代金에서 遲滞賃金を 扣除할 수 있다.

-7-

④ 乙은 第2項의 規定에 違反 通知를 받은 때에는 다음을 遵守하여야 한다.

1. 該工事를 遲延없이 中止하고 모든 工事材料들을 工事場으로부터 撤去한다.

2. 第8條의 規定에 違反 支給材料의 殘餘分과 資材品은 遲延없이 甲에게 返還한다.

第23條(乙의 契約解除 등) ① 乙은 다음 各條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1. 工事内容을 變更함으로써 契約金額이 100%의 40이상 減少된 때

2. 甲의 責任있는 事由에 違反 工事의 中止期限이 90일을 超過하거나 契約書上의 工事 期間이 100%의 50을 초과할 때

3. 甲이 正當한 理由없이 契約內容을 履行하지 아니함으로써 工事의 適正履行이 不可能하다고 明白히 認定되는 때

② 第1項의 規定에 違反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乙에게 通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第24條(損害賠償 등) ①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契約이 解止된 때에는 甲과 乙은 遲延없이 該部分의 工事金額을 精算하여야 한다.

② 第21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違反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로 인하여 損害가 發生한 때에는 相對方에게 그에 相當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第25條(權利義務의 讓渡) 이 契約에 違反하여 發生하는 權利 또는 義務는 제3자에게 讓渡하거나 委任할 수 없다.

다만, 該部分의 書面承認과 保證人의 同意를 得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6條(法令의 遵守) 甲과 乙은 이 工事의 施工 및 契約의 履行에 있어서 建設業法 등 關係法令의 規定을 遵守한다.

第27條(紛争의 解決) ① 契約에 對하여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契約에서 발생하는 疑義에 關한 紛争은 契約当事者가 雙方의 合意에 의하여 解決한다.

② 第1項의 合意가 成立되지 못한 때에는 建設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建設業紛争調停委員會에 紛争의 調停을 申請하고 同 委員會의 調停에 따른다.

第28條(特約事項) 其他 이 契約에서 정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合意하여 附屬의 特約을 訂立할 수 있다.

-9-

第21條(瑕疵擔保) ① 乙은 契約書에 정한 瑕疵擔保 保證金額을 契約金額에 곱하여 算出한 金額(이하 '瑕疵擔保額'을 竣工検査後 그 工事의 代價를 支給할 때까지 現金 또는 各 種의 證券로서 甲에게 納付하여야 한다.

1. 建設共同組合의 保證書

2. 保證保險의 證書

② 乙은 竣工検査를 마친 날로부터 契約書에 정한 瑕疵擔保 責任期間중 該工事에 發生하는 一 切의 瑕疵를 補修하여야 한다.

다만, 工事目的物의 引渡後에 天災地變 등 不可抗力이나 乙의 責任이 아닌 事由로 인하여 發生한 것을 除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乙이 甲으로부터 第2項의 規定에 違反 瑕疵補修의 要求를 받고 이에 應하지 아니하는 경우 甲은 乙의 負擔으로 瑕疵補修를 行할 수 있다.

이때 發生하는 費用은 瑕疵補修 保證金額으로 우선 充當하고, 不足額이 있는 경우에는 乙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違反 瑕疵補修 保證金額은 瑕疵擔保 責任期間이 終了한 후 乙의 請求에 의하여 返還된다.

다만, 第3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甲이 直接 履行한 瑕疵補修 費用은 扣除한다.

第22條(甲의 契約解除 등) ① 甲은 다음 各條의 1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契約의 全部 또는 一部를 解除 또는 解止할 수 있다.

1. 乙이 正當한 理由없이 約定한 竣工期限을 超過하고도 工事に 着手하지 아니한 경우

2. 乙의 責任있는 事由로 인하여 竣工期限內에 工事を 完成할 可能性이 없음이 明白한 경우

3. 其他 乙의 契約條件 違反으로 인하여 契約의 目的을 達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경우

4. 第1項의 規定에 違反 契約의 解除 또는 解止는 그 事由를 明示하여 乙에게 通知함으로써 效力이 發生한다.

특 약 사 람

1. 정주 김동수 가족 별채 철거 작업과 현장 경리 운반 작업의 모든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집행하고, 작업 파장의 안전관리는 도급자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2. 이전 건축시 기초공사 부분에 관한 시공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3. 이전 건축시 목재는 절지자재를 최대한 재사용하고, 기와는 전량 재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토담율리화와 대문의 설치 방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건축규모 및 기마 부속 시설

① 건축면적: 22.196㎡(18.8평)

② 기단설치 120m / 주춧돌: 전당설치

③ 토담율리화 30m / 대문 1개소

④ 정원수이전 1본

6. 감독원은 공사지도·감독 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위대한 계약서

“위대한 계약서”

파주출판도시 시범지구 건축설계 계약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합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파주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완해 있는 건축에의 혐오나 출판에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 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 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행태-시설양식이 서로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건축에 있어서나 입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장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일함에 있어서는 물자와 시간을 아끼며, 일하는 이들끼리의 건강과 우정을 두터이 하며, 거친 건설현장과 대규모 이주에 따른 위험이나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꿈과 예결과 지혜가 넘쳐 흐르는 삶의 동네로 꾸미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의식의 연대를 다시금 다짐한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만들어야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입주자들의 기업적·생산적 현실을 신도있게 궁구하여, 그들이 이곳에서 경제적·문화적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는데 정성을 다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우리 출판도시에서 새롭게 창출되도록 진력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만 이 문서를 잘 풀어 가기 위해 출판인 대표와 건축가 대표는 서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출판문화와 건축문화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이듬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해,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송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기업 대표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2000년 4월 26일 청명한 봄날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단지 이사장 이기웅

이기웅

파주출판단지 건축코디네이터 송효상

송효상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추진 관련 자료집 ⑥

발행일 ——— 2001. 1. 16.

발행인 ——— 이기웅

편집인 ——— 유도열

발행처 ———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6 강남출판문화센터
전화 511-9566~8, 팩시밀리 511-9569

편 집 ——— 김근상

인쇄처 ——— 로알프로세스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에서 발간된
〈자료집⑥〉은 부정기 간행물로 조합원을 비롯하여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건설사업에 관계되는
사회 각계에 무료로 보내집니다.